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Ⅶ :

기초분석보고서Ⅱ-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책임연구원 모상현

공동연구원 이장주 한지형

N

Y

P

I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 책임연구원 :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이장주(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소장)
한지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 연구보조원 : 이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발 간 사 ■ ■ ■

아동·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단계에서 가장 많은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급속한 신체 변화와 인지 발달, 생활 반경과 사회관계의 확대 등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정서적 불안 등의 많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와 같은 발달상의 문제에 직면하여 청소년들이 주어진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도록 돕는 일은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관한 경험적 조사연구는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대부분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적 연구로서 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한 종단적 연구는 드물었다. 2003~2008년 기간 동안 본원에서 수행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n Youth Panel Survey; KYPS)는 청소년의 생활행동·의식 전반에 대한 국내 최초의 종단조사로서 청소년 연구의 활성화와 관련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대상과 연구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에 선정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패널 총 7,071명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데이터의 일반 공개, 학술대회 개최, 데이터 분석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 7차 년도인 올해에는 제6차 조사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3개 패널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추진 경과를 정리한 사업보고서와 더불어 영역별 조사결과를 분석한 기초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동안 연구에 도움을 주신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연구가 한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 KCYPS)의 매체영역을 분석한 기초조사 분석보고서로,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초4 패널 2010년, 2012년, 2014년의 3차 년도 종단자료를 활용하였고, 컴퓨터 및 휴대전화 이용행태 변화양상과 추이를 파악하는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초1 패널 4차 년도 <2013> vs. 초4 패널 1차 년도 <2010>) 코호트 간 비교와 중학교 2학년(초4 패널 5차 년도 <2014> vs. 중1 패널 2차 년도 <2011>) 코호트 간 비교를 통해 매체이용 특성에 대한 동시대 횡단효과를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 내용을 통해 청소년 매체 정책 수립 방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 이용행태에서 연령이 증가 할수록 컴퓨터 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비율은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에게서, 광역시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서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사용 장소에 대해서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남녀 성별 특성이 관찰되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탐색 등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은 감소 경향을 나타낸 반면, 게임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은 남학생과 조손가정에서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둘째, 휴대전화 보유율은 연령 증가와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이 관찰되었다. 이용 유형에서 여자는 ‘사진 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듣기’, 남자는 ‘게임 및 오락’에서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휴대전화 의존도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 보다 여자 청소년에게서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셋째,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에서 2010년에 비해 2013년 코호트에서 휴대전화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용도별로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전화 의존도도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넷째, 중학교 2학년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에서 2011년과 2014년 코호트 간 휴대전화 보유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몇몇 이용 유형에서만 차이가 관찰되었다. 휴대전화 의존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1년 코호트에게서 높게 관찰되었고, 성인매체 몰입도는 코호트 간 차이보다는 성별 특성에 의한 차이, 즉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에게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키워드: 컴퓨터 이용, 휴대폰 이용, 종단변화, 코호트 분석,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1. 연구목적

- 급속도로 다변화하는 현재의 매체환경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우리의 삶 속에 투영되어 있음
- 현재 청소년들은 뉴미디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지식과 정보의 습득, 자유로운 의사소통, 여가와 문화를 즐기는 창구,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청소년들은 디지털 시대의 주역으로서 현대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기성세대와는 다른 매체 이용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세대 간의 분명한 차이가 관찰되고 있음
-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행태의 변화양상과 그 추이를 분석하고, 다양한 변인 수준에서 그 차이와 특성을 검토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근간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매체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는 2010년, 2012년, 2014년 3개년도의 패널자료를 활용한 종단 분석과 시대적 맥락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시대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코호트 비교·분석을 통해, 매체이용 추이와 그 이용 형태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유관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 첫째, 매체 이용행태 종단분석으로 초4 패널을 대상으로 2010년 초등학교 4학년, 2012년 초등학교 6학년, 2014년 중학교 2학년 등 3개년 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 행태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그 추이와 변화양상을 알아보고자 함
- 둘째, 위에서 언급한 초4 패널 대상 종단분석에서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행태의 변화와

추이가 배경변인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와 특성이 보이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성별, 가족구성별 및 거주 지역별 등의 변인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함

- 셋째, 3년이라는 시차 동안 매체 환경 및 매체 이용패턴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초1 패널 4차년도 <2013> vs. 초4 패널 1차년도 <2010>)과 중학교 2학년(초4 패널 5차년도 <2014> vs. 중1 패널 2차년도 <2011>) 두 연령층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동시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코호트 간 비교·분석을 실시함
- 이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 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초1 패널, 초4 패널 및 중1 패널 종단자료 및 횡단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매체이용행태 추이 및 변화양상과 동시대 효과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독립 t검증 등의 통계적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 도구로 SPSS 20.0 통계패키지를 활용함

3. 주요결과

1) 컴퓨터 이용실태 및 추이

- 초4 패널 3년차 종단자료(2010, 2012, 2104)를 분석한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시기별로 초4에서 초6 사이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9% 증가하였지만, 초6에서 중2 사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무려 10.4% 증가함.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에게서, 지역별로는 서울지역과 시군부 보다 광역시에서 크게 감소하는 비율을 보였으며, 가족구성별 비교에서도 양부모와 한부모 가정은 앞선 패턴과 유사한 유형으로 관찰되었지만, 조손가정의 경우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특이한 경향이 관찰됨
- 컴퓨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시간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주중, 주말 컴퓨터 이용시간이 증가했으며, 주말의 컴퓨터 이용 시간의 증가가 더 두드러지게 관찰됨.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주말 컴퓨터 사용시간이 더 길었고, 지역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음

-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소로는 ‘우리 집’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의 증가와 상관없이 일관된 경향을 보여 줌. 사용비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집’에서의 빈도는 감소하는 반면 ‘PC방’에서의 사용 비율은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으며,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리 집’에서 사용 비율이 감소한 반면, 여학생은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냄. ‘PC방’에서의 사용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학생들에게서 높아지는 것으로 관찰됨. 가족구성별 비교에서는 ‘PC방’에서의 이용이 양부모 및 한부모 가정보다 조손가정에서 더 높게 관찰됨
-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된 컴퓨터 이용용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게임 및 오락(2014년 78.8%)’,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2014년 74.4%)’,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검색 및 사이트 사용(2014년 67.5%)’으로 나타남. 세부 항목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검색 및 사이트 사용’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용 빈도가 대폭 감소(17.5%p)하는 반면,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 게임 및 오락’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사용 빈도가 증가(18.4%p, 5.9%p)하는 경향이 관찰됨. 성별 비교 결과,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모두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음. ‘게임 및 오락’,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를 위한 컴퓨터 사용 빈도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됨

2) 휴대전화 이용실태 및 추이

- 초4 패널 3년차 종단자료를 대상으로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도(중2) 시점 간 ‘청소년 휴대전화 보유율’의 정도를 살펴보면, 2010년 67.7%, 2012년 90.0%, 2014년 95.1%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휴대전화 보유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초6 이상의 청소년의 90% 이상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도 중2 시점에 9가지 휴대전화 이용 유형을 살펴본 결과,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2014년 96.2%)’, ‘가족과의 통화(2014년 94.1%)’, ‘친구와의 통화(2014년 93.5%)’등에서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과의 통화’는 감소하는 반면,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와 ‘친구와의 통화’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게임 및 오락’, ‘사진 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듣기’등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이용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음악 듣기’는 2010년(초4) 49.4%에서 2014년도(중2) 90.5%로 교급이 올라가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화 콘텐츠로 관찰됨. 성별 비교에서 남자는 ‘게임 및 오락’, 여자는 ‘사진 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듣기’에서 각기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이 관찰됨

- 전체 7문항으로 구성된 휴대전화 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등의 문항 등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의존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별 비교에서 여자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관찰됨

3) 초4 코호트 간 이용실태 비교

- 초등학교 4학년(초1 패널 4차 년도 <2013> vs. 초4 패널 1차 년도 <2010>)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휴대전화 보유여부의 경우 초4 패널은 2010년 67.7%, 초1 패널은 2013년 79.6%로 나타나, 두 코호트 간 현저한 차이(11.9%)가 관찰됨
- 두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이용정도에 대한 비교에서, ‘가족과의 통화’의 경우 초4와 초1 패널에서 거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2010년에 비해 2013년도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에서 휴대폰을 활용한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친구와 통화’, ‘친구와 문자메시지’, ‘게임 및 오락’, ‘사진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감상’등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2013년도가 2010년에 비해 휴대전화 보유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휴대전화 의존도에 대한 두 코호트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2010년 초4 패널 코호트에 비해 2013년(초1 패널 3년차) 코호트의 평균점수가 높게 관찰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평균차이가 확인됨. 남녀 성별 차이는 유의수준에서 확인되지 않음

4) 중2 코호트 간 이용실태 비교

- 중학교 2학년(초4 패널 5차 년도 <2014> vs. 중1 패널 2차 년도 <2011>)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3년이라는 시차동안 휴대전화 보유율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2014년 95.1% vs. 2011년

94.6%)으로 관찰됨. 시차에 따른 시대효과 보다는 중학교 2학년 연령층의 경우 대부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휴대전화 사용행태에 대해 비교한 결과, ‘가족과 통화’, ‘친구와 통화’, ‘친구와 문자메시지’는 코호트 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관찰됨. ‘가족과 문자 메시지’는 2014년 코호트가 2011년 코호트 보다 10% 감소된 반면, 2014년 코호트에서 ‘게임 및 오락’, ‘사진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감상’등의 이용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휴대전화 의존도에 대한 두 코호트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2014년 초4 패널 코호트에 비해 2011년 중1 패널 코호트의 평균점수가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평균차이가 확인됨. 남녀 성별 비교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높게 관찰되었으며, 두 집단 간 평균차이도 유의수준에서 확인됨
- 성인 매체 사용 여부에 대한 코호트 비교에서 2011년 코호트의 경험비율이 23.5%인 것에 비해 2014년 코호트의 경험비율은 15.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성별 비교에서도 남녀 모두 유사한 패턴으로 관찰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감소 비율이 높게 나타남. 성인매체 몰입에 대한 코호트 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성별 비교에서 여자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높게 관찰되었으며, 유의 수준에서 차이가 확인됨

4. 정책방향 제언

-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에 대한 정책방향 제언
 - 컴퓨터 사용에 대한 연령 별 차이 및 콘텐츠 이용 유형에 대한 성별 특성을 감안한 교급 및 성별 맞춤형 정책 접근 필요
 - 가정구성별 특성으로 인한 일상에서의 활동제한을 고려,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즐겁고 능동적으로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바우처 활용 등의 현실적 대안 제시
 - 청소년들을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로서 양질의 정보를 선별해 소비, 이용·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강화 및 역량 증진

강화

○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정책방향 제언

- 이전에 비해 청소년의 휴대전화가 초기 보급률이 높고, 초기의 과다사용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시기 휴대전화 사용 관련 교육의 질적 강화와 교육프로그램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휴대전화의 사용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보다는 부모 및 가정교육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게 관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 청소년의 성인매체 보호에 대한 정책방향 제언

- 다양한 형태로 성인용 콘텐츠들이 변형 및 재가공 되어 추적과 식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인매체 콘텐츠에 대한 접근 차단을 위한 산업계와 긴밀한 협조 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들의 성인매체에 대한 흥미가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차단과 더불어 성인매체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신고 등의 대처능력 및 면역능력 강화를 위한 접근 차단과 대처능력 증강의 투(two)트랙 정책 접근이 필요함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은 초등학교생인 점을 감안, 실제적 효과와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교사, 부모 및 유관 기관과 매체의 생산자인 산업계와 유기적인 정책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8
3. 분석 대상 및 방법	12
II.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 추이분석	23
1. 초4 패널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	25
1)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사용시간 및 장소	25
2)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형태	38
III.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추이분석	79
1. 초4 패널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추이	81
1)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및 사용 형태	81
2) 초4 패널의 휴대전화 의존정도	123
IV. 제1코호트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153
1. 초1 및 초4 패널 간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추이비교	155
1) 초1 및 초4 패널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156
2) 초1 및 초4 패널 간 휴대전화 사용형태	157
3) 초1 및 초4 패널 간 휴대전화 의존정도	167
V. 제2코호트 간 휴대전화 및 성인매체 이용실태 비교	177
1. 초4 및 중1 패널 간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추이비교	179
1) 초4 및 중1 패널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180
2) 초4 및 중1 패널 간 휴대전화 사용형태	182

3) 초4 및 중1 패널 간 휴대전화 의존정도	191
4) 초4 및 중1 패널 간 성인매체 사용여부	200
5) 초4 및 중1 패널 간 성인매체 몰입정도	202
 VI.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방향 제언	213
1. 분석결과 요약	215
2. 정책방향 제언	219
 참고문헌	225
 Abstract	231

표 목차

〈표 I-1〉 초1 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14
〈표 I-2〉 초4 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16
〈표 I-3〉 중1 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18
〈표 II-1〉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여부 변화	26
〈표 II-2〉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여부 변화(성별)	27
〈표 II-3〉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여부 변화(지역별)	28
〈표 II-4〉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여부 변화(가족구성별)	29
〈표 II-5〉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	30
〈표 II-6〉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성별)	31
〈표 II-7〉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지역별)	32
〈표 II-8〉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가족구성별)	33
〈표 II-9〉 초4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	34
〈표 II-10〉 초4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성별)	35
〈표 II-11〉 초4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지역별)	36
〈표 II-12〉 초4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가족구성별)	37
〈표 II-13〉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형태 변화	38
〈표 II-14〉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39
〈표 II-15〉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성별)	40
〈표 II-16〉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지역별)	41
〈표 II-17〉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가족구성별)	42
〈표 II-18〉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이용	43

〈표 II-19〉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이용(성별)	44
〈표 II-20〉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이용(지역별)	45
〈표 II-21〉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이용(가족구성별)	46
〈표 II-22〉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	47
〈표 II-23〉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48
〈표 II-24〉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49
〈표 II-25〉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가족구성별)	50
〈표 II-26〉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	51
〈표 II-27〉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성별)	52
〈표 II-28〉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지역별)	53
〈표 II-29〉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가족구성별)	54
〈표 II-30〉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	55
〈표 II-31〉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성별)	56
〈표 II-32〉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지역별)	57
〈표 II-33〉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가족구성별)	58
〈표 II-34〉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59
〈표 II-35〉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성별)	60
〈표 II-36〉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지역별)	61
〈표 II-37〉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가족구성별)	62
〈표 II-38〉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63
〈표 II-39〉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성별)	64
〈표 II-40〉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지역별)	65

〈표 II-41〉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가족구성별)	66
〈표 II-42〉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	67
〈표 II-43〉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성별)	68
〈표 II-44〉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지역별)	69
〈표 II-45〉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가족구성별)	70
〈표 II-46〉 초4 패널- 댓글 달기	71
〈표 II-47〉 초4 패널- 댓글 달기(성별)	72
〈표 II-48〉 초4 패널- 댓글 달기(지역별)	73
〈표 II-49〉 초4 패널- 댓글 달기(가족구성별)	74
〈표 II-50〉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75
〈표 II-51〉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성별)	76
〈표 II-52〉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지역별)	77
〈표 II-53〉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가족구성별)	78
〈표 III-1〉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82
〈표 III-2〉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성별)	83
〈표 III-3〉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지역별)	84
〈표 III-4〉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가족구성별)	85
〈표 III-5〉 초4 패널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 변화	86
〈표 III-6〉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	87
〈표 III-7〉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성별)	88
〈표 III-8〉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지역별)	89
〈표 III-9〉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가족구성별)	90

〈표 Ⅲ-10〉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91
〈표 Ⅲ-11〉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성별)	92
〈표 Ⅲ-12〉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93
〈표 Ⅲ-13〉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가족구성별)	94
〈표 Ⅲ-14〉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	95
〈표 Ⅲ-15〉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성별)	96
〈표 Ⅲ-16〉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지역별)	97
〈표 Ⅲ-17〉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가족구성별)	98
〈표 Ⅲ-18〉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99
〈표 Ⅲ-19〉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성별)	100
〈표 Ⅲ-20〉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101
〈표 Ⅲ-21〉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가족구성별)	102
〈표 Ⅲ-22〉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	103
〈표 Ⅲ-23〉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104
〈표 Ⅲ-24〉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105
〈표 Ⅲ-25〉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가족구성별)	106
〈표 Ⅲ-26〉 초4 패널- 사진 촬영	107
〈표 Ⅲ-27〉 초4 패널- 사진 촬영(성별)	108
〈표 Ⅲ-28〉 초4 패널- 사진 촬영(지역별)	109
〈표 Ⅲ-29〉 초4 패널- 사진 촬영(가족구성별)	110
〈표 Ⅲ-30〉 초4 패널- 동영상 감상	111
〈표 Ⅲ-31〉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성별)	112
〈표 Ⅲ-32〉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지역별)	113
〈표 Ⅲ-33〉 초4 패널- 동영상 감상(가족구성별)	114
〈표 Ⅲ-34〉 초4 패널- 음악 듣기	115

〈표 III-35〉 초4 패널- 음악 듣기(성별)	116
〈표 III-36〉 초4 패널- 음악 듣기(지역별)	117
〈표 III-37〉 초4 패널- 음악 듣기(가족구성별)	118
〈표 III-38〉 초4 패널- 시간 보기	119
〈표 III-39〉 초4 패널- 시간 보기(성별)	120
〈표 III-40〉 초4 패널- 시간 보기(지역별)	121
〈표 III-41〉 초4 패널- 시간 보기(가족구성별)	122
〈표 III-42〉 초4 패널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123
〈표 III-43〉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124
〈표 III-44〉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성별)	125
〈표 III-45〉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지역별)	126
〈표 III-46〉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가족구성별)	127
〈표 III-47〉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128
〈표 III-48〉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129
〈표 III-49〉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130
〈표 III-50〉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가족구성별)	131
〈표 III-51〉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132
〈표 III-52〉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133

〈표 III-53〉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134
〈표 III-54〉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가족구성별)	135
〈표 III-55〉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36
〈표 III-56〉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성별)	137
〈표 III-57〉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지역별)	138
〈표 III-58〉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가족구성별)	139
〈표 III-59〉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140
〈표 III-60〉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성별)	141
〈표 III-61〉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지역별)	142
〈표 III-62〉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가족구성별)	143
〈표 III-63〉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44
〈표 III-64〉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성별)	145
〈표 III-65〉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역별)	146

〈표 III-66〉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족구성별)	147
〈표 III-67〉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148
〈표 III-68〉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성별)	149
〈표 III-69〉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지역별)	150
〈표 III-70〉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가족구성별) ...	151
〈표 IV-1〉 초1 및 초4 패널(초등학교 4학년)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156
〈표 IV-2〉 초1 및 초4 패널(초등학교 4학년)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성별)	157
〈표 IV-3〉 초1 및 초4 패널(초등학교 4학년) 간 휴대전화 사용 형태 변화 ...	158
〈표 IV-4〉 초1 및 초4 패널(초4)- 가족과의 통화	159
〈표 IV-5〉 초1 및 초4 패널(초4)-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160
〈표 IV-6〉 초1 및 초4 패널(초4)- 친구와의 통화	161
〈표 IV-7〉 초1 및 초4 패널(초4)-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162
〈표 IV-8〉 초1 및 초4 패널(초4)- 게임 및 오락	163
〈표 IV-9〉 초1 및 초4 패널(초4)- 사진 촬영	164
〈표 IV-10〉 초1 및 초4 패널(초4)- 동영상 감상	165
〈표 IV-11〉 초1 및 초4 패널(초4)- 음악 듣기	166
〈표 IV-12〉 초1 및 초4 패널(초4)- 시간 보기	167
〈표 IV-13〉 초1 및 초4 패널(초등학교 4학년) 간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168
〈표 IV-14〉 초1 및 초4 패널(초4)-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169
〈표 IV-15〉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170

〈표 IV-16〉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171
〈표 IV-17〉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72
〈표 IV-18〉 초1 및 초4 패널(초4)-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173
〈표 IV-19〉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74
〈표 IV-20〉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175
〈표 IV-21〉 초1 및 초4 패널(초등학교 4학년) 간 휴대전화 의존도 t-검증(코호트별)	175
〈표 IV-22〉 초1 및 초4 패널(초등학교 4학년) 간 휴대전화 의존도 t-검증(성별)	176
〈표 V-1〉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180
〈표 V-2〉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성별)	181
〈표 V-3〉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휴대전화 사용 형태 변화	182
〈표 V-4〉 초4 및 중1 패널(중2)- 가족과의 통화	183
〈표 V-5〉 초4 및 중1 패널(중2)-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184
〈표 V-6〉 초4 및 중1 패널(중2)- 친구와의 통화	185
〈표 V-7〉 초4 및 중1 패널(중2)-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186
〈표 V-8〉 초4 및 중1 패널(중2)- 게임 및 오락	187
〈표 V-9〉 초4 및 중1 패널(중2)- 사진 촬영	188
〈표 V-10〉 초4 및 중1 패널(중2)- 동영상 감상	189

〈표 V-11〉 초4 및 중1 패널(중2)- 음악 듣기	190
〈표 V-12〉 초4 및 중1 패널(중2)- 시간 보기	191
〈표 V-13〉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192
〈표 V-14〉 초4 및 중1 패널(중2)-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193
〈표 V-15〉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194
〈표 V-16〉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195
〈표 V-17〉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96
〈표 V-18〉 초4 및 중1 패널(중2)-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197
〈표 V-19〉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98
〈표 V-20〉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199
〈표 V-21〉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휴대전화 의존도 t-검증(코호트별)	199
〈표 V-22〉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휴대전화 의존도 t-검증(성별)	200
〈표 V-23〉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성인 매체 사용 여부 변화	201
〈표 V-24〉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성인 매체 사용 여부 변화 (성별)	201
〈표 V-25〉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성인 매체 몰입도 변화	202

〈표 V-26〉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이용하게 된다	203
〈표 V-27〉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204
〈표 V-28〉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이용한다	205
〈표 V-29〉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다시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206
〈표 V-30〉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207
〈표 V-31〉 초4 및 중1 패널(중2)-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짝 차 있다	208
〈표 V-32〉 초4 및 중1 패널(중2)-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209
〈표 V-33〉 초4 및 중1 패널(중2)-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210
〈표 V-34〉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성인 매체 몰입도 t-검증 (코호트별)	211
〈표 V-35〉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성인 매체 몰입도 t-검증 (성별)	211

그림 목차

【그림 I-1】	KCYPS의 초4 패널 3개년 종단분석모형	9
【그림 I-2】	KCYPS의 코호트 간 비교를 위한 분석모형	10
【그림 I-3】	KCYPS의 초 4패널 3개년 종단분석 변인	11
【그림 I-4】	KCYPS의 코호트 간 비교를 위한 분석변인	11
【그림 II-1】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여부 변화	26
【그림 II-2】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여부 변화(성별)	27
【그림 II-3】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여부 변화(지역별)	28
【그림 II-4】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여부 변화(가족구성별)	29
【그림 II-5】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	30
【그림 II-6】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성별)	31
【그림 II-7】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지역별)	32
【그림 II-8】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가족구성별)	34
【그림 II-9】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39
【그림 II-10】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성별)	40
【그림 II-11】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지역별)	41
【그림 II-12】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가족구성별)	42
【그림 II-13】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이용	43
【그림 II-14】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이용(성별)	44
【그림 II-15】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이용(지역별)	45

【그림 II-16】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이용(가족구성별)	46
【그림 II-17】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	47
【그림 II-18】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48
【그림 II-19】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49
【그림 II-20】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가족구성별)	50
【그림 II-21】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	51
【그림 II-22】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성별)	52
【그림 II-23】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지역별)	53
【그림 II-24】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가족구성별)	54
【그림 II-25】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	55
【그림 II-26】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성별)	56
【그림 II-27】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지역별)	57
【그림 II-28】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가족구성별)	58
【그림 II-29】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59
【그림 II-30】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성별)	60
【그림 II-31】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지역별)	61
【그림 II-32】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가족구성별)	62
【그림 II-33】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63
【그림 II-34】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성별)	64
【그림 II-35】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지역별)	65
【그림 II-36】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가족구성별) ..	66
【그림 II-37】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67
【그림 II-38】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성별)	68

【그림 II-39】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지역별)	69
【그림 II-40】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가족구성별)	70
【그림 II-41】	초4 패널- 댓글 달기	71
【그림 II-42】	초4 패널- 댓글 달기(성별)	72
【그림 II-43】	초4 패널- 댓글 달기(지역별)	73
【그림 II-44】	초4 패널- 댓글 달기(가족구성별)	74
【그림 II-45】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75
【그림 II-46】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성별)	76
【그림 II-47】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지역별)	77
【그림 II-48】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가족구성별)	78
【그림 III-1】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82
【그림 III-2】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성별)	83
【그림 III-3】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지역별)	84
【그림 III-4】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가족구성별)	85
【그림 III-5】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	87
【그림 III-6】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성별)	88
【그림 III-7】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지역별)	89
【그림 III-8】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가족구성별)	90
【그림 III-9】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91
【그림 III-10】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성별)	92
【그림 III-11】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93
【그림 III-12】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가족구성별)	94
【그림 III-13】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	95
【그림 III-14】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성별)	96

【그림 Ⅲ-15】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지역별)	97
【그림 Ⅲ-16】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가족구성별)	98
【그림 Ⅲ-17】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99
【그림 Ⅲ-18】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성별)	100
【그림 Ⅲ-19】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101
【그림 Ⅲ-20】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가족구성별)	102
【그림 Ⅲ-21】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	103
【그림 Ⅲ-22】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104
【그림 Ⅲ-23】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105
【그림 Ⅲ-24】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가족구성별)	106
【그림 Ⅲ-25】	초4 패널- 사진 촬영	107
【그림 Ⅲ-26】	초4 패널- 사진 촬영(성별)	108
【그림 Ⅲ-27】	초4 패널- 사진 촬영(지역별)	109
【그림 Ⅲ-28】	초4 패널- 사진 촬영(가족구성별)	110
【그림 Ⅲ-29】	초4 패널- 동영상 감상	111
【그림 Ⅲ-30】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성별)	112
【그림 Ⅲ-31】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지역별)	113
【그림 Ⅲ-32】	초4 패널- 동영상 감상(가족구성별)	114
【그림 Ⅲ-33】	초4 패널- 음악 듣기	115
【그림 Ⅲ-34】	초4 패널- 음악 듣기(성별)	116
【그림 Ⅲ-35】	초4 패널- 음악 듣기(지역별)	117
【그림 Ⅲ-36】	초4 패널- 음악 듣기(가족구성별)	118
【그림 Ⅲ-37】	초4 패널- 시간 보기	119
【그림 Ⅲ-38】	초4 패널- 시간 보기(성별)	120
【그림 Ⅲ-39】	초4 패널- 시간 보기(지역별)	121
【그림 Ⅲ-40】	초4 패널- 시간 보기(가족구성별)	122

【그림 Ⅲ-41】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124
【그림 Ⅲ-42】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성별)	125
【그림 Ⅲ-43】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지역별)	126
【그림 Ⅲ-44】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가족구성별)	127
【그림 Ⅲ-45】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128
【그림 Ⅲ-46】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성별)	129
【그림 Ⅲ-47】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지역별)	130
【그림 Ⅲ-48】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가족구성별)	131
【그림 Ⅲ-49】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132
【그림 Ⅲ-50】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133
【그림 Ⅲ-51】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134
【그림 Ⅲ-52】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가족구성별)	135
【그림 Ⅲ-53】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36

【그림 Ⅲ-54】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성별)	137
【그림 Ⅲ-55】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지역별)	138
【그림 Ⅲ-56】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가족구성별)	139
【그림 Ⅲ-57】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140
【그림 Ⅲ-58】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성별)	141
【그림 Ⅲ-59】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지역별)	142
【그림 Ⅲ-60】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가족구성별)	143
【그림 Ⅲ-61】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44
【그림 Ⅲ-62】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성별)	145
【그림 Ⅲ-63】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지역별)	146
【그림 Ⅲ-64】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가족구성별)	147
【그림 Ⅲ-65】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148
【그림 Ⅲ-66】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성별)	149

【그림 III-67】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지역별)	150
【그림 III-68】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가족구성별)	151
【그림 IV-1】 초1 및 초4 패널(초등학교 4학년)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	156
【그림 IV-2】 초1 및 초4 패널(초등학교 4학년)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성별)	157
【그림 IV-3】 초1 및 초4 패널(초4)- 가족과의 통화	159
【그림 IV-4】 초1 및 초4 패널(초4)-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160
【그림 IV-5】 초1 및 초4 패널(초4)- 친구와의 통화	161
【그림 IV-6】 초1 및 초4 패널(초4)-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162
【그림 IV-7】 초1 및 초4 패널(초4)- 게임 및 오락	163
【그림 IV-8】 초1 및 초4 패널(초4)- 사진 촬영	164
【그림 IV-9】 초1 및 초4 패널(초4)- 동영상 감상	165
【그림 IV-10】 초1 및 초4 패널(초4)- 음악 듣기	166
【그림 IV-11】 초1 및 초4 패널(초4)- 시간 보기	167
【그림 IV-12】 초1 및 초4 패널(초4)-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168
【그림 IV-13】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169
【그림 IV-14】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170
【그림 IV-15】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71
【그림 IV-16】 초1 및 초4 패널(초4)-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172

【그림 IV-17】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73
【그림 IV-18】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174
【그림 V-1】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	180
【그림 V-2】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성별)	181
【그림 V-3】 초4 및 중1 패널(중2)- 가족과의 통화	183
【그림 V-4】 초4 및 중1 패널(중2)-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184
【그림 V-5】 초4 및 중1 패널(중2)- 친구와의 통화	185
【그림 V-6】 초4 및 중1 패널(중2)-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186
【그림 V-7】 초4 및 중1 패널(중2)- 게임 및 오락	187
【그림 V-8】 초4 및 중1 패널(중2)- 사진 촬영	188
【그림 V-9】 초4 및 중1 패널(중2)- 동영상 감상	189
【그림 V-10】 초4 및 중1 패널(중2)- 음악 듣기	190
【그림 V-11】 초4 및 중1 패널(중2)- 시간 보기	191
【그림 V-12】 초4 및 중1 패널(중2)-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192
【그림 V-13】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193
【그림 V-14】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194
【그림 V-15】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95
【그림 V-16】 초4 및 중1 패널(중2)-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196

【그림 V-17】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97
【그림 V-18】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198
【그림 V-19】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성인 매체 사용 여부 변화	200
【그림 V-20】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성인 매체 사용 여부 변화(성별)	201
【그림 V-21】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이용하게 된다	203
【그림 V-22】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204
【그림 V-23】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이용한다	205
【그림 V-24】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다시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206
【그림 V-25】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207
【그림 V-26】 초4 및 중1 패널(중2)-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짜 차 있다	208
【그림 V-27】 초4 및 중1 패널(중2)-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209
【그림 V-28】 초4 및 중1 패널(중2)-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210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분석 대상 및 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들은 새로운 세상의 주역답게 새로운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경향은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의 이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소지율은 36.2%에 불과했지만 2년이 지난 2013년 소지율은 81.5%로 2배가 넘게 증가했다(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그리고 2015년 말 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소지율은 90.2%가 넘어서 이제 거의 모든 청소년들의 전화는 스마트폰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현실로 바뀌었다(김윤희, 2015). 이런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은 신문, 잡지 등 전통적인 대중미디어에 대한 이용률 뿐 아니라 데스크탑 컴퓨터의 이용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TV 예능프로그램이나 스포츠 중계는 출퇴근이나 쉬는 시간에 시청하고, 관심 있는 내용의 뉴스는 SNS를 통해 즉각적으로 공유한다. 그러다 지루하거나 기분전환이 필요하면 게임을 한다.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이 있어 가능했던 변화들이다. 친구와 연락은 음성보다는 메신저를 통한 방법이 훨씬 더 일반적인 수단이 되었는데, 이를 반영한 ‘엄지족(thumb generation)’이란 신조어가 나왔을 만큼 청소년에게 뉴미디어는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일상의 표준이 이미 되어버렸다(Buckingham & Willett, 2006; McWhorter, 2012).

청소년 매체 이용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의 생활 및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주로 컴퓨터와 휴대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대부분 부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결론이 압도적으로 도출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이런 연구들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요약된다. 첫째,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의 매체 및 게임, SNS 등의 콘텐츠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예를 들면, 김봉섭, 2007; 임정수, 2005)은 주로 ‘중독(addiction)’이나 ‘과몰입(overindulgence)’이라는 용어를 통해 뉴미디어의 부정적 효과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는 이용자인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자존감, 통제력, 충동성

* 이 장은 모상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장주 소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등 성격변인들과 뉴미디어 관련 부적응 간의 관계성을 다룬 연구들(예를 들면, 김진희, 김정신, 2004; 박영옥, 김정택, 2009 등)이 다수를 이루었다. 세 번째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로 부모자녀관계, 가정 경제적 수준, 학교 적응 수준 등의 변인이 인터넷(게임), 휴대전화 중독과 관계성을 다룬 연구(이현정, 김세경, 천성문, 2016)가 주로 수행되었다. 그 외에 사이버 따돌림(cyber bullying)과 같은 청소년 비행 행동과 미디어의 부정적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주로 나타났다(한희정, 정혜진, 2014). 2000년대 안팎의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증가한 청소년 뉴미디어 활용 연구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의 매체와 게임, SNS 등 콘텐츠 등이 포괄되는 뉴미디어가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위험성 있는 매체 및 콘텐츠라는 점이 강조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생활환경의 변화는 표준을 바꾸는 기능을 한다. 전통적인 의사소통의 의미는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는 면대면 소통이 표준으로 암묵적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되면서 소통의 기본 형식이 매체를 통한 문자와 이미지, 영상 등을 이용한 중층적이고, 복합적 소통으로 바뀌게 되었다. 일상생활 뿐 아니라 경제구조 역시 ICT 중심의 산업성장이 전통적 제조업 성장을 압도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산업이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것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첨단 스마트 기기의 주된 소비자로서 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청소년들에게 뉴미디어 사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연구는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황상민, 2004). 또한 사람과 사람을 넘어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으로 촘촘히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도래하면서 인간의 활동 범위나 내용에서 또 다른 혁신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김민형, 김현주, 2015).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자동차, 웨어러블(wearable) 컴퓨터, 땅 위를 넘어 하늘까지 연결시켜주는 드론(Drone)과 같은 신기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첨단 기술이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기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미래의 관점에서 적응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한 듯, 스마트폰과 기술적, 사회문화적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2000년대 이후 나타난 매체 관련 청소년 연구의 새로운 흐름은 크게 세 가지의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의 뉴미디어 이용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 게임 중독 일변도의 연구를 보이던 디지털 게임의 경우를 예를 들면, 하루에 1시간씩 열흘 동안 액션 게임을 한 대학생들은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때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다(Green & Bavelier, 2003). 특히 게임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게임 외적 상황에서도 높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유지하였다고

한다. 또한 게임을 적당히 한 학생들은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이나, 지나치게 많이 하는 학생들에 비해 학업 성적이 더 좋았는데, 흥미로운 점은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가장 낮았다(Durkin & Barber, 2002). 이런 게임의 효과는 정상인 뿐 아니라 환자들의 치료에도 활용된 사례가 있다. 비디오 게임은 8주 만에 조현병 환자의 망상 증세를 완화(Han 외, 2008)시키기도 하였으며,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6주 동안의 친사회적 게임은 감정적인 단어와 감정에 대한 뚜렷한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Bavelier 외, 2011). 이러한 연구들의 시사점은 청소년들에게 적당히 사용하라는 소극적인 주문을 넘어서, 매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흐름은 뉴미디어 매체 자체의 속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흐름이다. 특히 대중적인 SNS를 이용하는 데 다른 속성들이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facebook) 이용자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 페이스북은 오프라인 사회관계를 대체한다기보다는 기존 오프라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또한 페이스북에 올려진 친구 사진의 매력 정도는 그 페이스북 소유자의 신체적 매력을 인지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Walther 외, 2008). 즉 자신의 페이스북에 멋진 친구들이 많을수록 자신도 멋지게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다른 SNS인 트위터(twitter)는 페이스북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트위터는 기존의 사회관계가 아닌 정보 및 관심사의 습득과 공유라는 목적지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설진아, 2009, 전범수, 박주연, 2012). 또한 트위터는 관심주제에 따라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동질화된 성격의 관계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와 반대의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면 언팔로우(unfollowing)를 통해 관계를 간단하게 끊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윤호영, 박한우, 2011).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트위터는 빠른 정보의 획득에 보다 유용하며, 페이스북은 가족, 동료 등과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연결성과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유용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홍삼열, 오재철, 2010).

세 번째는 뉴미디어 이용자의 새로운 심리적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런 연구들은 대중매체(mass media)에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로 전환을 일으킨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긴 시간 동안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현실 속 가족이나 이웃과 더 적게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가족이나 이웃과 같은 강한 연결(strong tie)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Adams, 2011). 예를 들면, 건강 문제와 같은

개인적이고 민감한 주제는 상대방을 걱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감정적 지지는 개인 간 관계성이 적은 SNS 상의 친구처럼 약한 연결(weak tie) 관계의 사람들에게서 얻는 경향이 있다(Griffiths 외, 2012). 자신의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나 의견, 감정적 호소와 지지는 SNS 상의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과의 소통에서 심리적 안정을 더 얻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SNS를 통한 약한 연결관계 덕분에 개개인들이 민감한 개인 문제에 대한 실제적,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SNS를 통해 형성된 일시적인 관계를 이용한다는 점은 전통적 사회와 스마트폰의 SNS로 연결된 사회 간의 사회관계 변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의사소통하는 경우 더 솔직한 자기노출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요즘 청소년들의 당돌하고, 거침없는 행동은 뉴미디어의 속성이 일부 반영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연령에 따라서도 SNS 이용에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결과가 있다(정태연, 2015). 예를 들어, 20대는 30대 이상보다 더 많은 사람과 더 오랫동안 연결된 초연결(hyper connected)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적고, 초연결 상태에 대한 의미부여도 낮았다. 즉 연령에 따라 체감하는 초연결의 심리적 부담정도가 다르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SNS 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를 통한 피로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생활에 지장을 받는 정도 등 모든 부분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즉 뉴미디어에 대한 민감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고, 부작용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뉴미디어의 적응(adaptation)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전통적인 입장의 ‘중독’과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SNS 피로감(SNS fatigue)과 같은 개념이 대표적인 사례다(Yamakami, 2012). 중독은 과도하게 사용하여, 일상적인 적응에 해를 끼치는 현상이라면, 피로감은 과도하게 사용하여 줄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권태감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스턴트 메시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해 청소년들은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나 연결될 수 있는 조건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현상은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냈다. 즉 과도한 연결감이 주는 피로감과 피상적인 관계 형성에서 오는 외로움이라는 모순되는 심리적 상태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접촉이 많고 적응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다. 정태연(2015)의 연구에 의하면, 뉴미디어 사용자의 피로도는 접촉의 횟수와 같은 양적 측면 보다는 오프라인의 친밀한 사람의 정도와 같은 질적 측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얼마나 많이 연결되었는가에 피로감을 느끼기 보다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가 피로감을 느끼는데 핵심이 된다는 의미다. 현실세계에서 친밀한 사람이 적을수록 온라인

에서 교류의 양과 소통의 만족도도 함께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생활의 연장선임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을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 데는 중요한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학생을 비롯한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아직 심리적,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접하는 매체의 영향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인들의 연구결과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최연실, 최혜진, 안연주, 2011). 또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SNS의 자체 속성상 사회심리학적 측면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인의 심리 내적 속성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또래관계에 민감한 청소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친구들 실제 혹은 지각된 반응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응답이 아닌 또래집단의 반응을 함께 고려하는 코호트(cohort)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뉴미디어 매체의 기술진보 속도가 년이 아닌 개월 단위인 점을 고려할 때, 세밀한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스마트폰 소지율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미디어 소비도 증가(배상률, 2014)한다는 점에서 사춘기 전후의 연령 청소년들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2010년에 초등학교 4학년 집단이 2012년 초등학교 6학년, 2014년 중학교 2학년이 되는 동안의 3개년 간의 매체영역의 종단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 행태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그 추이를 파악하고, 아울러 3년 사이의 매체 환경 및 발달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초1 패널 4차 년도 vs. 초4 패널 1차 년도)과 중학교 2학년(초4 패널 5차 년도 vs. 중1 패널 2차 년도) 두 연령층을 중심으로 코호트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배경 변인별 수준에 따른 경향을 파악하여 향후 청소년 관련 매체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종단-횡단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 행태가 어떻게 전개되어 오고 있으며, 매체 이용행태에 따른 인한 심리-사회적 행동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급속히 변화하는 매체환경에서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과 관련된 교육 및 정부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형태와 그 추이를 종단적으로 추적·조사하여 중장기적 전망에서 청소년 매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매체이용 종단 추이 분석

먼저 청소년 매체이용 종단 추이 분석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진행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종단자료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종단자료의 분석을 위해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대상으로, 2010년 초등 4학년, 2012년 초등 6학년, 2014년 중학교 2학년까지의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패널영역 중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매체환경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이용양상을 파악하고 변화의 양상과 추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체영역의 세 가지 하부영역에 해당되는 컴퓨터, 휴대폰 및 사이버 비행영역을 분석단위로 선정하였다.

발달과정에서 주요한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세 시기(초4, 초6, 중2)동안의 변화과정과 추이 분석을 통해 매체이용 행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2차 성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6학년과 청소년기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기라 할 수 있는 중학교 2학년생을 중심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스마트폰 초기 보급당시의 2010년,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2012년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2014년인 3개년도 패널데이터 종단분석을 동일 연령 집단의 추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2년의 주기를 두고 2010년 1년차, 2012년 3년차 그리고 2014년 5년차 패널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청소년 매체이용 종단 추이 분석에 대한 내용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차 (2010)	제2차 (2011)	제3차 (2012)	제4차 (2013)	제5차 (2014)	제6차 (2015)
초4 패널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그림 I -1】 KCYPS의 초4 패널 3개년 종단분석모형

2) 코호트 간 이용행태 분석

코호트(cohort)는 특정 시점이나 기간 내에 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의 주제와 관련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대상 집단을 의미한다. 코호트 조사의 경우 동시대 생애사적 경험을 지닌 대상을 중심으로 동질의 집단이 구성된다. 시대적으로 다른 생애사적 경험을 지닌 개별 코호트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역사적 상황을 체험하고 발달과정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연령증가로 나타나는 발달양상과는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단연구 시 코호트 간 비교연구는 시대적 상황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매체이용 행태 분석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종단자료의 3개 패널을 활용하여, 동일 연령층에서의 3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코호트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1차 코호트 비교는 초등학교 4학년에 해당되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초1 패널의 4차년도 종단자료(2013년 당시 초등 4학년)와 초4 패널 1차년도 종단자료(2010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2차 코호트 비교는 중학교 1학년 연령층에 해당되는 초4 패널의 5차년도 종단자료(2014년 당시 중학교 2학년)와 중1 패널 2차년도 종단자료(2011년도 당시 중학교 2학년)를 분석하였다.

1차 코호트 간 비교는 초등학교 4학년 연령층을 대상으로, 2차 코호트 간 비교는 중학교 2학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집단 간 3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있다. 성인기를 포함한 전생애사적 관점에서 3년이라는 시차는 발달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을 감안해 보면 짧을 수도 있지만, 인생의 민감기라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기에서의 3년이라는 시차는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흐름 속에 이질의 생애사적 경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맥락이 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경험에 노출될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은 코호트 간 다양한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 또래관계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행위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또래집단과 함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사적 맥락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의 매체 이용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둘러싼 동시대라는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는 코호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코호트 간 매체이용 실태에 대한 분석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코호트 간 비교	
초등학교 4학년	〈2013년〉(초1 패널 4차 년도) ↔ 〈2010년〉(초4 패널 1차 년도)
중학교 2학년	〈2014년〉(초4 패널 5차 년도) ↔ 〈2011년〉(중4 패널 2차 년도)

【그림 I-2】 KCYPS의 코호트 간 비교를 위한 분석모형

3) 인구통계적 변인별 매체 이용 행태 분석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 행태와 변화의 추이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 변인을 투입하였다. 선정된 배경변인으로 성별, 가족 구성별 및 거주 지역별 요인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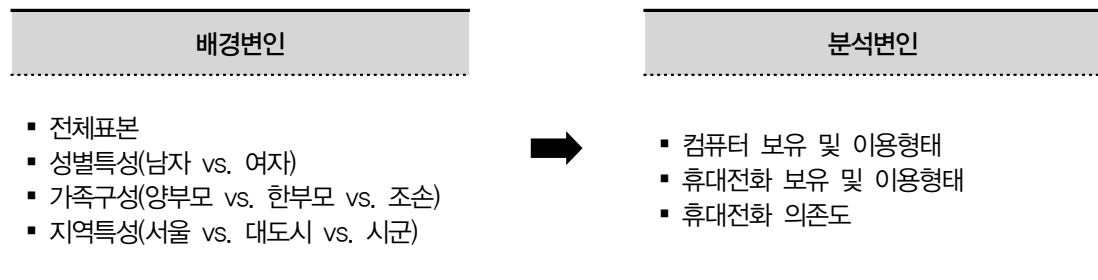
첫째, 종단 분석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배경 변인인 성별, 가족 구성별 및 거주 지역별 요인을 모두 투입하여 변화의 양상과 추이를 살펴보았다. 다음 그림에 배경 변인별 투입변인에 대한 내용이 도시되어 있다.

둘째, 코호트 간 비교에서는 조사패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이라는 발달기적 특성을 변화양상을 고려하여 성별 변인을 배경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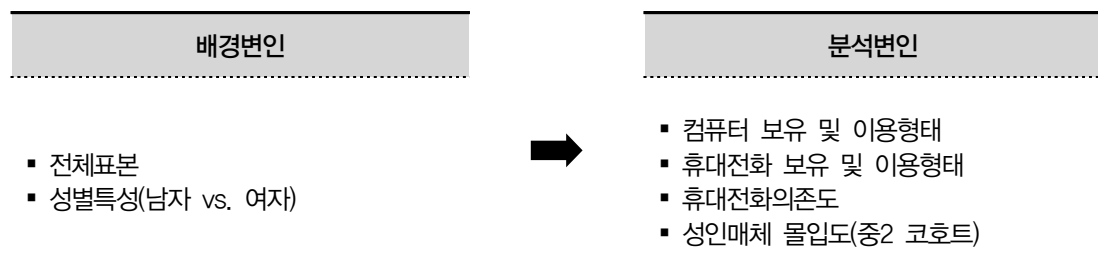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매체별 이용의 행태에 대한 분석을 위해,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매체인 컴퓨터, 휴대폰 이용 양상과 사이버 비행에 대한 경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이버 비행영역 대한 질문문항은 중학교 1학년 조사부터 사용되었기에, 종단연구 및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는 제1코호트 비교에서는 제외되고,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2코호트 비교에서만 사용되었다.

매체영역은 첫째, 컴퓨터 이용 유무, 사용 시간, 이용 장소 등 총 10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이용행태가 인구통계적 변인 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휴대전화의 이용 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휴대전화 소지유무, 사용 빈도 그리고 전체 9개 문항으로 구성된 휴대전화 활용용도 별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 및 몰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존도가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셋째,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간 단위로 일주일, 한 달 혹은 일 년 단위로 얼마나 성인용 매체에 청소년들이 노출되고 있는지 그 접촉 빈도를 분석하여, 그 부정적 영향력이 인구통계학적 변인 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성인용 매체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해 환경 매체 몰입정도 살펴본다.



【그림 I-3】 KCYPS의 초 4패널 3개년 종단분석 변인



【그림 I-4】 KCYPS의 코호트 간 비교를 위한 분석변인

3. 분석 대상 및 방법

1) 분석 대상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3개 집단을 대상으로 각 2,300여명을 층화다단계 집락추출방식으로 표집, 해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조사에 참여해오고 있는 패널별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성별, 거주하는 도시규모, 가족구성, 부모학력 등으로 나누어 원표본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현황은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종단분석 및 코호트 횡단분석의 목적에 따른 조사 대상의 특징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표를 통해 그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종단분석 단위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며, 1차년도(2010년) 원표본인 2,378명, 3차년도(2012년)의 조사 사례 2,219명, 5차년도(2014년) 조사 사례 2,070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실시되었다. 초 4 패널의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및 중학교 2학년의 3개 년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성별, 거주하는 도시지역, 가족구성, 부모학력 등의 배경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현황은 <표 I -2>과 같으며, 최종 분석이 되는 중학교 2학년(2014년)의 인구사회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088명(52.6%), 여자 982명(47.4%)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는 서울시, 광역시, 시·군·구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했는데 서울 239명(11.6%), 광역시 637명(31%), 시군부 1,182명(57.4%)으로 나타났다. 부모구성은 부모가 모두 계신 경우는 1,868명(90.8%), 한부모 가정은 170명(8.3%), 조손가정 13명(0.6%), 기타 가정 7명(0.3%)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호트 간 비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제1코호트 분석에서는 초1 패널 4년차(2013년) 원표본 2,119명과 초4 패널 1년차(2010년) 원표본 2,378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제2코호트 분석에서는 초4 패널 5년차(2014년) 원표본 2,070명과 중1 패널 2년차(2011년) 원표본 2,280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1코호트 분석에서 초1 패널 4년차(2013년) 성별은 남자 1,093명(51.6%), 여자 1,026명(48.4%)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별로 보면 서울 215명(10.2%), 광역시 685명(32.5%), 시군부 1,202명(57.3%)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구성은 부모가 모두 계신

경우는 1,981명(94.4%), 한부모 가정인 경우는 103명(4.9%), 조손가정 10명(0.5%), 기타 가정 5명(0.2%)으로 나타났다. 초4 패널 1년차(2010년) 성별은 남자 1,244명(52.3%), 여자 1,134명(47.7%)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별로 보면 서울 274명(11.5%), 광역시 733명(30.8%), 시군부 1,371명(57.7%)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구성은 부모가 모두 계신 경우는 2,138명(90%), 한부모 가정인 경우는 213명(9%), 조손가정 15명(0.6%), 기타 가정 9명(0.4%)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2코호트 분석에서 초4 패널 5년차(2013년) 성별은 남자 1,088명(52.6%), 여자 982명(47.4%)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별로 보면 서울 239명(11.6%), 광역시 637명(31%), 시군부 1,182명(57.4%)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구성은 부모가 모두 계신 경우는 1,868명(90.8%), 한부모 가정인 경우는 170명(8.3%), 조손가정 13명(0.6%), 기타 가정 7명(0.3%)으로 나타났다. 중1 패널 2년차(2011년) 성별은 남자 1,152명(50.5%), 여자 1,128명(49.5%)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별로 보면 서울 217명(9.8%), 광역시 720명(32.4%), 시군부 1,282명(57.8%)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구성은 부모가 모두 계신 경우는 1,957명(88.2%), 한부모 가정인 경우는 220명(9.9%), 조손가정 26명(1.2%), 기타 가정 17명(0.8%)으로 나타났다.

표 I-I

초1 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항목		2010년(초1)		2011년(초2)		2012년(초3)		2013년(초4)		2014년(초5)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성별	남자	1,211	51.7	1,159	51.6	1,134	51.5	1,093	51.6	1,086	51.5
	여자	1,131	48.3	1,089	48.4	1,066	48.5	1,026	48.4	1,024	48.5
	전체	2,342	100	2,248	100	2,200	100	2,119	100	2,110	100
	서울	258	11.0	237	10.5	220	10.2	215	10.2	204	9.7
지역	광역시	731	31.2	708	31.5	701	32.4	682	32.5	673	32.1
	시군부	1,353	57.8	1,303	58.0	1,245	57.5	1,202	57.3	1,217	58.1
	전체	2,342	100	2,248	100	2,166	100	2,099	100	2,094	100
	부모자녀	2,210	94.4	2,119	94.3	2,036	94.0	1,981	94.4	1,975	94.3
가족구성	한부모 가정	115	4.9	102	4.5	115	5.3	103	4.9	102	4.9
	조손가정	13	0.6	9	0.4	10	0.5	10	0.5	12	0.6
	기타	4	0.2	18	0.8	4	0.2	5	0.2	5	0.2
	전체	2,342	100	2,248	100	2,165	100	2,099	100	2,094	100

항목		2010년(초1)		2011년(초2)		2012년(초3)		2013년(초4)		2014년(초5)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부	중졸 이하	24	1.1	23	1.1	17	0.8	26	1.3	27	1.3
	고졸	857	38.1	820	38.1	789	38.2	761	37.7	758	37.6
	전문대졸	400	17.8	412	19.2	387	18.7	376	18.6	370	18.3
	대졸	810	36.0	743	34.6	725	35.1	713	35.3	721	35.7
	대학원졸	157	7.0	152	7.1	150	7.3	145	7.2	141	7.0
	전체	2,248	100	2,150	100	2,068	100	2,021	100	2,017	100
모	중졸 이하	23	1.0	14	0.6	18	0.9	22	1.1	22	1.1
	고졸	1,027	45.4	975	45.0	929	44.3	895	43.9	872	43.0
	전문대졸	510	22.5	500	23.1	495	23.6	475	23.3	479	23.6
	대졸	627	27.7	607	28.0	584	27.9	577	28.3	587	29.0
	대학원졸	77	3.4	71	3.3	69	3.3	68	3.3	66	3.3
	전체	2,264	100	2,167	100	2,095	100	2,037	100	2,026	100
기타 보호자	중졸 이하	7	46.7	9	75.0	9	69.2	9	64.3	8	66.7
	고졸	3	20.0	2	16.7	2	15.4	2	14.3	2	16.7
	전문대졸	2	13.3	1	8.3	1	7.7	-	-	-	-
	대졸	3	20.0	-	-	1	7.7	3	21.4	2	16.7
	대학원졸	-	-	-	-	-	-	-	-	-	-
	전체	15	100	12	100	13	100	14	100	12	100

부모 학력

표 I-2

초 4 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항목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2013년(중1)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성별	남자	1,244	52.3	1,182	52.2	1,168	52.6	1,099	52.5	1,088	52.6
	여자	1,134	47.7	1,082	47.8	1,051	47.4	993	47.5	982	47.4
	전체	2,378	100	2,264	100	2,219	100	2,092	100	2,070	100
	서울	274	11.5	253	11.3	257	11.6	242	11.5	239	11.6
지역	광역시	733	30.8	692	30.9	693	31.2	643	30.6	637	31.0
	시군부	1,371	57.7	1,295	57.8	1,270	57.2	1,217	57.9	1,182	57.4
	전체	2,378	100	2,240	100	2,220	100	2,102	100	2,058	100
	부모자녀	2,138	90.0	2,036	90.9	2,028	91.5	1,911	90.9	1,868	90.8
가족구성	한부모 가정	213	9.0	166	7.4	162	7.3	173	8.2	170	8.3
	조손가정	15	0.6	16	0.7	16	0.7	12	0.6	13	0.6
	기타	9	0.4	22	1.0	10	0.5	6	0.3	7	0.3
	전체	2,375	100	2,240	100	2,216	100	2,102	100	2,058	100

항목		2010년(초4)		2011년(초5)		2012년(초6)		2013년(중1)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부모 학력	부	중졸 이하	61	2.7	45	2.1	58	2.8	54	53	2.8
		고졸	905	40.5	808	38.4	783	37.5	751	743	38.6
		전문대졸	325	14.5	219	10.4	229	11.0	204	207	10.8
		대졸	797	35.7	923	43.8	897	43.0	843	810	42.1
		대학원졸	146	6.5	110	5.2	121	5.8	117	112	5.8
	모	전체	2,234	100	2,105	100	2,088	100	1,969	1,925	100
		중졸 이하	56	2.5	40	1.9	47	2.2	42	40	2.0
		고졸	1,165	51.6	1,034	48.4	997	46.9	935	920	46.9
		전문대졸	401	17.8	279	13.0	287	13.5	282	283	14.4
		대졸	567	25.1	734	34.3	736	34.7	688	660	33.7
기타 보호자	중졸 이하	대학원졸	68	3.0	51	2.4	57	2.7	55	57	2.9
		전체	2,257	100	2,138	100	2,124	100	2,002	1,960	100
		중졸 이하	8	47.1	16	64.0	13	61.9	5	5	50.0
		고졸	4	23.5	4	16.0	6	28.6	4	4	40.0
	전문대졸	대학원졸	1	5.9	2	8.0	—	—	1	—	—
		대졸	2	11.8	3	12.0	2	9.5	2	1	10.0
		대학원졸	2	11.8	—	—	—	—	—	—	—
		전체	17	100	25	100	21	100	12	10	100

표 I-3

중1 패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항목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2013년(고1)		2014년(고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성별	남자	1,176	50.0	1,152	50.5	1,140	50.5	1,075	51.0	1,067	51.0
	여자	1,175	50.0	1,128	49.5	1,119	49.5	1,033	49.0	1,024	49.0
	전체	2,351	100	2,280	100	2,259	100	2,108	100	2,091	100
	서울	234	10.0	217	9.8	212	9.5	187	8.9	173	8.5
지역	광역시	761	32.4	720	32.4	725	32.6	689	32.7	663	32.6
	시군부	1,356	57.7	1,282	57.8	1,288	57.9	1,233	58.5	1,195	58.8
	전체	2,351	100	2,219	100	2,225	100	2,109	100	2,031	100
	부모자녀	2,028	86.3	1,957	88.2	1,946	87.5	1,857	88.1	1,789	88.1
가족구성	한부모 가정	284	12.1	220	9.9	249	11.2	231	11.0	217	10.7
	조손가정	19	0.8	26	1.2	23	1.0	16	0.8	17	0.8
	기타	18	0.8	17	0.8	5	0.2	5	0.2	8	0.4
	전체	2,349	100	2,220	100	2,223	100	2,109	100	2,031	100

항목		2010년(중1)		2011년(중2)		2012년(중3)		2013년(고1)		2014년(고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부모 학력	부	중졸 이하	75	3.5	66	3.2	77	3.8	75	3.8	67	3.6
		고졸	930	42.9	831	40.7	837	40.8	805	41.1	778	41.7
		전문대졸	280	12.9	201	9.8	208	10.1	195	10.0	181	9.7
		대졸	745	34.4	853	41.8	828	40.3	792	40.4	750	40.2
		대학원졸	138	6.4	91	4.5	103	5.0	92	4.7	90	4.8
	모	전체	2,168	100	2,042	100	2,053	100	1,959	100	1,866	100
		중졸 이하	78	3.6	59	2.8	66	3.2	62	3.1	57	3.0
		고졸	1,262	57.5	1,122	54.1	1,133	54.3	1,064	53.8	1,021	53.8
		전문대졸	282	12.9	216	10.4	211	10.1	209	10.6	202	10.6
		대졸	511	23.3	635	30.6	639	30.6	611	30.9	587	30.9
기타 보호자	대학원졸	60	2.7	41	2.0	37	1.8	31	1.6	32	1.7	
	전체	2,193	100	2,073	100	2,086	100	1,977	100	1,899	100	
	중졸 이하	15	78.9	28	84.8	21	80.8	16	76.2	10	66.7	
	고졸	3	15.8	4	12.1	5	19.2	5	23.8	5	33.3	
	전문대졸	-	-	-	-	-	-	-	-	-	-	
	대졸	-	-	1	3.0	-	-	-	-	-	-	
	대학원졸	1	5.3	-	-	-	-	-	-	-	-	
전체	19	100	33	100	26	100	21	100	15	100		

부모 학력

2) 주요 변인별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첫째, 패널 조사의 매체영역 중 컴퓨터 이용 영역은 컴퓨터 사용 유무, 컴퓨터 사용 시간 및 장소 그리고 용도별 컴퓨터 사용정도를 파악 할 수 있는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컴퓨터 사용 시간의 경우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시간 단위(시간과 분)로 사용 시간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컴퓨터 사용 장소는 청소년들이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지문으로 제시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컴퓨터 용도별 사용정도는 전체 10문항으로 ①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②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영화 파일 등) 이용 ③ 게임 및 오락 ④ 채팅이나 메신저 ⑤ 전자우편(e-mail) ⑥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⑦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동 ⑧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⑨ 댓글 달기 ⑩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등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모두 4점 Likert 척도 (자주 사용한다 = 1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4)로 평정되었으며, 원점수는 역코딩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서 사용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휴대전화의 이용 행태는 휴대전화 소지 유무, 활용 용도별 사례수 및 휴대전화 의존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휴대전화 소지 유무를 묻는 문항은 두 가지 유형(스마트폰 및 일반휴대전화 일명 피쳐폰)의 휴대폰 소지 형태에 답하도록 지문에 제시되어 있다. 휴대전화 용도별 사용정도는 4점 Likert 척도(자주 사용한다 = 1 ~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4)로 평정되었으며, 역코딩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활용 용도별 문항은 전체 9문항으로 ① 가족과의 통화 ②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등 포함) ③ 친구와의 통화 ④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등 포함) ⑤ 게임 및 오락 ⑥ 사진 촬영 ⑦ 동영상 감상 ⑧ 음악 듣기 ⑨ 시간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성은 2002년 이시형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척도는 휴대전화 집착과 이로 인한 불안, 불편 및 고립감 그리고 무료함에 대한 인톨로런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7문항으로 다음과 같다. 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②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③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④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⑤ 혼자 있을

* 해당 측정변인에 내용은 종단연구의 특성상 모상현, 문은옥(2014:13).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V: 기초분석보고서II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내용과 동일함.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⑥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⑦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셋째,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주일, 한 달 혹은 일 년 단위로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인용 매체에 노출되는지 그 접촉 사례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질문은 19세 이상 성인만 이용 가능한 매체(잡지나 책, 영화, 동영상, TV 프로그램, 게임, 전화 서비스 등)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를 물어보았다. 또한 성인용 매체 경험자의 매체 몰입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 8문항으로 구성된 성인매체 몰입 척도는 2003년에 개발된 인터넷 중독 문항(김은정, 이세용, 오승근, 2003) 중 유해매체 관련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4점 Likert 척도 (매우 그렇다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로 평정되었으며, 역코딩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인매체를) ①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이용하게 된다 ② 이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③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이용한다 ④ 다시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⑤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⑥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짝 차 있다 ⑦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⑧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초1, 초4 및 중 1 패널 등 총 3가지 유형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매체 이용 행태 변화에 대한 추이 분석 및 배경 변인 수준 간 차이를 파악하고, 코호트 간 비교를 통해 동일 경험 집단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기술통계를 위한 사례 및 빈도분석 그리고 독립 t 검정 등을 사용하였으며, SPSS 20.0을 통계분석 도구로 활용하였다.

제 II 장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 추이분석

1. 초4 패널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

제 II 장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 추이분석*

1. 초4 패널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

본 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컴퓨터 사용 행태를 연도별로 추이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형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추이 분석을 위한 종단 데이터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사용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1차~5차) 5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수집한 초4 종단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1년차,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3년차, 중학교 2학년이 되는 5년차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컴퓨터 이용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배경 변인별 수준에 따라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내용으로는 1) 컴퓨터 사용 여부, 2) 컴퓨터 사용시간, 3) 컴퓨터 사용 장소, 4) 컴퓨터 이용 빈도(①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②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 ③ 게임 및 오락, ④ 채팅이나 메신저, ⑤ 전자우편, ⑥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⑦ 개인 홈페이지 활동, ⑧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⑨ 댓글 달기, ⑩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등의 문항을 활용하였고, 배경 변인에 따른 수준별 분석을 위해 1) 성별, 2) 지역, 3) 가족구성 등의 요인을 투입하여 변인 수준 별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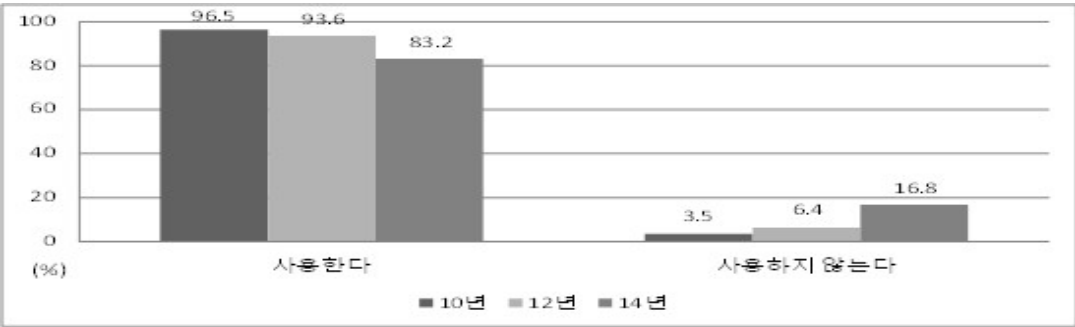
1)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사용시간 및 장소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대상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컴퓨터 이용 실태와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장은 한지형 전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1)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여부 변화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도(중2)에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4학년(2010년)이 96.5%, 초등학교 6학년(2012년)이 93.6%, 중학교 2학년(2013년)이 83.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감소하는(13.3%p)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



【그림 II-1】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여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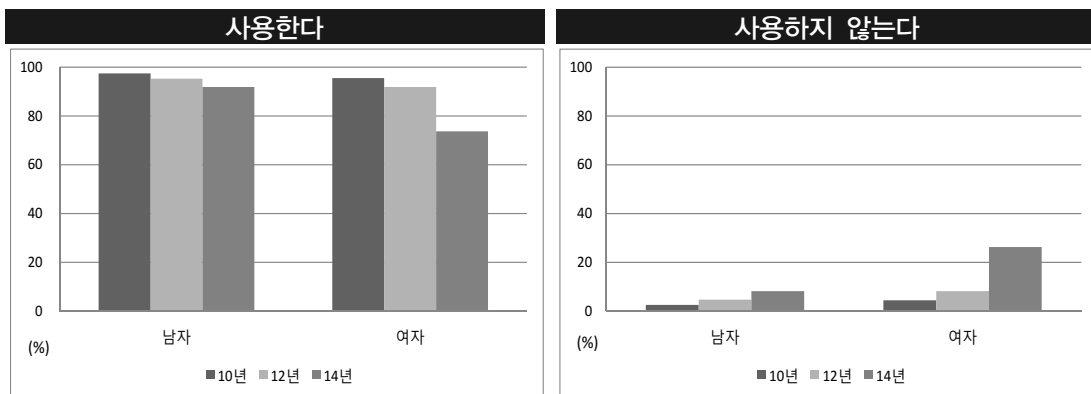
표 II-1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여부 변화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용한다	2295	96.5	2078	93.6	1723	83.2
사용하지 않는다	83	3.5	141	6.4	347	16.8
전체	2378	100	2219	100	2070	100

컴퓨터 사용률에 대한 변화 추이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2014년 91.8%)이 여자 청소년(2014년 73.7%)에 비해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사용률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이 2010년 97.4%, 2012년 95.3%, 2014년 91.8%로 5.6%p 감소하였고, 여자 청소년은 2010년 95.5%, 2012년 91.8%, 2014년 73.7%로 21.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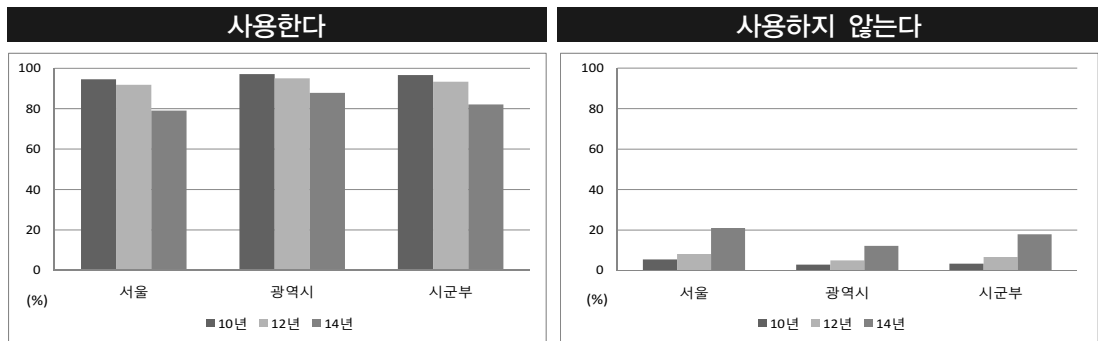
【그림 II-2】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여부 변화(성별)

표 II-2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여부 변화(성별)

항목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1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1212	1113	999	32	55	89	1244	1168	1088	
		%	97.4	95.3	91.8	2.6	4.7	8.2	100	100	100	
	여자	N	1083	965	724	51	86	258	1134	1051	982	
		%	95.5	91.8	73.7	4.5	8.2	26.3	100	100	100	
전체			N	2295	2078	1723	83	141	347	2378	2219	2070
			%	96.5	93.6	83.2	3.5	6.4	16.8	100	100	100

컴퓨터 사용률에 대한 변화 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광역시(2014년 87.8%), 시군부(2014년 82.1%), 서울(2014년 79.0%) 순으로 컴퓨터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사용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은 2010년 94.5%, 2012년 91.8%, 2014년 79.0%로 15.5%p 감소하였고, 광역시는 2010년 97.1%, 2012년 95.0%, 2014년 87.8%로 9.3%p 감소, 시군부는 2010년 96.6%, 2010년 93.3%, 2014년 82.1%로 14.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의 청소년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 사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과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컴퓨터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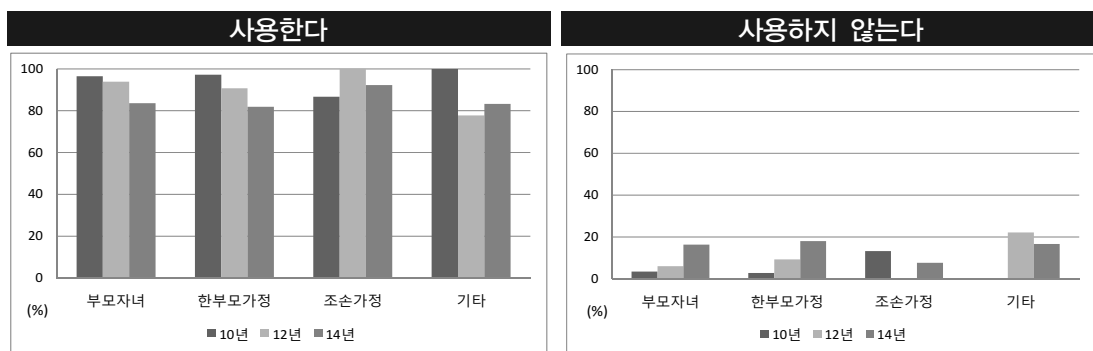
【그림 II-3】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여부 변화(지역별)

표 II-3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여부 변화(지역별)

항목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 역	서울	N	259	223	177	15	20	47	274	243	224
		%	94.5	91.8	79.0	5.5	8.2	21.0	100	100	100
	광역시	N	712	646	552	21	34	77	733	680	629
		%	97.1	95.0	87.8	2.9	5.0	12.2	100	100	100
	시군부	N	1324	1165	957	47	83	209	1371	1248	1166
		%	96.6	93.3	82.1	3.4	6.7	17.9	100	100	100
전체	N		2295	2034	1686	83	137	333	2378	2171	2019
	%		96.5	93.7	83.5	3.5	6.3	16.5	100	100	100

컴퓨터 사용률에 대한 변화 추이를 가족구성별로 살펴본 결과, 컴퓨터 사용정도는 조손가정(2014년 92.3%), 부모자녀 가정(2014년 83.6%), 한부모 가정(2014년 8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컴퓨터 사용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은 2010년 96.5%에서 2014년 83.6%로 12.9%p 감소, 한부모 가정 청소년도 2010년 97.2%에서 2014년 81.9%로 15.3%p 감소를 나타내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 사용률이 감소한 반면, 조손가정은 2010년 86.7%에서 2014년 92.3%로 5.6%p 증가를 나타내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 사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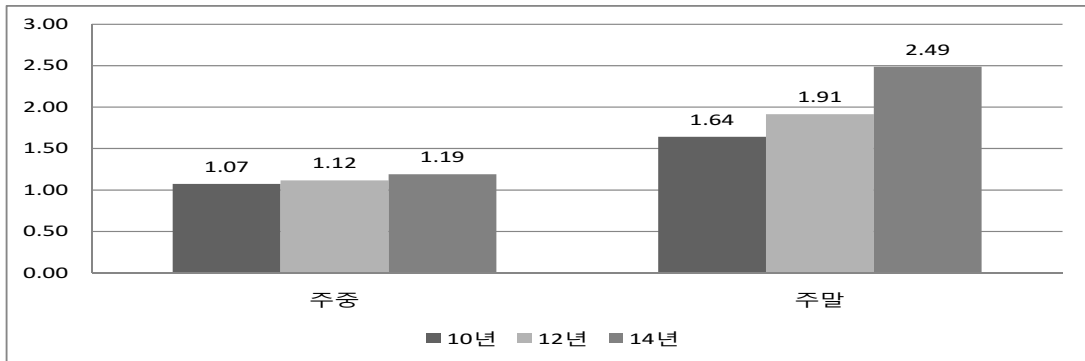
【그림 II-4】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여부 변화(가족구성별)

표 II-4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여부 변화(가족구성별)

항목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 족 구 성	부모 자녀	N	2063	1860	1533	75	120	301	2138	1980	1834
		%	96.5	93.9	83.6	3.5	6.1	16.4	100	100	100
	한부모 가정	N	207	147	136	6	15	30	213	162	166
		%	97.2	90.7	81.9	2.8	9.3	18.1	100	100	100
	조손 가정	N	13	16	12	2	—	1	15	16	13
		%	86.7	100	92.3	13.3	—	7.7	100	100	100
	기타	N	9	7	5	—	2	1	9	9	6
		%	100	77.8	83.3	—	22.2	16.7	100	100	100
전체		N	2292	2030	1686	83	137	333	2375	2167	2019
		%	96	93.7	83.5	3.5	6.3	16.5	100	100	100

(2)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의 변화

초등학교 4학년(2010년), 초등학교 6학년(2012년), 중학교 2학년(2014년) 시점의 컴퓨터 사용시간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주중’컴퓨터 사용시간은 평균 2010년 1.07시간에서 2014년 1.19시간으로 0.12시간 증가하였고, ‘주말’은 평균 2010년 1.64시간에서 2014년 2.49시간으로 0.85시간 증가해 주중과 주말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 사용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5>. 특히 컴퓨터 사용증가율의 증가는 주중(0.12시간) 보다 주말(0.85시간)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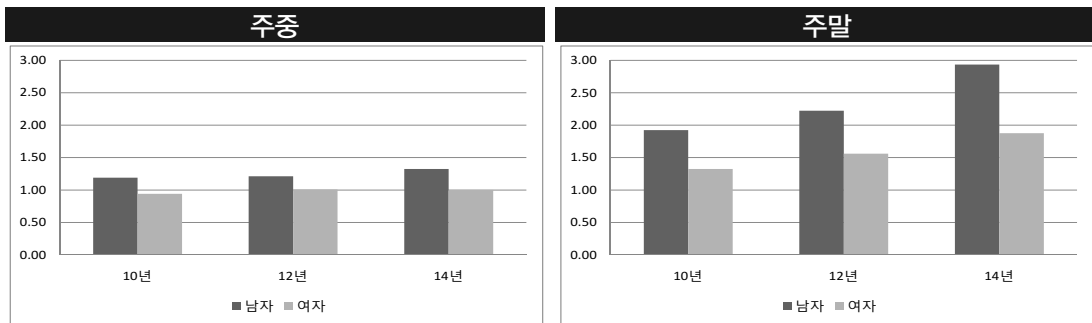
표 II-5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주중	2292	1.07	1.11	2074	1.12	0.95	1723	1.19	1.09
주말	2293	1.64	1.29	2074	1.91	1.37	1722	2.49	1.70

컴퓨터 사용시간에 대한 추이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II-6>과 같다. 우선 남자 청소년의 경우 주중(2010년 1.19시간 → 2014년 1.32시간, 평균 0.13시간 증가) 보다 주말(2010년 1.92시간 → 2014년 2.93시간, 평균 1.01시간 증가)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 사용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간의 변화 양상은 남자 청소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여자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간도 주중(2010년 0.94시간 → 2014년 1.00시간, 평균 0.06시간 증가) 보다 주말(2010년 1.33시간 → 2014년 1.87시간, 평균 0.55시간 증가)의 컴퓨터 사용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컴퓨터 사용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짐에 여자 청소년 보다 남자 청소년이, 주중 보다 주말에 상대적으로 컴퓨터 사용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6】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성별)

표 II-6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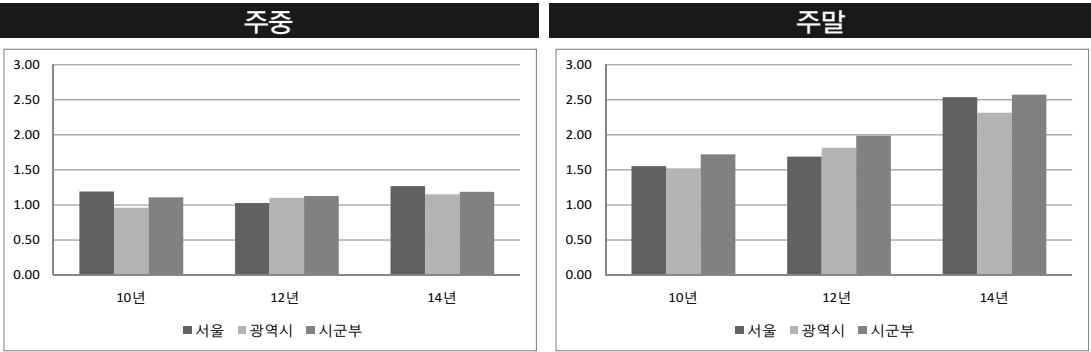
항목			주중			주말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평균	1.19	1.21	1.32	1.92	2.22	2.93
		표준편차	1.22	1.02	1.17	1.37	1.46	1.70
		사례수	1210	1110	999	1211	1110	998
	여자	평균	0.94	1.01	1.00	1.33	1.56	1.87
		표준편차	0.97	0.85	0.94	1.10	1.17	1.50
		사례수	1082	964	724	1082	964	724
전체		평균	1.07	1.12	1.19	1.64	1.91	2.49
		표준편차	1.11	0.95	1.09	1.29	1.37	1.70
		사례수	2292	2074	1723	2293	2074	1722

컴퓨터 사용시간에 대한 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II-7>과 같다. 우선 ‘주중’평균 컴퓨터 사용시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2010년 1.19시간에서 2014년 1.27시간으로 0.08시간 증가, 광역시는 2010년 0.96시간에서 2014년 1.15시간으로 0.19시간 증가, 시군부는 2010년 1.11시간에서 2014년 1.19시간으로 0.08시간 증가해, 학년별, 지역별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주말’평균 컴퓨터 사용시간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평균 2010년 1.55시간에서 2014년 2.54시간으로 0.99시간 증가, 광역시는 평균 2010년 1.52시간에서 2014년 2.32시간으로 0.8시간 증가, 시군부는 2010년 1.72시간에서 2014년 2.57시간으로 0.85시간 증가해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컴퓨터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컴퓨터 사용시간의 증가

정도는 서울지역 청소년이 광역시나 시군부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상관없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주중 보다 주말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으며, 평균적으로 주중보다는 주말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지역별)

표 II-7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지역별)

항목			주중			주말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역	서울	평균	1.19	1.03	1.27	1.55	1.69	2.54
		표준편차	1.36	0.90	1.29	1.29	1.27	1.87
		사례수	259	223	177	259	223	177
	광역시	평균	0.96	1.10	1.15	1.52	1.82	2.32
		표준편차	0.91	0.94	1.00	1.17	1.25	1.63
		사례수	712	646	552	712	646	552
	시군부	평균	1.11	1.13	1.19	1.72	1.99	2.57
		표준편차	1.16	0.96	1.10	1.34	1.43	1.71
		사례수	1321	1161	957	1322	1161	956
전체	평균		1.07	1.11	1.18	1.64	1.90	2.49
	표준편차		1.11	0.95	1.09	1.29	1.36	1.70
	사례수		2292	2030	1686	2293	2030	1685

컴퓨터 사용시간에 대한 변화의 추이를 가족구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II-8>과 같다. 주중과 주말의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 모두 ‘한부모 가정(2014년 : 주중 1.53시간, 주말 2.97시간)’청

소년의 사용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모자녀 가정(2014년 : 주중 1.16시간, 주말 2.44시간)’, ‘조손가정(2014년 : 주중 0.74시간, 주말 2.33시간)’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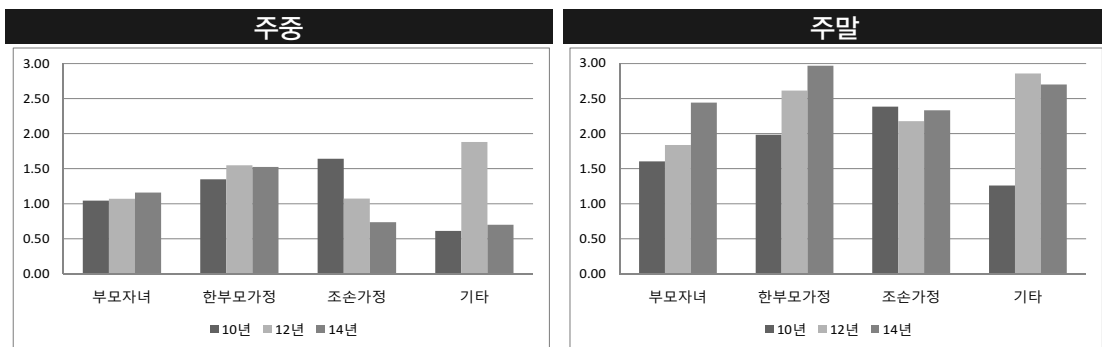
주중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청소년은 2010년 1.04시간에서 2014년 1.16시간으로 0.12시간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1.35시간에서 2014년 1.53시간으로 0.18시간 증가한 반면, ‘조손가정’은 2010년 1.64시간에서 2014년 0.74시간으로 컴퓨터 사용시간이 0.9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 또한 주중과 비슷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며, ‘부모자녀 가정’청소년은 2010년 1.60시간에서 2014년 2.44시간으로 평균 0.84시간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1.98시간에서 2014년 2.97시간으로 0.99시간 증가했지만, ‘조손가정’은 2010년 2.38시간에서 2014년 2.33시간으로 0.05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한부모 가정’과 ‘부모자녀 가정’청소년은 주중과 주말 모두 컴퓨터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손가정’청소년은 주중과 주말 모두 컴퓨터 사용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8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가족구성별)

항목			주중			주말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 족 구 성	부모 자녀	평균	1.04	1.07	1.16	1.60	1.84	2.44
		표준편차	1.11	0.91	1.07	1.25	1.28	1.68
		사례수	2060	1856	1533	2061	1856	1532
	한부모 가정	평균	1.35	1.55	1.53	1.98	2.61	2.97
		표준편차	1.13	1.19	1.29	1.61	1.88	1.95
		사례수	207	147	136	207	147	136
	조손 가정	평균	1.64	1.07	0.74	2.38	2.18	2.33
		표준편차	1.52	1.00	0.85	1.40	1.83	1.48
		사례수	13	16	12	13	16	12
	기타	평균	0.61	1.88	0.70	1.26	2.86	2.70
		표준편차	0.30	1.63	0.84	0.62	2.29	1.64
		사례수	9	7	5	9	7	5
전체	평균		1.07	1.11	1.18	1.64	1.90	2.49
	표준편차		1.11	0.95	1.09	1.29	1.36	1.70
	사례수		2289	2026	1686	2290	2026	1685



【그림 II-8】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시간 변화(가족구성별)

(3) 초등학생의 컴퓨터 사용 장소의 변화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도(중2)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주요 컴퓨터 사용 장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로 ‘우리 집’(2014년 85.1%)에서의 컴퓨터 사용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PC방’(2014년 13.4%), ‘학교’(2014년 0.6%)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 집’에서의 컴퓨터 사용은 2010년 88.1%에서 2014년 85.1%로 2.9%p 사용 비율이 감소한 반면, ‘PC방’에서의 사용 비율은 2010년 3.4%에서 2014년 13.4%로 10.0%p 증가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집’에서의 컴퓨터 사용 보다 ‘PC방’에서의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9>.

표 II-9 초4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우리 집	2023	88.1	1895	91.4	1466	85.1
친구 집	24	1.0	4	0.2	5	0.3
학교	97	4.2	40	1.9	10	0.6
학원	40	1.7	7	0.3	9	0.5
PC방	78	3.4	118	5.7	231	13.4
복지기관	10	0.4	2	0.1	—	—
기타	23	1.0	8	0.4	2	0.1
전체	2295	100	2074	100	1723	100

컴퓨터 사용 장소에 대한 추이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II-10>과 같다. 남녀 청소년 모두 컴퓨터를 사용하는 주요 장소로 ‘우리 집’과 ‘PC방’에서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우리 집’에서의 컴퓨터 사용 비율은 남자 청소년(2014년 77.7%)보다 여자 청소년(2014년 95.3%)이, ‘PC방’에서의 컴퓨터 사용 비율은 여자 청소년(2014년 2.5%)보다 남자 청소년(2014년 21.3%)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우리 집’에서의 컴퓨터 사용 비율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86.8%에서 2014년 77.7%로 9.1%p 감소를 나타낸 반면, 여자 청소년은 2010년 89.7%에서 2014년 95.3%로 5.6%p 증가가 나타났다. ‘우리 집’에서의 사용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자 청소년은 감소하고, 여자 청소년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PC방’에서의 컴퓨터 사용 비율은 남자 청소년(2010년 5.7% → 2014년 21.3%)과 여자 청소년(2010년 0.8% → 2014년 2.5%) 모두 증가 경향(남자 : 15.6%p, 여자 : 1.7%p)을 나타내며, 남녀 청소년 모두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PC방’에서의 컴퓨터 사용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 초4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성별)

항목		남자			여자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우리 집	N	1052	976	776	971	919	690	2023	1895	1466
	%	86.8	87.9	77.7	89.7	95.3	95.3	88.1	91.4	85.1
친구 집	N	15	2	5	9	2	—	24	4	5
	%	1.2	0.2	0.5	0.8	0.2	—	1.0	0.2	0.3
학교	N	36	13	3	61	27	7	97	40	10
	%	3.0	1.2	0.3	5.6	2.8	1.0	4.2	1.9	0.6
학원	N	19	1	1	21	6	8	40	7	9
	%	1.6	0.1	0.1	1.9	0.6	1.1	1.7	0.3	0.5
PC방	N	69	110	213	9	8	18	78	118	231
	%	5.7	9.9	21.3	0.8	0.8	2.5	3.4	5.7	13.4
복지기관	N	6	2	—	4	—	—	10	2	—
	%	0.5	0.2	—	0.4	—	—	0.4	0.1	—
기타	N	15	6	1	8	2	1	23	8	2
	%	1.2	0.5	0.1	0.7	0.2	0.1	1.0	0.4	0.1
전체	N	1212	1110	999	1083	964	724	2295	2074	1723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컴퓨터 사용 장소에 대한 변화 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II-11>과 같다. 서울, 광역시,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주요 장소로 ‘우리 집’과 ‘PC방’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 집’에서의 사용 비율을 보면, 시군부(2014년 86.0%)나 광역시(2014년 85.7%)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서울(2014년 82.5%)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PC방’에서의 사용 비율은 서울(2014년 16.4%)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시군부(2014년 12.6%)나 광역시(2014년 12.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우리 집’에서의 사용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86.5%에서 2014년 82.5%로 4.0%p 감소, 광역시는 2010년 89.0%에서 2014년 85.7%로 3.3%p 감소, 시군부는 2010년 88.0%에서 2014년 86.0%로 2.0%p 감소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리 집’에서의 컴퓨터 사용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PC방’에서의 컴퓨터 사용 비율은 서울의 경우 2010년 2.7%에서 2014년 16.4%로 13.7%p 증가, 시군부는 2010년 4.5%에서 2014년 12.3%로 7.8%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2.9%에서 2014년 12.6%로 9.7%p 증가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PC방’에서의 컴퓨터 사용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초4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지역별)

항목		서울			광역시			시군부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우리 집	N	224	211	146	634	594	473	1165	1053	823	2023	1858	1442
	%	86.5	95.5	82.5	89.0	92.0	85.7	88.0	90.5	86.0	88.1	91.5	85.5
친구 집	N	3	—	1	5	3	1	16	1	3	24	4	5
	%	1.2	—	0.6	0.7	0.5	0.2	1.2	0.1	0.3	1.0	0.2	0.3
학교	N	12	2	—	25	10	5	60	28	5	97	40	10
	%	4.6	0.9	—	3.5	1.5	0.9	4.5	2.4	0.5	4.2	2.0	0.6
학원	N	8	1	1	13	2	5	19	4	3	40	7	9
	%	3.1	0.5	0.6	1.8	0.3	0.9	1.4	0.3	0.3	1.7	0.3	0.5
PC방	N	7	6	29	32	35	68	39	71	121	78	112	218
	%	2.7	2.7	16.4	4.5	5.4	12.3	2.9	6.1	12.6	3.4	5.5	12.9
복지기관	N	—	—	—	—	1	—	10	1	—	10	2	—
	%	—	—	—	—	0.2	—	0.8	0.1	—	0.4	0.1	—
기타	N	5	1	—	3	1	—	15	5	2	23	7	2
	%	1.9	0.5	—	0.4	0.2	—	1.1	0.4	0.2	1.0	0.3	0.1
전체	N	259	221	177	712	646	552	1324	1163	957	2295	2030	1686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컴퓨터 사용 장소에 대한 변화 추이를 가족구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II-12>와 같다.

가족구성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의 청소년들에게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주된 장소로 ‘우리 집’과 ‘PC방’에서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우리 집’에서의 컴퓨터 사용 비율은 조손가정(2014년 75.0%) 청소년이 한부모 가정(2014년 86.0%)과 부모자녀 가정(2014년 85.6%) 청소년에 비해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PC방’에서의 컴퓨터 사용 비율 또한 조손가정(2014년 25.0%) 청소년이 한부모 가정(2014년 13.2%)과 부모자녀 가정(2014년 12.7%)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우리 집’에서의 사용 비율은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의 경우 2010년 88.2%에서 2014년 85.6%로 2.6%p 감소, 한부모 가정은 2010년 87.4%에서 2014년 86.0%로 1.4%p 감소, 조손가정은 2010년 76.9%에서 2014년 75.0%로 1.9%p 감소하는 등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리 집’에서의 컴퓨터 사용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C방’에서의 사용은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의 경우 2010년 3.2%에서 2014년 12.7%로 9.5%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5.8%에서 2014년 13.2%로 7.4%p 증가, 조손가정은 2010년 7.7%에서 2014년 25.0%로 17.3%p 증가 등 학년이 높아질수록 ‘PC방’에서의 컴퓨터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C방’에서의 컴퓨터 사용 비율의 증가 정도는 조손가정 청소년이 부모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12 초4 패널의 컴퓨터 장소 변화(가족구성별)

항목		부모자녀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기타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우리 집	N	1820	1707	1313	181	128	117	10	12	9	9	7	3	2020	1854	1442
	%	88.2	92.0	85.6	87.4	87.1	86.0	76.9	75.0	75.0	100	100	60.0	88.1	91.5	85.5
친구 집	N	24	4	4	—	—	1	—	—	—	—	—	—	24	4	5
	%	1.2	0.2	0.3	—	—	0.7	—	—	—	—	—	—	1.0	0.2	0.3
학교	N	90	36	10	7	3	—	—	1	—	—	—	—	97	40	10
	%	4.4	1.9	0.7	3.4	2.0	—	—	6.3	—	—	—	—	4.2	2.0	0.6
학원	N	37	7	9	3	—	—	—	—	—	—	—	—	40	7	9
	%	1.8	0.4	0.6	1.4	—	—	—	—	—	—	—	—	1.7	0.3	0.5
PC방	N	65	97	195	12	12	18	1	3	3	—	—	2	78	112	218
	%	3.2	5.2	12.7	5.8	8.2	13.2	7.7	18.8	25.0	—	—	40.0	3.4	5.5	12.9
복지기관	N	6	—	—	2	2	—	2	—	—	—	—	—	10	2	—
	%	0.3	—	—	1.0	1.4	—	15.4	—	—	—	—	—	0.4	0.1	—
기타	N	21	5	2	2	2	—	—	—	—	—	—	—	23	7	2
	%	1.0	0.3	0.1	1.0	1.4	—	—	—	—	—	—	—	1.0	0.3	0.1
전체	N	2063	1856	1533	207	147	136	13	16	12	9	7	5	2292	2026	1686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형태

컴퓨터 이용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초4 패널의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도(중2) 시점의 컴퓨터 사용 형태 관련 10가지 항목을 ‘사용한다’와 ‘사용하지 않는다’로 분류하여¹⁾ 살펴본 결과는 <표 II-13>과 같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게임 및 오락(2014년 78.8%)’,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2014년 74.4%)’,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검색 및 사이트 사용(2014년 67.5%)’순으로 나타났다.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과 ‘게임 및 오락’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 빈도도 증가하는(18.4%p, 5.9%p) 것으로 나타났고,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검색 및 사이트 사용’의 경우 반대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 빈도가 점차 감소하는(17.5%p)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 초4 패널의 컴퓨터 사용 형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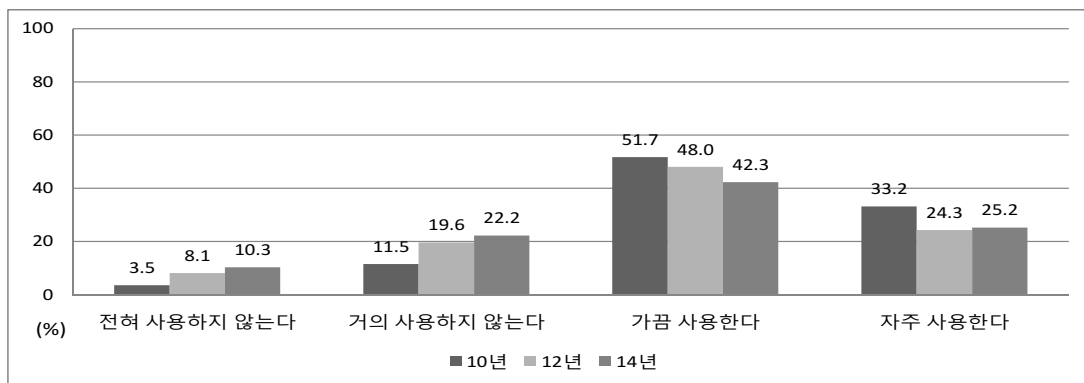
항목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N	1950	1501	1163	345	575	560	2295	2076	1723
	%	85.0	72.3	67.5	15.0	27.7	32.5	100	100	100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이용	N	1286	1460	1282	1009	613	441	2295	2073	1723
	%	56.0	70.4	74.4	44.0	29.6	25.6	100	100	100
게임 및 오락	N	1672	1508	1357	623	567	366	2295	2075	1723
	%	72.9	72.7	78.8	27.1	27.3	21.2	100	100	100
채팅이나 메신저	N	634	947	806	1661	1125	917	2295	2072	1723
	%	27.6	45.7	46.8	72.4	54.3	53.2	100	100	100
전자우편(e-mail)	N	424	512	408	1871	1561	1315	2295	2073	1723
	%	18.5	24.7	23.7	81.5	75.3	76.3	100	100	100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N	623	768	445	1672	1306	1278	2295	2074	1723
	%	27.1	37.0	25.8	72.9	63.0	74.2	100	100	100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활동	N	846	745	535	1449	1329	1188	2295	2074	1723
	%	36.9	35.9	31.1	63.1	64.1	68.9	100	100	100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N	504	366	265	1791	1707	1458	2295	2073	1723
	%	22.0	17.7	15.4	78.0	82.3	84.6	100	100	100
댓글 달기	N	1146	1055	561	1149	1019	1162	2295	2074	1723
	%	49.9	50.9	32.6	50.1	49.1	67.4	100	100	100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N	68	33	112	2227	2040	1611	2295	2073	1723
	%	3.0	1.6	6.5	97.0	98.4	93.5	100	100	100

1) 컴퓨터 사용 형태 관련 10가지 유형은 각 각의 유형에 대해 4점 척도(자주 사용한다 1점, 가끔 사용한다 2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4점)로 그 이용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10가지 유형 모두 역채점되는 문항으로 채점 방식을 역코딩한 후(자주 사용한다 4점, 가끔 사용한다 3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4점), ‘사용한다’(‘자주 사용한다’와 ‘가끔 사용한다’의 합)와 ‘사용하지 않는다’(‘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의 합)로 리코딩한 값이다.

①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도(중2) 시점의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보면 ‘가끔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I-14>.

연도별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84.9%, 2012년 72.3%, 2014년 68.5%로 16.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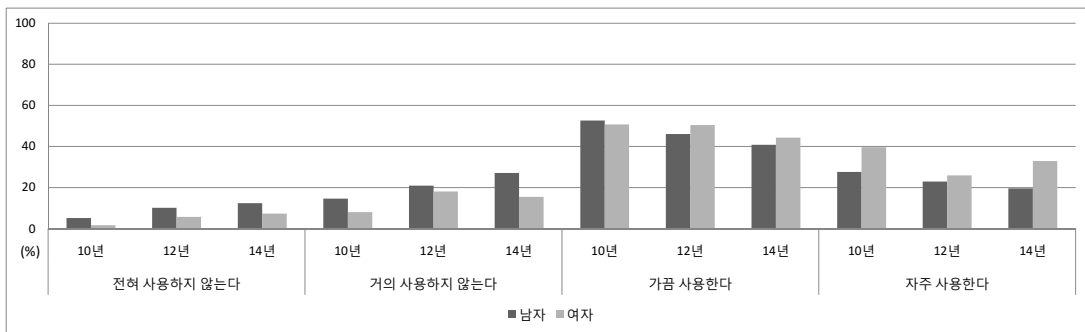
【그림 II-9】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표 II-14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81	3.5	168	8.1	177	10.3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64	11.5	407	19.6	383	22.2
가끔 사용한다	1187	51.7	997	48.0	729	42.3
자주 사용한다	763	33.2	504	24.3	434	25.2
전체	2295	100	2076	100	1723	100

성별에 따라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가끔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I-15>.

공부 및 학습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80.2%에서 2014년 60.4%로, 19.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도 2010년 90.3%에서 2014년 77.2%로 13.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 청소년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위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0】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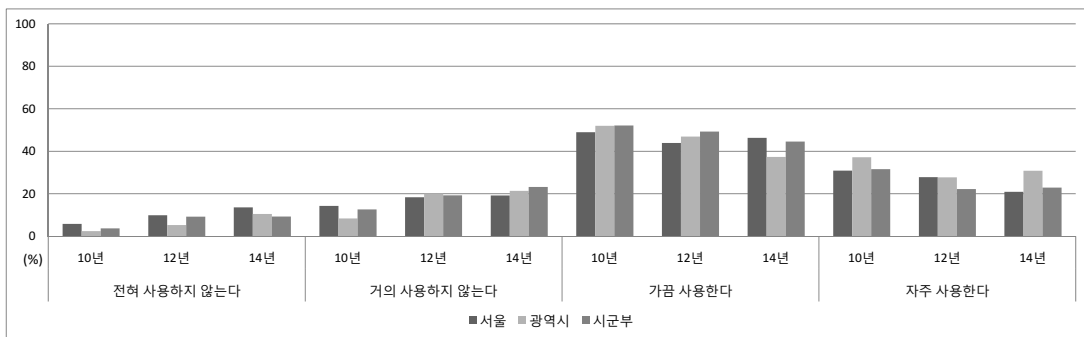
표 II-15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63	113	124	177	233	271	638	512	408	334	255	196	1212	1113	999	
		%	5.2	10.2	12.4	14.6	20.9	27.1	52.6	46.0	40.8	27.6	22.9	19.6	100	100	100	
	여자	N	18	55	53	87	174	112	549	485	321	429	249	238	1083	963	724	
		%	1.7	5.7	7.3	8.0	18.1	15.5	50.7	50.4	44.3	39.6	25.9	32.9	100	100	100	
전체			N	81	168	177	264	407	383	1187	997	729	763	504	434	2295	2076	1723
			%	3.5	8.1	10.3	11.5	19.6	22.2	51.7	48.0	42.3	33.2	24.3	25.2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보면,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서울, 광역시,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컴퓨터를 주로 공부 및 학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부 및 학습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79.9%에서 2014년 67.2%로 12.7%p 감소, 광역시는 2010년 89.2%에서 2014년 68.1%로 21.1%p 감소, 시군부는 2010년 83.7%에서 2014년 67.5%로 16.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과 상관없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6>. 특히 학습 관련 컴퓨터 사용 비율의 감소 정도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서울과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1】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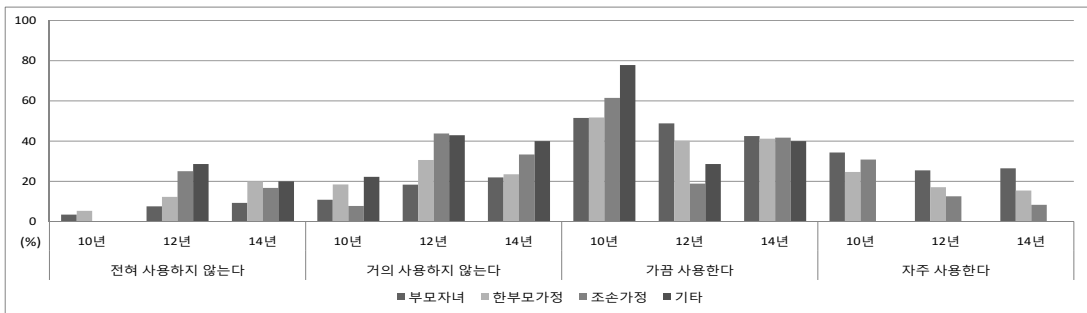
표 II-16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 역	서울	N	15	22	24	37	41	34	127	98	82	80	62	37	259	223	177
		%	5.8	9.9	13.6	14.3	18.4	19.2	49.0	43.9	46.3	30.9	27.8	20.9	100	100	100
	광역시	N	17	34	58	60	130	118	370	303	206	265	179	170	712	646	552
		%	2.4	5.3	10.5	8.4	20.1	21.4	52.0	46.9	37.3	37.2	27.7	30.8	100	100	100
	시군부	N	49	107	89	167	225	222	690	574	427	418	258	219	1324	1164	957
		%	3.7	9.2	9.3	12.6	19.3	23.2	52.1	49.3	44.6	31.6	22.2	22.9	100	100	100
전체		N	81	163	171	264	396	374	1187	975	715	763	499	426	2295	2033	1686
		%	3.5	8.0	10.1	11.5	19.5	22.2	51.7	48.0	42.4	33.2	24.5	25.3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보면, ‘가끔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의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은 2010년 85.8%에서 2014년 68.9%로 16.9%p 감소, 한부모 가정은 2010년 76.3%에서 2014년 56.6%로 19.7%p 감소, 조손가정은 2010년 92.3%에서 2014년 50.0%로 4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7>. 특히 학습 관련 컴퓨터 사용 비율의 감소 정도는 조손가정 청소년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한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2】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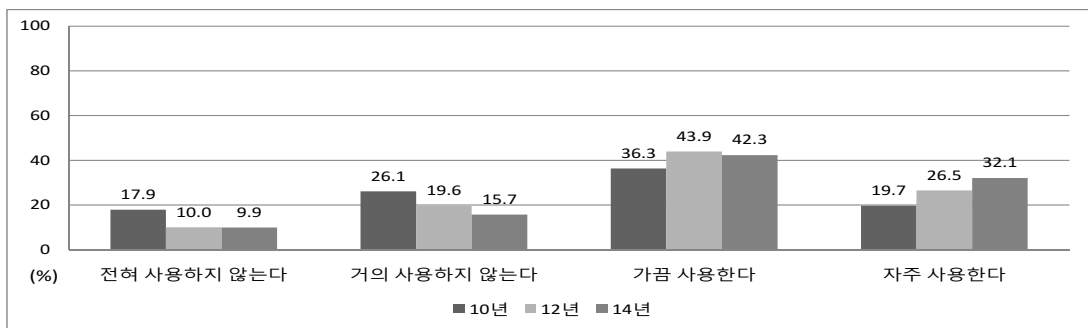
표 II-17 초4 패널-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사용(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자녀	N	70	139	141	223	341	336	1062	907	652	708	472	404	2063	1859	1533
		%	3.4	7.5	9.2	10.8	18.3	21.9	51.5	48.8	42.5	34.3	25.4	26.4	100	100	100
	한부모 가정	N	11	18	27	38	45	32	107	59	56	51	25	21	207	147	136
		%	5.3	12.2	19.9	18.4	30.6	23.5	51.7	40.1	41.2	24.6	17.0	15.4	100	100	100
	조손 가정	N	—	4	2	1	7	4	8	3	5	4	2	1	13	16	12
		%	—	25.0	16.7	7.7	43.8	33.3	61.5	18.8	41.7	30.8	12.5	8.3	100	100	100
	기타	N	—	2	1	2	3	2	7	2	2	—	—	—	9	7	5
		%	—	28.6	20.0	22.2	42.9	40.0	77.8	28.6	40.0	—	—	—	100	100	100
전체	N	81	163	171	264	396	374	1184	971	715	763	499	426	2292	2029	1686	
	%	3.5	8.0	10.1	11.5	19.5	22.2	51.7	47.9	42.4	33.3	24.6	25.3	100	100	100	

②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이용

컴퓨터 사용 형태와 관련하여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보면 ‘가끔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I-18>.

‘학습 이외의 검색 및 자료 이용’에 대한 문항에서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2010년 56.0%에서 2014년 74.4%로 18.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 관련 컴퓨터 사용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3】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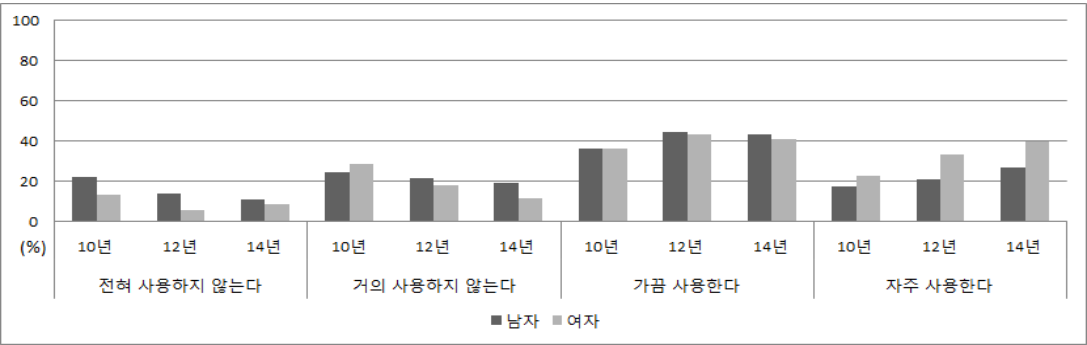
표 II-18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이용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410	17.9	207	10.0	170	9.9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599	26.1	406	19.6	271	15.7
가끔 사용한다	834	36.3	910	43.9	729	42.3
자주 사용한다	452	19.7	550	26.5	553	32.1
전체	2295	100	2073	100	1723	100

성별에 따라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가끔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19>.

학습 이외의 검색 및 자료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2010년 53.6%에서 2014년 70.0%로 1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도 2010년 58.7%에서 2014년 80.4%로 2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 청소년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가 비율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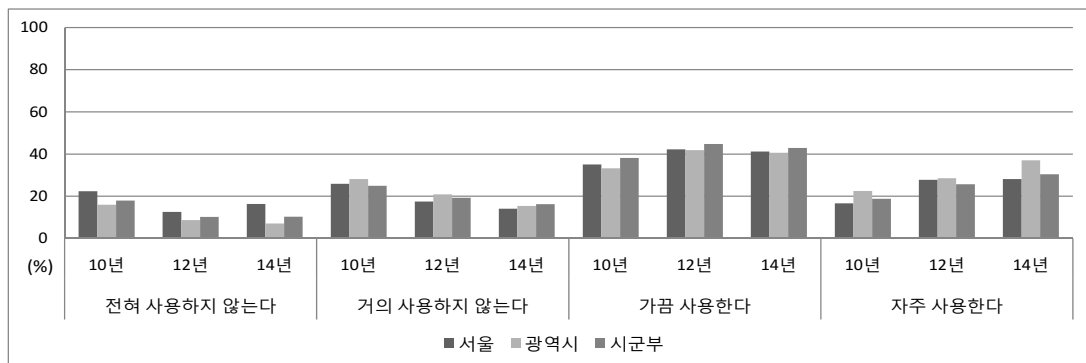
【그림 II-14】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이용(성별)

표 II-19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이용(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268	153	109	294	236	190	440	493	433	210	228	267	1212	1110	999
		%	22.1	13.8	10.9	24.3	21.3	19.0	36.3	44.4	43.3	17.3	20.5	26.7	100	100	100
	여자	N	142	54	61	305	170	81	394	417	296	242	322	286	1083	963	724
		%	13.1	5.6	8.4	28.2	17.7	11.2	36.4	43.3	40.9	22.3	33.4	39.5	100	100	100
전체		N	410	207	170	599	406	271	834	910	729	452	550	553	2295	2073	1723
		%	17.9	10.0	9.9	26.1	19.6	15.7	36.3	43.9	42.3	19.7	26.5	32.1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20>.

연도별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51.7%에서 2014년 69.4%로 17.7%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55.8%에서 2014년 77.6%로 21.8% 증가, 시군부는 2010년 57.0%에서 2014년 73.3%로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서울과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사용 비율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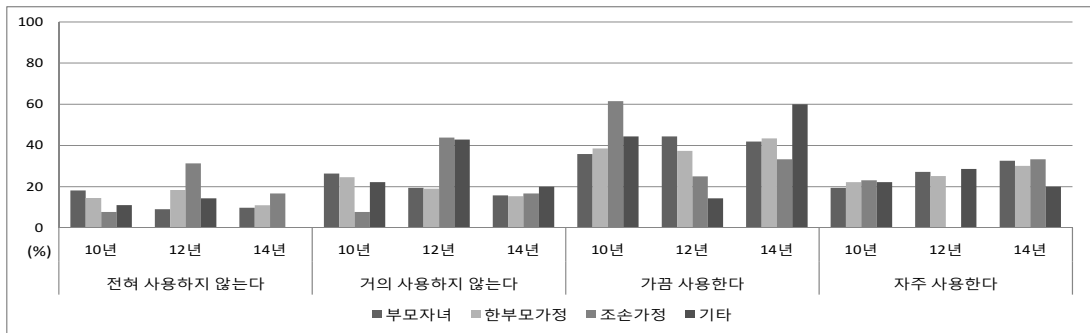
【그림 II-15】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이용(지역별)

표 II-20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이용(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역	서울	N	58	28	29	67	39	25	91	94	73	43	62	50	259	223	177
		%	22.4	12.6	16.4	25.9	17.5	14.1	35.1	42.2	41.2	16.6	27.8	28.2	100	100	100
	광역시	N	114	56	39	201	135	85	237	270	224	160	184	204	712	645	552
		%	16.0	8.7	7.1	28.2	20.9	15.4	33.3	41.9	40.6	22.5	28.5	37.0	100	100	100
	시군부	N	238	119	99	331	224	156	506	520	411	249	298	291	1324	1161	957
		%	18.0	10.2	10.3	25.0	19.3	16.3	38.2	44.8	42.9	18.8	25.7	30.4	100	100	100
전체		N	410	203	167	599	398	266	834	884	708	452	544	545	2295	2029	1686
		%	17.9	10.0	9.9	26.1	19.6	15.8	36.3	43.6	42.0	19.7	26.8	32.3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21>.

연도별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은 2010년 55.3%에서 2014년 74.5%로 19.2%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60.8%에서 2014년 73.5%로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손가정은 2010년 84.6%에서 2014년 66.6%로 1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부모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게서는 증가 경향이, 조손가정 청소년에게서는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II-16]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이용(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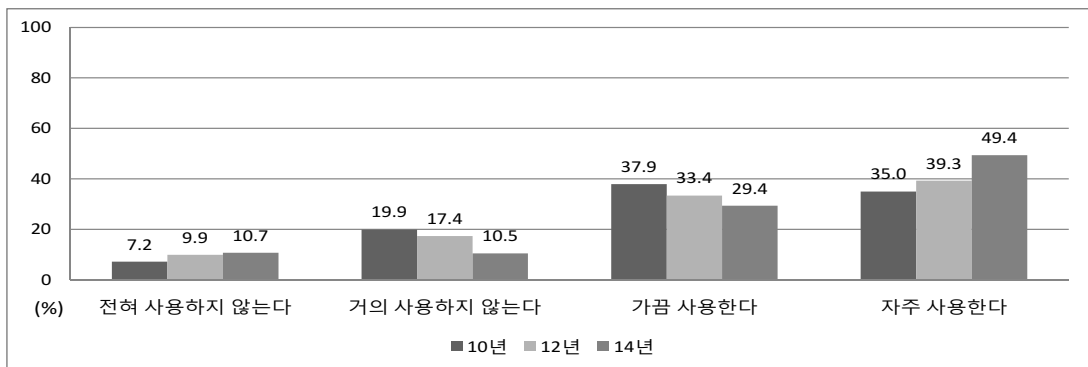
표 II-21 초4 패널-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및 영화 파일 등) 이용(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N	376	168	150	545	359	242	741	823	642	401	505	499	2063	1533
	자녀	%	18.2	9.1	9.8	26.4	19.4	15.8	35.9	44.4	41.9	19.4	27.2	32.6	100	100
	한부모	N	30	27	15	51	28	21	80	55	59	46	37	41	207	147
	가정	%	14.5	18.4	11.0	24.6	19.0	15.4	38.6	37.4	43.4	22.2	25.2	30.1	100	100
	조손	N	1	5	2	1	7	2	8	4	4	3	—	4	13	16
	가정	%	7.7	31.3	16.7	7.7	43.8	16.7	61.5	25.0	33.3	23.1	—	33.3	100	100
	기타	N	1	1	—	2	3	1	4	1	3	2	2	1	9	7
		%	11.1	14.3	—	22.2	42.9	20.0	44.4	14.3	60.0	22.2	28.6	20.0	100	100
전체		N	408	201	167	599	397	266	833	883	708	452	544	545	2292	1686
		%	17.8	9.9	9.9	26.1	19.6	15.8	36.3	43.6	42.0	19.7	26.9	32.3	100	100

③ 게임 및 오락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도(중2) 시점의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72.9%, 2012년 72.7%, 2014년 78.8%로 5.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게임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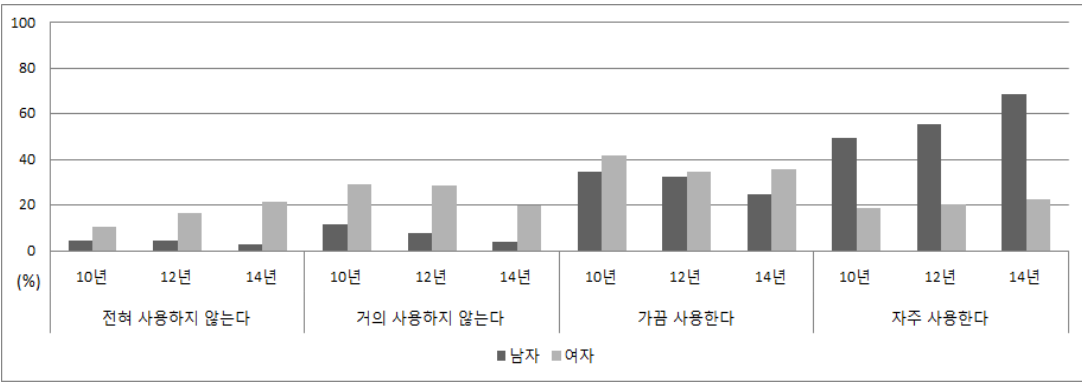
【그림 II-17】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

표 II-22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66	7.2	205	9.9	185	10.7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457	19.9	362	17.4	181	10.5
가끔 사용한다	869	37.9	693	33.4	506	29.4
자주 사용한다	803	35.0	815	39.3	851	49.4
전체	2295	100	2075	100	1723	100

성별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은 ‘가끔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I-23>.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2010년 84.4%에서 2014년 93.5%로, 9.1%p 증가를 나타낸 반면, 여자 청소년은 2010년 60.1%에서 58.4%로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컴퓨터 사용 빈도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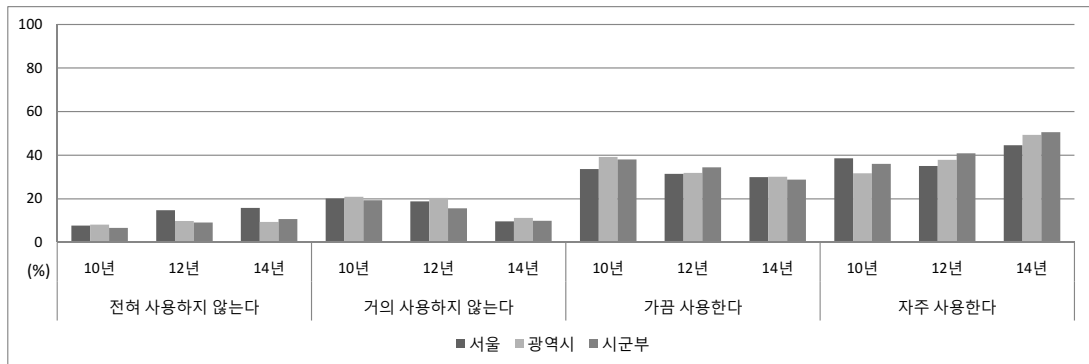
【그림 II-18】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표 II-23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51	47	28	139	88	37	420	360	248	602	617	686	1212	1112	999
		%	4.2	4.2	2.8	11.5	7.9	3.7	34.7	32.4	24.8	49.7	55.5	68.7	100	100	100
	여자	N	115	158	157	318	274	144	449	333	258	201	198	165	1083	963	724
		%	10.6	16.4	21.7	29.4	28.5	19.9	41.5	34.6	35.6	18.6	20.6	22.8	100	100	100
전체		N	166	205	185	457	362	181	869	693	506	803	815	851	2295	2075	1723
		%	7.2	9.9	10.7	19.9	17.4	10.5	37.9	33.4	29.4	35.0	39.3	49.4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보면, ‘자주 사용한다’와 ‘가끔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24>.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72.2%에서 2014년 74.5%로 2.3%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70.9%에서 2014년 79.4%로 8.5%p 증가, 시군부는 2010년 74.0%에서 2014년 79.4%로 5.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게임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서울과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사용 비율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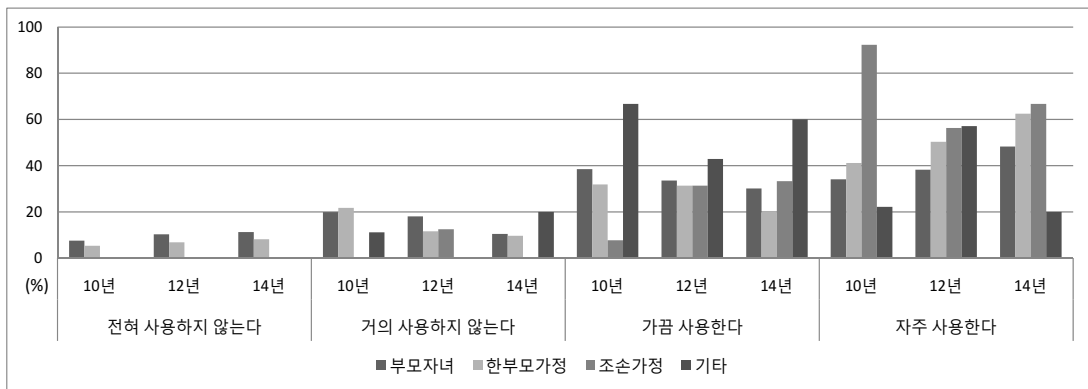
【그림 II-19】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표 II-24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2012년	2014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0년	2012년	2014년	
			(초4)	(초6)	(중2)	(초4)	(초6)	(중2)	(초4)	(초6)	(중2)	(초4)	(초6)	(중2)	(초4)	(초6)	(중2)	
지 역	서울	N	20	33	28	52	42	17	87	70	53	100	78	79	259	223	177	
		%	7.7	14.8	15.8	20.1	18.8	9.6	33.6	31.4	29.9	38.6	35.0	44.6	100	100	100	
	광역시	N	58	63	52	149	132	62	279	206	166	226	245	272	712	646	552	
		%	8.1	9.8	9.4	20.9	20.4	11.2	39.2	31.9	30.1	31.7	37.9	49.3	100	100	100	
	시군부	N	88	106	102	256	181	95	503	400	276	477	476	484	1324	1163	957	
		%	6.6	9.1	10.7	19.3	15.6	9.9	38.0	34.4	28.8	36.0	40.9	50.6	100	100	100	
전체			N	166	202	182	457	355	174	869	676	495	803	799	835	2295	2032	1686
			%	7.2	9.9	10.8	19.9	17.5	10.3	37.9	33.3	29.4	35.0	39.3	49.5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자주 사용한다’와 ‘가끔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25>.

연도별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은 2010년 72.6%에서 2014년 78.4%로, 5.8%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73.0%에서 2014년 82.4%로, 9.4%p 증가, 조손가정은 2010년 100.0%에서 2014년 98.0%로, 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게임 및 오락을 위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증가 양상을 나타낸 반면, 조손가정 청소년은 사용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II-20】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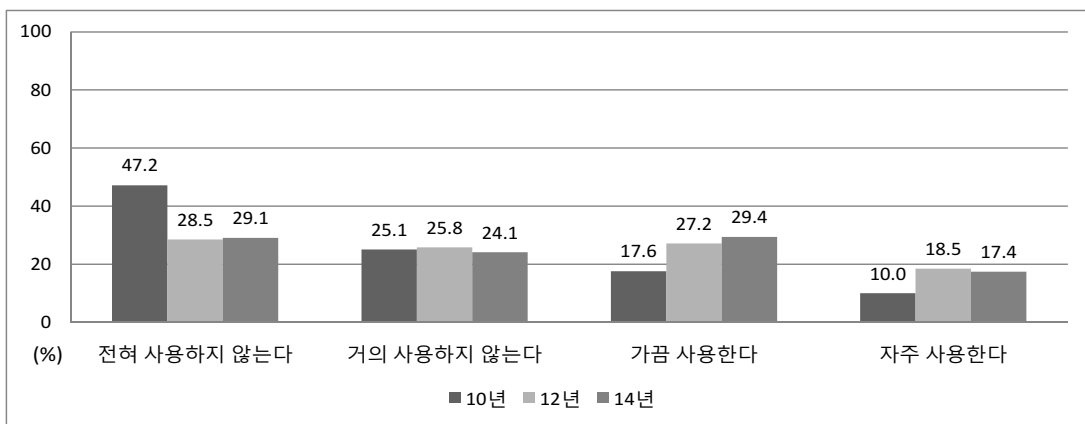
표 II-25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N	155	191	171	410	335	160	795	622	461	703	710	741	2063	1858	1533
	자녀	%	7.5	10.3	11.2	19.9	18.0	10.4	38.5	33.5	30.1	34.1	38.2	48.3	100	100	100
	한부모	N	11	10	11	45	17	13	66	46	27	85	74	85	207	147	136
	가정	%	5.3	6.8	8.1	21.7	11.6	9.6	31.9	31.3	19.9	41.1	50.3	62.5	100	100	100
	조손	N	—	—	—	—	2	—	1	5	4	12	9	8	13	16	12
	가정	%	—	—	—	—	12.5	—	7.7	31.3	33.3	92.3	56.3	66.7	100	100	100
	기타	N	—	—	—	1	—	1	6	3	3	2	4	1	9	7	5
		%	—	—	—	11.1	—	20.0	66.7	42.9	60.0	22.2	57.1	20.0	100	100	100
전체	N	166	201	182	456	354	174	868	676	495	802	797	835	2292	2028	1686	
	%	7.2	9.9	10.8	19.9	17.5	10.3	37.9	33.3	29.4	35.0	39.3	49.5	100	100	100	

④ 채팅이나 메신저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시점의 채팅 및 메신저 이용을 위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2010년 47.2% → 2014년 29.1%)’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2010년 25.1% → 2014년 24.1%)’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채팅 및 메신저 사용을 위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채팅 및 메신저 사용에 대한 문항에서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27.6%에서 2014년 46.8%로 19.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채팅 및 메신저’이용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6>.



【그림 II-21】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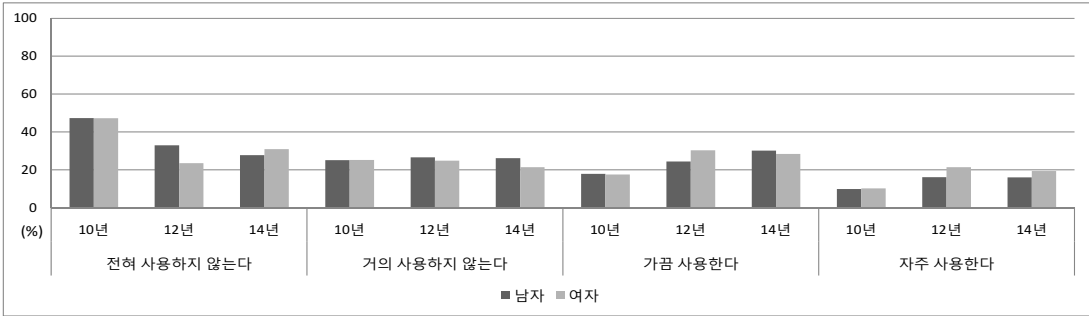
표 II-26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084	47.2	591	28.5	501	29.1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577	25.1	534	25.8	416	24.1
가끔 사용한다	405	17.6	563	27.2	506	29.4
자주 사용한다	229	10.0	384	18.5	300	17.4
전체	2295	100	2072	100	1723	100

성별에 따라 ‘채팅이나 메신저’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남자 : 2010년 47.3% → 2014년 27.7%, 여자 : 2010년 47.2% → 2014년 30.9%)’와 ‘가끔 사용한다(남자 : 2010년 17.8% → 2014년 30.1%, 여자 : 2010년 17.5% → 2014년 28.3%)’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채팅 및 메신저 사용을 위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채팅 및 메신저 사용에 대한 문항에서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27.6%에서 2014년 46.1%로 18.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도 2010년 27.7%에서 2014년 47.6%로 19.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 청소년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채팅 및 메신저’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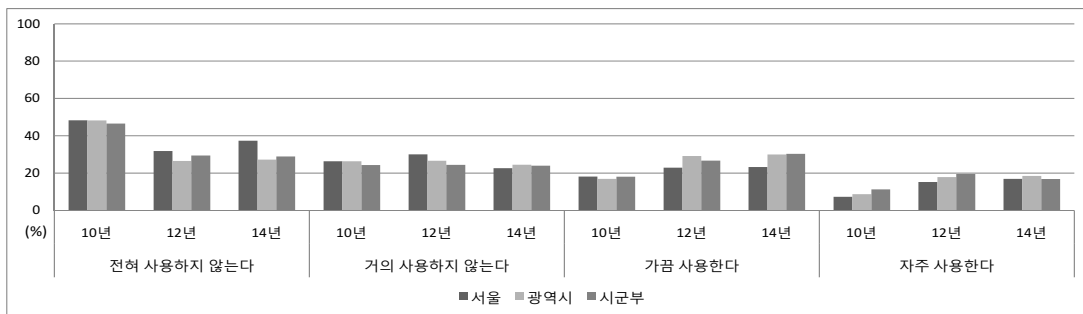
【그림 II-22】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성별)

표 II-27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573	365	277	304	295	261	216	271	301	119	178	160	1212	1109	999	
		%	47.3	32.9	27.7	25.1	26.6	26.1	17.8	24.4	30.1	9.8	16.1	16.0	100	100	100	
	여자	N	511	226	224	273	239	155	189	292	205	110	206	140	1083	963	724	
		%	47.2	23.5	30.9	25.2	24.8	21.4	17.5	30.3	28.3	10.2	21.4	19.3	100	100	100	
전체			N	1084	591	501	577	534	416	405	563	506	229	384	300	2295	2072	1723
			%	47.2	28.5	29.1	25.1	25.8	24.1	17.6	27.2	29.4	10.0	18.5	17.4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채팅이나 메신저’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를 통해, ‘채팅이나 메신저’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빈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채팅 및 메신저 사용에 대한 문항에서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25.4%에서 2014년 40.1%로 14.7%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25.6%에서 2014년 48.4%로 22.8%p 증가, 시군부는 2010년 29.2%에서 2014년 47.1%로 17.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채팅 및 메신저’이용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7>. 채팅 및 메신저 이용 비율의 증가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서울과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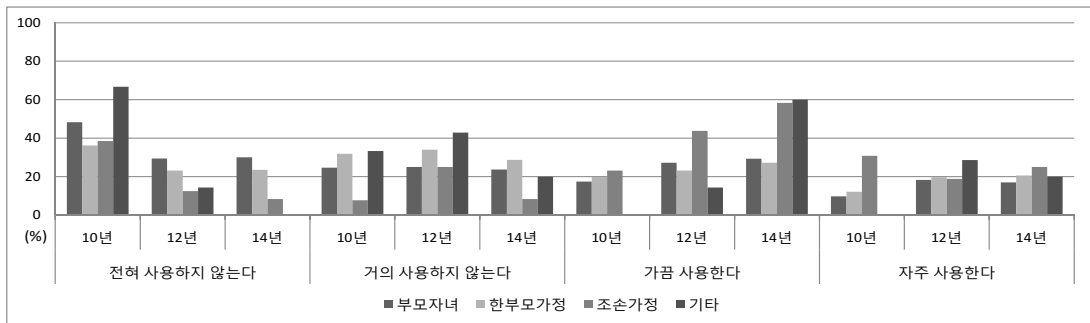
【그림 II-23】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지역별)

표 II-28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역	서울	N	125	71	66	68	67	40	47	51	41	19	34	30	259	223	177
		%	48.3	31.8	37.3	26.3	30.0	22.6	18.1	22.9	23.2	7.3	15.2	16.9	100	100	100
	광역시	N	343	170	150	187	171	135	120	187	165	62	114	102	712	642	552
		%	48.2	26.5	27.2	26.3	26.6	24.5	16.9	29.1	29.9	8.7	17.8	18.5	100	100	100
	시군부	N	616	342	277	322	284	229	238	310	290	148	227	161	1324	1163	957
		%	46.5	29.4	28.9	24.3	24.4	23.9	18.0	26.7	30.3	11.2	19.5	16.8	100	100	100
전체		N	1084	583	493	577	522	404	405	548	496	229	375	293	2295	2028	1686
		%	47.2	28.7	29.2	25.1	25.7	24.0	17.6	27.0	29.4	10.0	18.5	17.4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채팅 및 메신저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와 ‘가끔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채팅 및 메신저 사용에 대한 문항에서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은 2010년 27.1%에서 2014년 46.3%로 19.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부모 가정은 2010년 31.9%에서 2014년 47.8%로 15.9%p 증가, 조손가정은 2010년 53.9%에서 2014년 83.3%로 29.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정의 청소년들에게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채팅 및 메신저’이용에 대한 컴퓨터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9>. 특히 사용 비율의 증가는 조손가정 청소년이 부모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4】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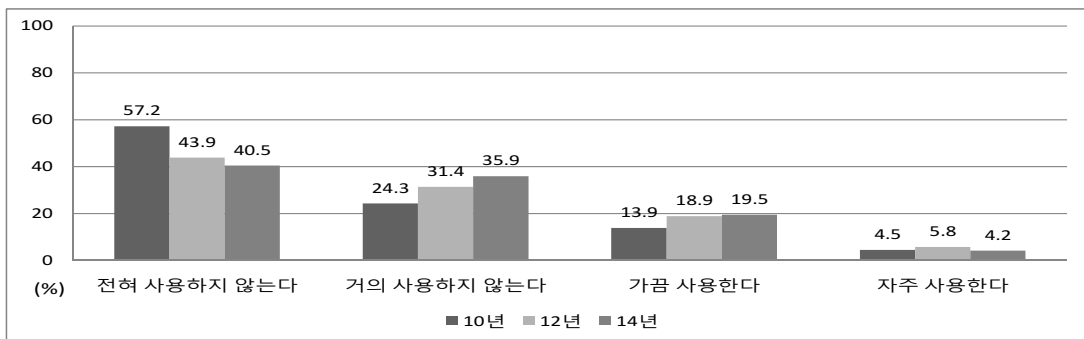
표 II-29 초4 패널- 채팅이나 메신저(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자녀	N	997	545	460	507	464	363	359	505	449	200	340	261	2063	1854	1533
		%	48.3	29.4	30.0	24.6	25.0	23.7	17.4	27.2	29.3	9.7	18.3	17.0	100	100	100
	한부모가정	N	75	34	32	66	50	39	41	34	37	25	29	28	207	147	136
		%	36.2	23.1	23.5	31.9	34.0	28.7	19.8	23.1	27.2	12.1	19.7	20.6	100	100	100
	조손가정	N	5	2	1	1	4	1	3	7	7	4	3	3	13	16	12
		%	38.5	12.5	8.3	7.7	25.0	8.3	23.1	43.8	58.3	30.8	18.8	25.0	100	100	100
	기타	N	6	1	—	3	3	1	—	1	3	—	2	1	9	7	5
		%	66.7	14.3	—	33.3	42.9	20.0	—	14.3	60.0	—	28.6	20.0	100	100	100
	전체	N	1083	582	493	577	521	404	403	547	496	229	374	293	2292	2024	1686
		%	47.3	28.8	29.2	25.2	25.7	24.0	17.6	27.0	29.4	10.0	18.5	17.4	100	100	100

⑤ 전자우편(e-mail)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시점의 ‘전자우편’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사용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우편 사용에 대한 문항에서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2010년 18.4%, 2012년 24.7%, 2014년 23.7%로 5.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자우편’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 경향을 나타냈다<표 II-30>.



【그림 II-25】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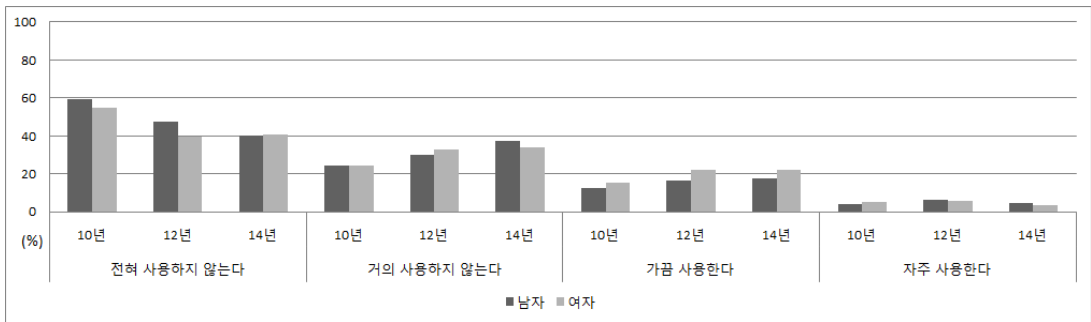
표 II-30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313	57.2	910	43.9	697	40.5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558	24.3	651	31.4	618	35.9
가끔 사용한다	320	13.9	391	18.9	336	19.5
자주 사용한다	104	4.5	121	5.8	72	4.2
전체	2295	100	2073	100.0	1723	100

성별에 따라 전자우편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남자 : 2010년 59.4% → 2014년 40.4%, 여자 : 2010년 54.8% → 2014년 40.5%)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남자 : 2010년 24.3% → 2014년 37.2%, 여자 : 2010년 24.4% → 2014년 34.0%)’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자우편 이용 관련 문항에서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16.3%에서 2014년 22.3%로 6.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도 2010년 20.9%에서 2014년 25.6%로 4.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녀 청소년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전자우편’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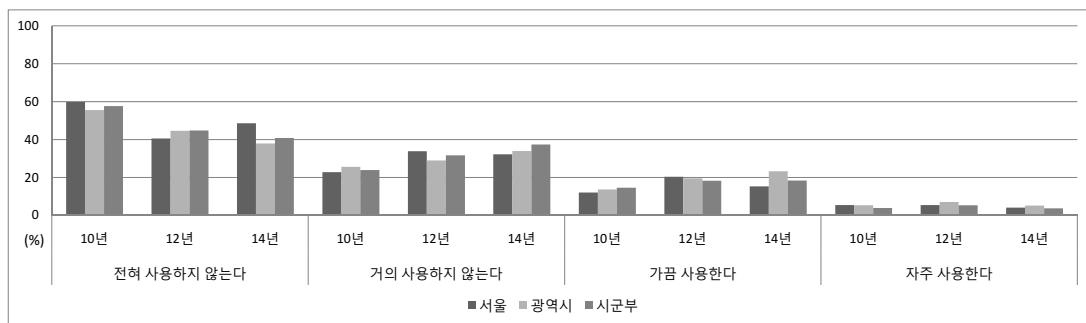
【그림 II-26】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성별)

표 II-31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720	529	404	294	334	372	152	180	177	46	68	46	1212	1111	999	
		%	59.4	47.6	40.4	24.3	30.1	37.2	12.5	16.2	17.7	3.8	6.1	4.6	100	100	100	
	여자	N	593	381	293	264	317	246	168	211	159	58	53	26	1083	962	724	
		%	54.8	39.6	40.5	24.4	33.0	34.0	15.5	21.9	22.0	5.4	5.5	3.6	100	100	100	
전체			N	1313	910	697	558	651	618	320	391	336	104	121	72	2295	2073	1723
			%	57.2	43.9	40.5	24.3	31.4	35.9	13.9	18.9	19.5	4.5	5.8	4.2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전자우편’사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자우편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17.4%에서 2014년 19.3%로 1.9%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18.9%에서 2014년 28.3%로 9.4%p 증가, 시군부는 2010년 18.4%에서 2014년 22.0%로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우편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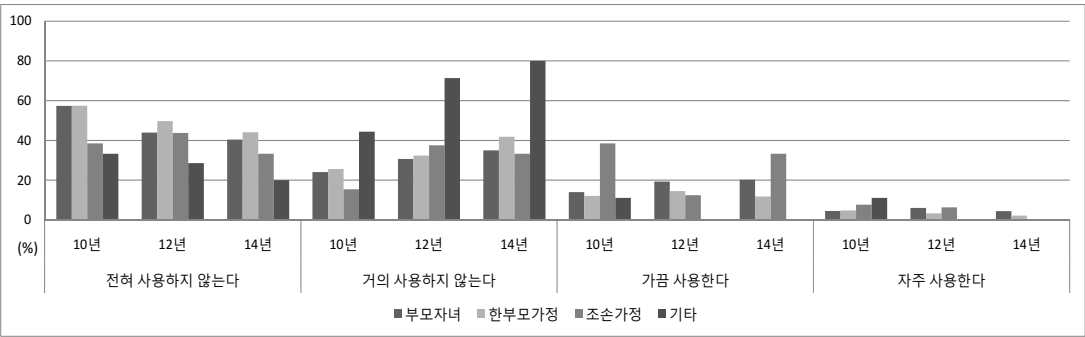
【그림 II-27】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지역별)

표 II-32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 역	서울	N	155	90	86	59	75	57	31	45	27	14	12	7	259	222	177
		%	59.8	40.5	48.6	22.8	33.8	32.2	12.0	20.3	15.3	5.4	5.4	4.0	100	100	100
	광역시	N	395	288	209	182	187	187	97	126	128	38	45	28	712	646	552
		%	55.5	44.6	37.9	25.6	28.9	33.9	13.6	19.5	23.2	5.3	7.0	5.1	100	100	100
	시군부	N	763	521	390	317	367	357	192	212	175	52	62	35	1324	1162	957
		%	57.6	44.8	40.8	23.9	31.6	37.3	14.5	18.2	18.3	3.9	5.3	3.7	100	100	100
전체		N	1313	899	685	558	629	601	320	383	330	104	119	70	2295	2030	1686
		%	57.2	44.3	40.6	24.3	31.0	35.6	13.9	18.9	19.6	4.5	5.9	4.2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전자우편’사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자우편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은 2010년 18.5%에서 2014년 24.6%로 6.1%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16.9%에서 2014년 14.0%로 2.9%p 감소, 조손가정은 2010년 46.2%에서 2014년 33.3%로 1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자녀 가정과 조손가정 청소년의 전자우편 사용 빈도는 증가하는 한편,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전자우편 사용 빈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3>.



【그림 II-28】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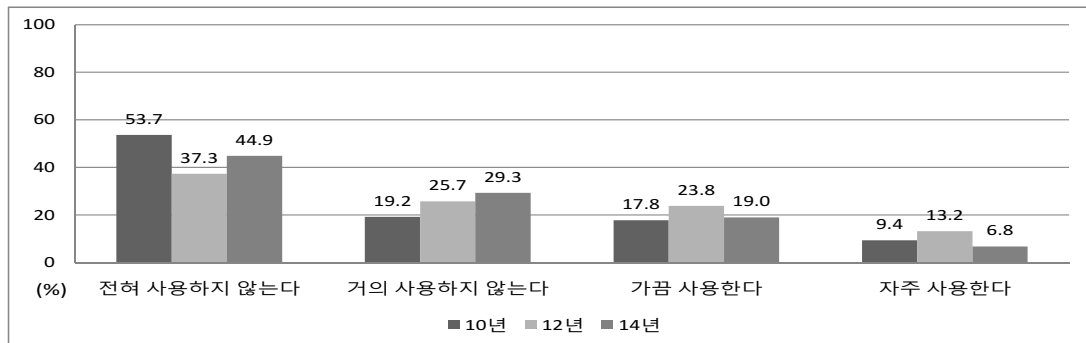
표 II-33 초4 패널- 전자우편(e-mail)(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N	1185	816	620	498	570	536	288	359	310	92	113	67	2063	1858	1533
	자녀	%	57.4	43.9	40.4	24.1	30.7	35.0	14.0	19.3	20.2	4.5	6.1	4.4	100	100	100
	한부모	N	119	72	60	53	47	57	25	21	16	10	5	3	207	145	136
	가정	%	57.5	49.7	44.1	25.6	32.4	41.9	12.1	14.5	11.8	4.8	3.4	2.2	100	100	100
	한부모	N	5	7	4	2	6	4	5	2	4	1	1	－	13	16	12
	가정	%	38.5	43.8	33.3	15.4	37.5	33.3	38.5	12.5	33.3	7.7	6.3	－	100	100	100
	기타	N	3	2	1	4	5	4	1	－	－	1	－	－	9	7	5
		%	33.3	28.6	20.0	44.4	71.4	80.0	11.1	－	－	11.1	－	－	100	100	100
전체	N	1312	897	685	557	628	601	319	382	330	104	119	70	2292	2026	1686	
	%	57.2	44.3	40.6	24.3	31.0	35.6	13.9	18.9	19.6	4.5	5.9	4.2	100	100	100	

⑥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도(중2) 시점의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와 ‘거의 활동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동호회 및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II-34>.

동호회 및 카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문항에서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27.2%에서 2014년 25.8%로,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동호회 및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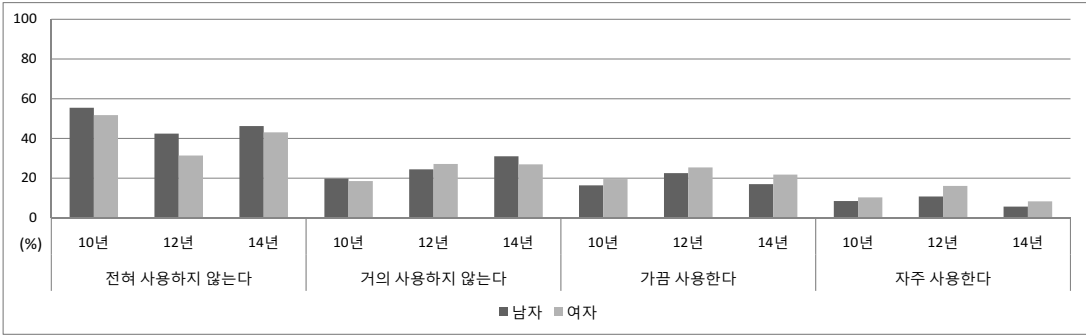
【그림 II-29】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표 II-34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232	53.7	774	37.3	773	44.9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440	19.2	532	25.7	505	29.3
가끔 사용한다	408	17.8	494	23.8	328	19.0
자주 사용한다	215	9.4	274	13.2	117	6.8
전체	2295	100	2074	100	1723	100

성별에 따라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남자 : 2010년 55.4% → 2014년 46.2%, 여자 : 2010년 51.7% → 2014년 43.0%)’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남자 : 2010년 19.8% → 2014년 31.0%, 여자 : 2010년 18.5% → 2014년 26.9%)’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35>.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문항에서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24.8%에서 2014년 22.7%로 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은 2010년 29.8%에서 2014년 30.1%로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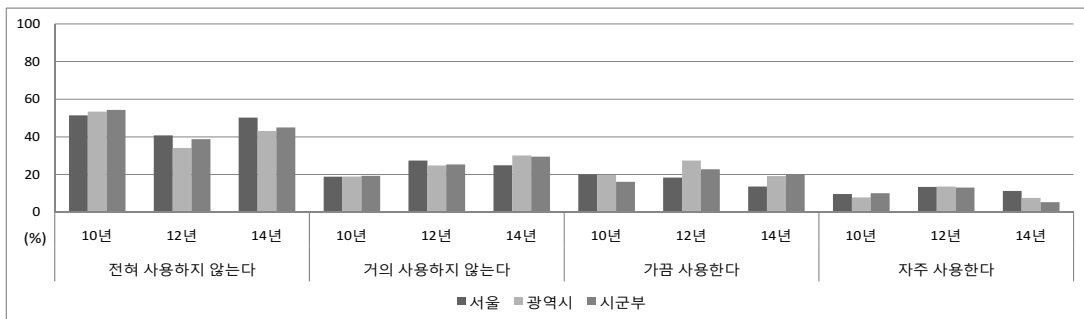
【그림 II-30】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성별)

표 II-35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672	472	462	240	271	310	197	250	170	103	119	57	1212	1112	999	
		%	55.4	42.4	46.2	19.8	24.4	31.0	16.3	22.5	17.0	8.5	10.7	5.7	100	100	100	
	여자	N	560	302	311	200	261	195	211	244	158	112	155	60	1083	962	724	
		%	51.7	31.4	43.0	18.5	27.1	26.9	19.5	25.4	21.8	10.3	16.1	8.3	100	100	100	
전체			N	1232	774	773	440	532	505	408	494	328	215	274	117	2295	2074	1723
			%	53.7	37.3	44.9	19.2	25.7	29.3	17.8	23.8	19.0	9.4	13.2	6.8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비슷하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36>.

동호회 및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29.8%에서 2014년 24.9%로 4.9%p 감소, 광역시는 2010년 27.7%에서 2014년 26.8%로 0.9%p 감소, 시군부는 2010년 26.3%에서 2014년 25.5%로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컴퓨터를 활용한 동호회 및 카페, 커뮤니티 활동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광역시와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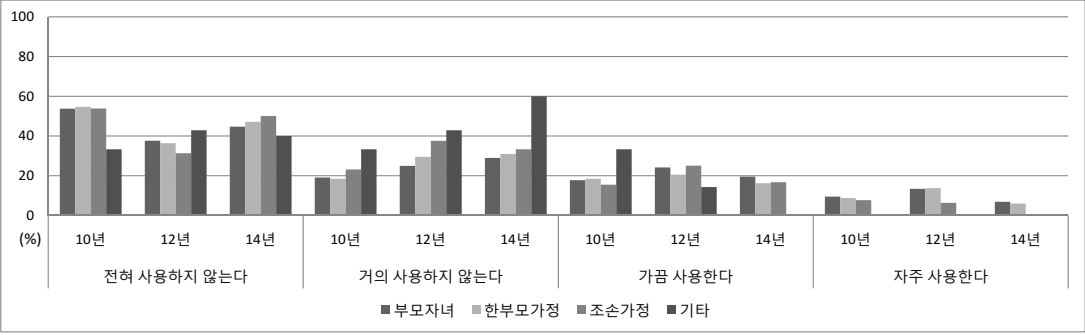
【그림 II-31】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지역별)

표 II-36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역	서울	N	133	91	89	49	61	44	52	41	24	25	30	20	259	223	177	
		%	51.4	40.8	50.3	18.9	27.4	24.9	20.1	18.4	13.6	9.7	13.5	11.3	100	100	100	
	광역시	N	380	220	238	135	160	166	141	177	106	56	88	42	712	645	552	
		%	53.4	34.1	43.1	19.0	24.8	30.1	19.8	27.4	19.2	7.9	13.6	7.6	100	100	100	
	시군부	N	719	451	431	256	295	282	215	265	193	134	152	51	1324	1163	957	
		%	54.3	38.8	45.0	19.3	25.4	29.5	16.2	22.8	20.2	10.1	13.1	5.3	100	100	100	
전체			N	1232	762	758	440	516	492	408	483	323	215	270	113	2295	2031	1686
			%	53.7	37.5	45.0	19.2	25.4	29.2	17.8	23.8	19.2	9.4	13.3	6.7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호회 및 카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은 2010년 27.2%에서 2014년 26.3%로 0.9%p 감소, 한부모 가정은 2010년 27.1%에서 2014년 22.1%로 5.0%p 감소, 조손가정은 2010년 23.1%에서 2014년 16.7%로 6.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를 활용한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7>. 특히 컴퓨터를 활용한 동호회 및 커뮤니티 활동 비율은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이 부모자녀 가정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2】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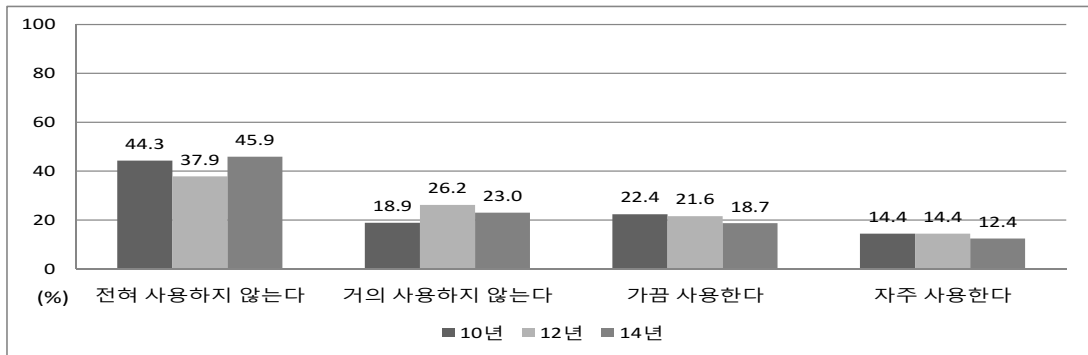
표 II-37 초4 패널-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자녀	N	1108	699	686	395	462	443	365	448	299	195	249	105	2063	1858	1533
		%	53.7	37.6	44.7	19.1	24.9	28.9	17.7	24.1	19.5	9.5	13.4	6.8	100	100	100
	한부모 가정	N	113	53	64	38	43	42	38	30	22	18	20	8	207	146	136
		%	54.6	36.3	47.1	18.4	29.5	30.9	18.4	20.5	16.2	8.7	13.7	5.9	100	100	100
	조손 가정	N	7	5	6	3	6	4	2	4	2	1	1	—	13	16	12
		%	53.8	31.3	50.0	23.1	37.5	33.3	15.4	25.0	16.7	7.7	6.3	—	100	100	100
	기타	N	3	3	2	3	3	3	3	1	—	—	—	—	9	7	5
		%	33.3	42.9	40.0	33.3	42.9	60.0	33.3	14.3	—	—	—	—	100	100	100
전체		N	1231	760	758	439	514	492	408	483	323	214	270	113	2292	2027	1686
		%	53.7	37.5	45.0	19.2	25.4	29.2	17.8	23.8	19.2	9.3	13.3	6.7	100	100	100

⑦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시점의 블로그 및 미니홈피와 같은 개인 홈페이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개인 홈페이지 활동을 위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문항에서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36.8%, 2012년 36.0% 2014년 31.1%로 5.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 홈페이지’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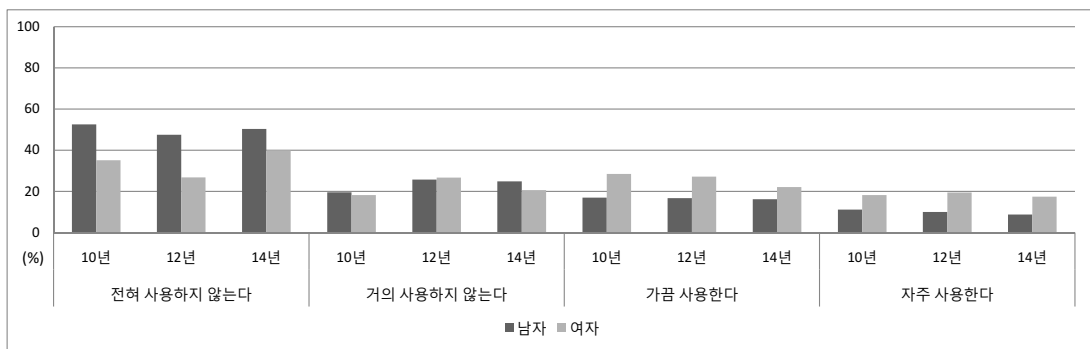
【그림 II-33】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표 II-38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016	44.3	786	37.9	791	45.9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433	18.9	543	26.2	397	23.0
가끔 사용한다	515	22.4	447	21.6	322	18.7
자주 사용한다	331	14.4	298	14.4	213	12.4
전체	2295	100	2074	100	1723	100

성별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활동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 홈페이지 활동’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28.1%에서 2014년 24.9%로 3.2%p 감소, 여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46.7%에서 2014년 39.5%로 7.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개인 홈페이지 활동에 대한 이용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를 활용한 개인 홈페이지 이용 비율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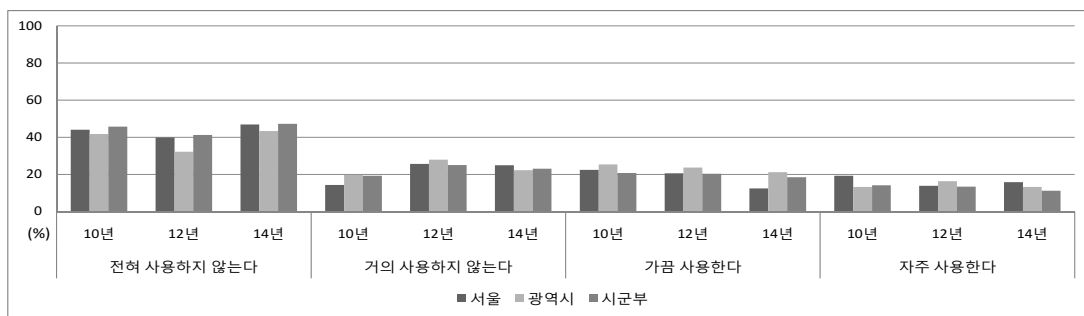
【그림 II -34】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성별)

표 II-39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636	528	502	236	286	248	206	186	162	134	111	87	1212	1111	999
		%	52.5	47.5	50.3	19.5	25.7	24.8	17.0	16.7	16.2	11.1	10.0	8.7	100	100	100
	여자	N	380	258	289	197	257	149	309	261	160	197	187	126	1083	963	724
		%	35.1	26.8	39.9	18.2	26.7	20.6	28.5	27.1	22.1	18.2	19.4	17.4	100	100	100
전체		N	1016	786	791	433	543	397	515	447	322	331	298	213	2295	2074	1723
		%	44.3	37.9	45.9	18.9	26.2	23.0	22.4	21.6	18.7	14.4	14.4	12.4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 활동’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40>.

지역별 연도별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41.7%에서 2014년 28.2%로 13.5%p 감소, 광역시는 2010년 38.6%에서 2014년 34.4%로 4.2%p 감소, 시군부는 2010년 34.9%에서 2014년 29.7%로 5.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개인 홈페이지’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소 비율은 광역시와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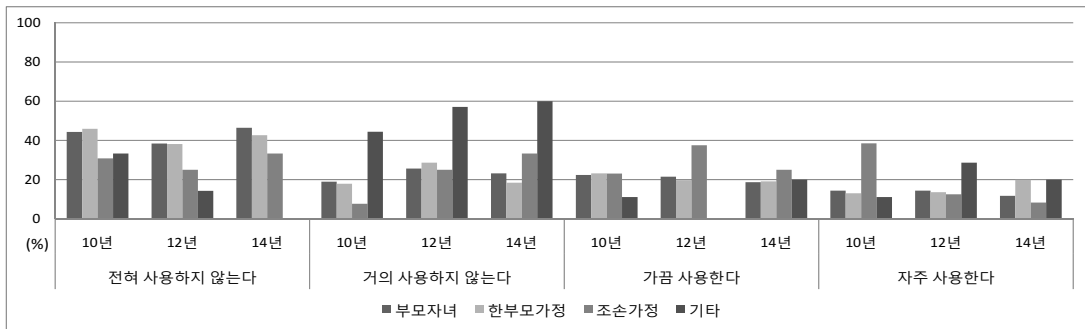
【그림 II-35】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지역별)

표 II-40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 역	서울	N	114	89	83	37	57	44	58	46	22	50	31	28	259	223	177	
		%	44.0	39.9	46.9	14.3	25.6	24.9	22.4	20.6	12.4	19.3	13.9	15.8	100	100	100	
	광역시	N	297	208	239	140	180	123	181	153	117	94	105	73	712	646	552	
		%	41.7	32.2	43.3	19.7	27.9	22.3	25.4	23.7	21.2	13.2	16.3	13.2	100	100	100	
	시군부	N	605	479	452	256	291	221	276	236	177	187	156	107	1324	1162	957	
		%	45.7	41.2	47.2	19.3	25.0	23.1	20.8	20.3	18.5	14.1	13.4	11.2	100	100	100	
전체			N	1016	776	774	433	528	388	515	435	316	331	292	208	2295	2031	1686
			%	44.3	38.2	45.9	18.9	26.0	23.0	22.4	21.4	18.7	14.4	14.4	12.3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 활동’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41>.

‘개인 홈페이지’이용에 대한 문항에서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의 경우 2010년 36.8%에서 2014년 30.4%로 6.4%p 감소, 조손가정 청소년은 2010년 61.6%에서 2014년 33.3%로 28.3%p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2010년 36.2%에서 2014년 39.0%로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를 활용한 ‘개인 홈페이지’이용 비율은 부모자녀 가정과 조손가정 청소년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6】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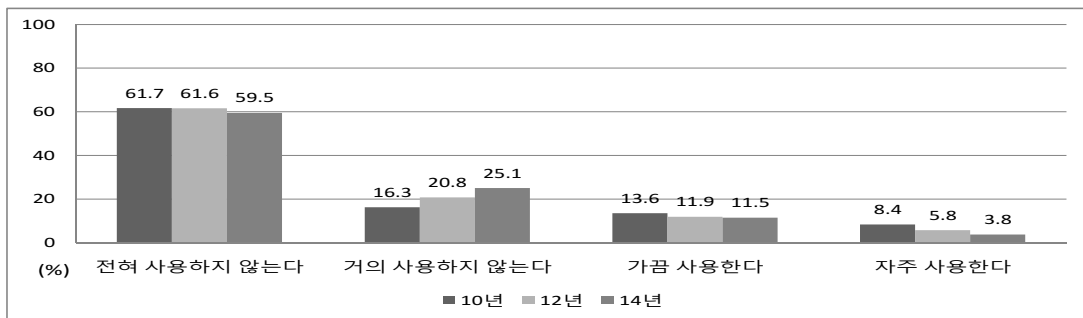
표 II-41 초4 패널-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N	913	714	712	390	476	356	462	399	286	298	268	179	2063	1857	1533
	자녀	%	44.3	38.4	46.4	18.9	25.6	23.2	22.4	21.5	18.7	14.4	14.4	11.7	100	100	100
	한부모	N	95	56	58	37	42	25	48	29	26	27	20	27	207	147	136
	가정	%	45.9	38.1	42.6	17.9	28.6	18.4	23.2	19.7	19.1	13.0	13.6	19.9	100	100	100
	조손	N	4	4	4	1	4	4	3	6	3	5	2	1	13	16	12
	가정	%	30.8	25.0	33.3	7.7	25.0	33.3	23.1	37.5	25.0	38.5	12.5	8.3	100	100	100
	기타	N	3	1	-	4	4	3	1	-	1	1	2	1	9	7	5
		%	33.3	14.3	-	44.4	57.1	60.0	11.1	-	20.0	11.1	28.6	20.0	100	100	100
전체			N 1015	775	774	432	526	388	514	434	316	331	292	208	2292	2027	1686
			% 44.3	38.2	45.9	18.8	25.9	23.0	22.4	21.4	18.7	14.4	14.4	12.3	100	100	100

⑧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시점의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2010년 61.7%, 2012년 61.6%, 2014년 59.5%)’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I-42>.

온라인에서 물품, 게임 등 사고팔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22.0%, 2012년 17.7%, 2014년 15.3%로, 6.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온라인에서 물품 사고팔기를 위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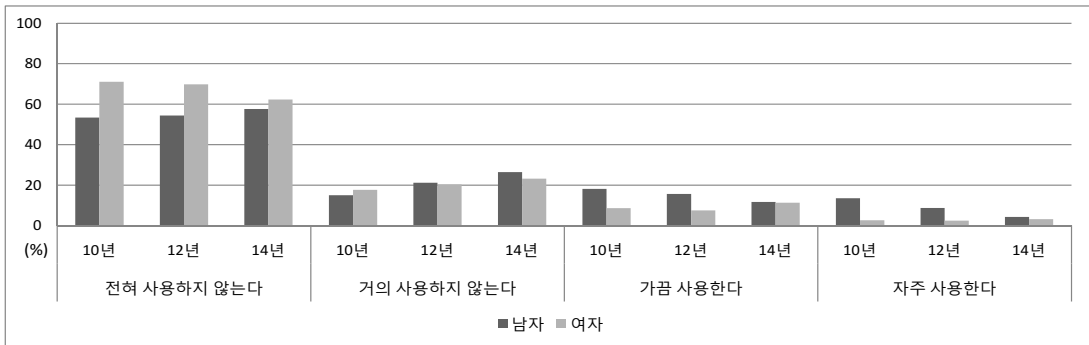
【그림 II-37】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표 II-42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417	61.7	1276	61.6	1026	59.5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74	16.3	431	20.8	432	25.1
가끔 사용한다	312	13.6	246	11.9	199	11.5
자주 사용한다	192	8.4	120	5.8	66	3.8
전체	2295	100	2073	100	1723	100

성별에 따라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남자 : 53.4% → 54.4% → 57.6%, 여자 : 71.1% → 69.8% → 62.3%)’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낮은 이용 빈도를 알 수 있다<표 II-43>.

온라인에서 물품, 게임 등 사고팔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31.6%에서 2014년 16.0%로 15.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은 2010년 11.2%에서 2014년 14.5%로 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에서의 물품 사고팔기 비율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감소 경향을, 여자 청소년은 증가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II-38】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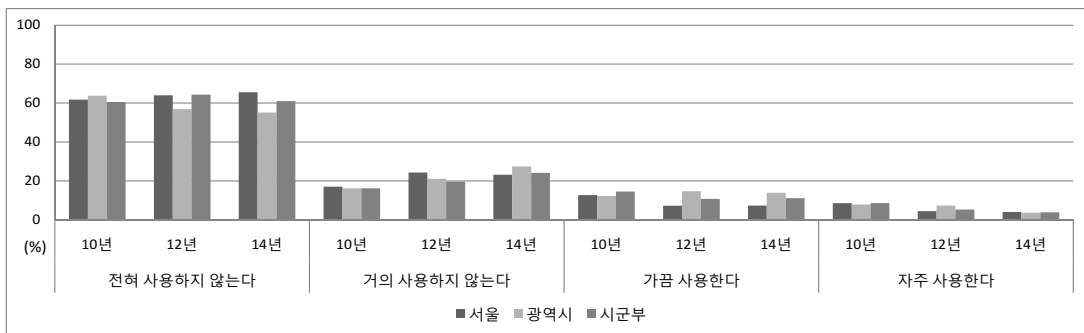
표 II-43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별 성	남자	N	647	605	575	182	236	264	219	174	117	164	97	43	1212	1112	999	
		%	53.4	54.4	57.6	15.0	21.2	26.4	18.1	15.6	11.7	13.5	8.7	4.3	100	100	100	
	여자	N	770	671	451	192	195	168	93	72	82	28	23	23	1083	961	724	
		%	71.1	69.8	62.3	17.7	20.3	23.2	8.6	7.5	11.3	2.6	2.4	3.2	100	100	100	
전체			N	1417	1276	1026	374	431	432	312	246	199	192	120	66	2295	2073	1723
			%	61.7	61.6	59.5	16.3	20.8	25.1	13.6	11.9	11.5	8.4	5.8	3.8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I-44>.

온라인에서 물품, 게임 등 사고팔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21.2%에서 2014년 11.3%로 9.9%p 감소, 광역시는 2010년 20.1%에서 2014년 17.5%로 2.6%p 감소, 시군부는 2010년 23.1%에서 2014년 14.9%로 8.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온라인에서의 물품 사고팔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 양상을 나타냈으며, 특히 서울과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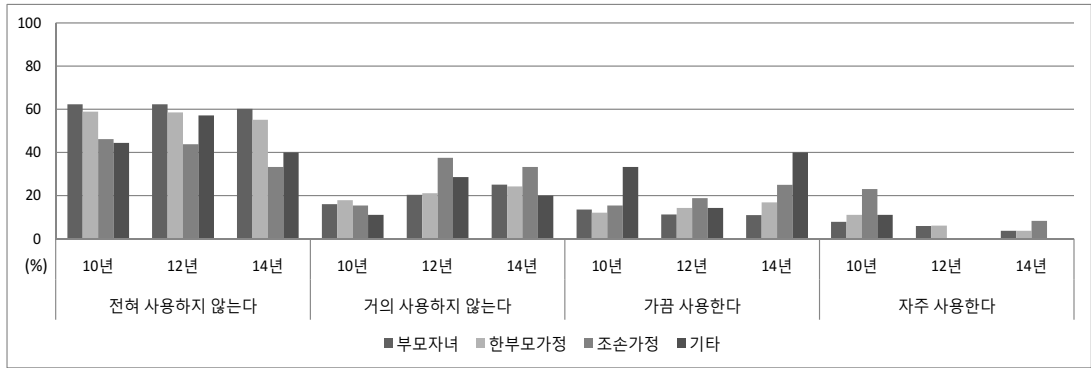
【그림 II-39】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지역별)

표 II-44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 역	서울	N	160	142	116	44	54	41	33	16	13	22	10	7	259	222	177
		%	61.8	64.0	65.5	17.0	24.3	23.2	12.7	7.2	7.3	8.5	4.5	4.0	100	100	100
	광역시	N	454	367	304	115	136	151	87	95	77	56	47	20	712	645	552
		%	63.8	56.9	55.1	16.2	21.1	27.4	12.2	14.7	13.9	7.9	7.3	3.6	100	100	100
	시군부	N	803	748	584	215	228	231	192	125	106	114	62	36	1324	1163	957
		%	60.6	64.3	61.0	16.2	19.6	24.1	14.5	10.7	11.1	8.6	5.3	3.8	100	100	100
전체		N	1417	1257	1004	374	418	423	312	236	196	192	119	63	2295	2030	1686
		%	61.7	61.9	59.5	16.3	20.6	25.1	13.6	11.6	11.6	8.4	5.9	3.7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온라인에서 물품 사고팔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물품, 게임 등 사고팔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의 경우 2010년 21.5%에서 2014년 14.7%로 6.8%p 감소, 한부모 가정은 2010년 23.2%에서 2014년 20.6%로 2.6%p 감소, 조손가정은 2010년 38.5%에서 2014년 33.3%로 5.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모든 가정에서 감소 양상을 나타냈고, 특히 부모자녀 가정과 조손가정 청소년은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45>.



【그림 II-40】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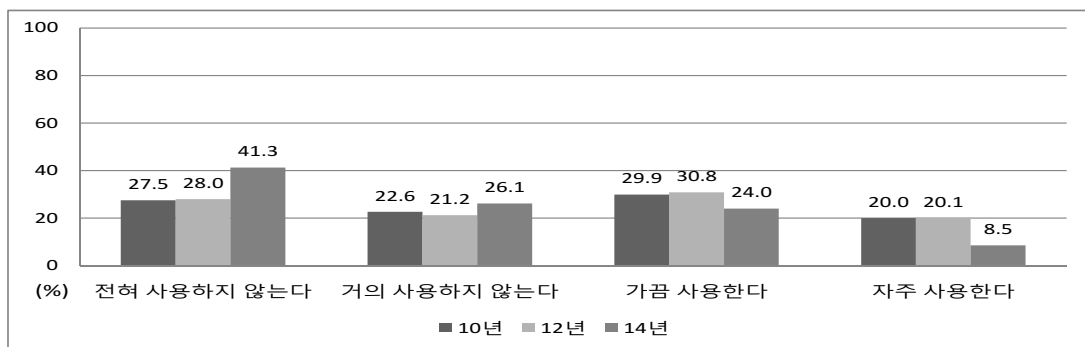
표 II-45 초4 패널-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자녀	N	1285	1157	923	333	379	385	281	210	168	164	110	57	2063	1856	1533
		%	62.3	62.3	60.2	16.1	20.4	25.1	13.6	11.3	11.0	7.9	5.9	3.7	100	100	100
	한부모 가정	N	122	86	75	37	31	33	25	21	23	23	9	5	207	147	136
		%	58.9	58.5	55.1	17.9	21.1	24.3	12.1	14.3	16.9	11.1	6.1	3.7	100	100	100
	조손 가정	N	6	7	4	2	6	4	2	3	3	3	—	1	13	16	12
		%	46.2	43.8	33.3	15.4	37.5	33.3	15.4	18.8	25.0	23.1	—	8.3	100	100	100
	기타	N	4	4	2	1	2	1	3	1	2	1	—	—	9	7	5
		%	44.4	57.1	40.0	11.1	28.6	20.0	33.3	14.3	40.0	11.1	—	—	100	100	100
전체	N	1417	1254	1004	373	418	423	311	235	196	191	119	63	2292	2026	1686	
	%	61.8	61.9	59.5	16.3	20.6	25.1	13.6	11.6	11.6	8.3	5.9	3.7	100	100	100	

⑨ 댓글 달기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도(중2) 시점의 ‘댓글달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2010년 61.7%, 2012년 61.6%, 2014년 59.5%)’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I-46>.

‘댓글 달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49.9%, 2012년 50.9%, 2014년 32.5%로 17.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댓글달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1】 초4 패널- 댓글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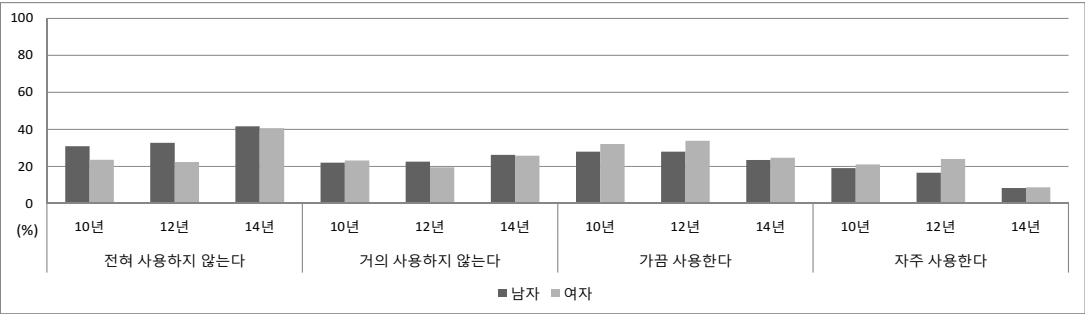
표 II-46 초4 패널- 댓글 달기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631	27.5	580	28.0	712	41.3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518	22.6	439	21.2	450	26.1
가끔 사용한다	687	29.9	638	30.8	414	24.0
자주 사용한다	459	20.0	417	20.1	147	8.5
전체	2295	100	2074	100	1723	100

성별에 따라 ‘댓글 달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47>.

‘댓글 달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47.1%에서 2014년 31.9%로 15.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은 2010년 53.2%에서 2014년 33.4%로 19.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녀 청소년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2】 초4 패널- 댓글 달기(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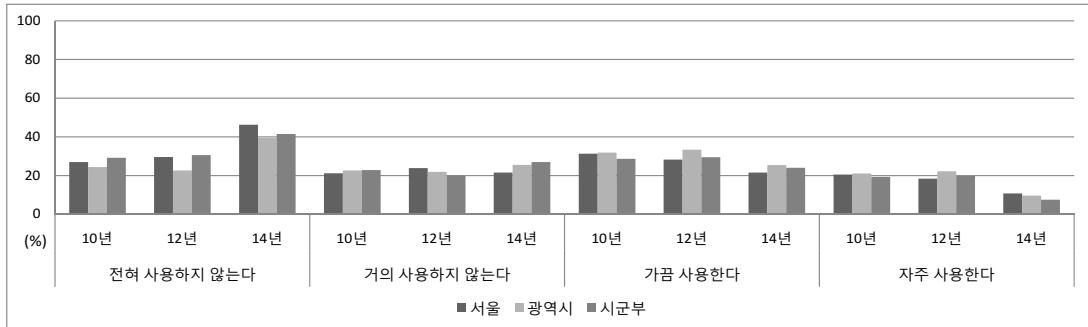
표 II-47 초4 패널- 댓글 달기(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375	365	417	267	251	263	339	312	235	231	185	84	1212	1113	999
		%	30.9	32.8	41.7	22.0	22.6	26.3	28.0	28.0	23.5	19.1	16.6	8.4	100	100	100
	여자	N	256	215	295	251	188	187	348	326	179	228	232	63	1083	961	724
		%	23.6	22.4	40.7	23.2	19.6	25.8	32.1	33.9	24.7	21.1	24.1	8.7	100	100	100
전체		N	631	580	712	518	439	450	687	638	414	459	417	147	2295	2074	1723
		%	27.5	28.0	41.3	22.6	21.2	26.1	29.9	30.8	24.0	20.0	20.1	8.5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댓글 달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와 ‘가끔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댓글달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51.8%에서 2014년 32.3%로 19.6%p 감소, 광역시는 2010년 53.0%에서 2014년 35.0%로 18.0%p 감소, 시군부는 2010년 47.9%에서

2014년 31.5%로 16.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댓글달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48>.



【그림 II-43】 초4 패널- 댓글 달기(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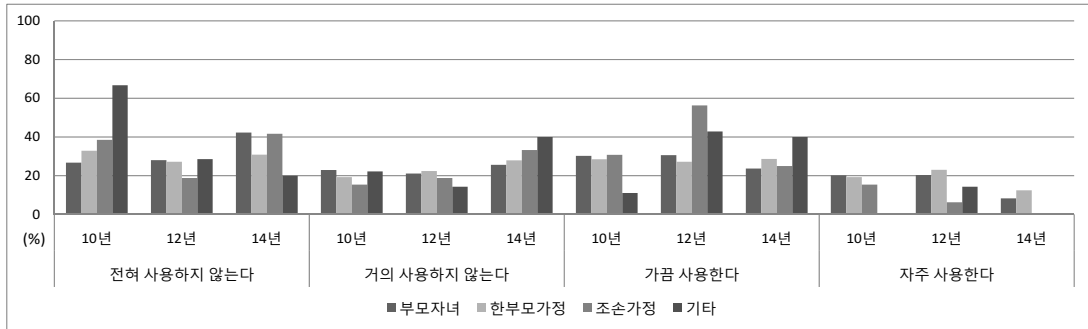
표 II-48 초4 패널- 댓글 달기(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 역	서울	N	70	66	82	55	53	38	81	63	38	53	41	19	259	223	177
		%	27.0	29.6	46.3	21.2	23.8	21.5	31.3	28.3	21.5	20.5	18.4	10.7	100	100	100
	광역시	N	174	146	218	161	141	141	227	215	140	150	143	53	712	645	552
		%	24.4	22.6	39.5	22.6	21.9	25.5	31.9	33.3	25.4	21.1	22.2	9.6	100	100	100
	시군부	N	387	356	397	302	234	258	379	343	230	256	230	72	1324	1163	957
		%	29.2	30.6	41.5	22.8	20.1	27.0	28.6	29.5	24.0	19.3	19.8	7.5	100	100	100
전체		N	631	568	697	518	428	437	687	621	408	459	414	144	2295	2031	1686
		%	27.5	28.0	41.3	22.6	21.1	25.9	29.9	30.6	24.2	20.0	20.4	8.5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댓글 달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용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II-49>.

댓글달기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의 경우 2010년 50.4%에서 2014년 32.0%로 18.4%p 감소, 한부모자녀 가정 청소년은 2010년 47.8%에서 2014년 41.2%로 6.6%p 감소, 조손가정 청소년은 2010년 46.2%에서 2014년 25.0%로 21.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댓글달기’를 위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조손가정 청소년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모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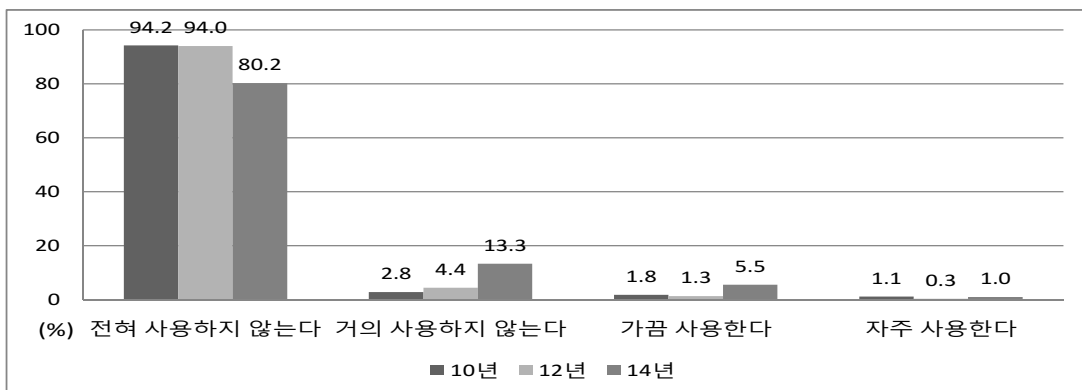
【그림 II-44】 초4 패널- 댓글 달기(가족구성별)

표 II-49 초4 패널- 댓글 달기(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자녀	N	551	520	649	474	391	393	622	568	364	416	378	127	2063	1857	1533
		%	26.7	28.0	42.3	23.0	21.1	25.6	30.2	30.6	23.7	20.2	20.4	8.3	100	100	100
	한부모 가정	N	68	40	42	40	33	38	59	40	39	40	34	17	207	147	136
		%	32.9	27.2	30.9	19.3	22.4	27.9	28.5	27.2	28.7	19.3	23.1	12.5	100	100	100
	조손 가정	N	5	3	5	2	3	4	4	9	3	2	1	—	13	16	12
		%	38.5	18.8	41.7	15.4	18.8	33.3	30.8	56.3	25.0	15.4	6.3	—	100	100	100
	기타	N	6	2	1	2	1	2	1	3	2	—	1	—	9	7	5
		%	66.7	28.6	20.0	22.2	14.3	40.0	11.1	42.9	40.0	—	14.3	—	100	100	100
전체	N	630	565	697	518	428	437	686	620	408	458	414	144	2292	2027	1686	
	%	27.5	27.9	41.3	22.6	21.1	25.9	29.9	30.6	24.2	20.0	20.4	8.5	100	100	100	

⑩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도(중2) 시점의 컴퓨터 사용 형태와 관련하여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2010년 94.2% → 2012년 94.0% → 2014년 80.2%)’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사용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II-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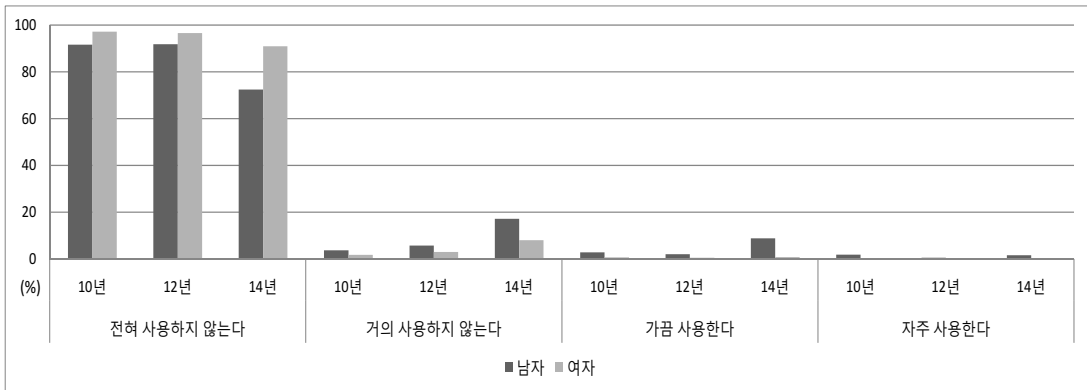
【그림 II-45】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표 II-50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162	94.2	1948	94.0	1381	80.2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65	2.8	92	4.4	230	13.3
가끔 사용한다	42	1.8	27	1.3	94	5.5
자주 사용한다	26	1.1	6	0.3	18	1.0
전체	2295	100	2073	100	1723	100

성별에 따라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남자 : 2010년 91.6% → 2014년 72.4%, 여자 : 2010년 97.1% → 2014년 90.9%)’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4.7%에서 2014년 10.4%로 5.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1.0%에서 2014년 1.1%p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남자 청소년의 19세 이상 사이트 접속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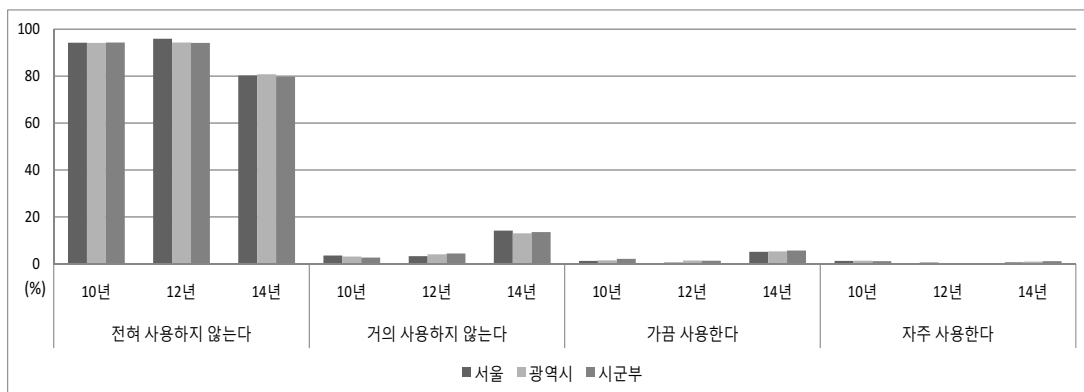
【그림 II-46】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성별)

표 II-51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1110	1022	723	45	63	172	34	22	88	23	6	16	1212	1113	999	
		%	91.6	91.8	72.4	3.7	5.7	17.2	2.8	2.0	8.8	1.9	0.5	1.6	100	100	100	
	여자	N	1052	926	658	20	29	58	8	5	6	3	—	2	1083	960	724	
		%	97.1	96.5	90.9	1.8	3.0	8.0	0.7	0.5	0.8	0.3	—	0.3	100	100	100	
전체			N	2162	1948	1381	65	92	230	42	27	94	26	6	18	2295	2073	1723
			%	94.2	94.0	80.2	2.8	4.4	13.3	1.8	1.3	5.5	1.1	0.3	1.0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연도별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2.4%에서 2014년 5.7%로 3.3%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2.8%에서 2014년 6.2%로 3.4%p 증가, 시군부는 2010년 3.2%에서 2014년 6.7%로 3.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비율로 증가 경향을 나타냈다<표 II-52>.



【그림 II-47】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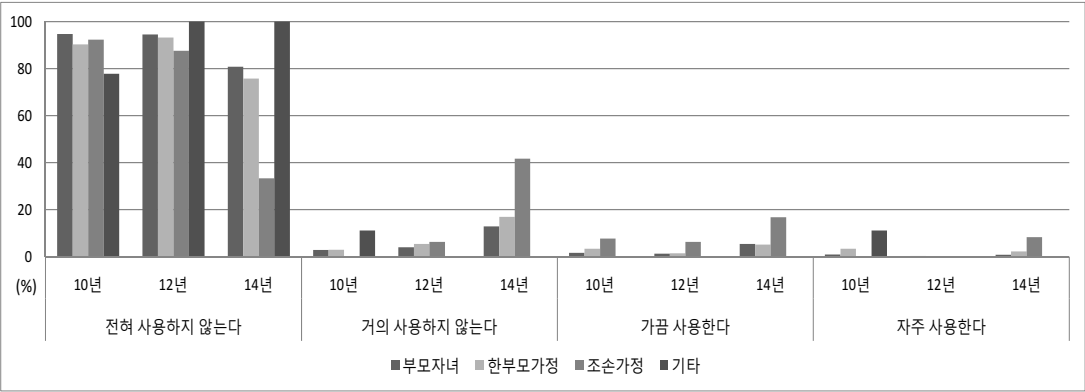
표 II-52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역	서울	N	244	213	142	9	7	25	3	1	9	3	1	1	259	222	177	
		%	94.2	95.9	80.2	3.5	3.2	14.1	1.2	0.5	5.1	1.2	0.5	0.6	100	100	100	
	광역시	N	670	609	446	22	26	72	11	9	29	9	2	5	712	646	552	
		%	94.1	94.3	80.8	3.1	4.0	13.0	1.5	1.4	5.3	1.3	0.3	0.9	100	100	100	
	시군부	N	1248	1093	763	34	51	129	28	15	54	14	3	11	1324	1162	957	
		%	94.3	94.1	79.7	2.6	4.4	13.5	2.1	1.3	5.6	1.1	0.3	1.1	100	100	100	
전체			N	2162	1915	1351	65	84	226	42	25	92	26	6	17	2295	2030	1686
			%	94.2	94.3	80.1	2.8	4.1	13.4	1.8	1.2	5.5	1.1	0.3	1.0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부모자녀 가정 : 2010년 94.7% → 2014년 80.8%, 한부모 가정 : 2010년 90.3% → 2014년 75.7%, 조손가정 : 2010년 92.3% → 2014년 33.3%)’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의 경우 2010년 2.5%에서 2014년 6.2%로 3.7%p 감소, 한부모 가정은 2010년 6.8%에서 2014년 7.3%로 0.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손가정은 2010년 7.7%에서 2014년 25.0%로 17.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변화에 따라 가족구성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19세 이상 사이트 접속을 위한 컴퓨터 활용 비율은 부모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감소 경향을, 조손가정 청소년은 증가 경향을 나타냈다<표 II-53>.



【그림 II-48】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가족구성별)

표 II-53 초4 패널-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자녀	N	1953	1754	1239	58	75	198	34	22	83	18	5	13	2063	1856	1533
		%	94.7	94.5	80.8	2.8	4.0	12.9	1.6	1.2	5.4	0.9	0.3	0.8	100	100	100
	한부모 가정	N	187	137	103	6	8	23	7	2	7	7	—	3	207	147	136
		%	90.3	93.2	75.7	2.9	5.4	16.9	3.4	1.4	5.1	3.4	—	2.2	100	100	100
	조손 가정	N	12	14	4	—	1	5	1	1	2	—	—	1	13	16	12
		%	92.3	87.5	33.3	—	6.3	41.7	7.7	6.3	16.7	—	—	8.3	100	100	100
	기타	N	7	7	5	1	—	—	—	—	—	1	—	—	9	7	5
		%	77.8	100	100	11.1	—	—	—	—	—	11.1	—	—	100	100	100
전체		N	2159	1912	1351	65	84	226	42	25	92	26	5	17	2292	2026	1686
		%	94.2	94.4	80.1	2.8	4.1	13.4	1.8	1.2	5.5	1.1	0.2	1.0	100	100	100

제 III 장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추이분석

1. 초4 패널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추이

제 III 장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추이분석*

1. 초4 패널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추이

본 장에서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초4 패널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시점(1차),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시점(3차),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시점(5차)에서 측정한 휴대전화 보유 및 사용 형태, 휴대전화 사용 빈도 및 의존도에 대해 배경 변인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주요 변수로 1)휴대전화 보유여부, 2)휴대전화 이용 빈도(① 가족과의 통화, ②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③ 친구와의 통화, ④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⑤ 게임 및 오락, ⑥ 사진 촬영, ⑦ 동영상 감상, ⑧ 음악 듣기, ⑨ 시간 보기), 3) 휴대전화 의존도(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②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③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④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⑥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⑦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를 활용하였고, 배경 변인에 따른 수준별 분석을 위해 1) 성별, 2) 지역, 3) 가족구성 등의 요인을 투입하여 변인 수준 별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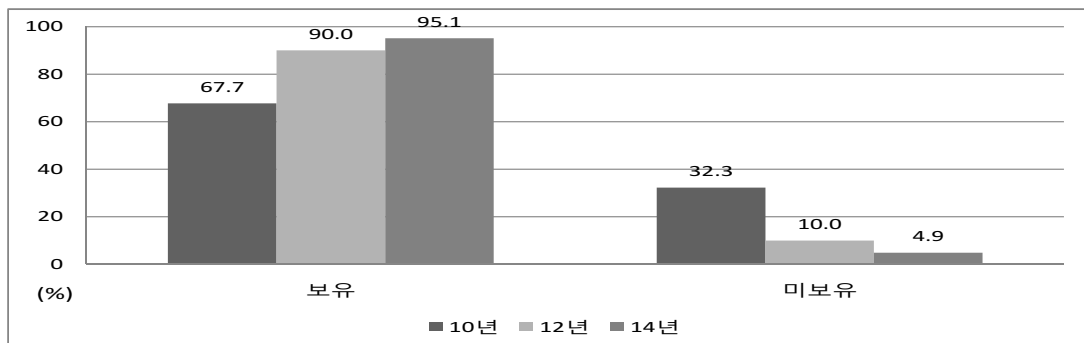
1)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및 사용 형태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보유여부 및 사용 실태에 대한 종단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장은 한지형 전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1)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 여부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도(중2) 시점의 ‘청소년 휴대전화 보유율’을 살펴보면, 2010년 67.7%, 2012년 90.0%, 2014년 95.1%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휴대전화 보유율이 증가하는(27.4%p)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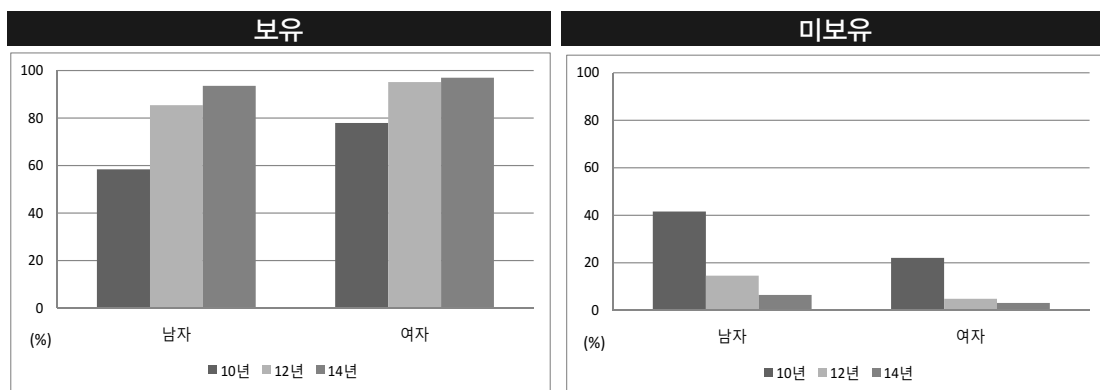


【그림 III-1】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표 III-1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유	1609	67.7	1996	90.0	1969	95.1
미보유	769	32.3	223	10.0	101	4.9
전체	2378	100	2219	100	2070	100

휴대전화 보유율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2014년 97.0%)이 남자 청소년(2014년 93.4%)에 비해 휴대전화 보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보유율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이 2010년 58.4%, 2012년 85.4%, 2014년 93.4%로 35.0%p 증가하였고, 여자 청소년은 2010년 77.9%, 2012년 95.1%, 2014년 97.0%로 19.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청소년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보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휴대전화 보유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I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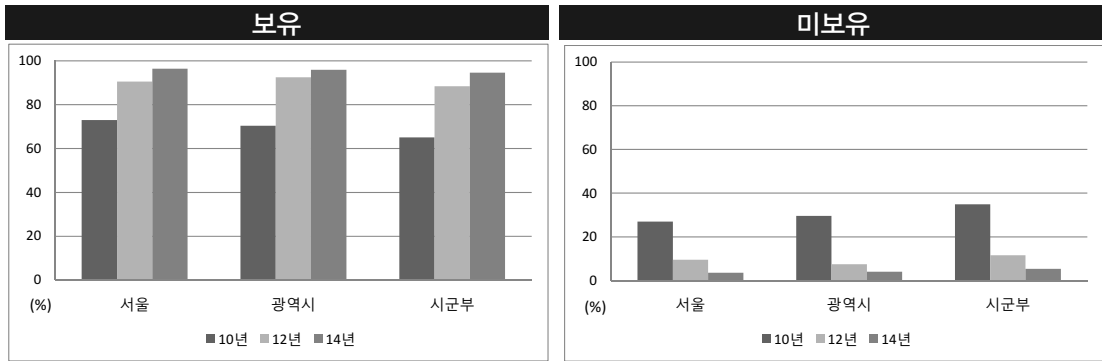
【그림 III-2】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성별)

표 III-2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성별)

항목			보유			미보유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별	남자	N	725	997	1017	517	171	72	1242	1168	1089
		%	58.4	85.4	93.4	41.6	14.6	6.6	100	100	100
	여자	N	884	999	952	252	52	29	1136	1051	981
		%	77.9	95.1	97.0	22.2	4.9	3.0	100	100	100
전체	N		1609	1996	1969	769	223	101	2378	2219	2070
	%		67.7	90.0	95.1	32.3	10.0	4.9	100	100	100

휴대전화 보유율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2014년 96.4%)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광역시(2014년 95.9%)나 시군부(2014년 94.6%)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대전화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73.0%, 2012년 90.5%, 2014년 96.4%로 23.4%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70.4%, 2012년 92.5%, 2014년 95.9%로 25.5%p 증가, 시군부는 2010년 65.1%, 2012년 88.4%, 2014년 94.6%로 29.4%p 증가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보유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율 증가 정도는 시군부(29.4%p)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서울(23.4%p)과 광역시(25.5%p)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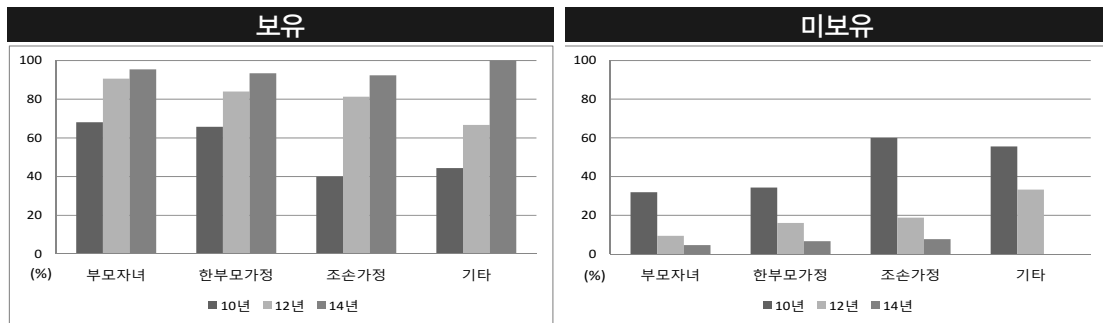
【그림 III-3】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지역별)

표 III-3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지역별)

항목			보유			미보유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 역	서울	N	200	220	216	74	23	8	274	243	224
		%	73.0	90.5	96.4	27.0	9.5	3.6	100	100	100
	광역시	N	516	629	603	217	51	26	733	680	629
		%	70.4	92.5	95.9	29.6	7.5	4.1	100	100	100
	시군부	N	893	1103	1103	478	145	63	1371	1248	1166
		%	65.1	88.4	94.6	34.9	11.6	5.4	100	100	100
전체		N	1609	1952	1922	769	219	97	2378	2171	2019
		%	67.7	89.9	95.2	32.3	10.1	4.8	100	100	100

휴대전화 보유율은 부모자녀 가정(2014년 95.4%) 청소년이 한부모 가정(2014년 93.4%)이나 조손가정(2014년 9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은 2010년 68.1%, 2012년 90.6%, 2014년 95.4%로 27.3%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65.7%, 2012년 84.0%, 2014년 93.4%로 27.7%p 증가, 조손가정은 2010년 40.0%, 2012년 81.3%, 2014년 92.3%로 52.3%p 증가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휴대전화 보유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 특히 휴대전화 보유율의 증가 정도는 조손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가족구성별)

표 III-4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가족구성별)

항목			보유			미보유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 족 구 성	부모 자녀	N	1457	1793	1749	681	187	85	2138	1980	1834
		%	68.1	90.6	95.4	31.9	9.4	4.6	100	100	100
	한부모 가정	N	140	136	155	73	26	11	213	162	166
		%	65.7	84.0	93.4	34.3	16.0	6.6	100	100	100
	조손 가정	N	6	13	12	9	3	1	15	16	13
		%	40.0	81.3	92.3	60.0	18.8	7.7	100	100	100
	기타	N	4	6	6	5	3	—	9	9	6
		%	44.4	66.7	100	55.6	33.3	—	100	100	100
전체	N	1607	1948	1922	768	219	97	2375	2167	2019	
	%	67.7	89.9	95.2	32.3	10.1	4.8	100	100	100	

(2) 초4 패널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 변화

휴대전화 이용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초4 패널의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도(중2) 시점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 관련 9가지 항목을 ‘사용한다’와 ‘사용하지 않는다’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III-5>와 같다²⁾.

2) 휴대전화 사용 형태 관련 9문항은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자주 사용한다 1점 가끔 사용한다 2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4점)로 이용 빈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9문항 모두 역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들 문항의 점수를 역코딩한 후(자주 사용한다 4점 가끔 사용한다 3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4점),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와 ‘가끔 사용한다’의 합)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의 합)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2014년 96.2%)’, ‘가족과의 통화(2014년 94.0%)’, ‘친구와의 통화(2014년 93.5%)’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통화’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 빈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와 ‘친구와의 통화’는 반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용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초4 패널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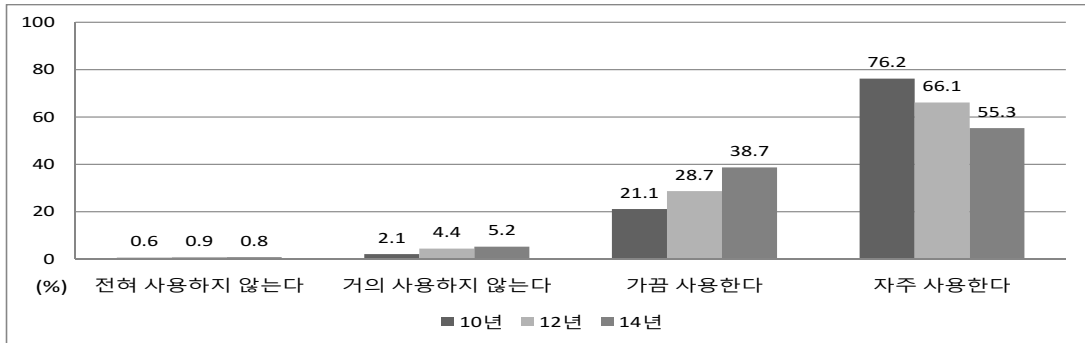
항목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과의 통화	N	1566	1892	1851	43	104	118	1609	1996	1969
	%	97.3	94.8	94.0	2.7	5.2	6.0	100	100	100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N	1355	1700	1692	254	296	277	1609	1996	1969
	%	84.2	85.2	85.9	15.8	14.8	14.1	100	100	100
친구와의 통화	N	1294	1817	1841	315	178	128	1609	1995	1969
	%	80.4	91.1	93.5	19.6	8.9	6.5	100	100	100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N	1266	1833	1894	343	162	75	1609	1995	1969
	%	78.7	91.9	96.2	21.3	8.1	3.8	100	100	100
게임 및 오락	N	678	1487	1430	931	508	539	1609	1995	1969
	%	42.1	74.5	72.6	57.9	25.5	27.4	100	100	100
사진 촬영	N	998	1352	1435	611	644	534	1609	1996	1969
	%	62.0	67.7	72.9	38.0	32.3	27.1	100	100	100
동영상 감상	N	472	936	1403	1137	1059	566	1609	1995	1969
	%	29.3	46.9	71.3	70.7	53.1	28.7	100	100	100
음악 듣기	N	795	1538	1780	814	456	189	1609	1994	1969
	%	49.4	77.1	90.4	50.6	22.9	9.6	100	100	100
시간 보기	N	1476	1811	1830	133	184	139	1609	1995	1969
	%	91.7	90.8	92.9	8.3	9.2	7.1	100	100	100

① 가족과의 통화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시점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와 관련하여 ‘가족과의 통화’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76.2%, 2012년 66.1%, 2014년 55.3%로 20.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과의 통화’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용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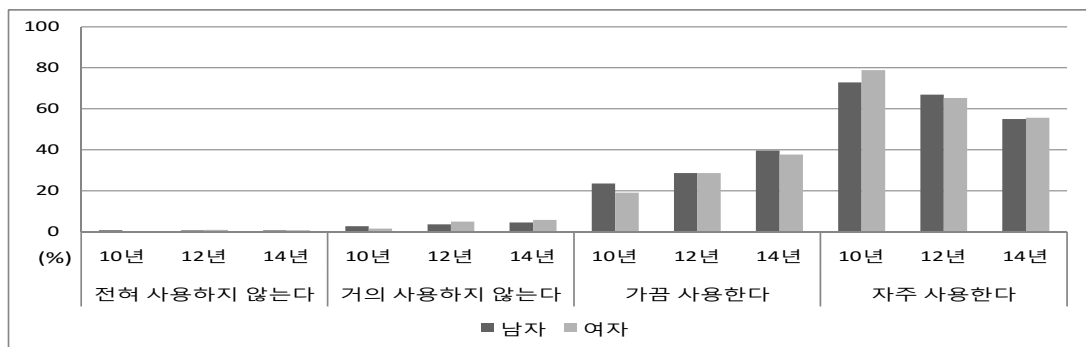
【그림 III-5】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

표 III-6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9	0.6	17	0.9	15	0.8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4	2.1	87	4.4	103	5.2
가끔 사용한다	340	21.1	573	28.7	762	38.7
자주 사용한다	1226	76.2	1319	66.1	1089	55.3
전체	1609	100	1996	100	1969	100

성별에 따라 ‘가족과의 통화’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자주 사용한다(2014년 : 남자 55.0%, 여자 55.7%)’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72.9%, 2012년 66.9%, 2014년 55.0%로 17.9%p 감소하였고, 여자 청소년도 2010년 78.9%, 2012년 65.3%, 2014년 55.7%로 2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 청소년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빈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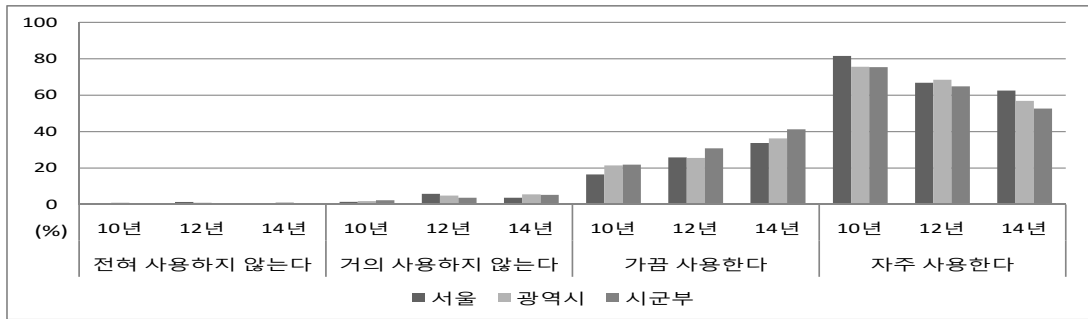
【그림 III-6】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성별)

표 III-7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6	7	7	20	37	47	171	286	404	529	667	559	726	997	1017	
		%	0.8	0.7	0.7	2.8	3.7	4.6	23.6	28.7	39.7	72.9	66.9	55.0	100	100	100	
	여자	N	3	10	8	14	50	56	169	287	358	697	652	530	883	999	952	
		%	0.3	1.0	0.8	1.6	5.0	5.9	19.1	28.7	37.6	78.9	65.3	55.7	100	100	100	
전체			N	9	17	15	34	87	103	340	573	762	1226	1319	1089	1609	1996	1969
			%	0.6	0.9	0.8	2.1	4.4	5.2	21.1	28.7	38.7	76.2	66.1	55.3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가족과의 통화’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2014년 : 서울 62.5%, 광역시 56.9%, 시군부 52.7%)’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가족과의 통화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광역시나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81.5%, 2012년 66.8%, 2014년 62.5%로 19.0%p 감소, 광역시는 2010년 75.6%, 2012년 68.5%, 2014년 56.9%로 18.7%p 감소, 시군부는 2010년 75.4%, 2012년 64.9%, 2014년 52.7%로 22.7%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 비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비율의 감소는 서울이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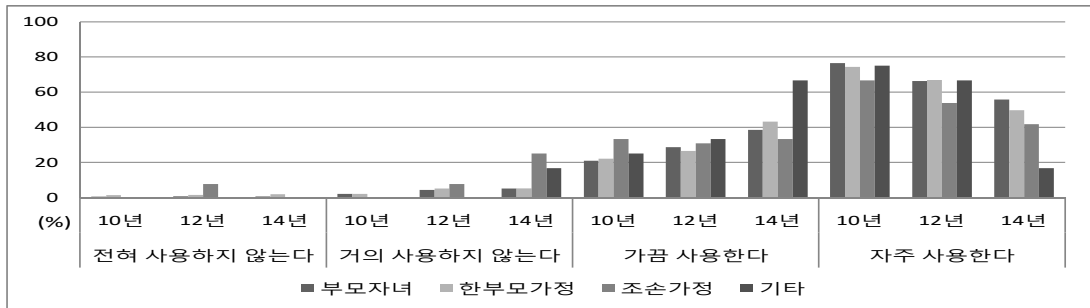
【그림 III-7】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지역별)

표 III-8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 역	서울	N	1	3	—	3	13	8	33	57	73	163	147	135	200	220	216	
		%	0.5	1.4	—	1.5	5.9	3.7	16.5	25.9	33.8	81.5	66.8	62.5	100	100	100	
	광역시	N	5	6	7	10	31	34	111	161	219	390	431	343	516	629	603	
		%	1.0	1.0	1.2	1.9	4.9	5.6	21.5	25.6	36.3	75.6	68.5	56.9	100	100	100	
	시군부	N	3	6	7	21	41	59	196	340	456	673	716	581	893	1103	1103	
		%	0.3	0.5	0.6	2.4	3.7	5.3	21.9	30.8	41.3	75.4	64.9	52.7	100	100	100	
전체			N	9	15	14	34	85	101	340	558	748	1226	1294	1059	1609	1952	1922
			%	0.6	0.8	0.7	2.1	4.4	5.3	21.1	28.6	38.9	76.2	66.3	55.1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가족과의 통화’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가정에서 ‘자주 사용한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55.8%, 한부모 가정 49.7%, 조손가정 41.7%)’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가족과의 통화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청소년에 비해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은 2010년 76.5%, 2012년 66.3%, 2014년 55.8%로 20.2%p 감소, 한부모 가정은 2010년 74.3%, 2012년 66.9%, 2014년 49.7%로 24.6%p 감소, 조손가정은 2010년 66.7%, 2012년 53.8%, 2014년 41.7%로 25.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정의 청소년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통화 빈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비율의 감소는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에 비해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9>.



【그림 III-8】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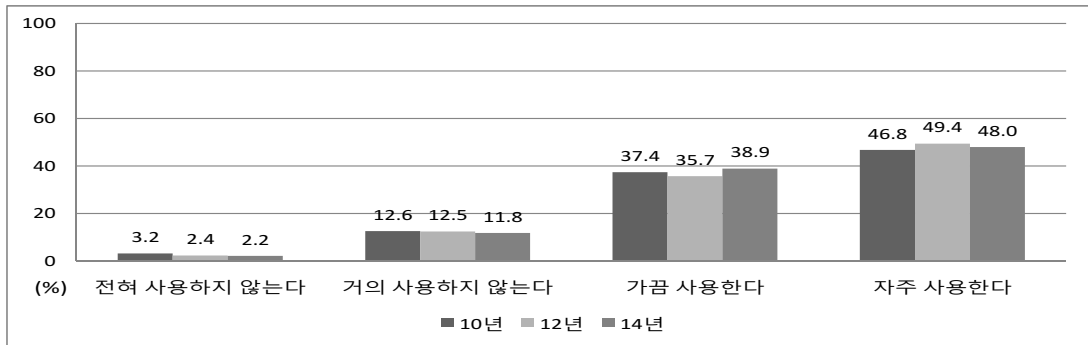
표 III-9 초4 패널- 가족과의 통화(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N	7	12	11	31	77	89	305	515	673	1114	1189	976	1457	1793
	자녀	%	0.5	0.7	0.6	2.1	4.3	5.1	20.9	28.7	38.5	76.5	66.3	55.8	100	100
	한부모	N	2	2	3	3	7	8	31	36	67	104	91	77	140	136
	가정	%	1.4	1.5	1.9	2.1	5.1	5.2	22.1	26.5	43.2	74.3	66.9	49.7	100	100
	조손	N	-	1	-	-	1	3	2	4	4	7	5	6	13	12
	가정	%	-	7.7	-	-	7.7	25.0	33.3	30.8	33.3	66.7	53.8	41.7	100	100
	기타	N	-	-	-	-	-	1	1	2	4	3	4	1	4	6
	%	-	-	-	-	-	16.7	25.0	33.3	66.7	75.0	66.7	16.7	100	100	100
	전체	N	9	15	14	34	85	101	339	557	748	1225	1291	1059	1607	1948
	%	0.6	0.8	0.7	2.1	4.4	5.3	21.1	28.6	38.9	76.2	66.3	55.1	100	100	100

②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시점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와 관련하여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자주 사용한다(2014년 48.0%)’와 ‘가끔 사용한다(2014년 38.9%)’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사용에 대한 문항에서 ‘자주 사용한다’와 ‘가끔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2010년 84.2%에서 2014년 86.9%로 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사용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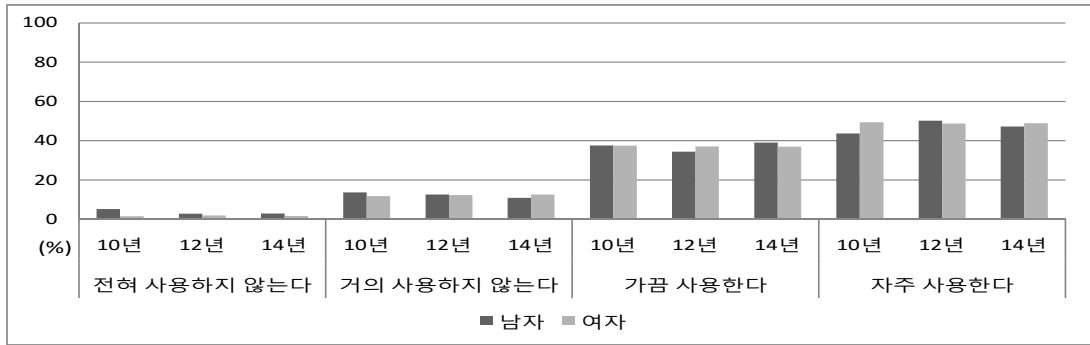
【그림 III-9】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표 III-10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51	3.2	47	2.4	44	2.2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03	12.6	249	12.5	233	11.8
가끔 사용한다	602	37.4	713	35.7	747	38.9
자주 사용한다	753	46.8	987	49.4	945	48.0
전체	1609	100	1996	100	1969	100

성별에 따라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자주 사용한다(2014년 : 남자 47.2%, 여자 48.8%)’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43.7%, 2012년 50.2%, 2014년 47.2%로 3.5%p 증가하였고, 여자 청소년은 2010년 49.4%, 2012년 48.7%, 2014년 48.8%로 0.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의 통화’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증가한 반면, 여자 청소년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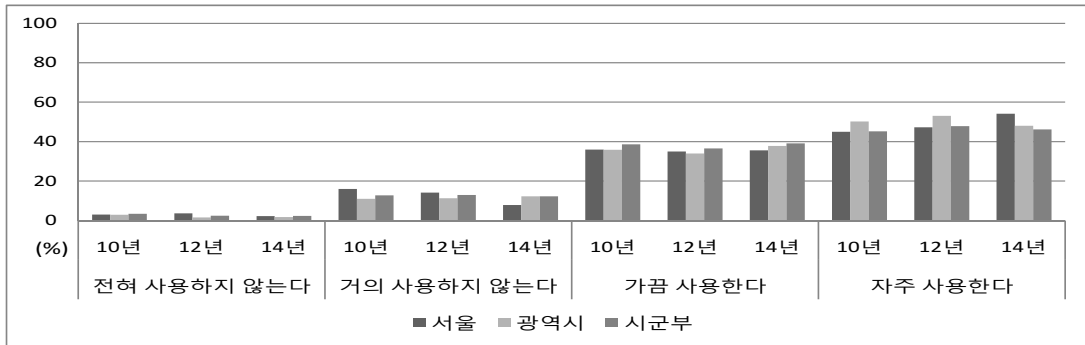
【그림 III-10】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성별)

표 III-II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38	28	29	99	126	111	272	343	397	317	500	480	726	997	1017	
		%	5.2	2.8	2.9	13.6	12.6	10.9	37.5	34.4	39.0	43.7	50.2	47.2	100	100	100	
	여자	N	13	19	15	104	123	122	330	370	350	436	487	465	883	999	952	
		%	1.5	1.9	1.6	11.8	12.3	12.8	37.4	37.0	36.8	49.4	48.7	48.8	100	100	100	
전체			N	51	47	44	203	249	233	602	713	747	753	987	945	1609	1996	1969
			%	3.2	2.4	2.2	12.6	12.5	11.8	37.4	35.7	37.9	46.8	49.4	48.0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2014년 : 서울 54.2%, 광역시 48.1%, 시군부 46.2%)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서울이 광역시나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45.0%, 2012년 47.3%, 2014년 54.2%로 9.2%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50.2%, 2012년 53.1%, 2014년 48.1%로 2.1%p 감소, 시군부는 2010년 45.2%, 2012년 47.9%, 2014년 46.2%로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증가 경향을 나타낸 반면, 광역시는 감소, 시군부는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III-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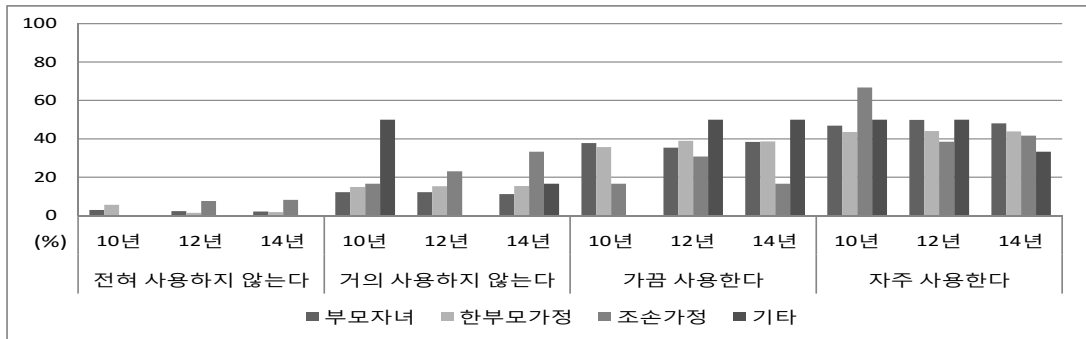
【그림 III-11】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표 III-12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 역	서울	N	6	8	5	32	31	17	72	77	77	90	104	117	200	220	216	
		%	3.0	3.6	2.3	16.0	14.1	7.9	36.0	35.0	35.6	45.0	47.3	54.2	100	100	100	
	광역시	N	15	10	11	57	71	74	185	214	228	259	334	290	516	629	603	
		%	2.9	1.6	1.8	11.0	11.3	12.3	35.9	34.0	37.8	50.2	53.1	48.1	100	100	100	
	시군부	N	30	28	26	114	143	136	345	404	431	404	528	510	893	1103	1103	
		%	3.4	2.5	2.4	12.8	13.0	12.3	38.6	36.6	39.1	45.2	47.9	46.2	100	100	100	
전체			N	51	46	42	203	245	227	602	695	736	753	966	917	1609	1952	1922
			%	3.2	2.4	2.2	12.6	12.6	11.8	37.4	35.6	38.3	46.8	49.5	47.7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가정에서 ‘자주 사용한다(2014년: 부모자녀 가정 48.1%, 한부모 가정 43.9%, 조손가정 41.7%)’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의 경우 2010년 46.9%에서 2014년 48.1%로 1.2%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43.6%에서 2014년 43.9%로 0.3%p 증가한 반면, 조손가정은 2010년 66.7%에서 2014년 41.7%로 25.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사용 비율은 부모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손가정 청소년은 반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3>.



【그림 III-12】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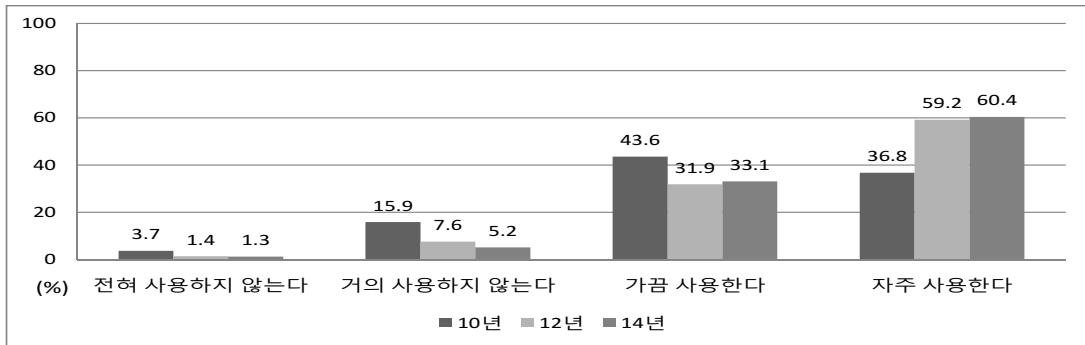
표 III-13 초4 패널-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N	43	43	38	179	221	198	551	635	671	684	894	842	1457	1793	1749
	자녀	%	3.0	2.4	2.2	12.3	12.3	11.3	37.8	35.4	38.4	46.9	49.9	48.1	100	100	100
	한부모	N	8	2	3	21	21	24	50	53	60	61	60	68	140	136	155
	가정	%	5.7	1.5	1.9	15.0	15.4	15.5	35.7	39.0	38.7	43.6	44.1	43.9	100	100	100
	조손	N	—	1	1	1	3	4	1	4	2	4	5	5	6	13	12
	가정	%	—	7.7	8.3	16.7	23.1	33.3	16.7	30.8	16.7	66.7	38.5	41.7	100	100	100
	기타	N	—	—	—	2	—	1	—	3	3	2	3	2	4	6	6
		%	—	—	—	50.0	—	16.7	—	50.0	50.0	50.0	50.0	33.3	100	100	100
전체	N	51	46	42	203	245	227	602	695	736	751	962	917	1607	1948	1922	
	%	3.2	2.4	2.2	12.6	12.6	11.8	37.5	35.7	38.3	46.7	49.4	47.7	100	100	100	

③ 친구와의 통화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시점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와 관련하여 ‘친구와의 통화’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자주 사용한다’(2014년 60.4%)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36.8%, 2012년 59.2%, 2014년 60.4%로 2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친구와의 통화’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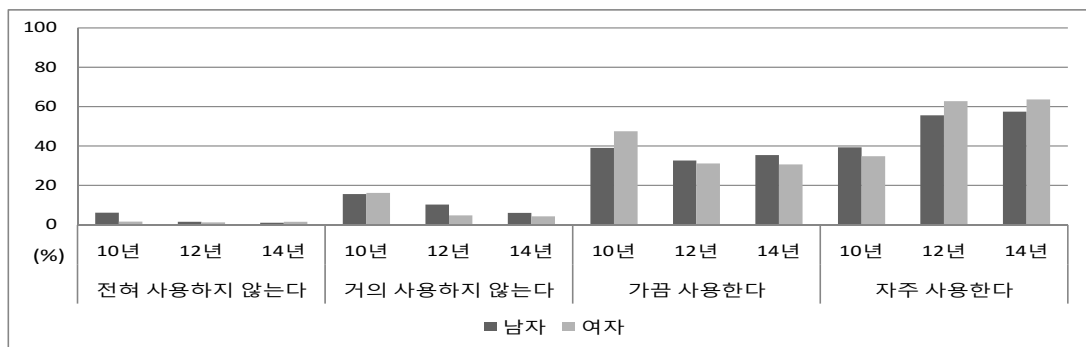
【그림 III-13】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

표 III-14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59	3.7	27	1.4	25	1.3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56	15.9	151	7.6	103	5.2
가끔 사용한다	702	43.6	636	31.9	652	33.1
자주 사용한다	592	36.8	1181	59.2	1189	60.4
전체	1609	100	1995	100	1969	100

성별에 따라 ‘친구와의 통화’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자주 사용한다(2014년 : 남자 57.4%, 여자 63.6%)’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39.3%, 2012년 55.6%, 2014년 57.4%로 18.1%p 증가하였고, 여자 청소년도 2010년 34.8%, 2012년 62.8%, 2014년 63.6%로 28.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 청소년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와의 통화’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의 증가는 여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표 III-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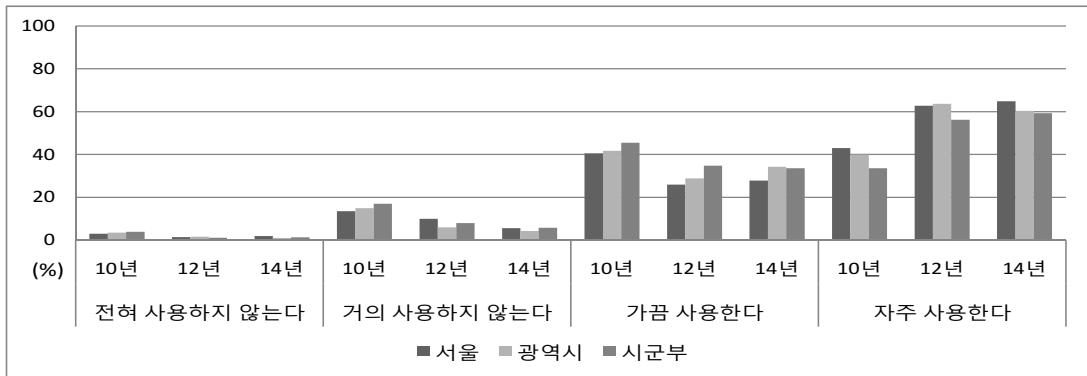
【그림 III-14】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성별)

표 III-15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45	15	11	113	103	62	283	325	360	285	554	584	726	997	1017	
		%	6.2	1.5	1.1	15.6	10.3	6.1	39.0	32.6	35.4	39.3	55.6	57.4	100	100	100	
	여자	N	14	12	14	143	48	41	419	311	292	307	627	605	883	998	952	
		%	1.6	1.2	1.5	16.2	4.8	4.3	47.5	31.2	30.7	34.8	62.8	63.6	100	100	100	
전체			N	59	27	25	256	151	103	702	636	652	592	1181	1189	1609	1995	1969
			%	3.7	1.4	1.3	15.9	7.6	5.2	43.6	31.9	33.1	36.8	59.2	60.4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친구와의 통화’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2014년 : 서울 64.8%, 광역시 60.4%, 시군부 59.3%)’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친구와의 통화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광역시나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43.0%에서 2014년 64.8%로 21.8%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39.9%에서 2014년 60.4%로 20.5%p 증가, 시군부는 2010년 33.6%에서 2014년 59.3%로 25.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빈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와의 통화’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의 증가는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서울이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표 III-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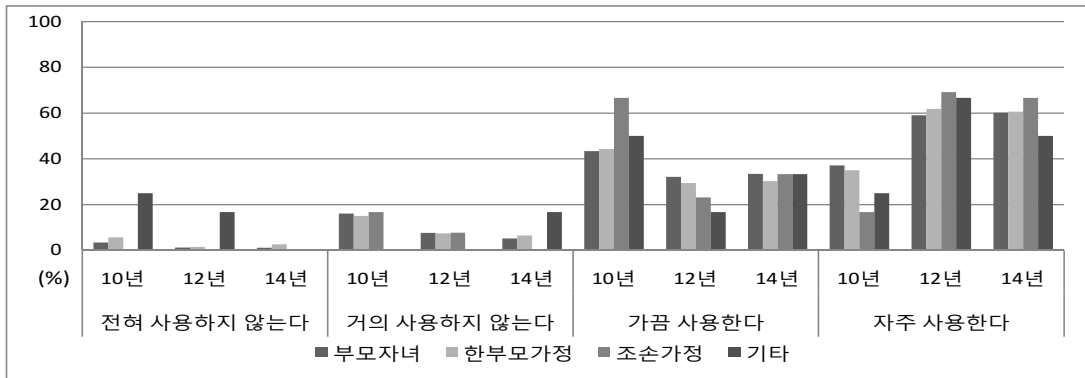
【그림 III-15】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지역별)

표 III-16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역	서울	N	6	3	4	27	22	12	81	57	60	86	138	140	200	220	216
		%	3.0	1.4	1.9	13.5	10.0	5.6	40.5	25.9	27.8	43.0	62.7	64.8	100	100	100
	광역시	N	18	10	6	77	38	26	215	181	207	206	400	364	516	629	603
		%	3.5	1.6	1.0	14.9	6.0	4.3	41.7	28.8	34.3	39.9	63.6	60.4	100	100	100
	시군부	N	35	12	14	152	88	64	406	383	371	300	619	654	893	1102	1103
		%	3.9	1.1	1.3	17.0	8.0	5.8	45.5	34.8	33.6	33.6	56.2	59.3	100	100	100
전체		N	59	25	24	256	148	102	702	621	638	592	1157	1158	1609	1951	1922
		%	3.7	1.3	1.2	15.9	7.6	5.3	43.6	31.8	33.2	36.8	59.3	60.2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친구와의 통화’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가정에서 ‘자주 사용한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60.2%, 한부모 가정 60.6%, 조손가정 66.7%)’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친구와의 통화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조손가정 청소년이 부모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은 2010년 37.1%, 2012년 59.0%, 2014년 60.2%로 23.1%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35.0%, 2012년 61.8%, 2014년 60.6%로 25.6%p 증가, 조손가정은 2010년 16.7%, 2012년 69.2%, 2014년 66.7%로 50.0%p 증가하는 등 모든 가정의 청소년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와의 통화’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의 증가는 조손가정 청소년이 부모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표 III-17>.



【그림 III-16】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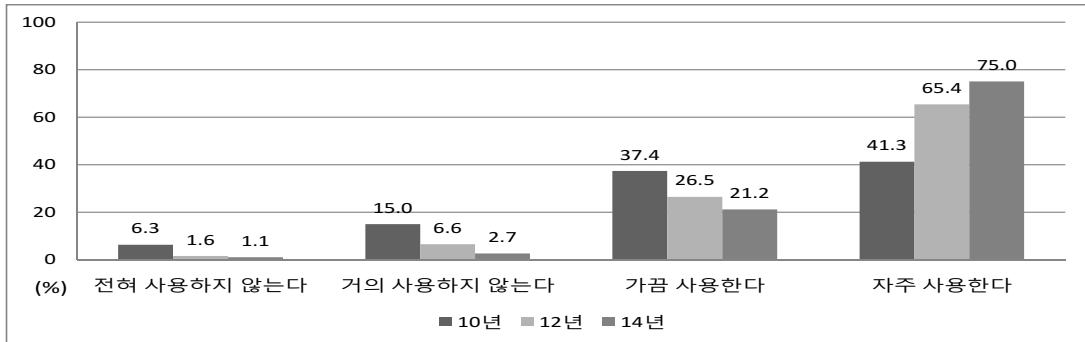
표 III-17 초4 패널- 친구와의 통화(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자녀	N	50	22	20	234	137	91	632	575	585	541	1058	1053	1457	1792	1749
		%	3.4	1.2	1.1	16.1	7.6	5.2	43.4	32.1	33.4	37.1	59.0	60.2	100	100	100
	한부모 가정	N	8	2	4	21	10	10	62	40	47	49	84	94	140	136	155
		%	5.7	1.5	2.6	15.0	7.4	6.5	44.3	29.4	30.3	35.0	61.8	60.6	100	100	100
	조손 가정	N	－	－	－	1	1	－	4	3	4	1	9	8	6	13	12
		%	－	－	－	16.7	7.7	－	66.7	23.1	33.3	16.7	69.2	66.7	100	100	100
	기타	N	1	1	－	－	－	1	2	1	2	1	4	3	4	6	6
		%	25.0	16.7	－	－	－	16.7	50.0	16.7	33.3	25.0	66.7	50.0	100	100	100
전체		N	59	25	24	256	148	102	700	619	638	592	1155	1158	1607	1947	1922
		%	3.7	1.3	1.2	15.9	7.6	5.3	43.6	31.8	33.2	36.8	59.3	60.2	100	100	100

④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시점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와 관련하여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1.3%, 2012년 65.4%, 2014년 75.0%로 33.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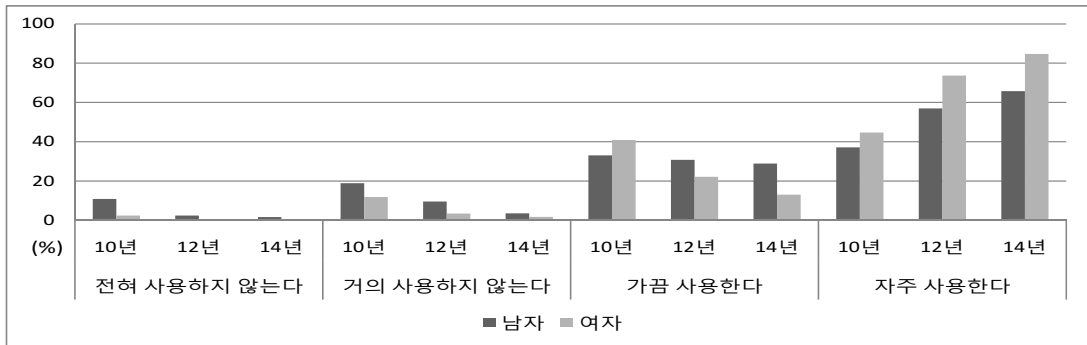
【그림 III-17】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표 III-18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01	6.3	31	1.6	21	1.1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42	15.0	131	6.6	54	2.7
가끔 사용한다	601	37.4	529	26.5	418	21.2
자주 사용한다	665	41.3	1304	65.4	1476	75.0
전체	1609	100	1995	100	1969	100

성별에 따라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자주 사용한다(2014년 : 남자 65.8%, 여자 84.8%)’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37.2%, 2012년 57.0%, 2014년 65.8%로 28.6%p 증가하였고, 여자 청소년도 2010년 44.7%, 2012년 73.7%, 2014년 84.8%로 4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표 III-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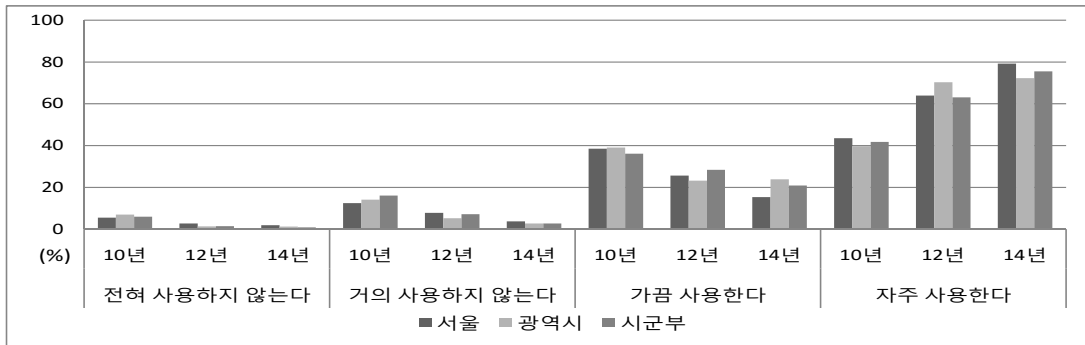
【그림 III-18】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성별)

표 III-19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79	25	17	137	96	37	240	307	294	270	568	669	726	996	1017	
		%	10.9	2.5	1.7	18.9	9.6	3.6	33.1	30.8	28.9	37.2	57.0	65.8	100	100	100	
	여자	N	22	6	4	105	35	17	361	222	125	395	736	807	883	999	952	
		%	2.5	0.6	0.4	11.9	3.5	1.8	40.9	22.2	13.0	44.7	73.7	84.8	100	100	100	
전체			N	101	31	21	242	131	54	601	529	418	665	1304	1476	1609	1995	1969
			%	6.3	1.6	1.1	15.0	6.6	2.7	37.4	26.5	21.2	41.3	65.4	75.0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2014년 : 서울 79.2%, 광역시 72.3%, 시군부 75.5%)’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빈도는 광역시나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43.5%, 2012년 63.9%, 2014년 79.2%로 35.7%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39.7%, 2012년 70.3%, 2014년 72.3%로 32.6%p 증가, 시군부는 2010년 41.8%, 2012년 63.1%, 2014년 75.5%로 33.7%p 증가 등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사용 비율의 증가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광역시나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표 III-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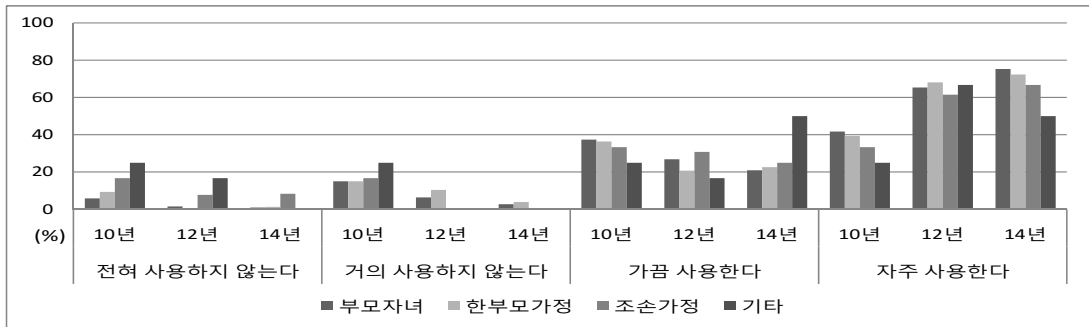
【그림 III-19】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표 III-20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 역	서울	N	11	6	4	25	17	8	77	56	33	87	140	171	200	219	216
		%	5.5	2.7	1.9	12.5	7.8	3.7	38.5	25.6	15.3	43.5	63.9	79.2	100	100	100
	광역시	N	36	8	7	73	33	16	202	146	144	205	442	436	516	629	603
		%	7.0	1.3	1.2	14.1	5.2	2.7	39.1	23.2	23.9	39.7	70.3	72.3	100	100	100
	시군부	N	54	15	10	144	79	30	322	313	230	373	696	833	893	1103	1103
		%	6.0	1.4	0.9	16.1	7.2	2.7	36.1	28.4	20.9	41.8	63.1	75.5	100	100	100
전체	N	101	29	21	242	129	54	601	515	407	665	1278	1440	1609	1951	1922	
	%	6.3	1.5	1.1	15.0	6.6	2.8	37.4	26.4	21.2	41.3	65.5	74.9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가정에서 ‘자주 사용한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75.3%, 한부모 가정 72.3%, 조손가정 66.7%)’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청소년에 비해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은 2010년 41.7%, 2012년 65.3%, 2014년 75.3%로 33.6%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39.3%, 2012년 68.1%, 2014년 72.3%로 33.0%p 증가, 조손가정은 2010년 33.3%, 2012년 61.5%, 2014년 66.7%로 33.4%p 증가 등 모든 가정의 청소년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위한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III-21>.



【그림 III-20】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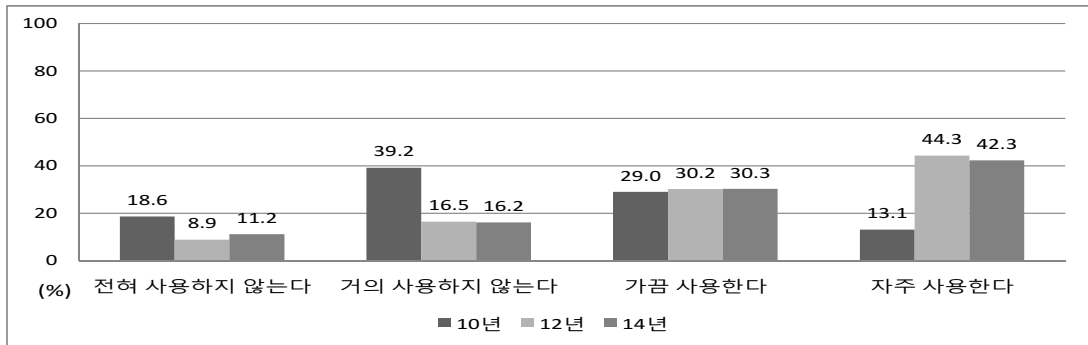
표 III-21 초4 패널-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자녀	N	86	26	18	219	115	48	545	481	366	607	1171	1317	1457	1793	1749
		%	5.9	1.5	1.0	15.0	6.4	2.7	37.4	26.8	20.9	41.7	65.3	75.3	100	100	100
	한부모가정	N	13	1	2	21	14	6	51	28	35	55	92	112	140	135	155
		%	9.3	0.7	1.3	15.0	10.4	3.9	36.4	20.7	22.6	39.3	68.1	72.3	100	100	100
	조손가정	N	1	1	1	1	-	-	2	4	3	2	8	8	6	13	12
		%	16.7	7.7	8.3	16.7	-	-	33.3	30.8	25.0	33.3	61.5	66.7	100	100	100
	기타	N	1	1	-	1	-	-	1	1	3	1	4	3	4	6	6
		%	25.0	16.7	-	25.0	-	-	25.0	16.7	50.0	25.0	66.7	50.0	100	100	100
	전체	N	101	29	21	242	129	54	599	514	407	665	1275	1440	1607	1947	1922
		%	6.3	1.5	1.1	15.1	6.6	2.8	37.3	26.4	21.2	41.4	65.5	74.9	100	100	100

⑤ 게임 및 오락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시점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와 관련하여 ‘게임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자주 사용한다(2014년 : 42.3%)’와 ‘가끔 사용한다(2014년 : 30.3%)’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3.1%, 2012년 44.3%, 2014년 42.3%로 29.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게임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표 III-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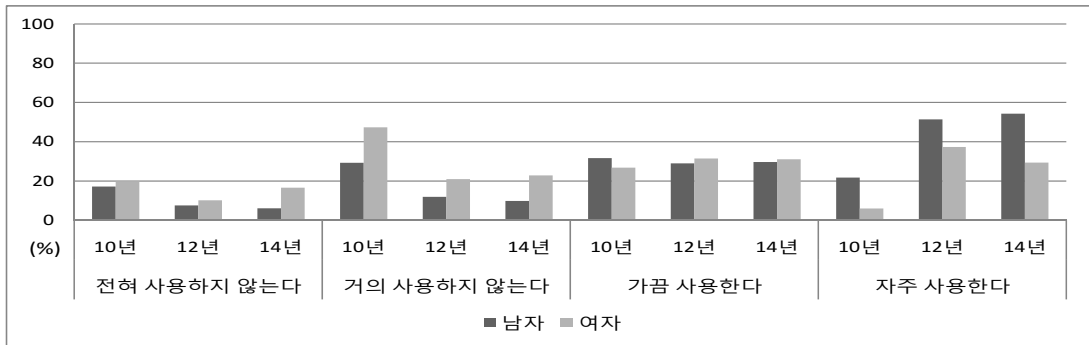
【그림 III-21】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

표 III-22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300	18.6	178	8.9	221	11.2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631	39.2	330	16.5	318	16.2
가끔 사용한다	467	29.0	603	30.2	597	30.3
자주 사용한다	211	13.1	884	44.3	833	42.3
전체	1609	100	1995	100	1969	100

성별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자주 사용한다’(2014년 : 남자 54.3%, 여자 29.4%)와 ‘가끔 사용한다’(2014년 : 남자 29.7%, 여자 31.0%)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21.8%에서 2014년 54.3%로 32.5%p 증가하였고, 여자 청소년도 2010년 6.0%에서 2014년 29.5%로 23.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게임 및 오락’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더 높았다<표 III-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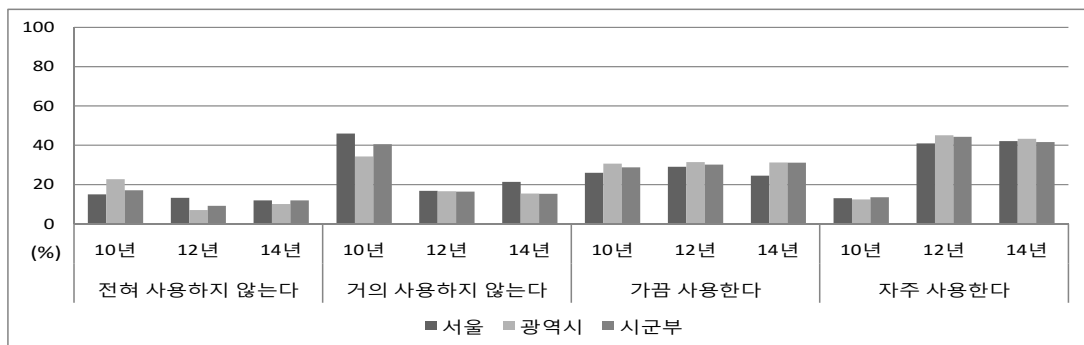
【그림 III-22】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표 III-23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125	76	62	213	120	101	230	289	302	158	512	552	726	997	1017	
		%	17.2	7.6	6.1	29.3	12.0	9.9	31.7	29.0	29.7	21.8	51.4	54.3	100	100	100	
	여자	N	175	102	159	418	210	217	237	314	295	53	372	281	883	998	952	
		%	19.8	10.2	16.7	47.3	21.0	22.8	26.8	31.5	31.0	6.0	37.3	29.5	100	100	100	
전체			N	300	178	221	631	330	318	467	603	597	211	884	833	1609	1995	1969
			%	18.6	8.9	11.2	39.2	16.5	16.2	29.0	30.2	30.3	13.1	44.3	42.3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2014년 : 서울 42.1%, 광역시 43.3%, 시군부 41.6%)와 ‘가끔 사용한다’(2014년 : 서울 24.5%, 광역시 31.2%, 시군부 31.1%)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13.0%에서 2014년 42.1%로 29.1%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12.4%에서 2014년 43.3%로 30.9%p 증가, 시군부는 2010년 13.5%에서 2014년 41.6%로 28.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4>.



【그림 III-23】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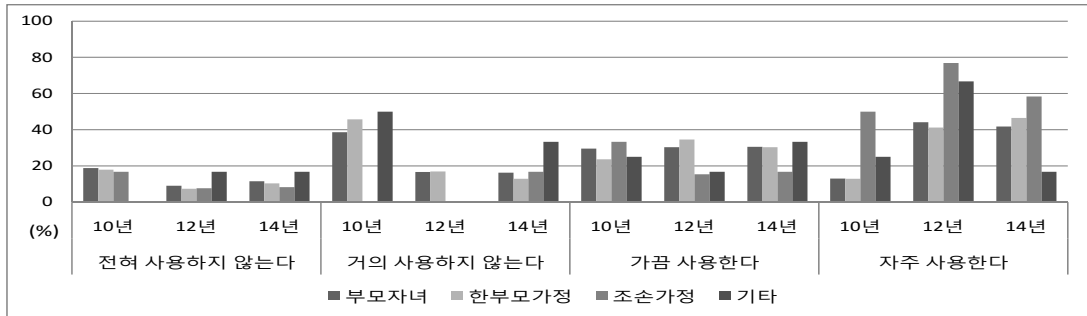
표 III-24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 역	서울	N	30	29	26	92	37	46	52	64	53	26	90	91	200	220	216	
		%	15.0	13.2	12.0	46.0	16.8	21.3	26.0	29.1	24.5	13.0	40.9	42.1	100	100	100	
	광역시	N	117	44	61	177	104	93	158	197	188	64	283	261	516	628	603	
		%	22.7	7.0	10.1	34.3	16.6	15.4	30.6	31.4	31.2	12.4	45.1	43.3	100	100	100	
	시군부	N	153	101	132	362	181	169	257	332	343	121	489	459	893	1103	1103	
		%	17.1	9.2	12.0	40.5	16.4	15.3	28.8	30.1	31.1	13.5	44.3	41.6	100	100	100	
전체			N	300	174	219	631	322	308	467	593	584	211	862	811	1609	1951	1922
			%	18.6	8.9	11.4	39.2	16.5	16.0	29.0	30.4	30.4	13.1	44.2	42.2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게임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가정에서 ‘자주 사용한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41.8%, 한부모 가정 46.5%, 조손가정 58.3%)’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게임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조손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가정과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의 경우 2010년 13.0%에서 2014년 41.8%로 28.8%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12.9%에서 2014년 46.5%로 33.6%p 증가, 조손가정은 2010년 50.0%에서 2014년 58.3%로 8.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정의 청소년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게임 및 오락’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의 증가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과 부모자녀 가정의 청소년이 조손가정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5>.



【그림 III-24】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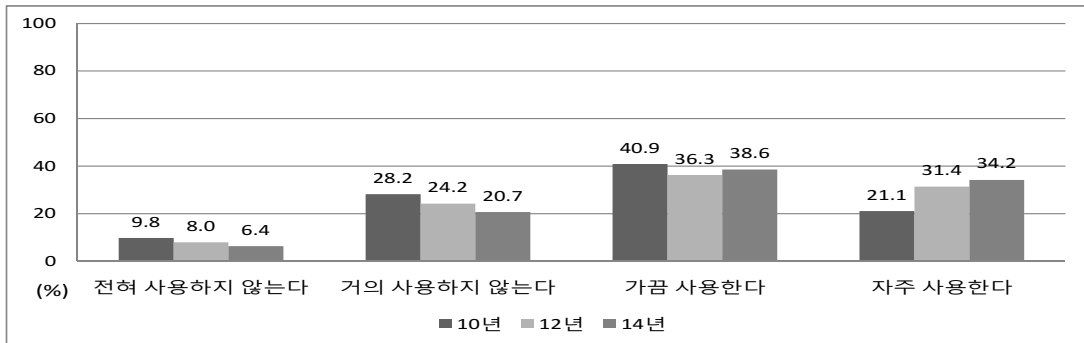
표 III-25 초4 패널- 게임 및 오락(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N	274	162	201	563	297	284	431	543	533	189	790	731	1457	1792	1749
	자녀	%	18.8	9.0	11.5	38.6	16.6	16.2	29.6	30.3	30.5	13.0	44.1	41.8	100	100	100
	한부모	N	25	10	16	64	23	20	33	47	47	18	56	72	140	136	155
	가정	%	17.9	7.4	10.3	45.7	16.9	12.9	23.6	34.6	30.3	12.9	41.2	46.5	100	100	100
	조손	N	1	1	1	—	—	2	2	2	2	3	10	7	6	13	12
	가정	%	16.7	7.7	8.3	—	—	16.7	33.3	15.4	16.7	50.0	76.9	58.3	100	100	100
	기타	N	—	1	1	2	—	2	1	1	2	1	4	1	4	6	6
		%	—	16.7	16.7	50.0	—	33.3	25.0	16.7	33.3	25.0	66.7	16.7	100	100	100
전체		N	300	174	219	629	320	308	467	593	584	211	860	811	1607	1947	1922
		%	18.7	8.9	11.4	39.1	16.4	16.0	29.1	30.5	30.4	13.1	44.2	42.2	100	100	100

⑥ 사진 촬영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시점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와 관련하여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가끔 사용한다(2014년 : 38.6%)’와 ‘자주 사용한다(2014년 : 34.2%)’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대한 문항에서 ‘자주 사용한다’와 ‘가끔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2010년 62.0%, 2012년 67.7%, 2014년 72.8%로 1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진 촬영’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6>.



【그림 III-25】 초4 패널- 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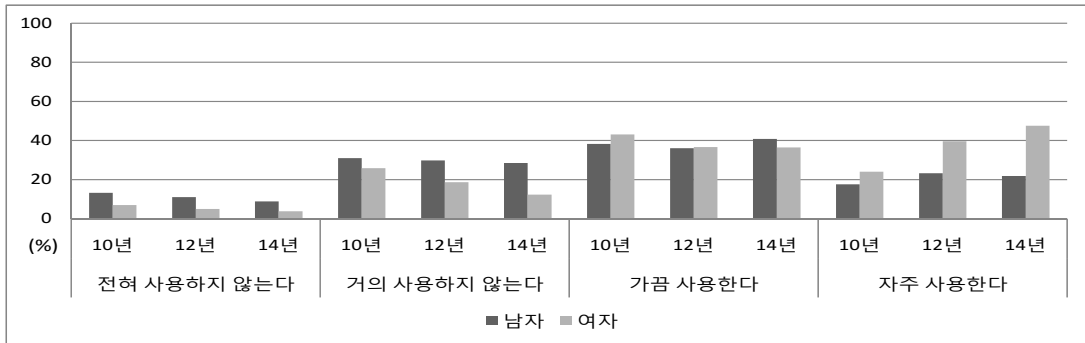
표 III-26 초4 패널- 사진 촬영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58	9.8	160	8.0	126	6.4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453	28.2	484	24.2	408	20.7
가끔 사용한다	658	40.9	725	36.3	761	38.6
자주 사용한다	340	21.1	627	31.4	674	34.2
전체	1609	100	1996	100	1969	100

성별에 따라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자주 사용한다(2014년 : 남자 21.8%, 여자 47.5%)’와 ‘가끔 사용한다(2014년 : 남자 40.8%, 여자 36.3%)’와 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사진 촬영’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남자 청소년 보다 여자 청소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대한 문항에서 ‘자주 사용한다’와 ‘가끔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55.8%에서 2014년 62.6%로 6.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도 2010년 67.1%에서 2014년 83.8%로 16.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 청소년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진 촬영’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빈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빈도의 증가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았다<표 III-27>.



【그림 III-26】 초4 패널- 사진 촬영(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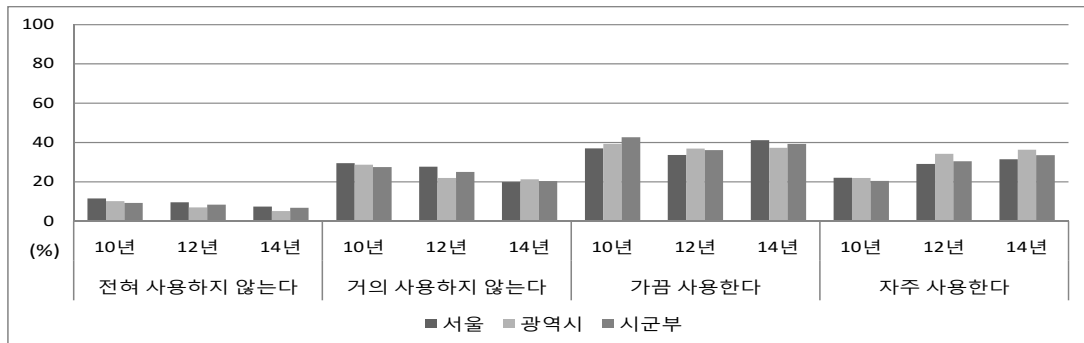
표 III-27 초4 패널- 사진 촬영(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96	110	90	225	297	290	277	359	415	128	231	222	726	997	1017	
		%	13.2	11.0	8.8	31.0	29.8	28.5	38.2	36.0	40.8	17.6	23.2	21.8	100	100	100	
	여자	N	62	50	36	228	187	118	381	366	346	212	396	452	883	999	952	
		%	7.0	5.0	3.8	25.8	18.7	12.4	43.1	36.6	36.3	24.0	39.6	47.5	100	100	100	
전체			N	158	160	126	453	484	408	658	725	761	340	627	674	1609	1996	1969
			%	9.8	8.0	6.4	28.2	24.2	20.7	40.9	36.3	38.6	21.1	31.4	34.2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가끔 사용한다(2014년 : 서울 41.2%, 광역시 37.3%, 시군부 39.3%)’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대한 문항에서 ‘자주 사용한다’와 ‘가끔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59.0%에서 2014년 72.7%로 13.7%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61.2%에서 2014년 73.6%로 12.4%p 증가, 시군부는 2010년 63.2%에서 2014년 72.8%로 9.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진 촬영’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의 증가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표 III-28>.



【그림 III-27】 초4 패널- 사진 촬영(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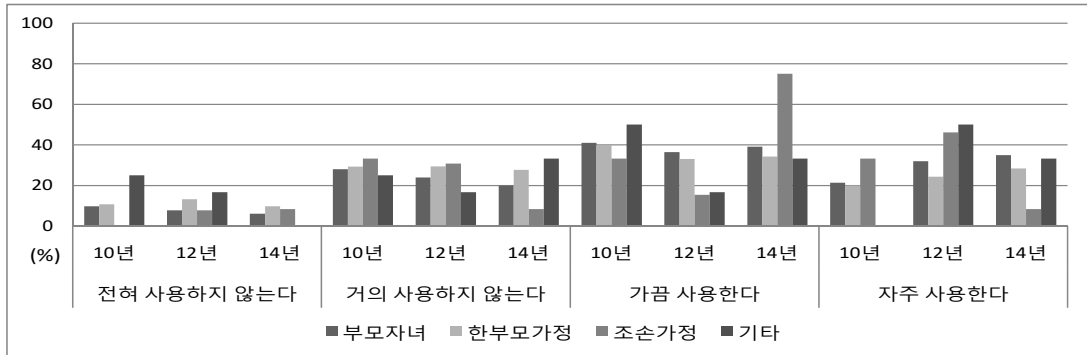
표 III-28 초4 패널- 사진 촬영(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 역	서울	N	23	21	16	59	61	43	74	74	89	44	64	68	200	220	216	
		%	11.5	9.5	7.4	29.5	27.7	19.9	37.0	33.6	41.2	22.0	29.1	31.5	100	100	100	
	광역시	N	52	44	31	148	138	128	203	232	225	113	215	219	516	629	603	
		%	10.1	7.0	5.1	28.7	21.9	21.2	39.3	36.9	37.3	21.9	34.2	36.3	100	100	100	
	시군부	N	83	93	75	246	276	225	381	398	433	183	336	370	893	1103	1103	
		%	9.3	8.4	6.8	27.5	25.0	20.4	42.7	36.1	39.3	20.5	30.5	33.5	100	100	100	
전체			N	158	158	122	453	475	396	658	704	747	340	615	657	1609	1952	1922
			%	9.8	8.1	6.3	28.2	24.3	20.6	40.9	36.1	38.9	21.1	31.5	34.2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가정에서 ‘가끔 사용한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39.1%, 한부모 가정 34.2%, 조손가정 75.0%)’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대한 문항에서 ‘자주 사용한다’와 ‘가끔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부모자녀 가정의 경우 2010년 62.3%에서 2014년 74.0%로 11.7%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60.0%에서 2014년 62.6%로 2.6%p 증가, 조손가정은 2010년 66.6%에서 2014년 83.3%로 17.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진촬영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조손가정 청소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 한부모 가정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29>.



【그림 III-28】 초4 패널- 사진 촬영(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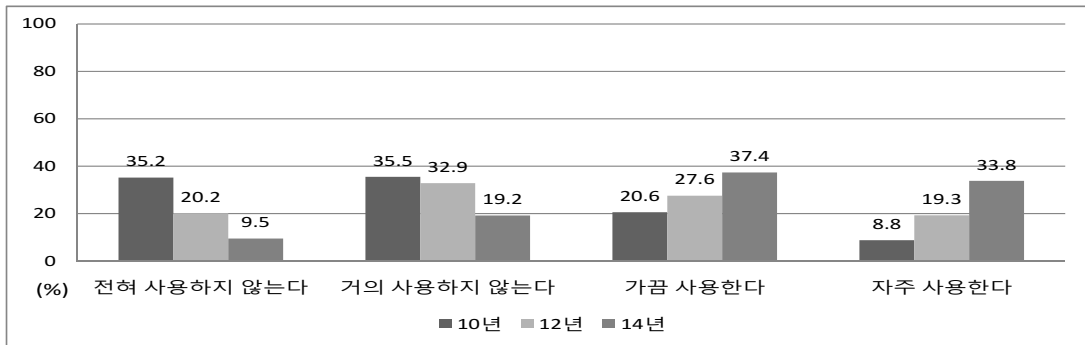
표 III-29 초4 패널- 사진 촬영(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자녀	N	142	138	106	408	429	350	597	653	683	310	573	610	1457	1793	1749
		%	9.7	7.7	6.1	28.0	23.9	20.0	41.0	36.4	39.1	21.3	32.0	34.9	100	100	100
	한부모 가정	N	15	18	15	41	40	43	56	45	53	28	33	44	140	136	155
		%	10.7	13.2	9.7	29.3	29.4	27.7	40.0	33.1	34.2	20.0	24.3	28.4	100	100	100
	조손 가정	N	－	1	1	2	4	1	2	2	9	2	6	1	6	13	12
		%	－	7.7	8.3	33.3	30.8	8.3	33.3	15.4	75.0	33.3	46.2	8.3	100	100	100
	기타	N	1	1	－	1	1	2	2	1	2	－	3	2	4	6	6
		%	25.0	16.7	－	25.0	16.7	33.3	50.0	16.7	33.3	－	50.0	33.3	100	100	100
전체		N	158	158	122	452	474	396	657	701	747	340	615	657	1607	1948	1922
		%	9.8	8.1	6.3	28.1	24.3	20.6	40.9	36.0	38.9	21.2	31.6	34.2	100	100	100

⑦ 동영상 감상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시점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와 관련하여 ‘동영상 감상’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가끔 사용한다’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영상 감상에 대한 문항에서 ‘자주 사용한다’와 ‘가끔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2010년 29.4%, 2012년 46.9%, 2014년 71.2%로 4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진 촬영’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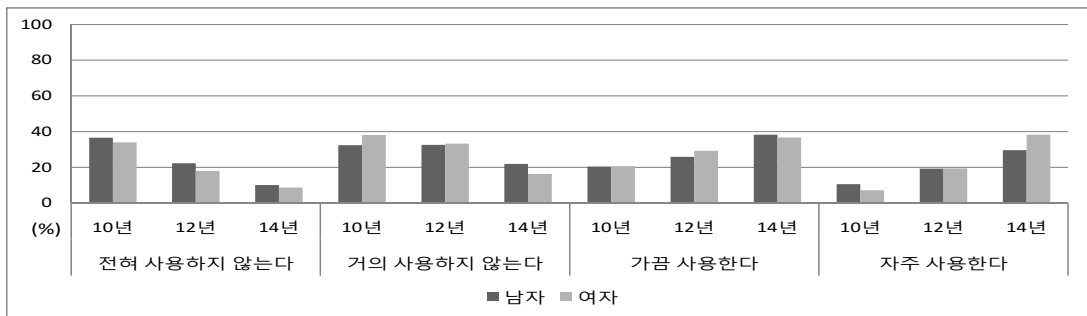
【그림 III-29】 초4 패널- 동영상 감상

표 III-30 초4 패널- 동영상 감상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566	35.2	402	20.2	187	9.5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571	35.5	657	32.9	379	19.2
가끔 사용한다	331	20.6	550	27.6	737	37.4
자주 사용한다	141	8.8	386	19.3	666	33.8
전체	1609	100	1995	100	1969	100

성별에 따라 ‘동영상 감상’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자주 사용한다’(2014년 : 남자 29.6%, 여자 38.3%)와 ‘가끔 사용한다’(2014년 : 남자 38.3%, 여자 36.4%)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영상 감상’에 대한 문항에서 ‘자주 사용한다’와 ‘가끔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31.0%에서 2014년 67.9%로 36.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도 2010년 27.9%에서 2014년 74.7%로 46.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 청소년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동영상 감상’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영상 감상’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표 III-31>.



[그림 III-30]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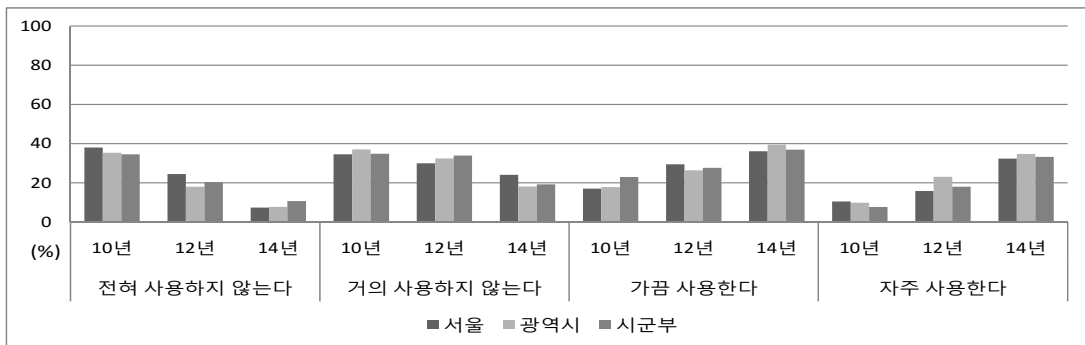
표 III-31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266	222	103	235	325	223	148	258	390	77	192	301	726	997	1017	
		%	36.6	22.3	10.1	32.4	32.6	21.9	20.4	25.9	38.3	10.6	19.3	29.6	100	100	100	
	여자	N	300	180	84	336	332	156	183	292	347	64	194	365	883	998	952	
		%	34.0	18.0	8.8	38.1	33.3	16.4	20.7	29.3	36.4	7.2	19.4	38.3	100	100	100	
전체			N	566	402	187	571	657	379	331	550	737	141	386	666	1609	1995	1969
			%	35.2	20.2	9.5	35.5	32.9	19.2	20.6	27.6	37.4	8.8	19.3	33.8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동영상 감상’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가끔 사용한다(2014년 : 서울 36.1%, 광역시 39.5%, 시군부 36.9%)’와 ‘자주 사용한다(2014년 : 서울 32.4%, 광역시 34.7%, 시군부 33.2%)’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영상 감상’에 대한 문항에서 ‘자주 사용한다’와 ‘가끔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27.5%에서 2014년 68.5%로 41.0%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27.7%에서 2014년 74.2%로 46.5%p 증가, 시군부는 2010년 30.7%에서 2014년 70.1%로 39.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동영상 감상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영상 감상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의 증가는 서울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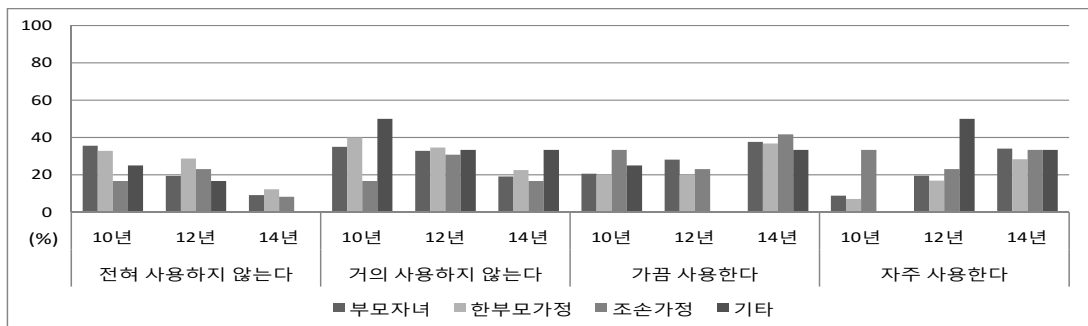
【그림 III-31】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지역별)

표 III-32 초4 패널- 동영상 감상(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역	서울	N	76	54	16	69	66	52	34	65	78	21	35	70	200	220	216	
		%	38.0	24.5	7.4	34.5	30.0	24.1	17.0	29.5	36.1	10.5	15.9	32.4	100	100	100	
	광역시	N	182	113	47	191	204	109	92	166	238	51	145	209	516	628	603	
		%	35.3	18.0	7.8	37.0	32.5	18.1	17.8	26.4	39.5	9.9	23.1	34.7	100	100	100	
	시군부	N	308	224	118	311	374	212	205	306	407	69	199	366	893	1103	1103	
		%	34.5	20.3	10.7	34.8	33.9	19.2	23.0	27.7	36.9	7.7	18.0	33.2	100	100	100	
전체			N	566	391	181	571	644	373	331	537	723	141	379	645	1609	1951	1922
			%	35.2	20.0	9.4	35.5	33.0	19.4	20.6	27.5	37.6	8.8	19.4	33.6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동영상 감상’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가정에서 ‘가끔 사용한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37.7%, 한부모 가정 36.8%, 조손가정 41.7%)’와 ‘자주 사용한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34.0%, 한부모 가정 28.4%, 조손가정 33.3%)’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영상 감상’에 대한 문항에서 ‘자주 사용한다’와 ‘가끔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부모자녀 가정의 경우 2010년 29.5%에서 2014년 71.7%로 42.2%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27.1%에서 2014년 65.2%로 38.1%p 증가, 조손가정은 2010년 66.6%에서 2014년 75.0%로 8.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영상 감상’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의 증가는 부모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조손가정 청소년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표 III-33>.



【그림 III-32】 초4 패널- 동영상 감상(가족구성별)

표 III-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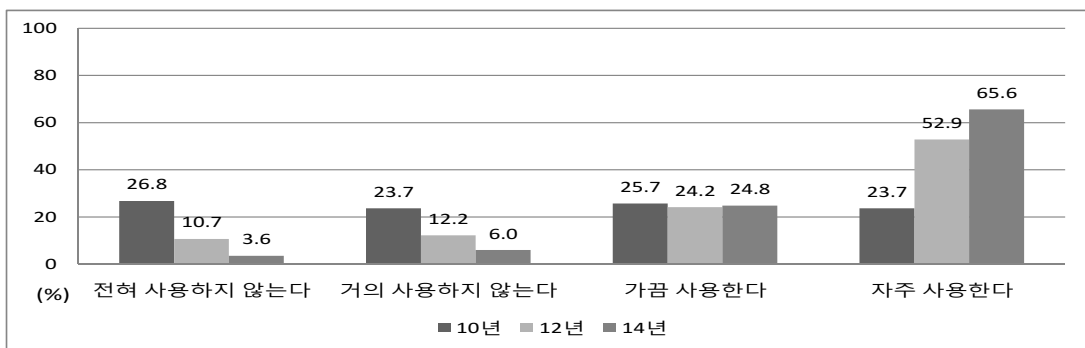
초4 패널- 동영상 감상(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자녀	N	518	348	161	510	590	334	300	505	659	129	349	595	1457	1792	1749
		%	35.6	19.4	9.2	35.0	32.9	19.1	20.6	28.2	37.7	8.9	19.5	34.0	100	100	100
	한부모 가정	N	46	39	19	56	47	35	28	27	57	10	23	44	140	136	155
		%	32.9	28.7	12.3	40.0	34.6	22.6	20.0	19.9	36.8	7.1	16.9	28.4	100	100	100
	조손 가정	N	1	3	1	1	4	2	2	3	5	2	3	4	6	13	12
		%	16.7	23.1	8.3	16.7	30.8	16.7	33.3	23.1	41.7	33.3	23.1	33.3	100	100	100
	기타	N	1	1	－	2	2	2	1	－	2	－	3	2	4	6	6
		%	25.0	16.7	－	50.0	33.3	33.3	25.0	－	33.3	－	50.0	33.3	100	100	100
전체		N	566	391	181	569	643	373	331	535	723	141	378	645	1607	1947	1922
		%	35.2	20.1	9.4	35.4	33.0	19.4	20.6	27.5	37.6	8.8	19.4	33.6	100	100	100

⑧ 음악 듣기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시점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와 관련하여 ‘음악 듣기’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사용한 음악듣기에 대한 문항에서 ‘자주 사용한다’와 ‘가끔 사용한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2010년 49.4%, 2012년 77.1%, 2014년 90.4%로 41.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음악 듣기’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4>.



【그림 III-33】 초4 패널- 음악 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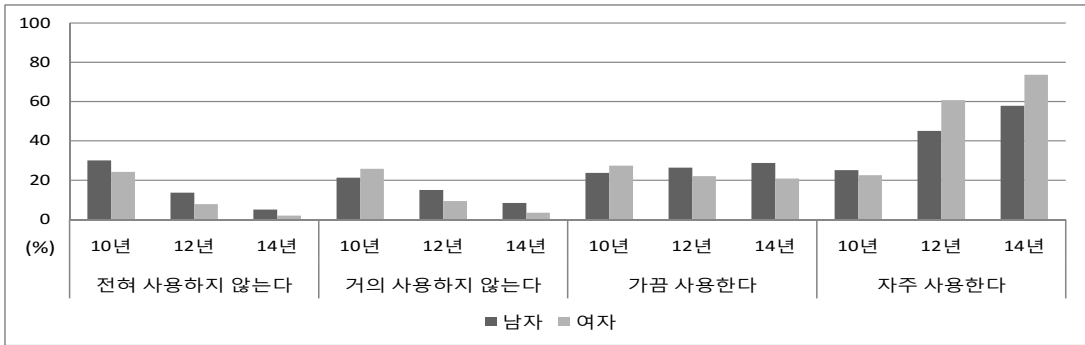
표 III-34 초4 패널- 음악 듣기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432	26.8	213	10.7	71	3.6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82	23.7	243	12.2	118	6.0
가끔 사용한다	414	25.7	483	24.2	489	24.8
자주 사용한다	381	23.7	1055	52.9	1291	65.6
전체	1609	100	1994	100	1969	100

성별에 따라 ‘음악 듣기’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자주 사용한다(2014년 : 남자 57.8%, 여자 73.8%)’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25.1%,

2012년 45.1%, 2014년 57.8%로 32.7%p 증가하였고, 여자 청소년은 2010년 22.5%, 2012년 60.7%, 2014년 73.8%로 5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 청소년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악 듣기’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5>. 특히 ‘음악 듣기’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34】 초4 패널- 음악 듣기(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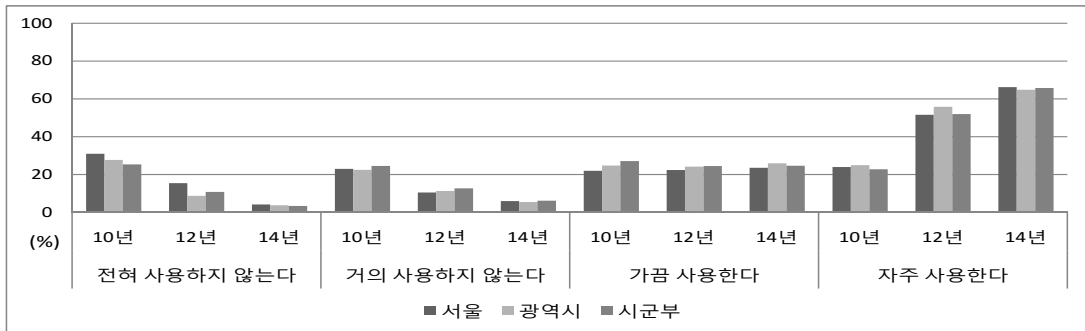
표 III-35 초4 패널- 음악 듣기(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218	135	51	154	149	85	172	263	293	182	449	588	726	996	1017	
		%	30.0	13.6	5.0	21.2	15.0	8.4	23.7	26.4	28.8	25.1	45.1	57.8	100	100	100	
	여자	N	214	78	20	228	94	33	242	220	196	199	606	703	883	998	952	
		%	24.2	7.8	2.1	25.8	9.4	3.5	27.4	22.0	20.6	22.5	60.7	73.8	100	100	100	
전체			N	432	213	71	382	243	118	414	483	489	381	1055	1291	1609	1994	1969
			%	26.8	10.7	3.6	23.7	12.2	6.0	25.7	24.2	24.8	23.7	52.9	65.5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음악 듣기’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2014년 : 서울 66.2%, 광역시 64.8%, 시군부 65.7%)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24.0%, 2012년 51.6%, 2014년 66.2%로 42.2%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25.0%, 2012년

55.8%, 2014년 64.8%로 39.8%p 증가, 시군부는 2010년 22.8%, 2012년 52.0%, 2014년 65.7%로 4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악 듣기’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듣기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의 증가는 부모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조손가정 청소년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표 III-36>.



【그림 III-35】 초4 패널- 음악 듣기(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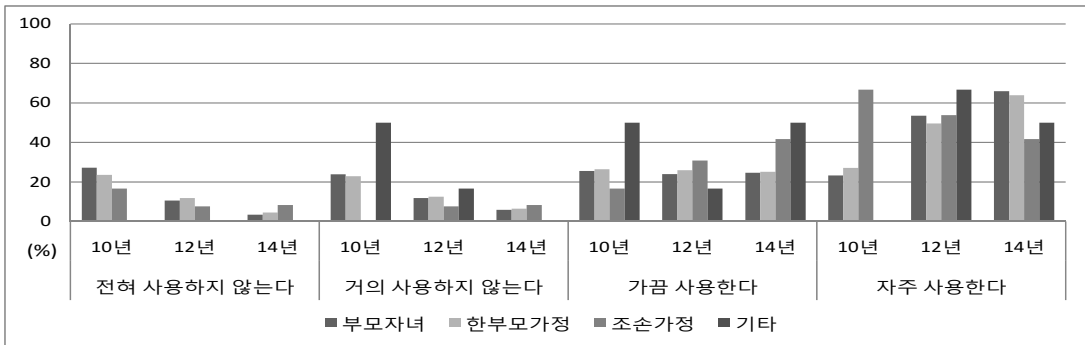
표 III-36 초4 패널- 음악 듣기(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역	서울	N	62	34	9	46	23	13	44	49	51	48	113	143	200	219	216
		%	31.0	15.5	4.2	23.0	10.5	6.0	22.0	22.4	23.6	24.0	51.6	66.2	100	100	100
	광역시	N	143	55	23	116	71	33	128	152	156	129	351	391	516	629	603
		%	27.7	8.7	3.8	22.5	11.3	5.5	24.8	24.2	25.9	25.0	55.8	64.8	100	100	100
	시군부	N	227	119	38	220	140	68	242	270	272	204	573	725	893	1102	1103
		%	25.4	10.8	3.4	24.6	12.7	6.2	27.1	24.5	24.7	22.8	52.0	65.7	100	100	100
전체		N	432	208	70	382	234	114	414	471	479	381	1037	1259	1609	1950	1922
		%	26.8	10.7	3.6	23.7	12.0	5.9	25.7	24.2	24.9	23.7	53.2	65.5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음악 듣기’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가정에서 ‘자주 사용한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65.9%, 한부모 가정 63.9%, 조손가정 41.7%)’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음악 듣기’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조손가정 청소년에

비해 부모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의 경우 2010년 23.3%에서 2014년 65.9%로 42.6%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27.1%에서 2014년 63.9%로 36.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손가정은 2010년 66.7%에서 2014년 41.7%로 25.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게임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부모자녀 가정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한부모 가정 청소년, 조손가정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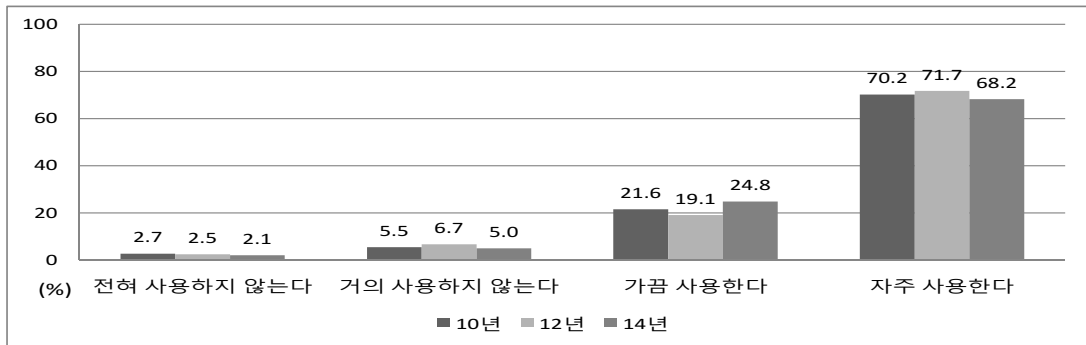
【그림 III-36】 초4 패널- 음악 듣기(가족구성별)

표 III-37 초4 패널- 음악 듣기(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자녀	N	397	190	62	348	214	103	373	430	432	339	958	1152	1457	1792	1749
		%	27.2	10.6	3.5	23.9	11.9	5.9	25.6	24.0	24.7	23.3	53.5	65.9	100	100	100
	한부모 가정	N	33	16	7	32	17	10	37	35	39	38	67	99	140	135	155
		%	23.6	11.9	4.5	22.9	12.6	6.5	26.4	25.9	25.2	27.1	49.6	63.9	100	100	100
	조손 가정	N	1	1	1	－	1	1	1	4	5	4	7	5	6	13	12
		%	16.7	7.7	8.3	－	7.7	8.3	16.7	30.8	41.7	66.7	53.8	41.7	100	100	100
	기타	N	－	－	－	2	1	－	2	1	3	－	4	3	4	6	6
		%	－	－	－	50.0	16.7	－	50.0	16.7	50.0	－	66.7	50.0	100	100	100
전체		N	431	207	70	382	233	114	413	470	479	381	1036	1259	1607	1946	1922
		%	26.8	10.6	3.6	23.8	12.0	5.9	25.7	24.2	24.9	23.7	53.2	65.5	100	100	100

⑨ 시간 보기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시점의 휴대전화 사용 형태와 관련하여 ‘시간 보기’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70.2%, 2012년 71.7%, 2014년 68.2%로 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간 보기’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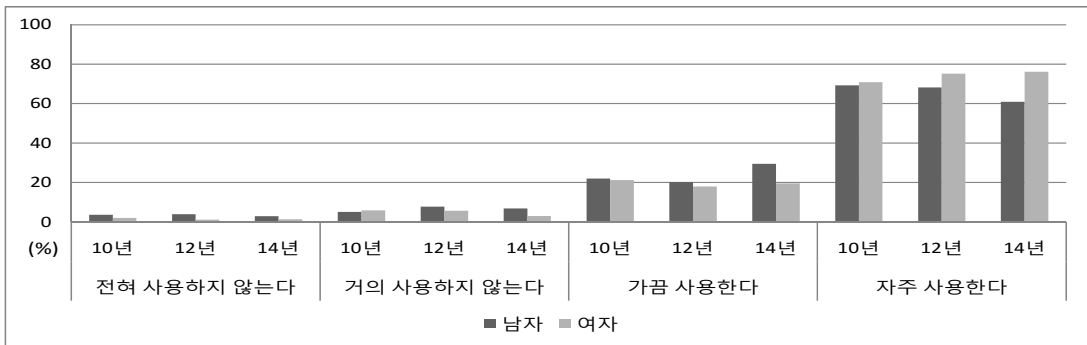
【그림 III-37】 초4 패널- 시간 보기

표 III-38 초4 패널- 시간 보기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44	2.7	50	2.5	41	2.1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89	5.5	134	6.7	98	5.0
가끔 사용한다	347	21.6	381	19.1	488	24.8
자주 사용한다	1129	70.2	1430	71.7	1342	68.2
전체	1609	100	1995	100	1969	100

성별에 따라 ‘시간 보기’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69.3%, 2012년 68.2%, 2014년 60.9%로 8.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은 2010년 70.9%, 2012년 75.2%, 2014년 75.9%로 5.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간 보기’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감소하는 경향이, 여자 청소년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표 III-39>.



【그림 III-38】 초4 패널- 시간 보기(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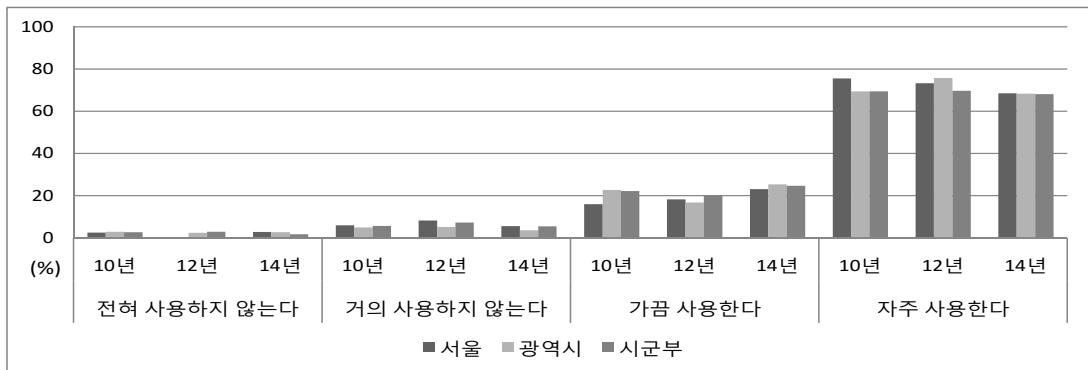
표 III-39 초4 패널- 시간 보기(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26	39	29	37	77	69	160	201	300	503	679	619	726	996	1017	
		%	3.6	3.9	2.9	5.1	7.7	6.8	22.0	20.2	29.5	69.3	68.2	60.9	100	100	100	
	여자	N	18	11	12	52	57	29	187	180	188	626	751	723	883	999	952	
		%	2.0	1.1	1.3	5.9	5.7	3.0	21.2	18.0	19.7	70.9	75.2	75.9	100	100	100	
전체			N	44	50	41	89	134	98	347	381	488	1129	1430	1342	1609	1995	1969
			%	2.7	2.5	2.1	5.5	6.7	5.0	21.6	19.1	24.8	70.2	71.7	68.2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시간 보기’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2014년 : 서울 68.5%, 광역시 68.3%, 시군부 68.1%)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2010년 75.5%에서 2014년 68.5%로 7.0%p 감소, 광역시는 2010년 69.4%에서 2014년 68.3%로 1.1%p 감소, 시군부는 2010년 69.4%에서 2014년 68.1%로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 보기’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의 감소 정도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광역시와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표 III-40>.



【그림 III-39】 초4 패널- 시간 보기(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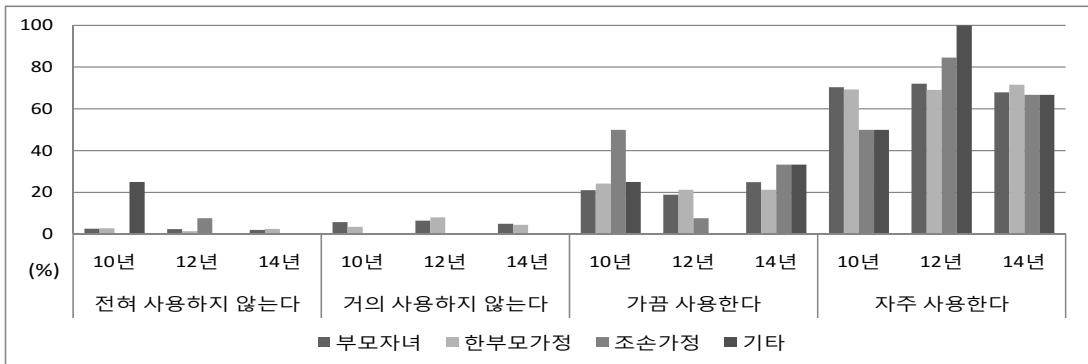
표 III-40 초4 패널- 시간 보기(지역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역	서울	N	5	1	6	12	18	12	32	40	50	151	161	148	200	220	216
		%	2.5	0.5%	2.8	6.0	8.2	5.6	16.0	18.2	23.1	75.5	73.2	68.5	100	100	100
	광역시	N	15	15	16	26	33	22	117	105	153	358	476	412	516	629	603
		%	2.9	2.4	2.7	5.0	5.2	3.6	22.7	16.7	25.4	69.4	75.7	68.3	100	100	100
	시군부	N	24	32	19	51	79	61	198	223	272	620	768	751	893	1102	1103
		%	2.7	2.9	1.7	5.7	7.2	5.5	22.2	20.2	24.7	69.4	69.7	68.1	100	100	100
전체		N	44	48	41	89	130	95	347	368	475	1129	1405	1311	1609	1951	1922
		%	2.7	2.5	2.1	5.5	6.7	4.9	21.6	18.9	24.7	70.2	72.0	68.2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시간 보기’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가정에서 ‘자주 사용한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67.9%, 한부모 가정 71.6%, 조손가정 66.7%)’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시간 보기’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부모자녀 가정과 조손가정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의 경우 2010년 70.4%에서 2014년 67.9%로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부모 가정은 2010년 69.3%에서 2014년 71.6%로 2.3%p 증가, 조손가정도 2010년 50.0%에서 2014년 66.7%로 16.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간 보기’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은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증가 경향이,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은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표 III-41>.



【그림 III-40】 초4 패널- 시간 보기(가족구성별)

표 III-41 초4 패널- 시간 보기(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 구성	부모 자녀	N	39	45	37	84	117	88	308	338	436	1026	1292	1188	1457	1792	1749
		%	2.7	2.5	2.1	5.8	6.5	5.0	21.1	18.9	24.9	70.4	72.1	67.9	100	100	100
	한부모 가정	N	4	2	4	5	11	7	34	29	33	97	94	111	140	136	155
		%	2.9	1.5	2.6	3.6	8.1	4.5	24.3	21.3	21.3	69.3	69.1	71.6	100	100	100
	조손 가정	N	—	1	—	—	—	—	3	1	4	3	11	8	6	13	12
		%	—	7.7	—	—	—	—	50.0	7.7	33.3	50.0	84.6	66.7	100	100	100
	기타	N	1	—	—	—	—	—	1	—	2	2	6	4	4	6	6
		%	25.0	—	—	—	—	—	25.0	—	33.3	50.0	100	66.7	100	100	100
전체		N	44	48	41	89	128	95	346	368	475	1128	1403	1311	1607	1947	1922
		%	2.7	2.5	2.1	5.5	6.6	4.9	21.5	18.9	24.7	70.2	72.1	68.2	100	100	100

2) 초4 패널의 휴대전화 의존정도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의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가를 배경 변인 별로 살펴보았다. 휴대전화 의존 관련 문항은 총 7문항으로 모두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2010년 .828, 2012년 .890, 2014년 .884로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로 휴대전화 의존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2014년 평균 16.59)이 남자 청소년(2014년 평균 15.17)에 비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시규모별’로 살펴보면 광역시(2014년 평균 16.04)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서울(2014년 평균 15.30)이나 시군부(2014년 평균 15.86)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모든 지역 청소년들에게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 살펴보면 조손가정(2014년 평균 16.64) 청소년이 부모자녀 가정(2014년 평균 15.87)과 한부모 가정(2014년 평균 15.54) 청소년에 비해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모든 가정 청소년에게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표 III-42>.

표 III-42 초4 패널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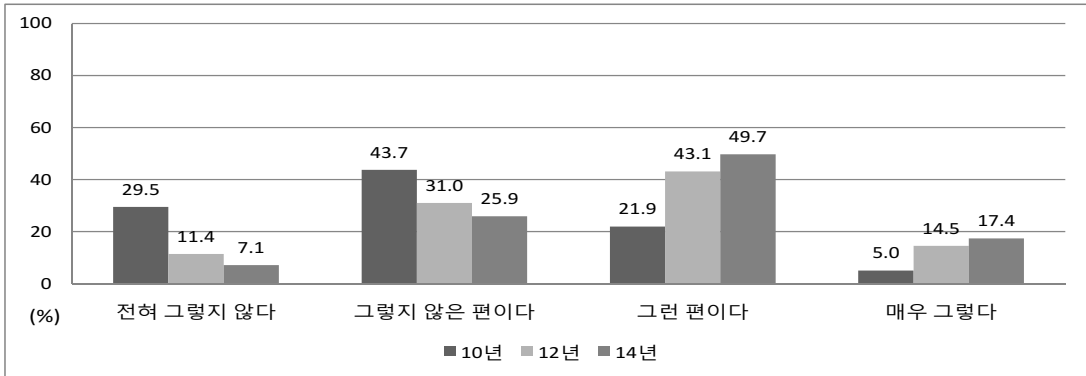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중2)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650	11.64	4.26	927	14.08	5.01	979	15.17	4.62
	여자	780	11.70	3.96	932	15.35	4.72	927	16.59	4.48
	전체	1430	11.68	4.10	1859	14.72	4.91	1906	15.86	4.61
지역	서울	184	11.73	3.87	205	14.38	4.87	208	15.30	4.46
	광역시	463	11.42	3.99	596	14.83	4.90	586	16.04	4.71
	시군부	783	11.82	4.21	1018	14.71	4.91	1065	15.86	4.60
	전체	1430	11.68	4.10	1819	14.71	4.90	1859	15.85	4.62
가족구성	부모자녀	1289	11.66	4.14	1669	14.71	4.91	1695	15.87	4.62
	한부모 가정	130	11.77	3.64	128	14.69	4.71	147	15.54	4.65
	조손가정	5	14.80	5.22	13	13.54	5.62	11	16.64	4.08
	기타	4	12.75	2.99	6	15.50	5.54	6	18.67	5.16
	전체	1428	11.68	4.10	1816	14.71	4.90	1859	15.85	4.62

‘휴대전화 의존도’관련 각 문항별 세부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 편이다’에 대한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21.9%, 2012년 43.1%, 2014년 49.7%로 27.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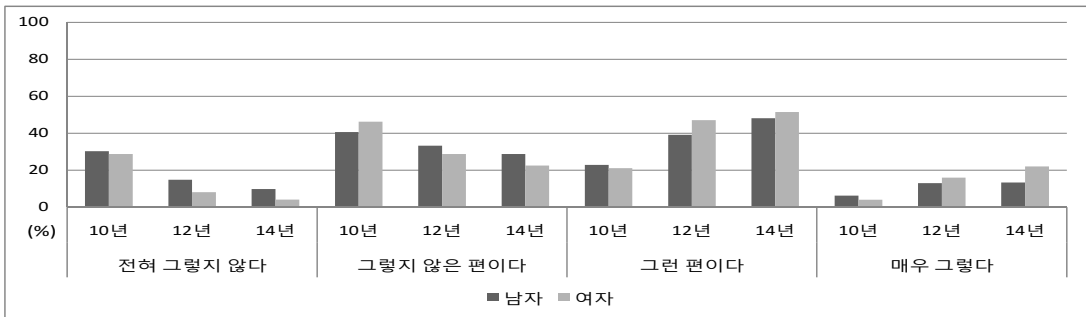
【그림 III-41】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표 III-43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74	29.5	228	11.4	139	7.1
그렇지 않은 편이다	703	43.7	617	31.0	509	25.9
그런 편이다	352	21.9	859	43.1	978	49.7
매우 그렇다	80	5.0	289	14.5	343	17.4
전체	1609	100	1993	100	1969	100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 남자 28.8%, 여자 22.7%)’와 ‘그런 편이다(2014년 : 남자 48.1%, 여자 51.4%)’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 편이다’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22.9%에서 2014년 48.1%로 25.2%p 증가하였고, 여자 청소년도 2010년 21.0%에서 2014년 51.4%로 3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전화 의존도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표 III-44>.



【그림 III-42】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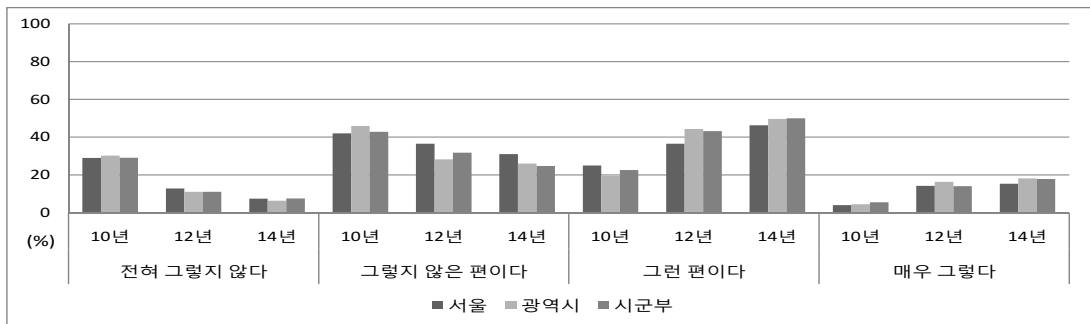
표 III-44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성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219	147	100	295	330	293	166	389	489	45	129	135	725	995	1017	
		%	30.2	14.8	9.8	40.7	33.2	28.8	22.9	39.1	48.1	6.2	13.0	13.3	100	100	100	
	여자	N	255	81	39	408	287	216	186	470	489	35	160	208	884	998	952	
		%	28.8	8.1	4.1	46.2	28.8	22.7	21.0	47.1	51.4	4.0	16.0	21.8	100	100	100	
전체			N	474	228	139	703	617	509	352	859	978	80	289	343	1609	1993	1969
			%	29.5	11.4	7.1	43.7	31.0	25.9	21.9	43.1	49.7	5.0	14.5	17.4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 서울 31.0%, 광역시 26.0%, 시군부 24.7%)’와 ‘그런 편이다(2014년

: 서울 46.3%, 광역시 49.6%, 시군부 50.0%)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 편이다’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2010년 25.0%에서 2014년 46.3%로 21.3%p 증가, 광역시 2010년 19.4%에서 2014년 49.6%로 30.2%p 증가, 시군부 2010년 22.6%에서 2014년 50.0%로 27.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사용시간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전화 의존도는 시군부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표 III-45>.



【그림 III-43】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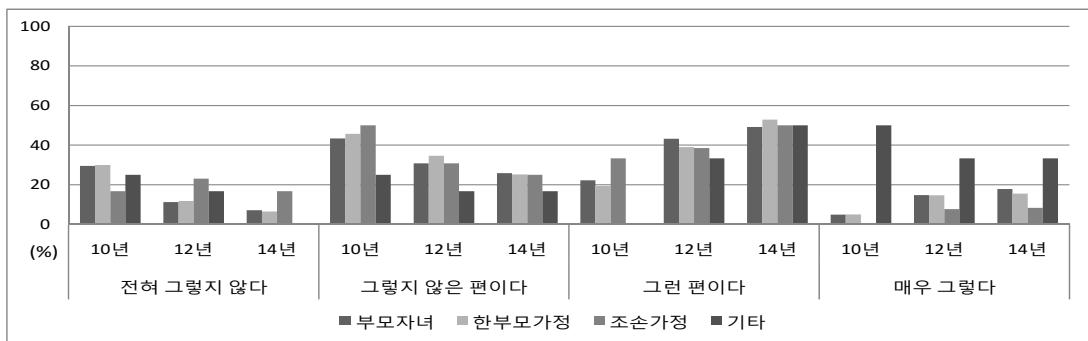
표 III-45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지역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 역	서울	N	58	28	16	84	80	67	50	80	100	8	31	33	200	219	216
		%	29.0	12.8	7.4	42.0	36.5	31.0	25.0	36.5	46.3	4.0	14.2	15.3	100	100	100
	광역시	N	156	70	38	237	177	157	100	278	299	23	103	109	516	628	603
		%	30.2	11.1	6.3	45.9	28.2	26.0	19.4	44.3	49.6	4.5	16.4	18.1	100	100	100
	시군부	N	260	122	83	382	350	272	202	476	552	49	154	196	893	1102	1103
		%	29.1	11.1	7.5	42.8	31.8	24.7	22.6	43.2	50.0	5.5	14.0	17.8	100	100	100
전체		N	474	220	137	703	607	496	352	834	951	80	288	338	1609	1949	1922
		%	29.5	11.3	7.1	43.7	31.1	25.8	21.9	42.8	49.5	5.0	14.8	17.6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살펴보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25.9%, 한부모 가정 25.2%, 조손가정 25.0%)’와

‘그런 편이다(2014년 : 서울 49.2%, 광역시 52.9%, 시군부 50.0%)’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 편이다’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2010년 22.2%에서 2014년 49.2%로 27.0%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19.3%에서 2014년 52.9%로 33.6%p 증가, 조손가정은 2010년 33.3%에서 2014년 50.0%로 17.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정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전화 의존도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조손가정 청소년,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46>.



【그림 III-44】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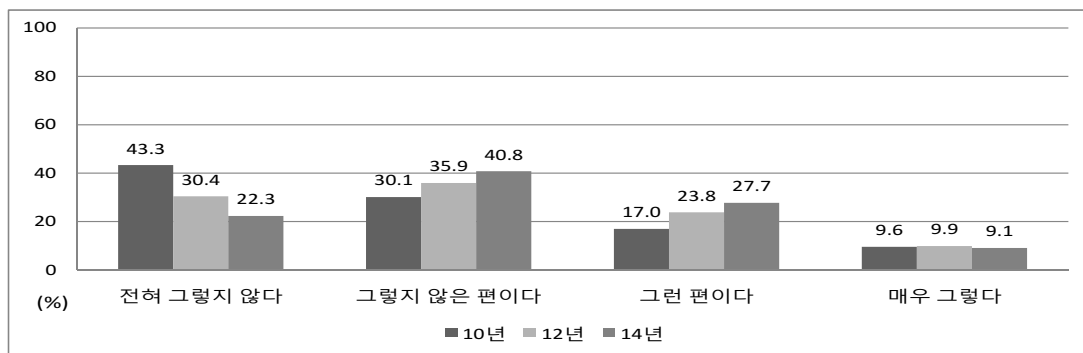
표 III-46 초4 패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자녀	N	430	200	125	633	552	453	323	773	860	71	265	311	1457	1790	1749
		%	29.5	11.2	7.1	43.4	30.8	25.9	22.2	43.2	49.2	4.9	14.8	17.8	100	100	100
	한부모 가정	N	42	16	10	64	47	39	27	53	82	7	20	24	140	136	155
		%	30.0	11.8	6.5	45.7	34.6	25.2	19.3	39.0	52.9	5.0	14.7	15.5	100	100	100
	조손 가정	N	1	3	2	3	4	3	2	5	6	—	1	1	6	13	12
		%	16.7	23.1	16.7	50.0	30.8	25.0	33.3	38.5	50.0	—	7.7	8.3	100	100	100
	기타	N	1	1	—	1	1	1	—	2	3	2	2	2	4	6	6
		%	25.0	16.7	—	25.0	16.7	16.7	—	33.3	50.0	50.0	33.3	33.3	100	100	100
전체		N	474	220	137	701	604	496	352	833	951	80	288	338	1607	1945	1922
		%	29.5	11.3	7.1	43.6	31.1	25.8	21.9	42.8	49.5	5.0	14.8	17.6	100	100	100

②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대해 2010년도(초4)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43.3%)’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2012년도(초6)와 2014년도(중2)에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2년 : 35.9%, 2014년 40.8%)’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III-47>.

한편,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2010년 26.6%, 2012년 33.7%, 2014년 36.8%로 1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부재에 대한 불안감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5】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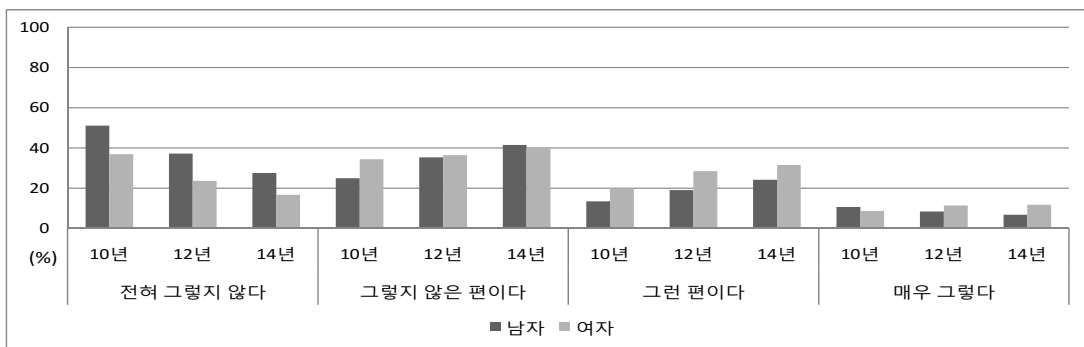
표 III-47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97	43.3	607	30.4	439	22.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85	30.1	716	35.9	804	40.8
그런 편이다	273	17.0	474	23.8	546	27.7
매우 그렇다	154	9.6	198	9.9	180	9.1
전체	1609	100	1995	100	1969	100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 남자 41.5%, 여자 39.9%)’와 ‘그런 편이다(2014년 : 남자 24.2%, 여자 31.6%)’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 편이다’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13.4%에서 2014년 24.2%로 10.8%p 증가하였고, 여자청소년은 2010년 19.9%에서 2014년 31.6%로 1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부재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안감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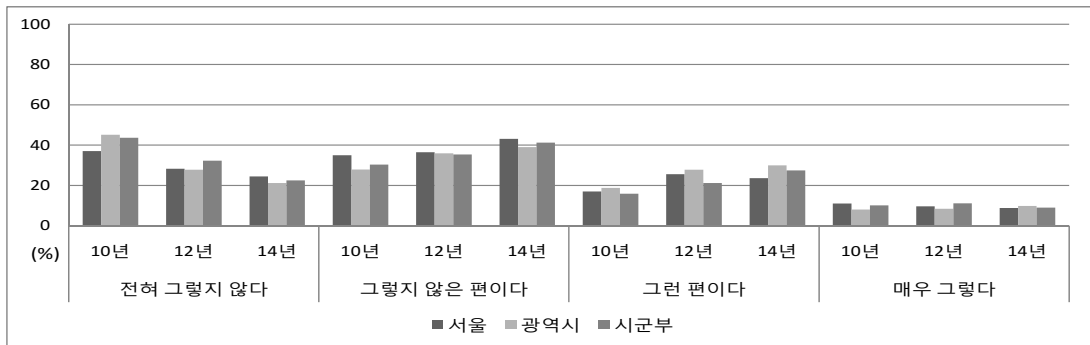
【그림 III-46】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표 III-48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371	371	280	180	352	422	97	189	246	77	84	69	725	996	1017	
		%	51.2	37.2	27.5	24.8	35.3	41.5	13.4	19.0	24.2	10.6	8.4	6.8	100	100	100	
	여자	N	326	236	159	305	364	380	176	285	301	77	114	112	884	999	952	
		%	36.9	23.6	16.7	34.5	36.4	39.9	19.9	28.5	31.6	8.7	11.4	11.8	100	100	100	
전체			N	697	607	439	485	716	802	273	474	547	154	198	181	1609	1995	1969
			%	43.3	30.4	22.3	30.1	35.9	40.7	17.0	23.8	27.8	9.6	9.9	9.2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 서울 43.1%, 광역시 39.0%, 시군부 41.2%)’와 ‘그런 편이다(2014년 : 서울 23.6%, 광역시 30.0%, 시군부 27.4%)’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 편이다’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2010년 17.0%에서 2014년 23.6%로 6.6%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18.8%에서 30.0%로 11.2%p 증가, 시군부는 2010년 15.9%에서 2014년 27.4%로 1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미지참시의 불안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불안정도는 시군부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9>.



【그림 III-47】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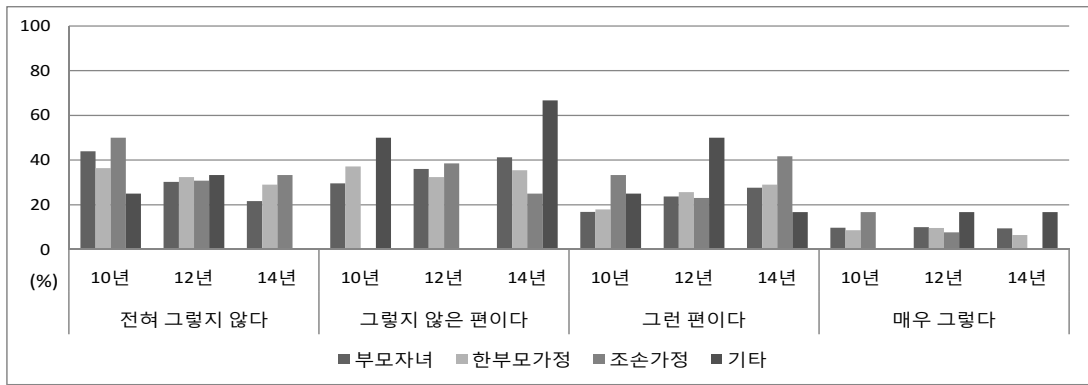
표 III-49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역	서울	N	74	62	53	70	80	93	34	56	51	22	21	19	200	219	216
		%	37.0	28.3	24.5	35.0	36.5	43.1	17.0	25.6	23.6	11.0	9.6	8.8	100	100	100
	광역시	N	233	175	128	144	226	235	97	175	181	42	53	59	516	629	603
		%	45.2	27.8	21.2	27.9	35.9	39.0	18.8	27.8	30.0	8.1	8.4	9.8	100	100	100
	시군부	N	390	356	248	271	391	454	142	234	302	90	122	99	893	1103	1103
		%	43.7	32.3	22.5	30.3	35.4	41.2	15.9	21.2	27.4	10.1	11.1	9.0	100	100	100
전체		N	697	593	429	485	697	782	273	465	534	154	196	177	1609	1951	1922
		%	43.3	30.4	22.3	30.1	35.7	40.7	17.0	23.8	27.8	9.6	10.0	9.2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살펴보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41.2%, 한부모 가정 35.5%, 조손가정 25.0%)’와 ‘그런 편이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27.6%, 한부모 가정 29.0%, 조손가정 41.7%)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 편이다’에 대한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은 2010년 16.8%에서 27.6%로 10.8%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17.9%에서 2014년 29.0%로 11.1%p 증가, 조손가정은 2010년 33.3%에서 2014년 41.7%로 8.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정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부재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안감 증가 정도는 부모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조손가정 청소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0>.



【그림 III-48】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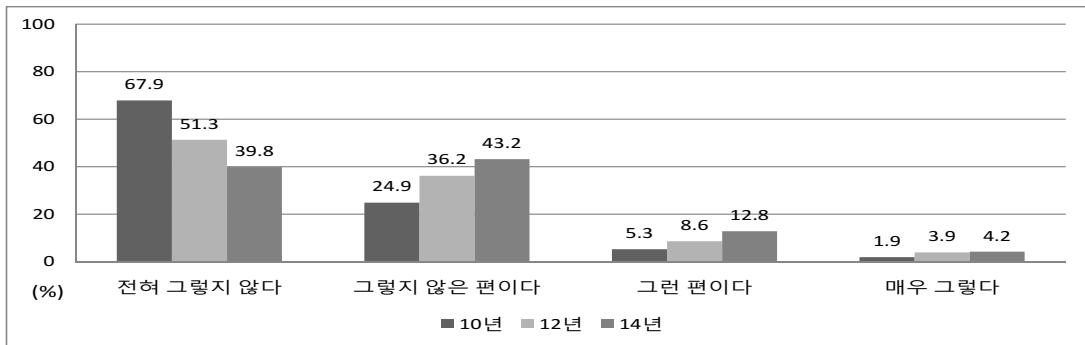
표 III-50 초4 패널-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N	640	542	380	431	646	720	245	424	483	141	180	166	1457	1792	1749
		%	43.9	30.2	21.7	29.6	36.0	41.2	16.8	23.7	27.6	9.7	10.0	9.5	100	100	100
	한부모	N	51	44	45	52	44	55	25	35	45	12	13	10	140	136	155
		%	36.4	32.4	29.0	37.1	32.4	35.5	17.9	25.7	29.0	8.6	9.6	6.5	100	100	100
	조손	N	3	4	4	—	5	3	2	3	5	1	1	—	6	13	12
		%	50.0	30.8	33.3	—	38.5	25.0	33.3	23.1	41.7	16.7	7.7	—	100	100	100
	기타	N	1	2	—	2	—	4	1	3	1	—	1	1	4	6	6
		%	25.0	33.3	—	50.0	—	66.7	25.0	50.0	16.7	—	16.7	16.7	100	100	100
전체	N	695	592	429	485	695	782	273	465	534	154	195	177	1607	1947	1922	
	%	43.2	30.4	22.3	30.2	35.7	40.7	17.0	23.9	27.8	9.6	10.0	9.2	100	100	100	

③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0년 67.9%, 2012년 51.3%)’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43.2%)’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휴대전화 의존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2010년 7.2%, 2012년 12.5%, 2014년 17.0%로 9.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연락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1>.



【그림 III-49】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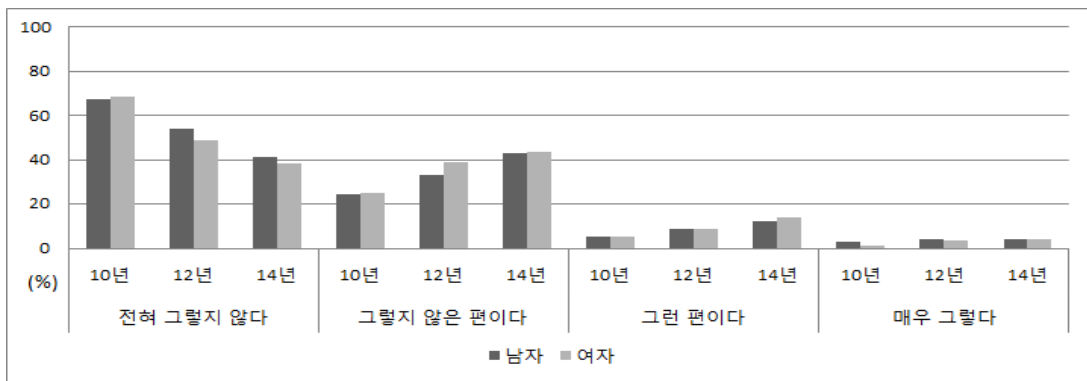
표 III-51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093	67.9	1022	51.3	783	39.8
그렇지 않은 편이다	400	24.9	721	36.2	851	43.2
그런 편이다	86	5.3	171	8.6	253	12.8
매우 그렇다	30	1.9	77	3.9	82	4.2
전체	1609	100	1991	100	1969	100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4년 : 남자 41.0%, 여자 38.4%)’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 남자 42.9%, 여자 43.6%)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2010년 8.0%, 2012년 12.7%, 2014년 16.1%로 8.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도 2010년 6.5%, 2012년 12.2%, 2014년 17.4%로 10.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연락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안 정도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표 III-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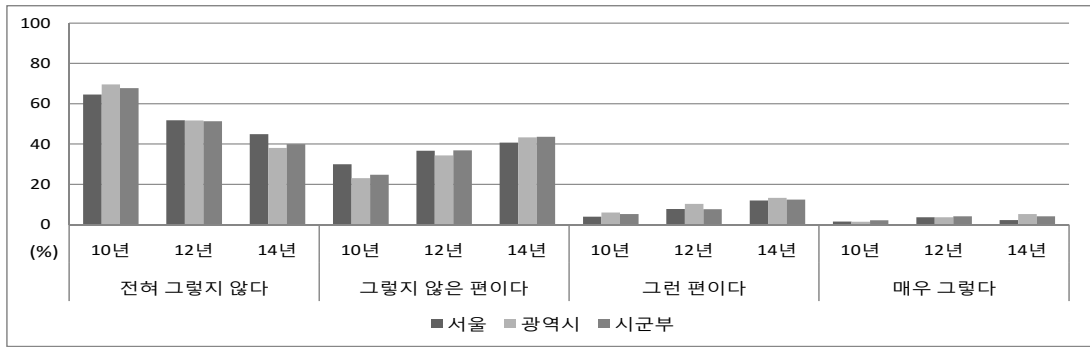
【그림 III-50】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표 III-52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성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488	536	417	179	332	436	38	86	122	20	40	42	725	994	1017	
		%	67.3	53.9	41.0	24.7	33.4	42.9	5.2	8.7	12.0	2.8	4.0	4.1	100	100	100	
	여자	N	605	486	366	221	389	415	48	85	131	10	37	40	884	997	952	
		%	68.4	48.7	38.4	25.0	39.0	43.6	5.4	8.5	13.8	1.1	3.7	4.2	100	100	100	
전체			N	1093	1022	783	400	721	851	86	171	253	30	77	82	1609	1991	1969
			%	67.9	51.3	39.8	24.9	36.2	43.2	5.3	8.6	12.8	1.9	3.9	4.2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4년 : 서울 44.9%, 광역시 38.1%, 시군부 39.9%)’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 서울 40.7%, 광역시 43.3%, 시군부 43.6%)’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서울은 2010년 5.5%에서 2014년 14.3%로 8.8%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7.4%에서 2014년 18.6%로 11.2%p 증가, 시군부는 2010년 7.5%에서 2014년 16.5%로 9.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연락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안 정도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서울과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표 III-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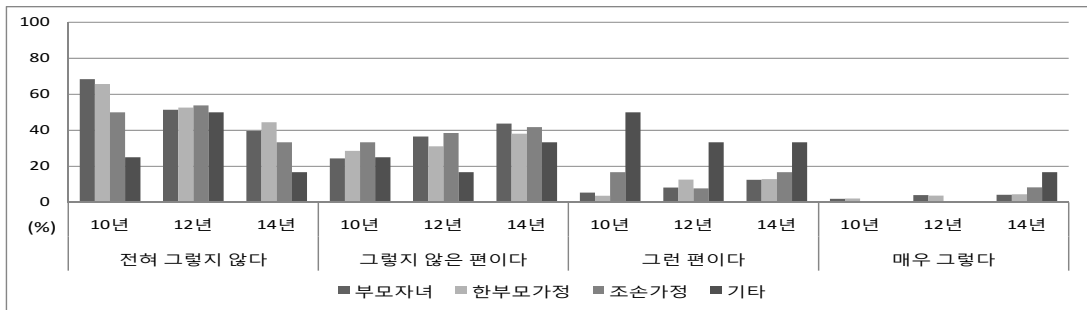
【그림 III-51】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표 III-53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지역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역	서울	N	129	113	97	60	80	88	8	17	26	3	8	5	200	218	216
		%	64.5	51.8	44.9	30.0	36.7	40.7	4.0	7.8	12.0	1.5	3.7	2.3	100	100	100
	광역시	N	359	325	230	119	216	261	31	65	80	7	23	32	516	629	603
		%	69.6	51.7	38.1	23.1	34.3	43.3	6.0	10.3	13.3	1.4	3.7	5.3	100	100	100
	시군부	N	605	564	440	221	406	481	47	85	137	20	45	45	893	1100	1103
		%	67.7	51.3	39.9	24.7	36.9	43.6	5.3	7.7	12.4	2.2	4.1	4.1	100	100	100
전체	N	1093	1002	767	400	702	830	86	167	243	30	76	82	1609	1947	1922	
	%	67.9	51.5	39.9	24.9	36.1	43.2	5.3	8.6	12.6	1.9	3.9	4.3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살펴보면,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39.6%, 한부모 가정 44.5%, 조손가정 33.3%)’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43.7%, 한부모 가정 38.1%, 조손가정 41.7%)’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부모자녀 가정은 2010년 7.3%에서 2014년 16.7%로 9.4%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5.7%에서 2014년 17.4%로 11.7%p 증가, 조손가정은 2010년 16.7%에서 2014년 25.0%로 8.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연락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안감 증가 정도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부모자녀 가정과 조손가정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4>.



【그림 III-52】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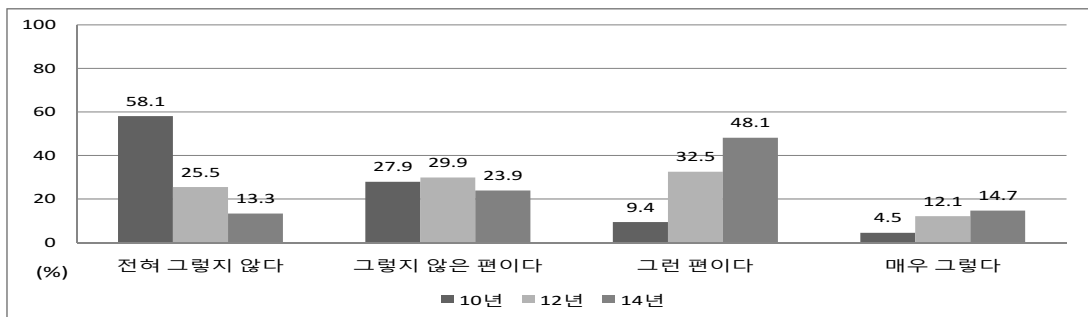
표 III-54 초4 패널-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자녀	N	996	919	693	356	653	764	78	146	219	27	71	73	1457	1789	1749
		%	68.4	51.4	39.6	24.4	36.5	43.7	5.4	8.2	12.5	1.9	4.0	4.2	100	100	100
	한부모	N	92	71	69	40	42	59	5	17	20	3	5	7	140	135	155
		%	65.7	52.6	44.5	28.6	31.1	38.1	3.6	12.6	12.9	2.1	3.7	4.5	100	100	100
	조손	N	3	7	4	2	5	5	1	1	2	-	-	1	6	13	12
		%	50.0	53.8	33.3	33.3	38.5	41.7	16.7	7.7	16.7	-	-	8.3	100	100	100
	기타	N	1	3	1	1	1	2	2	2	2	-	-	1	4	6	6
		%	25.0	50.0	16.7	25.0	16.7	33.3	50.0	33.3	33.3	-	-	16.7	100	100	100
	전체	N	1092	1000	767	399	701	830	86	166	243	30	76	82	1607	1943	1922
		%	68.0	51.5	39.9	24.8	36.1	43.2	5.4	8.5	12.6	1.9	3.9	4.3	100	100	100

④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0년 58.1%)’와 ‘그런 편이다(2012년 32.5%, 2014년 48.1%)’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2010년 13.9%, 2012년 44.6%, 2014년 62.8%로 48.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몰입도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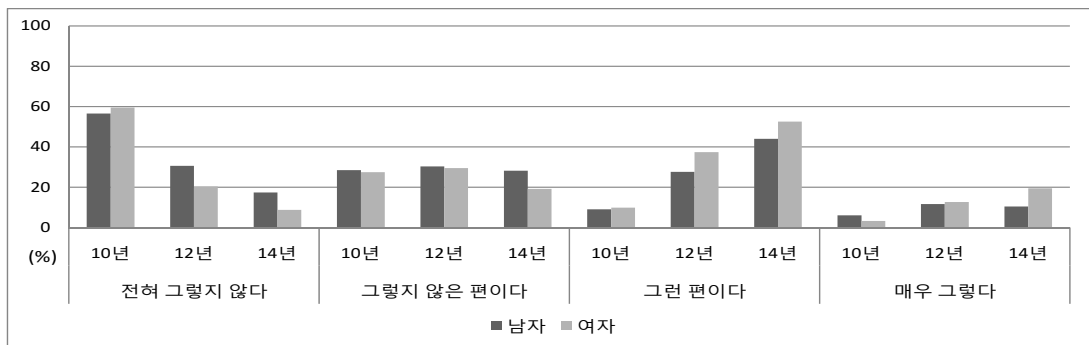
【그림 III-53】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표 III-55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935	58.1	507	25.5	261	13.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49	27.9	595	29.9	471	23.9
그런 편이다	152	9.4	648	32.5	947	48.1
매우 그렇다	73	4.5	242	12.1	290	14.7
전체	1609	100	1992	100	1969	100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4년 : 남자 17.4%, 여자 8.8%)’와 ‘그런 편이다(2014년 : 남자 44.0%, 여자 52.5%)’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여자 청소년은 2010년 15.1%에서 2014년 54.4%로 39.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 청소년도 2010년 13.1%에서 2014년 71.8%로 58.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몰입 정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전화에 대한 몰입도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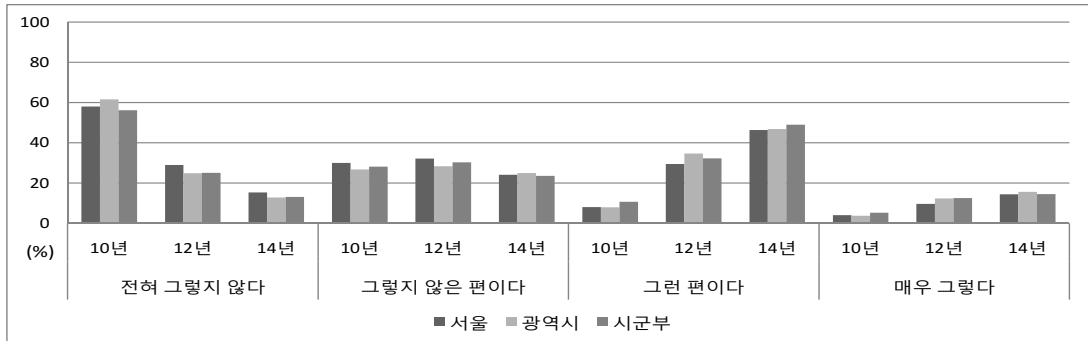
【그림 III-54】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성별)

표 III-56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성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409	304	177	207	301	287	65	275	447	44	115	106	725	995	1017	
		%	56.4	30.6	17.4	28.6	30.3	28.2	9.0	27.6	44.0	6.1	11.6	10.4	100	100	100	
	여자	N	526	203	84	242	294	184	87	373	500	29	127	184	884	997	952	
		%	59.5	20.4	8.8	27.4	29.5	19.3	9.8	37.4	52.5	3.3	12.7	19.3	100	100	100	
전체			N	935	507	261	449	595	471	152	648	947	73	242	290	1609	1992	1969
			%	58.1	25.5	13.3	27.9	29.9	23.9	9.4	32.5	48.1	4.5	12.1	14.7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4년 : 서울 15.3%, 광역시 12.8%, 시군부 13.1%)’와 ‘그런 편이다(2014년 : 서울 46.3%, 광역시 46.8%, 시군부 48.9%)’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서울이 2010년 12.0%에서 2014년 60.7%로 48.7%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11.6%에서 2014년 62.4%로 50.8%p로 증가, 시군부 2010년 15.8%에서 2014년 63.4%로 47.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에 대한 몰입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7>.



【그림 III-55】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지역별)

표 III-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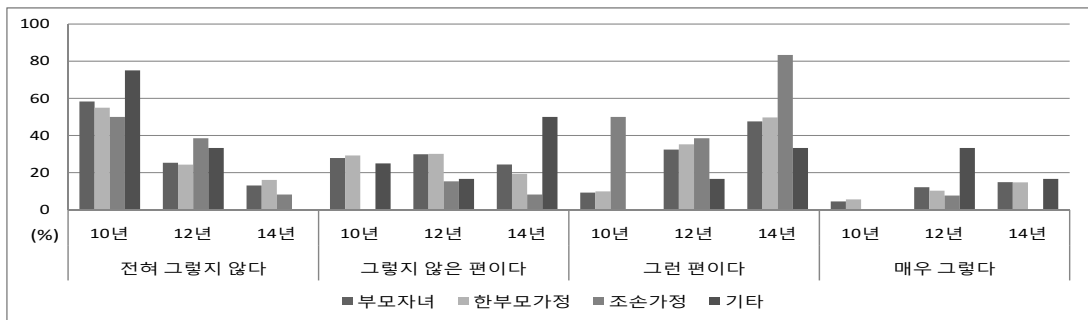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지역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 역	서울	N	116	63	33	60	70	52	16	64	100	8	21	31	200	218	216
		%	58.0	28.9	15.3	30.0	32.1	24.1	8.0	29.4	46.3	4.0	9.6	14.4	100	100	100
	광역시	N	318	156	77	138	178	150	41	217	282	19	77	94	516	628	603
		%	61.6	24.8	12.8	26.7	28.3	24.9	7.9	34.6	46.8	3.7	12.3	15.6	100	100	100
	시군부	N	501	276	145	251	334	259	95	355	539	46	138	160	893	1103	1103
		%	56.1	25.0	13.1	28.1	30.3	23.5	10.6	32.2	48.9	5.2	12.5	14.5	100	100	100
전체		N	935	495	255	449	582	461	152	636	921	73	236	285	1609	1949	1922
		%	58.1	25.4	13.3	27.9	29.9	24.0	9.4	32.6	47.9	4.5	12.1	14.8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살펴보면,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13.1%, 한부모 가정 16.1%, 조손가정 8.3%)’와

‘그런 편이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47.6%, 한부모 가정 49.7%, 조손가정 83.3%)’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부모자녀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2010년 13.8%에서 2014년 62.5%로 48.7%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15.7%에서 2014년 64.5%로 48.8%p 증가, 조손가정은 2010년 50.0%에서 2014년 83.3%로 3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정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몰입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 변화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몰입도 증가 정도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과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이 조손가정 청소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8>.



【그림 III-56】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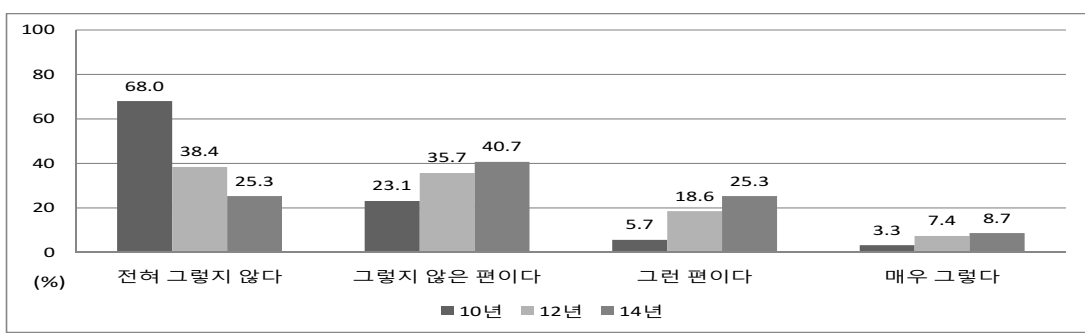
표 III-58 초4 패널-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자녀	N	850	454	229	407	536	427	135	582	832	65	218	261	1457	1790	1749
		%	58.3	25.4	13.1	27.9	29.9	24.4	9.3	32.5	47.6	4.5	12.2	14.9	100	100	100
	한부모가정	N	77	33	25	41	41	30	14	48	77	8	14	23	140	136	155
		%	55.0	24.3	16.1	29.3	30.1	19.4	10.0	35.3	49.7	5.7	10.3	14.8	100	100	100
	조손가정	N	3	5	1	—	2	1	3	5	10	—	1	—	6	13	12
		%	50.0	38.5	8.3	—	15.4	8.3	50.0	38.5	83.3	—	7.7	—	100	100	100
	기타	N	3	2	—	1	1	3	—	1	2	—	2	1	4	6	6
		%	75.0	33.3	—	25.0	16.7	50.0	—	16.7	33.3	—	33.3	16.7	100	100	100
	전체	N	933	494	255	449	580	461	152	636	921	73	235	285	1607	1945	1922
		%	58.1	25.4	13.3	27.9	29.8	24.0	9.5	32.7	47.9	4.5	12.1	14.8	100	100	100

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0년 68.0%, 2012년 38.4%)’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40.7%)’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휴대전화 의존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2010년 9.0%, 2012년 26.0%, 2014년 34.0%로 25.0%p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 정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9>.



【그림 III-57】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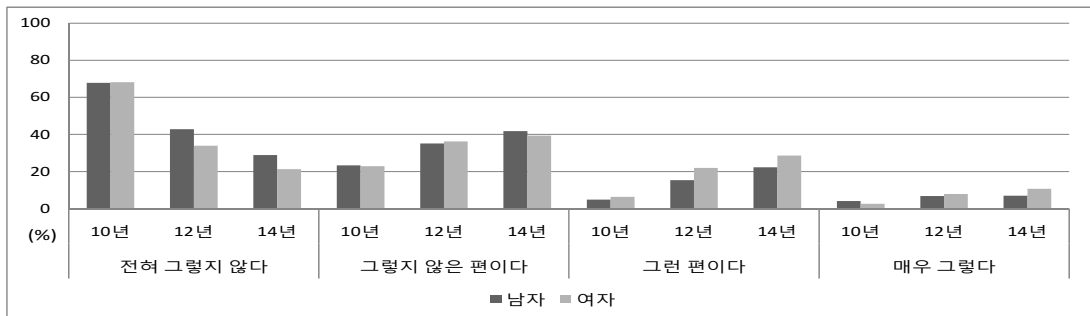
표 III-59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094	68.0	765	38.4	498	25.3
그렇지 않은 편이다	371	23.1	711	35.7	801	40.7
그런 편이다	91	5.7	371	18.6	498	25.3
매우 그렇다	53	3.3	147	7.4	172	8.7
전체	1609	100	1994	100	1969	100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4년 : 남자 28.9%, 여자 21.4%)’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 남자 41.8%, 여자

39.5%)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10년 8.9%에서 2014년 29.3%로 2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도 2010년 8.9%에서 2014년 39.1%로 3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전화 의존도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표 III-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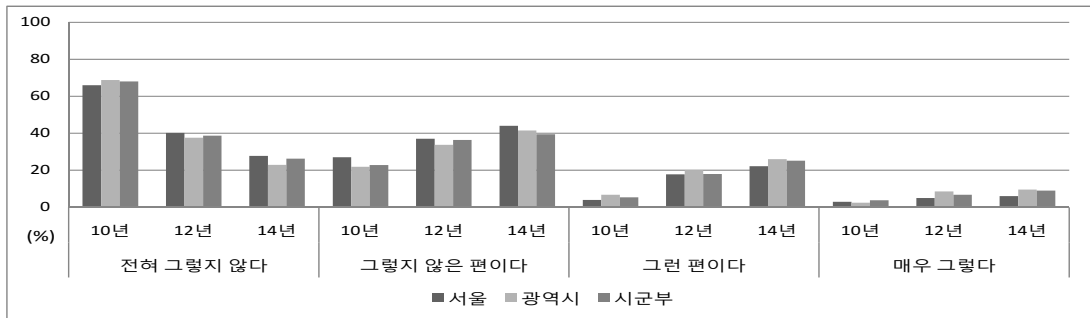
【그림 III-58】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성별)

표 III-60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성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491	426	294	169	349	425	35	152	227	30	68	71	725	995	1017	
		%	67.7	42.8	28.9	23.3	35.1	41.8	4.8	15.3	22.3	4.1	6.8	7.0	100	100	100	
	여자	N	603	339	204	202	362	376	56	219	271	23	79	101	884	999	952	
		%	68.2	33.9	21.4	22.9	36.2	39.5	6.3	21.9	28.5	2.6	7.9	10.6	100	100	100	
전체			N	1094	765	498	371	711	801	91	371	498	53	147	172	1609	1994	1969
			%	68.0	38.4	25.3	23.1	35.7	40.7	5.7	18.6	25.3	3.3	7.4	8.7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4년 : 서울 27.8%, 광역시 22.9%, 시군부 26.3%)’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 서울 44.0%, 광역시 41.5%, 시군부 39.5%)’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서울이 2010년 7.0%에서 2014년 28.2%로 21.2%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9.3%에서 2014년 35.6%로 26.3%p로 증가, 시군부 2010년 9.2%에서 2014년 34.2%로 25.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 없는 정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 없는 정도는 시군부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II-61>.



【그림 III-59】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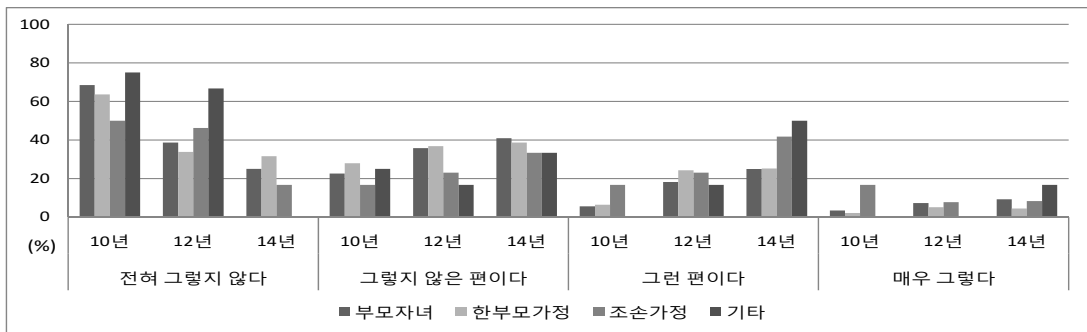
표 III-61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지역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역	서울	N	132	88	60	54	81	95	8	39	48	6	11	13	200	219	216
		%	66.0	40.2	27.8	27.0	37.0	44.0	4.0	17.8	22.2	3.0	5.0	6.0	100	100	100
	광역시	N	355	236	138	113	212	250	35	126	157	13	54	58	516	628	603
		%	68.8	37.6	22.9	21.9	33.8	41.5	6.8	20.1	26.0	2.5	8.6	9.6	100	100	100
	시군부	N	607	427	290	204	402	436	48	199	278	34	75	99	893	1103	1103
		%	68.0	38.7	26.3	22.8	36.4	39.5	5.4	18.0	25.2	3.8	6.8	9.0	100	100	100
전체		N	1094	751	488	371	695	781	91	364	483	53	140	170	1609	1950	1922
		%	68.0	38.5	25.4	23.1	35.6	40.6	5.7	18.7	25.1	3.3	7.2	8.8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살펴보면,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25.0%, 한부모 가정 31.6%, 조손가정 16.7%)’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40.9%, 한부모 가정 38.7%, 조손가정 33.3%)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부모자녀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2010년 11.0%에서 2014년 34.1%로 23.1%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8.5%에서 2014년 29.7%로 21.2%p 증가, 조손가정은 2010년 33.4%에서 2014년 50.0%로 1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정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 없는 정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 없는 정도는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조손가정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II-62>.



【그림 III-60】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가족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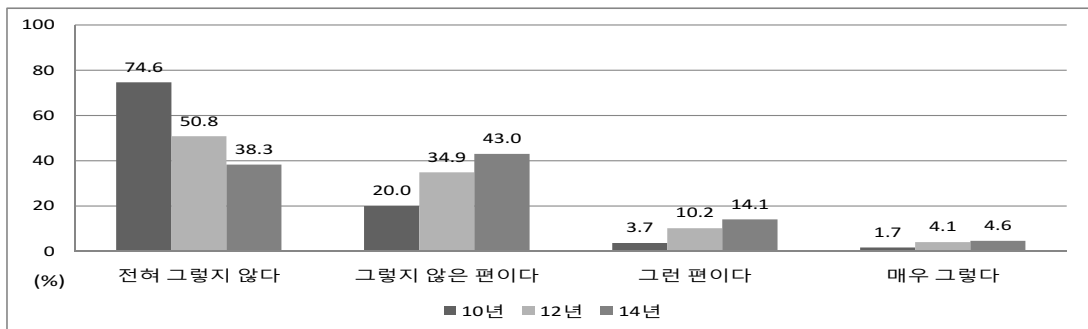
표 III-62 초4 패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N	998	693	437	329	641	715	81	326	436	49	131	161	1457	1791	1749
	자녀	%	68.5	38.7	25.0	22.6	35.8	40.9	5.6	18.2	24.9	3.4	7.3	9.2	100	100	100
	한부모	N	89	46	49	39	50	60	9	33	39	3	7	7	140	136	155
	가정	%	63.6	33.8	31.6	27.9	36.8	38.7	6.4	24.3	25.2	2.1	5.1	4.5	100	100	100
	조손	N	3	6	2	1	3	4	1	3	5	1	1	1	6	13	12
	가정	%	50.0	46.2	16.7	16.7	23.1	33.3	16.7	23.1	41.7	16.7	7.7	8.3	100	100	100
	기타	N	3	4	—	1	1	2	—	1	3	—	—	1	4	6	6
		%	75.0	66.7	—	25.0	16.7	33.3	—	16.7	50.0	—	—	16.7	100	100	100
전체	N	1093	749	488	370	695	781	91	363	483	53	139	170	1607	1946	1922	
	%	68.0	38.5	25.4	23.0	35.7	40.6	5.7	18.7	25.1	3.3	7.1	8.8	100	100	100	

⑥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0년 74.6%, 2012년 50.8%)’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43.0%)’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2010년 5.4%, 2012년 14.3%, 2014년 18.7%로 13.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부재 시에 느끼는 고립감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3>.



【그림 III-61】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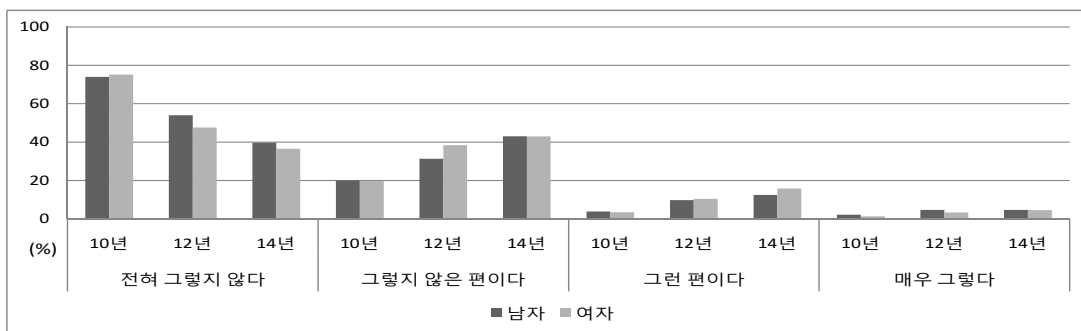
표 III-63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201	74.6	1013	50.8	754	38.3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1	20.0	696	34.9	846	43.0
그런 편이다	59	3.7	203	10.2	278	14.1
매우 그렇다	28	1.7	81	4.1	91	4.6
전체	1609	100	1993	100	1969	100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4년 : 남자 39.7%, 여자 36.8%)’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 남자 43.1%, 여자 42.9%)’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남녀 모두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2010년 6.1%에서 2014년 17.2%로 11.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도 2010년 4.9%에서 2014년 20.4%로 15.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부재 시에 느끼는 고립감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립감을 느끼는 정도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4>.



【그림 III-62】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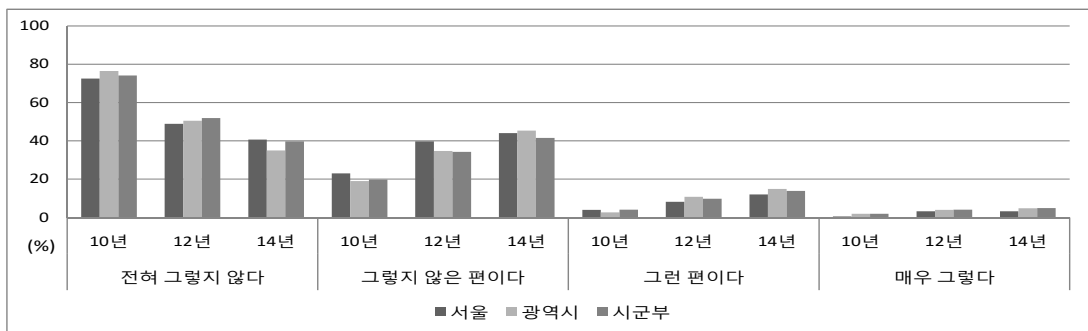
표 III-64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성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536	538	404	145	313	438	28	98	127	16	47	48	725	996	1017	
		%	73.9	54.0	39.7	20.0	31.4	43.1	3.9	9.8	12.5	2.2	4.7	4.7	100	100	100	
	여자	N	665	475	350	176	383	408	31	105	151	12	34	48	884	997	952	
		%	75.2	47.6	36.8	19.9	38.4	42.9	3.5	10.5	15.9	1.4	3.4	4.5	100	100	100	
전체			N	1201	1013	754	321	696	846	59	203	278	28	81	91	1609	1993	1969
			%	74.6	50.8	38.3	20.0	34.9	43.0	3.7	10.2	14.1	1.7	4.1	4.6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4년 : 서울 40.7%, 광역시 35.0%, 시군부 39.7%)’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 서울 44.0%, 광역시 45.3%, 시군부 41.5%)’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남녀 모두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전화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서울은 2010년 4.5%에서 2014년 15.2%로 10.7%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4.6%에서 2014년 19.7%로 15.1%p 증가, 시군부는 2010년 6.0%에서 2014년 18.8%로 12.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 청소년들에게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부재 시에 느끼는 고립감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립감이 심해지는 정도는 광역시와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5>.



【그림 III-63】 초4 패널- 휴대전화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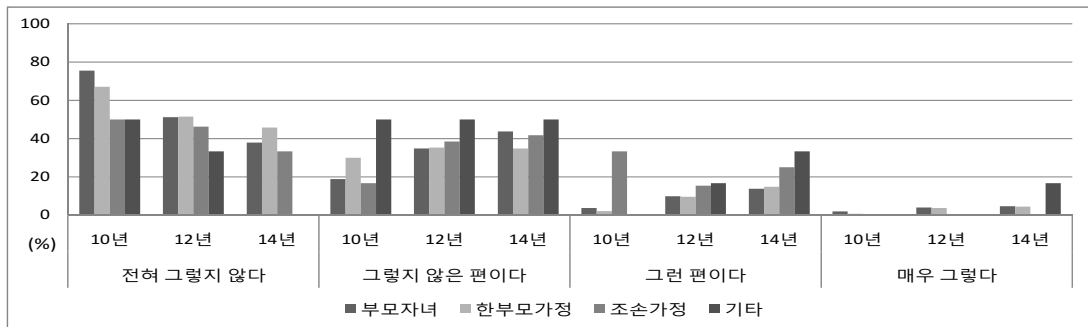
표 III-65 초4 패널- 휴대전화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지역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 역	서울	N	145	107	88	46	87	95	8	18	26	1	7	7	200	219	216	
		%	72.5	48.9	40.7	23.0	39.7	44.0	4.0	8.2	12.0	0.5	3.2	3.2	100	100	100	
	광역시	N	394	317	211	98	218	273	14	68	90	10	25	29	516	628	603	
		%	76.4	50.5	35.0	19.0	34.7	45.3	2.7	10.8	14.9	1.9	4.0	4.8	100	100	100	
	시군부	N	662	572	438	177	377	458	37	108	153	17	45	54	893	1102	1103	
		%	74.1	51.9	39.7	19.8	34.2	41.5	4.1	9.8	13.9	1.9	4.1	4.9	100	100	100	
전체			N	1201	996	737	321	682	826	59	194	269	28	77	90	1609	1949	1922
			%	74.6	51.1	38.3	20.0	35.0	43.0	3.7	10.0	14.0	1.7	4.0	4.7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살펴보면, ‘휴대전화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37.9%, 한부모 가정 45.8%, 조손가정 33.3%)’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43.7%, 한부모 가정 34.8%, 조손가정 41.7%)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부모자녀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2010년 5.6%에서 2014년 18.5%로 12.9%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2.8%에서 2014년 19.3%로 16.5%p 증가, 조손가정은 2010년 33.0%에서 2014년 25.0%로 8.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정 청소년에게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부재 시에 느끼는 고립감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립감이 심해지는 정도는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조손가정 청소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6>.



【그림 III-64】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가족구성별)

표 III-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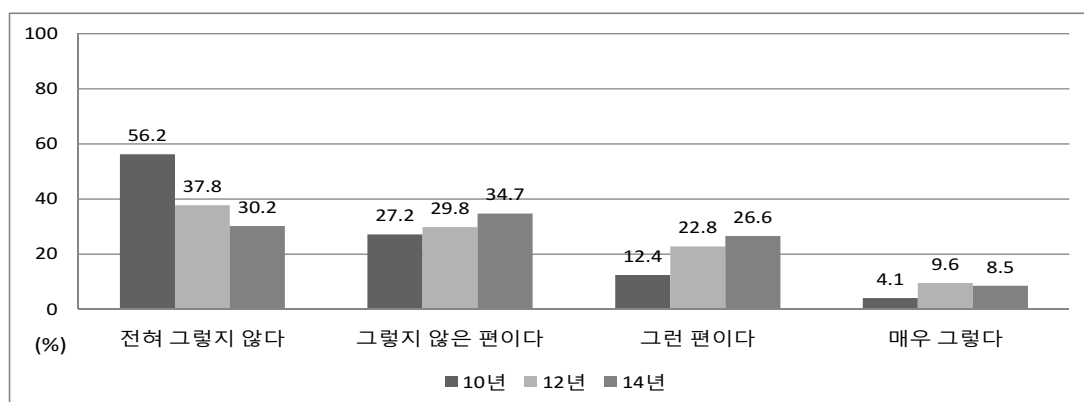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자녀	N	1100	917	662	276	623	764	54	178	241	27	72	82	1457	1790	1749
		%	75.5	51.2	37.9	18.9	34.8	43.7	3.7	9.9	13.8	1.9	4.0	4.7	100	100	100
	한부모 가정	N	94	70	71	42	48	54	3	13	23	1	5	7	140	136	155
		%	67.1	51.5	45.8	30.0	35.3	34.8	2.1	9.6	14.8	0.7	3.7	4.5	100	100	100
	조손 가정	N	3	6	4	1	5	5	2	2	3	—	—	—	6	13	12
		%	50.0	46.2	33.3	16.7	38.5	41.7	33.3	15.4	25.0	—	—	—	100	100	100
	기타	N	2	2	—	2	3	3	—	1	2	—	—	1	4	6	6
		%	50.0	33.3	—	50.0	50.0	50.0	—	16.7	33.3	—	—	16.7	100	100	100
전체	N	1199	995	737	321	679	826	59	194	269	28	77	90	1607	1945	1922	
	%	74.6	51.2	38.3	20.0	34.9	43.0	3.7	10.0	14.0	1.7	4.0	4.7	100	100	100	

⑦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0년 56.2%, 2012년 37.8%)’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34.7%)’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2010년 16.5%, 2012년 32.4%, 2014년 35.1%로 18.6%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부재 시에 느끼는 불편함 정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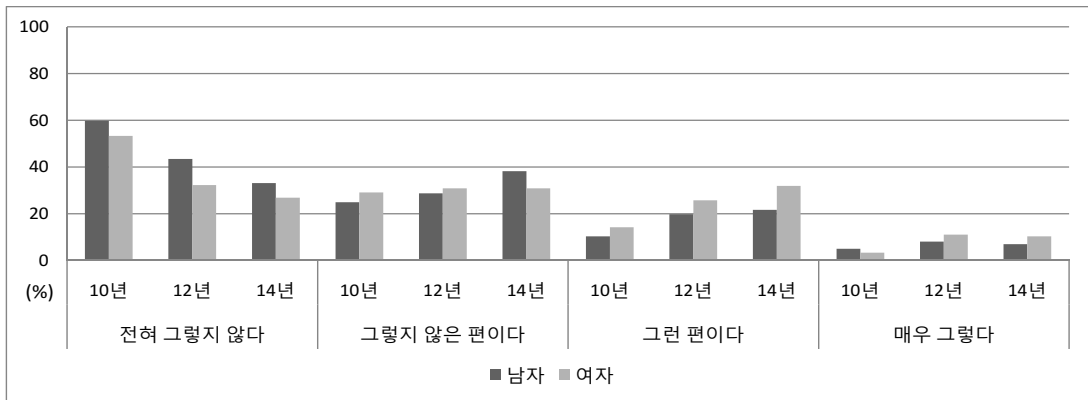
【그림 III-65】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표 III-67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항목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중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905	56.2	754	37.8	594	30.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38	27.2	594	29.8	684	34.7
그런 편이다	200	12.4	454	22.8	523	26.6
매우 그렇다	66	4.1	192	9.6	168	8.5
전체	1609	100	1994	100	1969	100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4년 : 남자 33.1%, 여자 26.9%)’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 남자 38.2%, 여자 30.9%)’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남녀 모두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2010년 15.3%에서 2014년 28.7%로 13.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도 2010년 17.5%에서 2014년 42.2%로 24.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부재 시에 느끼는 불편함 정도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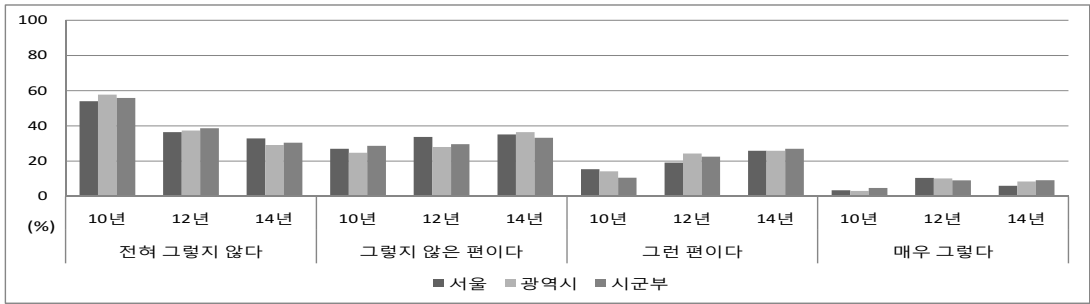
【그림 III-66】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성별)

표 III-68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성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성 별	남자	N	433	432	337	181	286	388	75	197	221	36	81	71	725	996	1017	
		%	59.7	43.4	33.1	25.0	28.7	38.2	10.3	19.8	21.7	5.0	8.1	7.0	100	100	100	
	여자	N	472	322	256	257	308	294	125	257	304	30	111	98	884	998	952	
		%	53.4	32.3	26.9	29.1	30.9	30.9	14.1	25.8	31.9	3.4	11.1	10.3	100	100	100	
전체			N	905	754	593	438	594	682	200	454	525	66	192	169	1609	1994	1969
			%	56.2	37.8	30.1	27.2	29.8	34.6	12.4	22.8	26.7	4.1	9.6	8.6	100	100	100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4년 : 서울 32.9%, 광역시 29.2%, 시군부 30.5%)’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 서울 35.2%, 광역시 36.5%, 시군부 33.3%)’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서울은 2010년 19.0%에서 2014년 31.9%로 12.9%p 증가, 광역시는 2010년 17.4%에서 2014년 34.4%로 17.0%p 증가, 시군부는 2010년 15.4%에서 2014년 36.2%로 20.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부재 시에 느끼는 불편함 정도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는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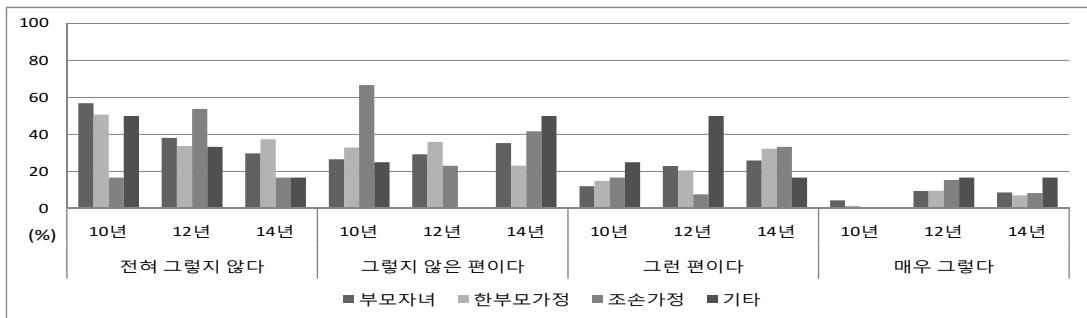
【그림 III-67】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지역별)

표 III-69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지역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지역	서울	N	108	80	71	54	74	76	31	42	56	7	23	13	200	219	216	
		%	54.0	36.5	32.9	27.0	33.8	35.2	15.5	19.2	25.9	3.5	10.5	6.0	100	100	100	
	광역시	N	298	235	176	128	177	220	74	153	156	16	64	51	516	629	603	
		%	57.8	37.4	29.2	24.8	28.1	36.5	14.3	24.3	25.9	3.1	10.2	8.5	100	100	100	
	시군부	N	499	426	336	256	327	367	95	249	298	43	100	102	893	1102	1103	
		%	55.9	38.7	30.5	28.7	29.7	33.3	10.6	22.6	27.0	4.8	9.1	9.2	100	100	100	
전체			N	905	741	583	438	578	663	200	444	510	66	187	166	1609	1950	1922
			%	56.2	38.0	30.3	27.2	29.6	34.5	12.4	22.8	26.5	4.1	9.6	8.6	100	100	100

가족구성에 따라 살펴보면,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29.8%, 한부모 가정 37.4%, 조손가정 16.7%)’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2014년 : 부모자녀 가정 35.4%, 한부모 가정 23.2%, 조손가정 41.7%)’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학년 변화와 상관없이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부모자녀 가정은 2010년 16.5%에서 2014년 34.7%로 18.2%p 증가, 한부모 가정은 2010년 16.4%에서 2014년 39.4%로 23.0%p 증가, 조손가정은 2010년 16.7%에서 2014년 41.6%로 24.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정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부재 시 느끼는 불편함 정도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는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부모자녀 가정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70>.



【그림 III-68】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가족구성별)

표 III-70

초4 패널-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가족구성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2010년 (초4)	2012년 (초6)	2014년 (중2)
가족구성	부모 자녀	N	829	685	522	387	524	619	177	412	455	64	170	153	1457	1791	1749
		%	56.9	38.2	29.8	26.6	29.3	35.4	12.1	23.0	26.0	4.4	9.5	8.7	100	100	100
	한부모 가정	N	71	46	58	46	49	36	21	28	50	2	13	11	140	136	155
		%	50.7	33.8	37.4	32.9	36.0	23.2	15.0	20.6	32.3	1.4	9.6	7.1	100	100	100
	조손 가정	N	1	7	2	4	3	5	1	1	4	—	2	1	6	13	12
		%	16.7	53.8	16.7	66.7	23.1	41.7	16.7	7.7	33.3	—	15.4	8.3	100	100	100
	기타	N	2	2	1	1	—	3	1	3	1	—	1	1	4	6	6
		%	50.0	33.3	16.7	25.0	—	50.0	25.0	50.0	16.7	—	16.7	16.7	100	100	100
전체	N	903	740	583	438	576	663	200	444	510	66	186	166	1607	1946	1922	
	%	56.2	38.0	30.3	27.3	29.6	34.5	12.4	22.8	26.5	4.1	9.6	8.6	100	100	100	

제 IV 장

제1코호트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1. 초1 및 초4 패널 간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추이비교

제 IV 장

제1코호트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1. 초1 및 초4 패널 간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추이비교**

첫 번째 코호트 간 비교에서는 초1 패널의 4차년도 종단자료(2013)와 초4 패널 1차년도 종단자료(2010)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의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각 코호트 간 3년이라는 시차가 휴대전화 이용 실태에 서로 다른 이질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동시대집단 효과는 청소년의 생애사적 경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코호트 간 다양한 경험의 차이도 이로부터 기인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휴대전화 이용 실태에 대한 코호트 비교에서 휴대전화 보유여부, 휴대전화 사용형태 및 휴대전화 의존정도를 분석하였다. 코호트 간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9문항으로 구성된 휴대전화 사용 용도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행태로 ① 가족과의 통화 ②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등 포함) ③ 친구와의 통화 ④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라인 등 포함) ⑤ 게임 및 오락 ⑥ 사진 촬영 ⑦ 동영상 감상 ⑧ 음악 듣기 ⑨ 시간보기 등을 조사하였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은 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②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③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④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⑥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⑦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등 총 7개의 문항으로 개별 척도 문항에 대한 빈도 및 비율 분석과 함께 단일 척도의 총합을 이용한 독립 t검증을 실시하여 코호트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더불어 청소년기의 남녀 성별 차이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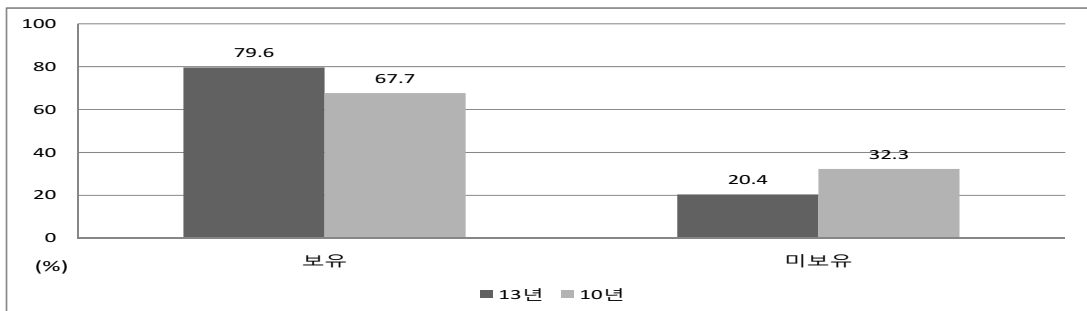
* 이 장은 모상현 연구위원, 한지형 전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 이 절의 일부는 모상현, 한지형(2016.09),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NPI 청소년 통계브리프, 제30호로 발간된 바 있음.

사회·심리적 효과를 고려하여, 성별 변인에 의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1) 초1 및 초4 패널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두 패널 간 휴대전화의 보유여부에 대한 비교에서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2010년 67.7%, 초1 패널은 2013년 79.6%로 나타나,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의 두 패널 간 현저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2010년도에 비해 2013년도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휴대전화 보유비율은 11.9%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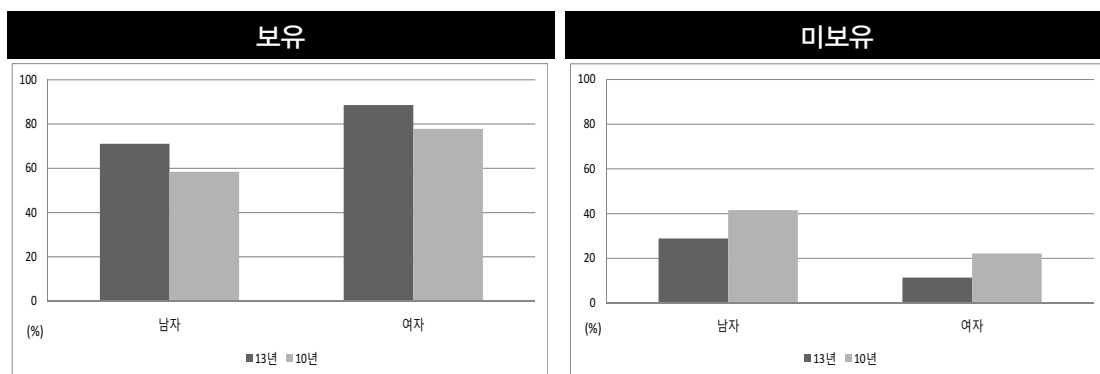


【그림 IV-1】 초1 및 초4 패널(초등학교 4학년)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표 IV-1 초1 및 초4 패널(초등학교 4학년)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항목	2013년(초1)		2010년(초4)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유	1686	79.6	1609	67.7
미보유	433	20.4	769	32.3
전체	2119	100	2378	100

‘휴대전화의 보유여부’에 대한 성별 비교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2010년(초4) 58.4%, 초1 패널은 2013년 71.1%로 나타나, 초1 패널이 12.7% 높게 관찰되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초4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2010년 77.8%, 초1 패널은 2013년 88.6%로 나타나, 초1 패널이 10.8% 보다 높게 관찰되었으며, 남녀 패널 모두 2010년도 코호트에 비해 2013년 코호트가 휴대전화 보유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2】 초1 및 초4 패널(초등학교 4학년)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성별)

표 IV-2 초1 및 초4 패널(초등학교 4학년)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성별)

항목			보유		미보유		전체	
			2013년(초1)	2010년(초4)	2013년(초1)	2010년(초4)	2013년(초1)	2010년(초4)
성 별	남자	N	777	725	316	517	1093	1242
		%	71.1	58.4	28.9	41.6	100	100
	여자	N	909	884	117	252	1026	1136
		%	88.6	77.8	11.4	22.2	100	100
전체		N	1686	1609	433	769	2119	2378
		%	79.6	67.7	20.4	32.3	100	100

2) 초1 및 초4 패널 간 휴대전화 사용형태

두 코호트 간 휴대전화 사용행태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3>과 같다. 전반적으로 초4 패널에 비해 초1 패널에서 휴대전화 이용빈도 및 비율이 높게 관찰되었으며,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관찰된 영역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가족과의 통화(2010년 97.3%, 2013년 97.4%)’,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2010년 84.2%, 2013년 90.4%)’, ‘시간보기(2010년 91.7%, 2013년 89.8%)’ 등 휴대전화 활용면에서 2010년도에 비해 2013년도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에서 휴대전화 이용이 보다 폭 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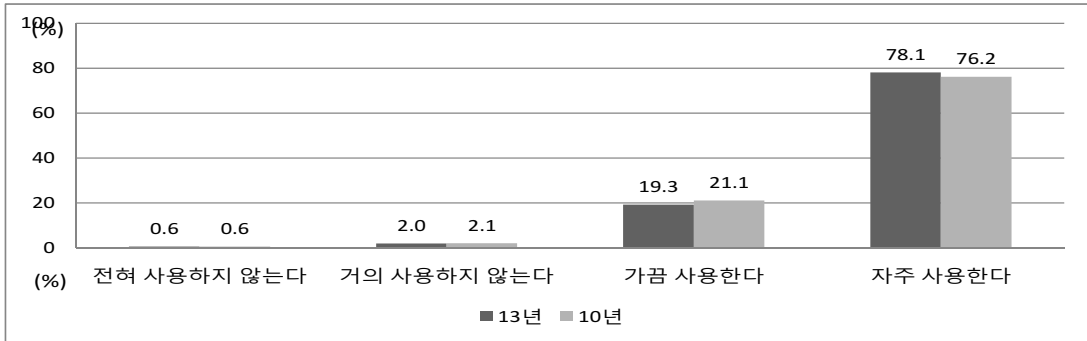
표 IV-3 초1 및 초4 패널(초등학교 4학년) 간 휴대전화 사용 형태 변화

항목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전체	
		2013년 (초1)	2010년 (초4)	2013년 (초1)	2010년 (초4)	2013년 (초1)	2010년 (초4)
가족과의 통화	N	1642	1566	44	43	1686	1609
	%	97.4	97.3	2.6	2.7	100	100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N	1524	1355	162	254	1686	1609
	%	90.4	84.2	9.6	15.8	100	100
친구와의 통화	N	1450	1294	236	315	1686	1609
	%	86.0	80.4	14.0	19.6	100	100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N	1403	1266	283	343	1686	1609
	%	83.2	78.7	16.8	21.3	100	100
게임 및 오락	N	1109	678	577	931	1686	1609
	%	65.8	42.1	34.2	57.9	100	100
사진 촬영	N	1252	998	434	611	1686	1609
	%	74.3	62.0	25.7	38.0	100	100
동영상 감상	N	877	472	809	1137	1686	1609
	%	52.0	29.3	48.0	70.7	100	100
음악 듣기	N	1153	795	533	814	1686	1609
	%	68.4	49.4	31.6	50.6	100	100
시간 보기	N	1514	1476	172	133	1686	1609
	%	89.8	91.7	10.2	8.3	100	100

① 가족과의 통화

가족 간의 통화 이용정도에 대한 비교에서 사용 정도(‘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를 살펴보면, 초4 패널은 2010년 97.4%, 초1 패널은 2013년 97.3%로 나타나, 두 코호트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척도 중 ‘자주 사용한다’를 기준으로 두 패널을 분석해 보면, 초4 패널은 2010년 76.2% 초1 패널은 2013년 78.1%로 관찰되어 2010년도에 비해 2013년도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가족 간 통화’이용 빈도가 1.9%로 높게 나타났다. 휴대전화의 전통적 기능인 가족과의 통화에서 초4 패널과 초1 패널 간의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두 코호트 모두에서 가족 구성원 간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전화통화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V-3】 초1 및 초4 패널(초4)- 가족과의 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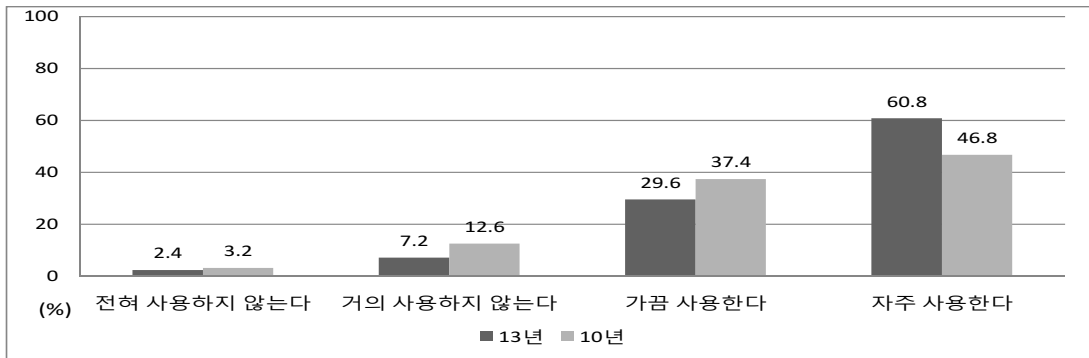
표 IV-4 초1 및 초4 패널(초4)- 가족과의 통화

항목	2013년(초1)		2010년(초4)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0	0.6	9	0.6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4	2.0	34	2.1
가끔 사용한다	325	19.3	340	21.1
자주 사용한다	1317	78.1	1226	76.2
전체	1686	100	1609	100

②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가족 간의 문자 메시지 이용정도에 대한 비교에서 사용 정도(‘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 합 기준)를 살펴보면, 초4 패널은 2010년 84.2%, 초1 패널은 2013년 90.4%로 나타나, 초1 패널이 6.2% 높게 관찰되었다.

척도 중 ‘자주 사용한다’를 기준으로 두 패널을 분석해 보면, 초4 패널은 2010년 46.8% 초1 패널은 2013년 60.8%로 관찰되어 2010년도에 비해 2013년도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가족 간 문자 메시지’이용 빈도는 14.0%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 간의 문자 메시지 사용의 경우 초4 패널과 초1 패널 간 현저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2010년도 코호트에 비해 2013년 코호트에서 가족 구성원 간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문자 메시지 활용률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V-4】 초1 및 초4 패널(초4)-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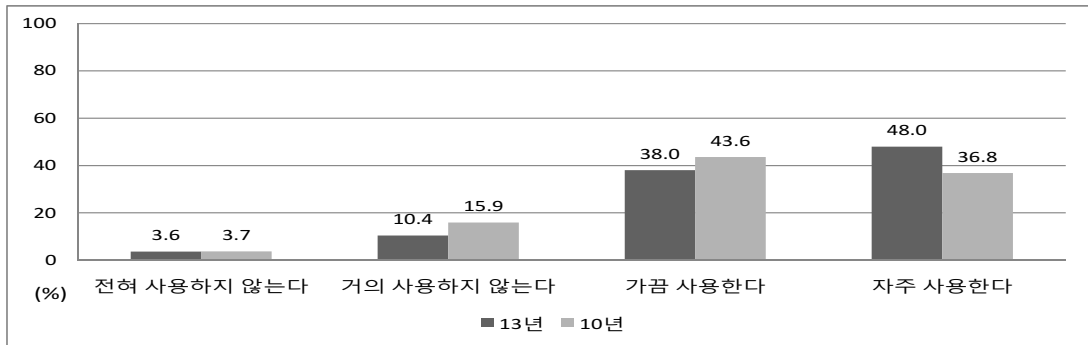
표 IV-5 초1 및 초4 패널(초4)-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항목	2013년(초1)		2010년(초4)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40	2.4	51	3.2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22	7.2	203	12.6
가끔 사용한다	499	29.6	602	37.4
자주 사용한다	1025	60.8	753	46.8
전체	1686	100	1609	100

③ 친구와의 통화

친구와의 통화에 대한 비교에서 사용 정도(‘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를 살펴보면, 초4 패널은 2010년 80.4%, 초1 패널은 2013년 86.0%로 나타나, 초1 패널이 5.6% 높게 관찰되었다.

척도 중 ‘자주 사용한다’를 기준으로 두 패널을 분석해 보면, 초4 패널은 2010년 36.8% 초1 패널은 2013년 48.0%으로 관찰되어 2010년도에 비해 2013년도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친구와의 통화’이용 빈도는 11.2% 높게 나타났다. 2010년도 코호트에 비해 2013년 코호트에서 친구들과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전화통화를 자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V-5】 초1 및 초4 패널(초4)- 친구와의 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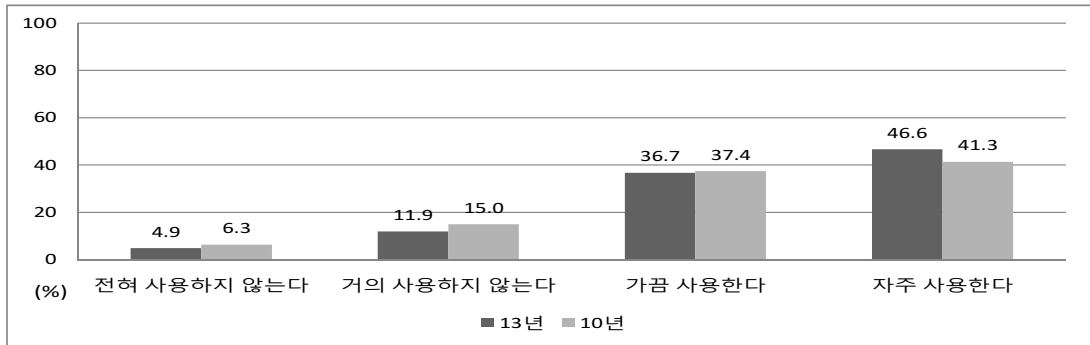
표 IV-6 초1 및 초4 패널(초4)- 친구와의 통화

항목	2013년(초1)		2010년(초4)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61	3.6	59	3.7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75	10.4	256	15.9
가끔 사용한다	640	38.0	702	43.6
자주 사용한다	810	48.0	592	36.8
전체	1686	100	1609	100

④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친구 간의 문자 메시지 이용정도에 대한 비교에서 사용 정도(‘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 합 기준)를 살펴보면, 초4 패널은 2010년 78.7%, 초1 패널은 2013년 83.3%로, 초1 패널이 4.6% 높게 관찰되었다.

척도 중 ‘자주 사용한다’를 기준으로 두 패널을 분석해 보면, 초4 패널은 2010년 41.3% 초1 패널은 2013년 46.8%로 관찰되어 2010년도에 비해 2013년도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친구 간 문자 메시지’이용 빈도는 5.3%로 높게 나타났다. 초 1 패널이 초4 패널 코호트에 비해 친구 간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문자 메시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IV-6】 초1 및 초4 패널(초4)-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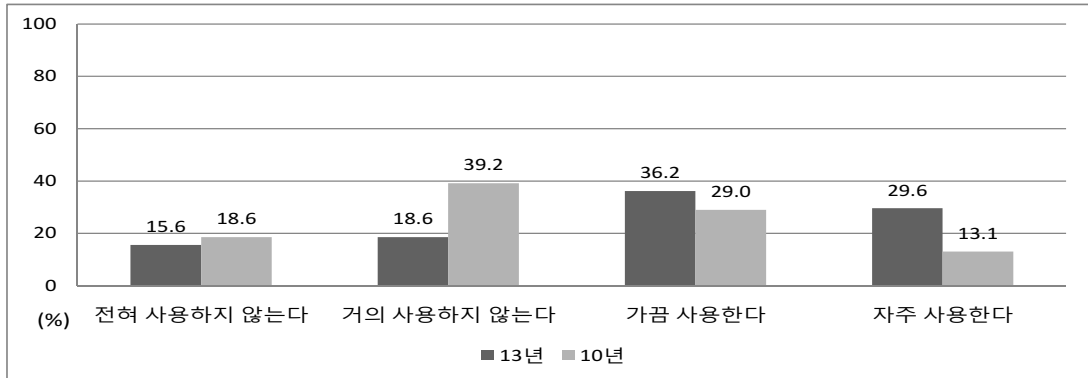
표 IV-7 초1 및 초4 패널(초4)-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항목	2013년(초1)		2010년(초4)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83	4.9	101	6.3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00	11.9	242	15.0
가끔 사용한다	618	36.7	601	37.4
자주 사용한다	785	46.6	665	41.3
전체	1686	100	1609	100

⑤ 게임 및 오락

게임 및 오락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빈도(‘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초4 패널은 2010년 42.1%, 초1 패널은 2013년 65.8%로 관찰되어, 초1 패널에서 23.7%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척도 중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두 항목 모두에 응답한 비율도 초4 패널에 비해 초1 패널에서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어, 초1 패널이 휴대전화를 활용한 ‘게임 및 오락’활동에 보다 자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에 비해 2013년도 초등학교4학년 코호트에서 ‘게임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V-7】 초1 및 초4 패널(초4)- 게임 및 오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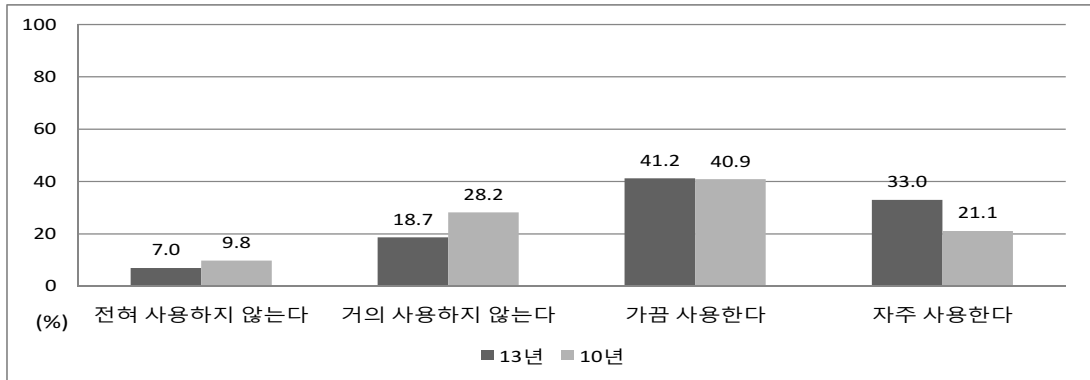
표 IV-8 초1 및 초4 패널(초4)- 게임 및 오락

항목	2013년(초1)		2010년(초4)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63	15.6	300	18.6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14	18.6	631	39.2
가끔 사용한다	610	36.2	467	29.0
자주 사용한다	499	29.6	211	13.1
전체	1686	100	1609	100

⑥ 사진 촬영

사진촬영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정도(‘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를 살펴보면, 초4 패널은 2010년 62.0%, 초1 패널은 2013년 74.2%로 나타나, 초1 패널이 12.2% 높게 관찰되었다.

척도 중 ‘자주 사용한다’를 기준으로 비교 했을 때 초4 패널은 2010년 21.1%, 초1 패널은 2013년 33.0%로 나타나, 초1 패널에서 11.9% 높게 나타났다. 초4 패널 코호트와 비교하여 초1 패널 코호트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한 사진촬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V-8】 초1 및 초4 패널(초4)- 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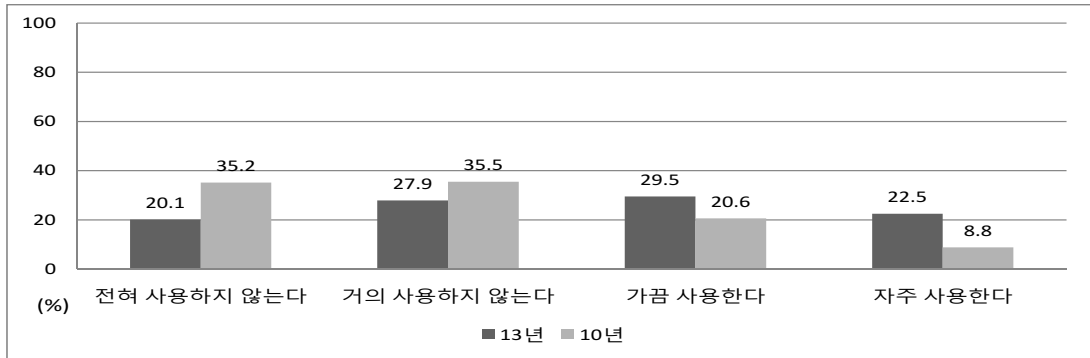
표 IV-9 초1 및 초4 패널(초4)- 사진 촬영

항목	2013년(초1)		2010년(초4)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18	7.0	158	9.8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16	18.7	453	28.2
가끔 사용한다	695	41.2	658	40.9
자주 사용한다	557	33.0	340	21.1
전체	1686	100	1609	100

⑦ 동영상 감상

동영상 감상에 대한 코호트 간 비교에서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계 기준으로 초4 패널은 2010년 29.4%, 초1 패널은 2013년 52.0%로 나타나, 초1 패널이 22.6% 높게 관찰되었다.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두 척도 항목 모두에서 초1 패널이 초4 패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휴대전화를 동영상 감상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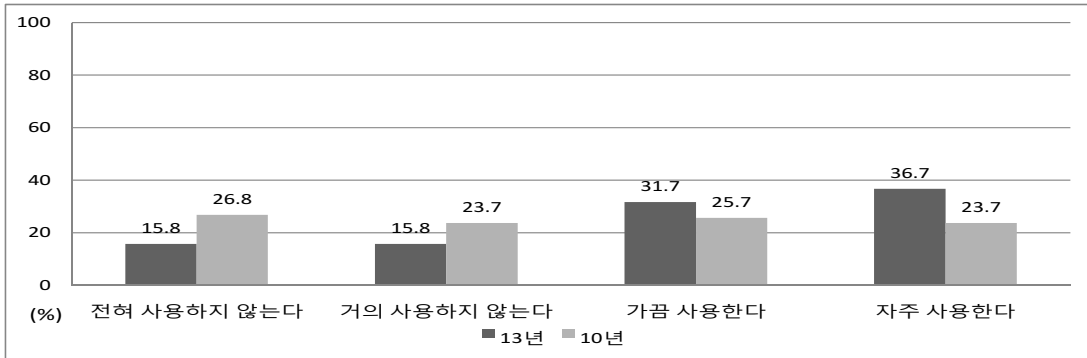
【그림 IV-9】 초1 및 초4 패널(초4)- 동영상 감상

표 IV-10 초1 및 초4 패널(초4)- 동영상 감상

항목	2013년(초1)		2010년(초4)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339	20.1	566	35.2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470	27.9	571	35.5
가끔 사용한다	498	29.5	331	20.6
자주 사용한다	379	22.5	141	8.8
전체	1686	100	1609	100

⑧ 음악 듣기

음악 듣기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정도(‘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초4 패널은 2010년 49.4%, 초1 패널은 2013년 68.4%로 나타나, 초1 패널이 19.0% 높게 관찰되었다. 척도지문 중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두 척도 항목 모두에서 초1 패널은 초4 패널에 비해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며, 보다 적극적으로 음악감상에 휴대전화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악 듣기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은 2010년에 비해 2013년도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에서 활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10】 초1 및 초4 패널(초4)- 음악 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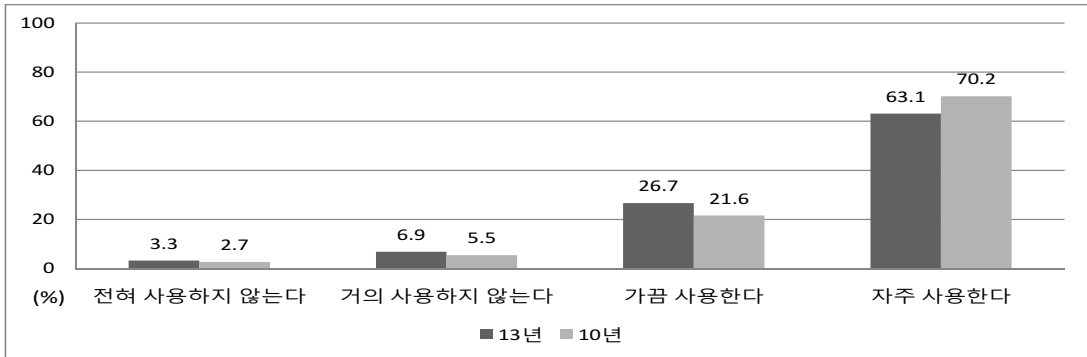
표 IV-11 초1 및 초4 패널(초4)- 음악 듣기

항목	2013년(초1)		2010년(초4)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66	15.8	432	26.8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67	15.8	382	23.7
가끔 사용한다	535	31.7	414	25.7
자주 사용한다	618	36.7	381	23.7
전체	1686	100	1609	100

⑨ 시간보기

휴대전화를 시간 보기에 활용하고 있는 정도(‘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초4 패널은 2010년 91.8%, 초1 패널은 2013년 89.8%로 관찰되어, 초4 패널에서 2.0%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척도지문 중 ‘가끔 사용한다’의 경우 초1 패널이 초4 패널에 비해 5.1%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지만, ‘자주 사용한다’의 경우 초4 패널이 초1 패널 보다 7.1%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어, 2013년도 코호트에 비해 2010년도 코호트에서 휴대전화를 시간확인 등의 이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V-11】 초1 및 초4 패널(초4)- 시간 보기

표 IV-12 초1 및 초4 패널(초4)- 시간 보기

항목	2013년(초1)		2010년(초4)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55	3.3	44	2.7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17	6.9	89	5.5
가끔 사용한다	450	26.7	347	21.6
자주 사용한다	1064	63.1	1129	70.2
전체	1686	100	1609	100

3) 초1 및 초4 패널 간 휴대전화 의존정도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체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의 <3장>에서 제시하였듯이 초4 패널 기준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2010년 .828, 2012년 .890, 2014년 .884로 문항 간 내적 합치도 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초1 패널과 초4패널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의존도에 대한 세부 문항을 비교 분석하였다.

(1) 초1 및 초4 패널 간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성별’ 변인에 따른 두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의존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초1 패널이

초4 패널 보다 의존 정도가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특히 2010년에 비해 2013년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에서 휴대전화 의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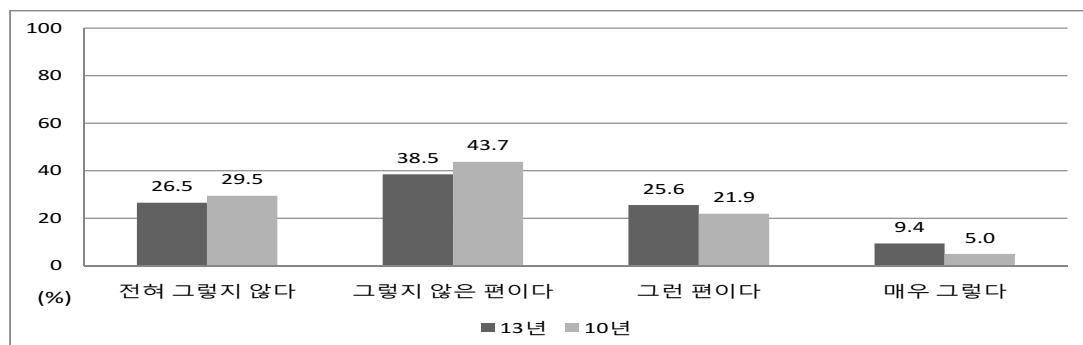
표 IV-13 초1 및 초4 패널(초등학교 4학년) 간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항목		2013년(초1)			2010년(초4)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711	12.32	4.654	650	11.64	4.260
	여자	820	12.01	4.363	780	11.70	3.960
전체		1531	12.15	4.502	1430	11.68	4.098

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초4 패널은 2010년 26.9%, 초1 패널은 2013년 35.0%로 나타나, 초1 패널 코호트의 응답비율이 8.1%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1 패널이 9.4%로 초4 패널의 5.0%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이런 결과를 미루어 볼 때, 2010년도 초4 패널에 비해 2013년도 초1 패널 코호트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관련된 의존성 정도가 증가되었다.



【그림 IV-12】 초1 및 초4 패널(초4)-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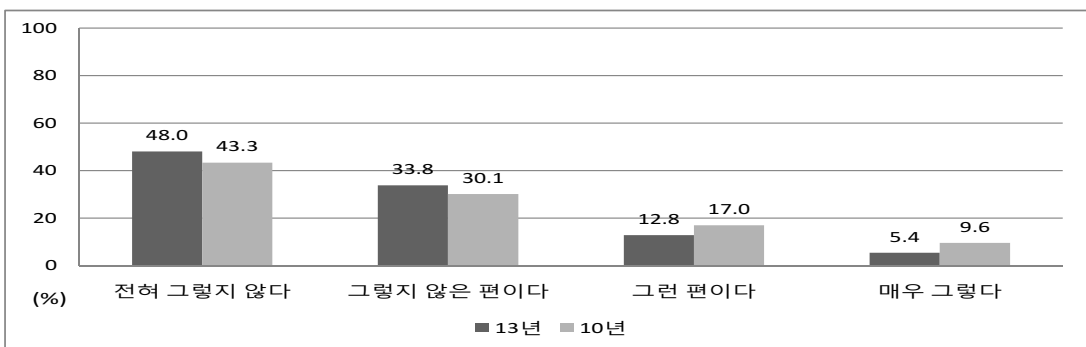
표 IV-14 초1 및 초4 패널(초4)-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항목	2013년(초1)		2010년(초4)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46	26.5	474	29.5
그렇지 않은 편이다	649	38.5	703	43.7
그런 편이다	432	25.6	352	21.9
매우 그렇다	159	9.4	80	5.0
전체	1686	100	1609	100

②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초4 패널은 2010년 26.6%, 초1 패널은 2013년 18.2%로 나타나, 초4 패널 코호트의 응답 비율이 8.4%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초4 패널이 9.6%로 초1 패널의 5.4%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2010년도 초4 패널이 2013년도 초1 패널 코호트에 비해 휴대전화 미지참시 느낄 수 있는 불안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IV-13】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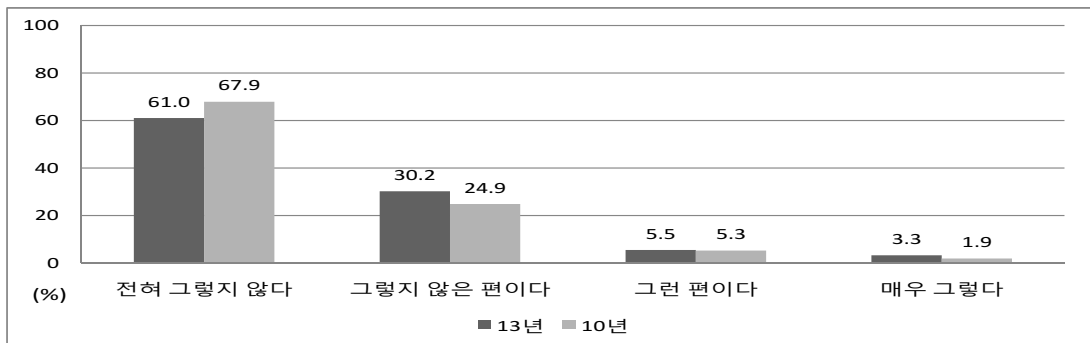
표 IV-15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항목	2013년(초1)		2010년(초4)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809	48.0	697	43.3
그렇지 않은 편이다	570	33.8	485	30.1
그런 편이다	216	12.8	273	17.0
매우 그렇다	91	5.4	154	9.6
전체	1686	100	1609	100

③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초4 패널은 2010년 7.2%, 초1 패널은 2013년 8.8%로 나타나, 초1 패널 코호트의 응답 비율이 1.6% 높게 관찰되었다.

‘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초1 패널이 3.3%로 초4 패널의 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2010년도 초4 패널에 비해 2013년도 초1 패널 코호트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관련된 의존성 정도가 다소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지만, 다른 의존도 척도문항에 비해 본 척도문항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IV-14】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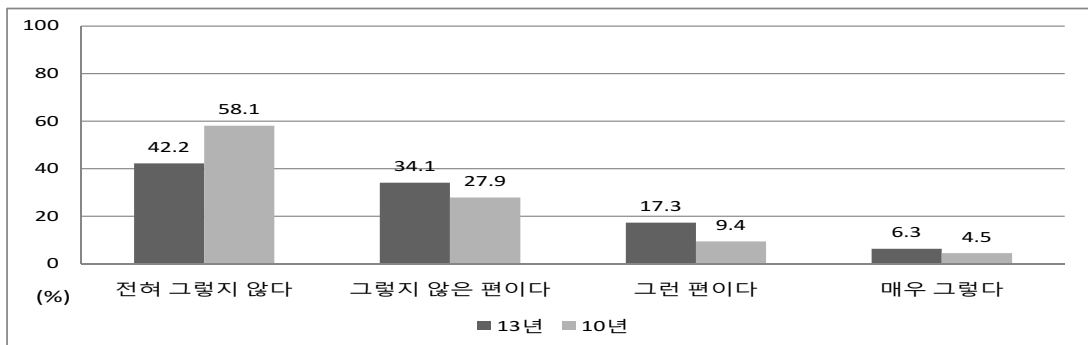
표 IV-16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항목	2013년(초1)		2010년(초4)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028	61.0	1093	67.9
그렇지 않은 편이다	509	30.2	400	24.9
그런 편이다	93	5.5	86	5.3
매우 그렇다	56	3.3	30	1.9
전체	1686	100	1609	100

④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초4 패널은 2010년 13.9%, 초1 패널은 2013년 23.6%로 나타나, 초1 패널 코호트의 응답비율이 9.7%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1 패널이 6.3%, 초4 패널이 4.5%로, 초1 패널이 1.8%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2010년도 초4 패널에 비해 2013년도 초1 패널 코호트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관련된 의존성 정도가 다소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으나, 다른 의존도 척도문항과 비교하여 본 척도문항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5】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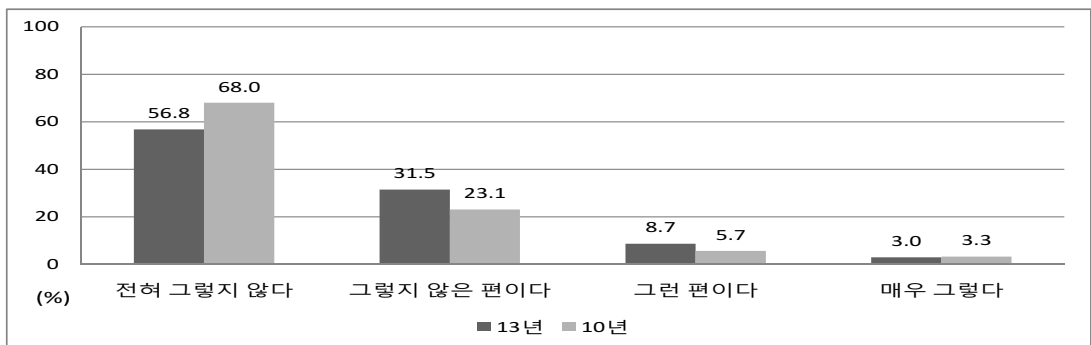
표 IV-17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항목	2013년(초1)		2010년(초4)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712	42.2	935	58.1
그렇지 않은 편이다	575	34.1	449	27.9
그런 편이다	292	17.3	152	9.4
매우 그렇다	107	6.3	73	4.5
전체	1686	100	1609	100

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초4 패널은 2010년 9.0%, 초1 패널은 2013년 11.7%로 나타나, 초1 패널 코호트의 응답비율이 2.7%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 두 패널 간의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그런 편이다’의 경우 초1 패널이 8.7%, 초4 패널 5.7%로, 초1 패널이 3.0% 높게 관찰되었다. 2010년도 초4 패널에 비해 2013년도 초1 패널 코호트에서 본 척도문항에 대한 의존성 정도가 약간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으나, 다른 의존도 척도문항과 비교하여 본 척도문항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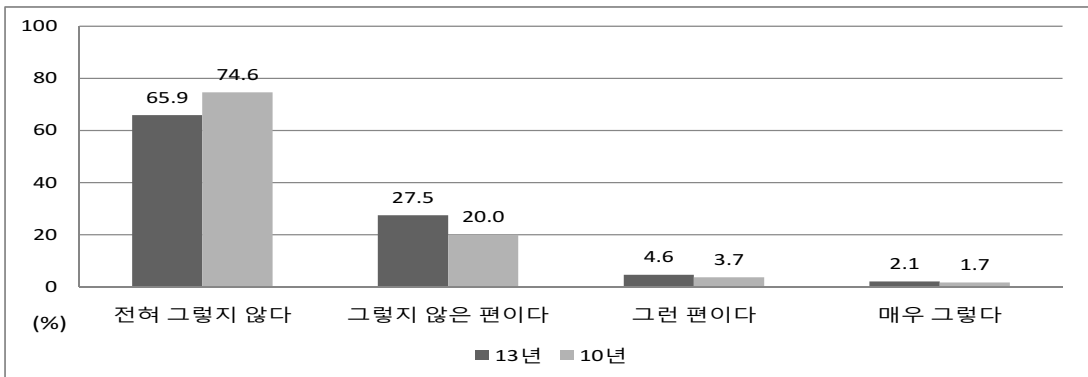
【그림 IV-16】 초1 및 초4 패널(초4)-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표 IV-18 초1 및 초4 패널(초4)-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항목	2013년(초1)		2010년(초4)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957	56.8	1094	68.0
그렇지 않은 편이다	531	31.5	371	23.1
그런 편이다	147	8.7	91	5.7
매우 그렇다	51	3.0	53	3.3
전체	1686	100	1609	100

⑥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초4 패널은 2010년 5.0%, 초1 패널은 2013년 6.7%로 나타나, 초1 패널 코호트의 응답비율이 1.3% 높게 관찰되었다. 2010년도 초4 패널에 비해 2013년도 초1 패널 코호트에서 본 척도문항에 대한 의존성 정도가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의존도 척도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 척도문항의 점수는 다소 낮게 관찰되었다.



【그림 IV-17】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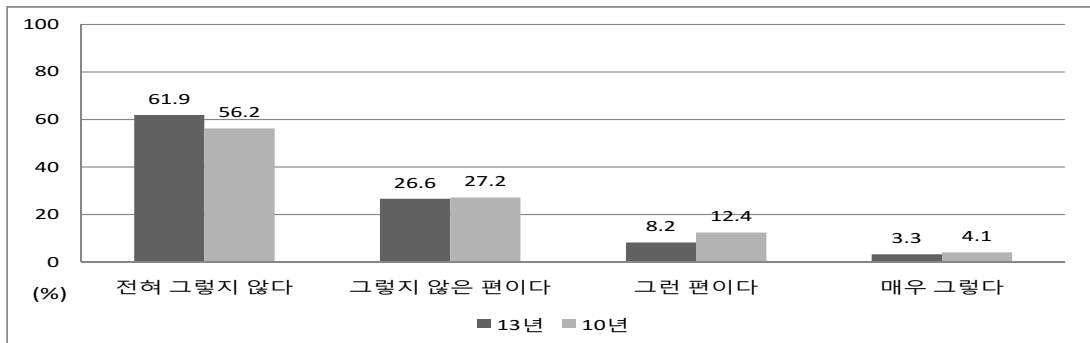
표 IV-19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항목	2013년(초1)		2010년(초4)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111	65.9	1201	74.6
그렇지 않은 편이다	463	27.5	321	20.0
그런 편이다	77	4.6	59	3.7
매우 그렇다	35	2.1	28	1.7
전체	1686	100	1609	100

⑦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초4 패널은 2010년 16.5%, 초1 패널은 2013년 11.5%로 나타나, 초4 패널 코호트의 응답비율이 5.0%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 두 패널 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초4패널 0.8% 높음), ‘그런 편이다’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4 패널이 12.4%, 초1 패널의 8.2%로 초4 패널이 4.2% 높게 관찰되었다. 초4 패널이 초1 패널 코호트에 비해 휴대전화 미지참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미지참시 느끼는 불안관련 의존도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013년도 초1패널에 비해 2010년도 초4 패널 코호트에서 불안 및 불편 관련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어, 코호트 간 의존 유형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8】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표 IV-20 초1 및 초4 패널(초4)-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항목	2013년(초1)		2010년(초4)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044	61.9	905	56.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48	26.6	438	27.2
그런 편이다	138	8.2	200	12.4
매우 그렇다	56	3.3	66	4.1
전체	1686	100	1609	100

(2) 초1 및 초4 패널 간 휴대전화 의존도 t-검증

① 코호트 간 독립t-검증

두 패널 간의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성을 비교하기 위해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총 7개의 휴대전화 의존성 척도 문항의 총합을 합산하여 코호트 간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코호트 대상이 무선험물표집으로 표집된 패널이기에 두 표본 집단 간의 동변량성은 가정되었다. 초1 패널 및 초4 패널의 두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의존성에 대한 분석결과, 초4 패널 평균은 11.68(SD=4.10), 초1 패널은 12.15(SD=4.50)로 나타났다. 초4 패널 코호트에 비해 초1 패널 코호트의 평균점수가 높게 관찰되었으며, 두 집단 간 평균차이는 유의한 수준($t=3.010$, $**p=.003$)에서 관찰되어, 두 패널 간의 평균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IV-21 초1 및 초4 패널(초등학교 4학년) 간 휴대전화 의존도 t-검증(코호트별)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패널	2013년(초1)	1531	12.15	4.50	3.010	.003**
	2010년(초4)	1430	11.68	4.10		

* $p<.05$, ** $p<.01$, *** $p<.001$

② 성별 변인 간 독립t-검증

코호트 효과 이외에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부터 기인 될 수 있는 성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남녀 성별에 따른 독립집단 t검증을 실시하였다. 남녀 성별 간 휴대전화 의존성에 대한 비교에서 남자 청소년의 평균은 12.0(SD=4.48), 여자 청소년 11.86(SD=4.17)로 관찰되었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휴대폰 의존정도에 대한 평균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두 집단 간 평균차이는 유의수준($t=.852, p=.394$)에서 성차에 따른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IV-22 초1 및 초4 패널(초등학교 4학년) 간 휴대전화 의존도 t-검증(성별)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자	1361	12.00	4.48	.852	.394
	여자	1600	11.86	4.17		

* $p<.05$, ** $p<.01$, *** $p<.001$

제 V 장

제2코호트 간 휴대전화 및 성인매체 이용실태 비교

1. 초4 및 중1 패널 간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차이비교

제 V 장

제2코호트 간 휴대전화 및 성인매체
이용실태 비교*

1. 초4 및 중1 패널 간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차이비교

제2코호트 간 비교에서는 중1 패널의 2차년도 종단자료(2011)와 초4 패널 5차년도 종단자료(2014)를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 시점의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이용행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휴대전화 이용 실태에 대한 코호트 간 비교에서는 휴대전화 보유여부, 휴대전화 사용형태 및 휴대전화 의존정도를 분석하였다. 휴대전화 사용용도 별 유형을 묻는 문항에서는 ① 가족과의 통화, ②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③ 친구와의 통화, ④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⑤ 게임 및 오락, ⑥ 사진 촬영, ⑦ 동영상 감상, ⑧ 음악 듣기, ⑨ 시간보기 등 어떤 용도로 휴대전화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휴대전화 사용형태 관련 9문항을 분석하였다.

휴대전화 의존도 관련 문항은 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②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③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④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⑥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⑦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등 총 7개의 문항으로 개별 문항별 빈도 및 비율 분석과 함께 단일 척도의 총합을 이용한 독립 t검증을 실시하여 코호트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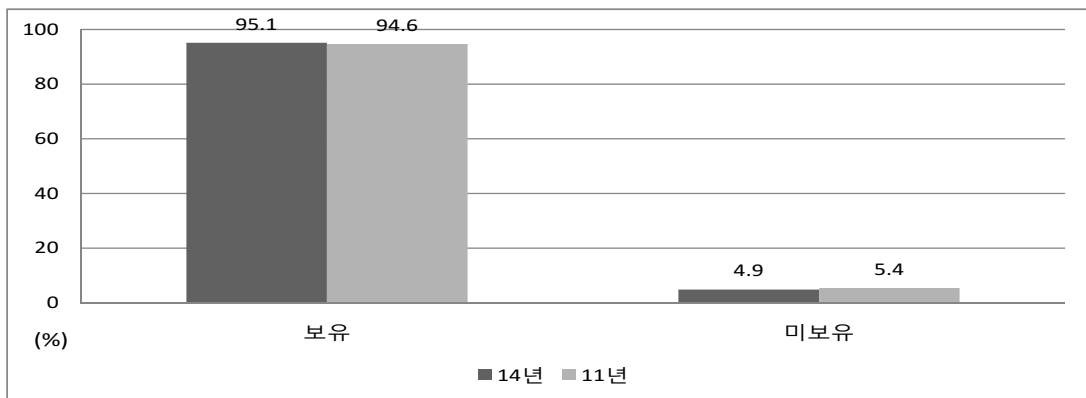
청소년의 성인매체 이용 실태에 대한 코호트 간 비교에서는 성인매체 사용여부, 성인매체 몰입정도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성인매체 몰입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8문항으로 구성된 성인매체 몰입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성인매체 사용실태 관련 문항으로 ①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이용하게 된다, ②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③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이용한다, ④ 다시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⑤ 성인

* 이 장은 한지형 전문연구원(성인매체 사용실태 및 차이 비교 분석 부분)과 모상현 부연구위원(성인매체 몰입도 t-검증 부분)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매체를 이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⑥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짝 차 있다, ⑦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⑧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등 총 7문항으로 개별 문항의 단일 척도 총합을 활용하여 코호트 간 평균차이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청소년기의 성별 변인 차이에 따른 사회·심리적 효과를 고려하여, 성별 변인에 따라 어떠한 경향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1) 초4 및 중1 패널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두 패널 간 휴대전화의 보유여부에 대한 비교에서 중1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2011년 94.6%, 초4 패널은 2014년 95.1%로 나타나,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의 두 코호트 간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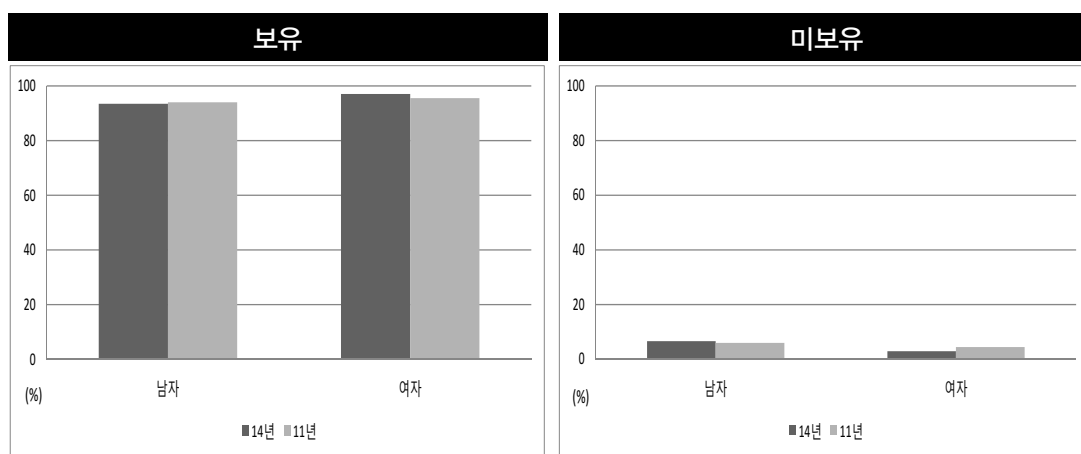
【그림 V-1】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표 V-1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유	1969	95.1	2158	94.6
미보유	101	4.9	122	5.4
전체	2070	100	2280	100

‘휴대전화의 보유여부’에 대한 성별 비교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중1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2011년 94.0%, 초4 패널은 2014년 93.4%로 나타나, 중1 패널이 0.6%로 거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여자 청소년의 경우, 중1 패널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2011년 95.5%, 초4 패널은 2014년 97.0%로 나타나, 초4 패널이 1.5% 조금 높게 관찰되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코호트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2011년도 코호트에 비해 2014년 코호트의 휴대전화 사용비율이 조금 높게 관찰되었다.



【그림 V-2】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성별)

표 V-2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휴대전화 보유여부 변화(성별)

항목			보유		미보유		전체	
			2014년(초4)	2011년(중1)	2014년(초4)	2011년(중1)	2014년(초4)	2011년(중1)
성 별	남자	N	1017	1056	72	67	1089	1123
		%	93.4	94.0	6.6	6.0	100	100
	여자	N	952	1041	29	49	981	1090
		%	97.0	95.5	3.0	4.5	100	100
전체		N	1969	2097	101	116	2070	2213
		%	95.1	94.8	4.9	5.2	100	100

2) 초4 및 중1 패널 간 휴대전화 사용형태

두 코호트 간 휴대전화 사용행태를 비교 분석 결과는 <표 IV-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중1 패널에 비해 초4 패널에서 휴대전화 사용빈도 및 비율이 높게 관찰되었고,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2011년 95.8%, 2014년 96.2%)’, ‘가족과의 통화(2011년 93.2%, 2014년 94.0%)’, ‘친구와의 통화(2011년 93.7%, 2014년 93.5%)’, ‘시간 보기(2011년 92.4%, 2014년 92.9%)’, ‘음악 듣기(2011년 68.1%, 2014년 90.4%)’ 등 휴대전화의 활용면에서 2011년도에 비해 2014년 중학교 2학년 코호트에서 휴대전화이용이 폭 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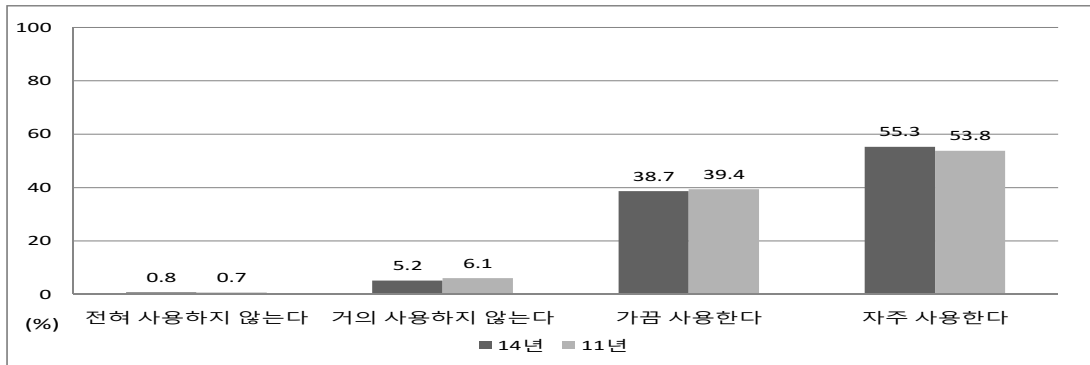
표 V-3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휴대전화 사용 형태 변화

항목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전체	
		2014년 (초4)	2011년 (중1)	2014년 (초4)	2011년 (중1)	2014년 (초4)	2011년 (중1)
가족과의 통화	N	1851	2011	118	147	1969	2158
	%	94.0	93.2	6.0	6.8	100	100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N	1692	1639	277	519	1969	2158
	%	85.9	75.9	14.1	24.1	100	100
친구와의 통화	N	1841	2021	128	137	1969	2158
	%	93.5	93.7	6.5	6.3	100	100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N	1894	2067	75	91	1969	2158
	%	96.2	95.8	3.8	4.2	100	100
게임 및 오락	N	1430	1436	539	722	1969	2158
	%	72.6	66.5	27.4	33.5	100	100
사진 촬영	N	1435	1359	534	799	1969	2158
	%	72.9	63.0	27.1	37.0	100	100
동영상 감상	N	1403	792	566	1365	1969	2157
	%	71.3	36.7	28.7	63.3	100	100
음악 듣기	N	1780	1470	189	688	1969	2158
	%	90.4	68.1	9.6	31.9	100	100
시간 보기	N	1830	1993	139	165	1969	2158
	%	92.9	92.4	7.1	7.6	100	100

① 가족과의 통화

‘가족 간의 통화’이용정도에 대한 비교에서 사용 정도(‘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를 살펴보면, 중1 패널은 2011년 93.2%, 초4 패널은 2014년 94.0%로 나타나, 두 코호트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척도 중 ‘자주 사용한다’를 기준으로 두 패널을 분석해 보면, 중1 패널은 2011년 53.8% 초4 패널은 2014년 55.3%로, 2011년도에 비해 2014년도 중학교 2학년 코호트의 ‘가족 간 통화’이용 빈도가 0.8%로 낮게 나타났다. 휴대폰의 전통적 기능인 가족과의 통화에서 초4 패널과 중1 패널 간의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두 코호트 모두에서 가족구성원 간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전화통화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V-3】 초4 및 중1 패널(중2)- 가족과의 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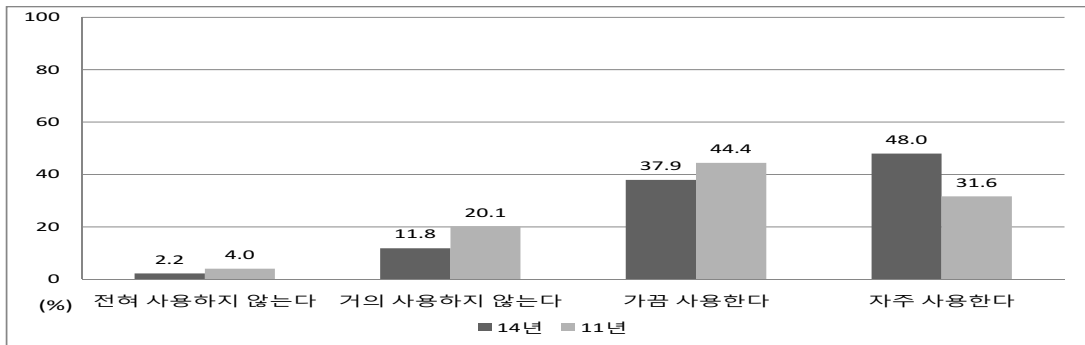
표 V-4 초4 및 중1 패널(중2)- 가족과의 통화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5	0.8	15	0.7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03	5.2	132	6.1
가끔 사용한다	762	38.7	851	39.4
자주 사용한다	1089	55.3	1160	53.8
전체	1969	100	2158	100

②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가족 간의 문자 메시지’이용 정도에 대한 비교에서 그 정도(‘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 합 기준)를 살펴보면, 중1 패널은 2011년 76.0%, 초4 패널은 2014년 85.9%로 나타나, 초4 패널이 9.9% 높게 관찰되었다.

척도 중 ‘자주 사용한다’를 기준으로 두 패널을 분석해 보면, 중1 패널은 2011년 31.6% 초4 패널은 2014년 48.0%로 관찰되어 2011년도에 비해 2014년도 중학교 2학년 코호트의 ‘가족 간 문자 메시지’이용 빈도는 16.4%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 간의 문자 메시지 사용의 경우 초4 패널과 중1 패널 간 현저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2011년도 코호트에 비해 2014년 코호트에서 가족 간 의사소통 수단으로 주로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V-4】 초4 및 중1 패널(중2)-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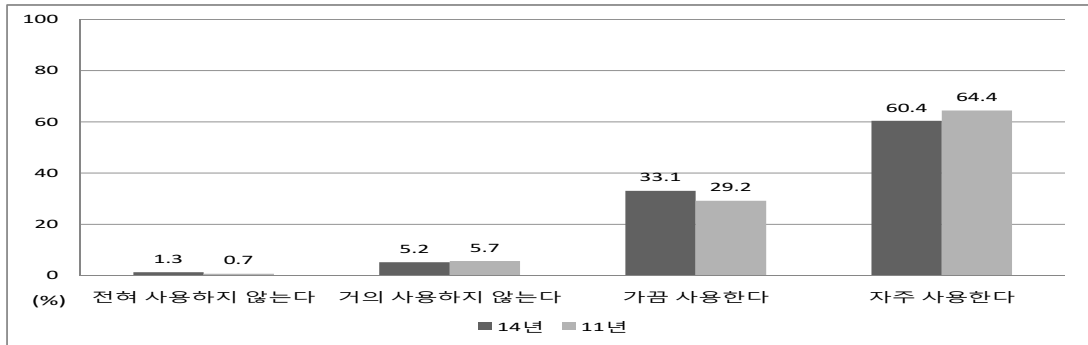
표 V-5 초4 및 중1 패널(중2)-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44	2.2	86	4.0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33	11.8	433	20.1
가끔 사용한다	747	37.9	958	44.4
자주 사용한다	945	48.0	681	31.6
전체	1969	100	2158	100

③ 친구와의 통화

‘친구와의 통화’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 정도(‘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를 살펴보면, 중1 패널은 2011년 93.6%, 초4 패널은 2014년 93.5%로 나타나, 두 코호트 간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자주 사용한다’를 기준으로 두 패널을 비교해 보면, 중1 패널은 2011년 64.4% 초4 패널은 2014년 60.4%으로 관찰되어 2011년도와 2014년도 중학교 2학년 코호트에 비해 ‘친구와의 통화’이용 빈도가 4.0%로 높게 나타났다. 즉, 2011년도 코호트가 2014년 코호트에 비해 친구들 간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전화통화를 상대적으로 더 자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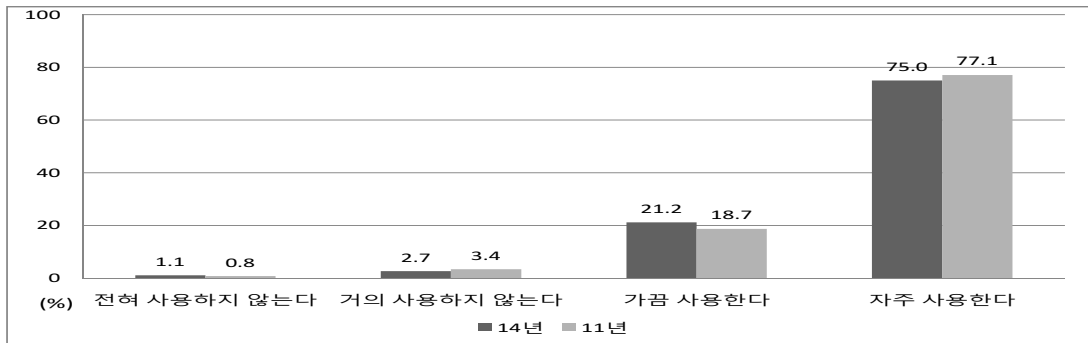
【그림 V-5】 초4 및 중1 패널(중2)- 친구와의 통화

표 V-6 초4 및 중1 패널(중2)- 친구와의 통화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5	1.3	15	0.7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03	5.2	122	5.7
가끔 사용한다	652	33.1	631	29.2
자주 사용한다	1189	60.4	1390	64.4
전체	1969	100	2158	100

④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이용 정도에 대한 비교에서 ‘자주 사용한다’를 기준으로 두 패널을 분석해 보면, 중1 패널은 2011년 77.1% 초4 패널은 2014년 75.0%로 나타나, 2014년도에 비해 2011년도 중학교 2학년 코호트의 ‘친구 간 문자 메시지’이용 빈도는 2.1%로 높게 나타났다. 초4 패널 집단에 비해 중1 패널 집단에서 친구와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V-6】 초4 및 중1 패널(중2)-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표 V-7 초4 및 중1 패널(중2)-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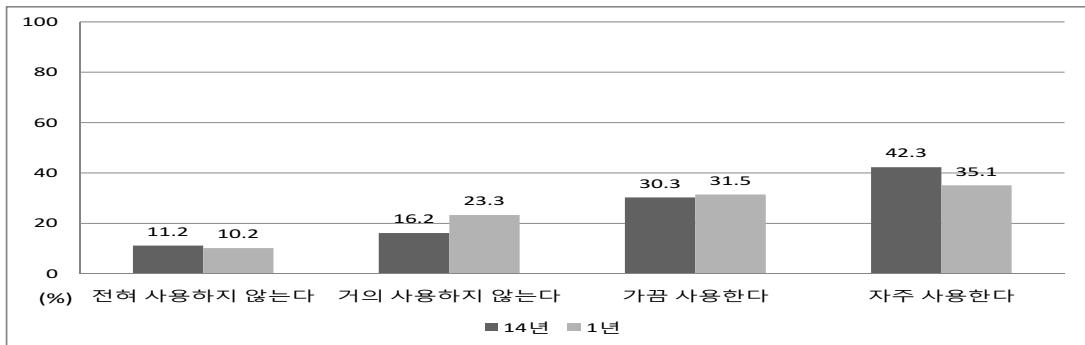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1	1.1	17	0.8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54	2.7	74	3.4
가끔 사용한다	418	21.2	403	18.7
자주 사용한다	1476	75.0	1664	77.1
전체	1969	100	2158	100

⑤ 게임 및 오락

‘게임 및 오락’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중1 패널은 2011년 66.6%, 초4 패널은 2014년 72.6%로 관찰되어, 초4 패널에서

6.0%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자주 사용한다’를 기준으로 두 패널을 분석해 보면, 중1 패널에 비해 초4 패널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초4 패널이 보다 휴대전화를 활용한 ‘게임 및 오락’에 자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에 비해 2014년도 중학교 2학년 코호트에서 ‘게임 및 오락’이용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림 V-7】 초4 및 중1 패널(중2)- 게임 및 오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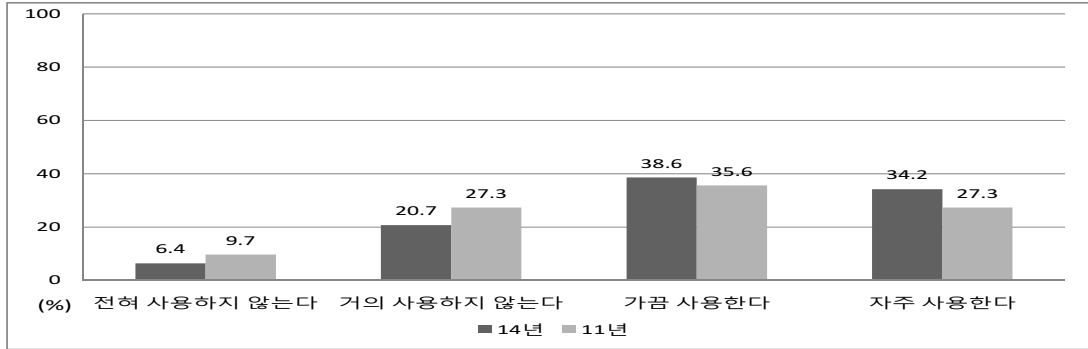
표 V-8 초4 및 중1 패널(중2)- 게임 및 오락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21	11.2	220	10.2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18	16.2	502	23.3
가끔 사용한다	597	30.3	679	31.5
자주 사용한다	833	42.3	757	35.1
전체	1969	100	2158	100

⑥ 사진 촬영

‘사진촬영’을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을 묻는 문항에서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총합 기준, 중1 패널은 2011년 62.9%, 초4 패널은 2014년 72.8%로 나타나, 초4 패널이 9.9% 높게 관찰되었다.

척도 중 ‘자주 사용한다’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중1 패널은 2011년 27.3%, 초4 패널은 2014년 34.2%로 나타나, 초4 패널에서 6.9% 높게 나타났다. 중1 패널 코호트에 비해 초4 패널 코호트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한 사진촬영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V-8】 초4 및 중1 패널(중2)- 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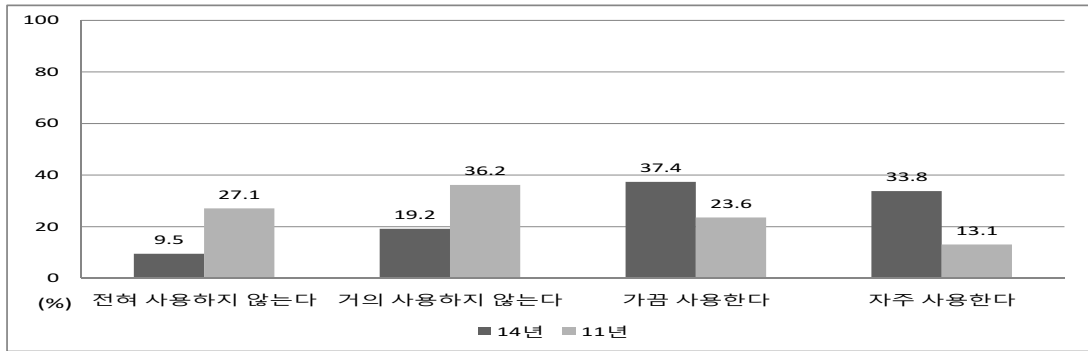
표 V-9 초4 및 중1 패널(중2)- 사진 촬영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26	6.4	209	9.7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408	20.7	590	27.3
가끔 사용한다	761	38.6	769	35.6
자주 사용한다	674	34.2	590	27.3
전체	1969	100	2158	100

⑦ 동영상 감상

‘동영상 감상’에 대한 코호트 간 비교에서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총합 기준으로 중1 패널은 2011년 36.7%, 초4 패널은 2014년 71.2%로 나타나, 초4 패널이 34.5% 높게 관찰되었다.

‘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두 척도지문 모두에서 초4 패널이 중1 패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며, 2011년 보다 2014년 코호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휴대전화를 동영상 감상에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V-9】 초4 및 중1 패널(중2)- 동영상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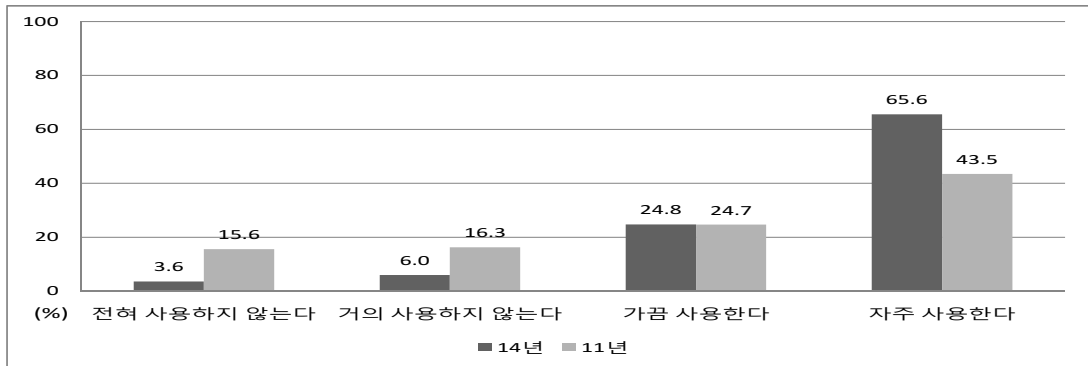
표 V-10 초4 및 중1 패널(중2)- 동영상 감상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87	9.5	584	27.1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79	19.2	781	36.2
가끔 사용한다	737	37.4	510	23.6
자주 사용한다	666	33.8	282	13.1
전체	1969	100	2157	100

⑧ 음악 듣기

‘음악 듣기’에 대한 사용 정도(‘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합 기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중1 패널은 2011년 68.2%, 초4 패널은 2014년 90.4%로 나타나, 초4 패널이 22.2% 높게 관찰되었다.

척도 지문 중 ‘자주 사용한다’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중1 패널은 2011년 43.5%, 초4 패널은 2014년 65.6%로 나타나, 초4 패널에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며, 중1 패널에 비해 초4 패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휴대전화를 음악감상에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악 듣기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은 2011년에 비해 2014년도 중학교 2학년 코호트에서 활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0】 초4 및 중1 패널(중2)- 음악 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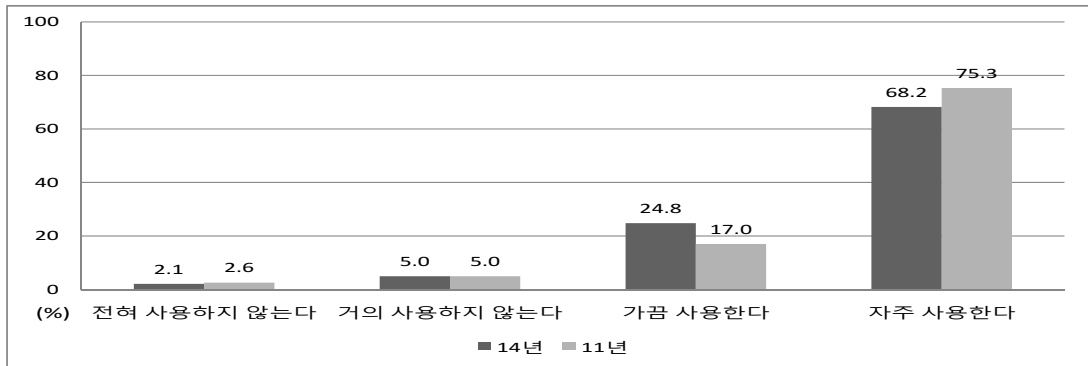
표 V-11 초4 및 중1 패널(중2)- 음악 듣기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71	3.6	336	15.6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18	6.0	352	16.3
가끔 사용한다	489	24.8	532	24.7
자주 사용한다	1291	65.6	938	43.5
전체	1969	100	2158	100

⑨ 시간보기

휴대전화를 시간보기에 활용하고 있는 정도(‘가끔 사용한다’와 ‘자주 사용한다’의 합 기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중1 패널은 2011년 92.3%, 초4 패널은 2014년 93.0%로 두 패널 간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척도지문 중 ‘자주 사용한다’의 경우, 초4 패널이 초1 패널 보다 7.1% 높은 비율로 관찰되어, 2014년도에 비해 2011년도 코호트에서 휴대전화를 시간확인 등의 이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V-Ⅱ】 초4 및 중1 패널(중2)- 시간 보기

표 V-12 초4 및 중1 패널(중2)- 시간 보기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41	2.1	57	2.6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98	5.0	108	5.0
가끔 사용한다	488	24.8	367	17.0
자주 사용한다	1342	68.2	1626	75.3
전체	1969	100	2158	100

3) 초4 및 중1 패널 간 휴대전화 의존정도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체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중학교 2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초4 패널과 중1 패널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의존도에 대한 세부 문항을 비교 분석하였다.

(1) 초4 및 중1 패널 간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성별’변인에 따른 두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의존 비율은 남녀 청소년 모두 중1 패널이 초4 패널에 비해 의존 정도가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특히 2014년에 비해 2011년 중학교 2학년 코호트에서 휴대전화 의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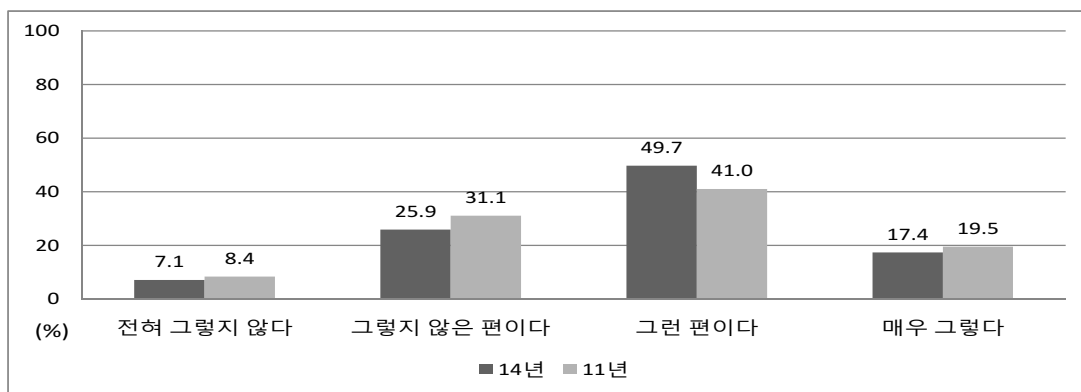
표 V-13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979	15.17	4.62	1017	15.83	5.00
	여자	927	16.57	4.47	1007	16.97	5.24
전체		1906	15.85	4.60	2024	16.40	5.15

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중1 패널은 2011년 60.5%, 초4 패널은 2014년 67.1%로 나타나, 초4 패널이 6.6% 높게 관찰되었다.

‘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중1 패널이 19.5%로 초4 패널의 17.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1년도 중1 패널 코호트에 비해 2014년도 초4 패널 코호트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관련된 의존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V-12】 초4 및 중1 패널(중2)-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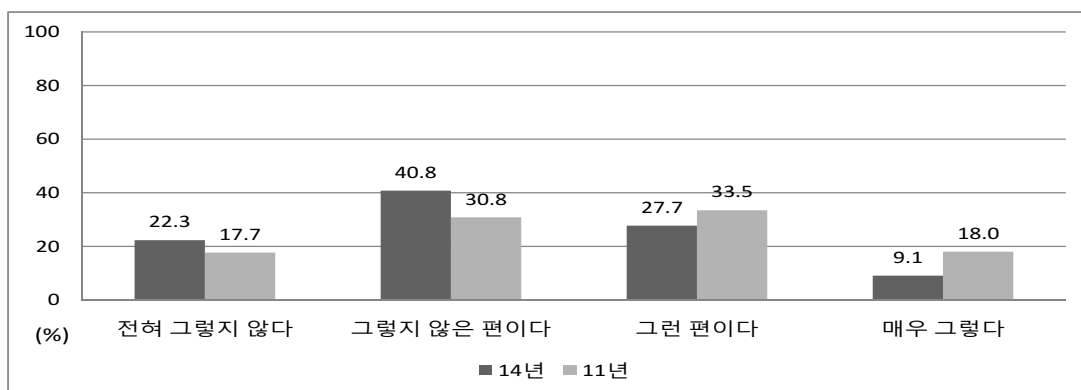
표 V-14 초4 및 중1 패널(중2)-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39	7.1	181	8.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09	25.9	672	31.1
그런 편이다	978	49.7	884	41.0
매우 그렇다	343	17.4	421	19.5
전체	1969	100	2158	100

②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중1 패널은 2011년 51.5%, 초4 패널은 2014년 36.8%로 나타나, 중1 패널 코호트의 응답비율이 14.7%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중1 패널이 18.0%로 초4 패널의 9.1%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2011년도 중1 패널이 2014년도 초4 패널 코호트에 비해 휴대전화 부재에 따른 불안과 관련된 의존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V-13】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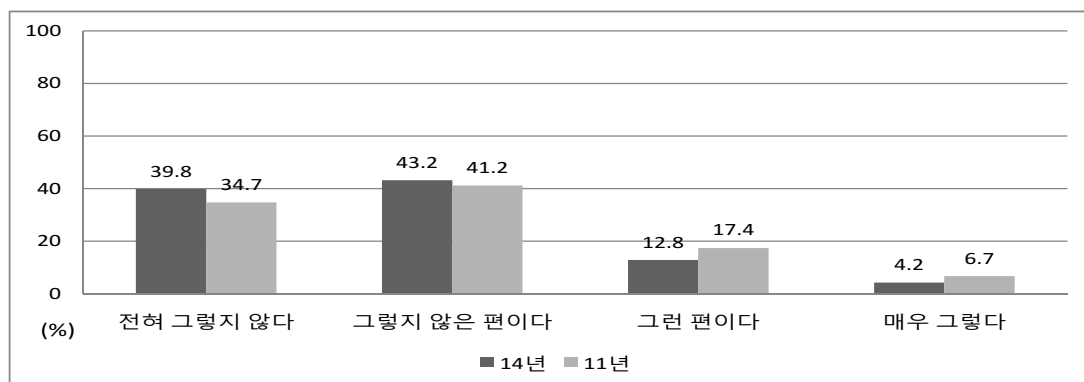
표 V-15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39	22.3	382	17.7
그렇지 않은 편이다	804	40.8	665	30.8
그런 편이다	546	27.7	723	33.5
매우 그렇다	180	9.1	388	18.0
전체	1969	100	2158	100

③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중1 패널은 2011년 24.1%, 초4 패널은 2014년 17.0%로 나타나, 중1 패널 코호트의 응답비율이 7.1% 높게 관찰되었다.

‘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중1 패널이 6.7%로 초4 패널의 4.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2014년도 초4 패널 코호트에 비해 2011년도 중1 패널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관련된 의존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었지만, 다른 의존도 척도문항에 비해 본 척도문항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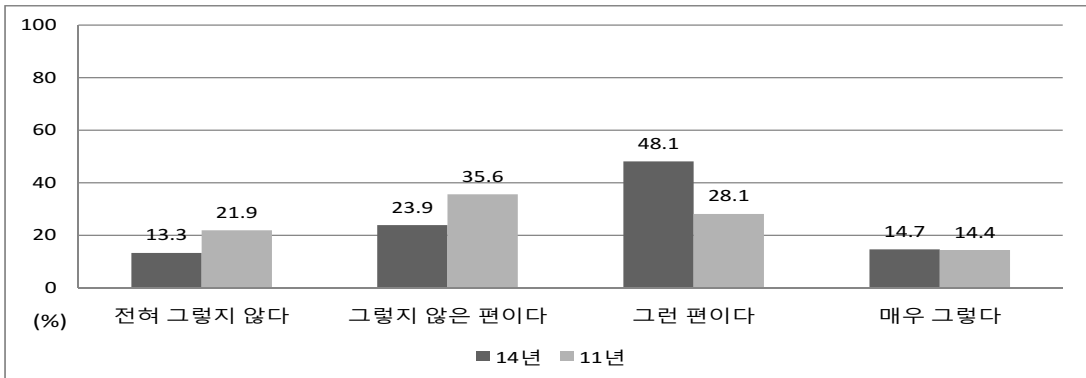
【그림 V-14】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783	39.8	749	34.7
그렇지 않은 편이다	851	43.2	889	41.2
그런 편이다	253	12.8	376	17.4
매우 그렇다	82	4.2	144	6.7
전체	1969	100	2158	100

④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중1 패널은 2011년 42.5%, 초4 패널은 2014년 62.8%로 나타나, 초4 패널 코호트의 응답비율이 20.3%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 두 패널 간의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그런 편이다’의 경우, 초4 패널이 48.1%, 중1 패널 28.1%로, 초4 패널이 20.0%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휴대전화 의존 정도는 2014년도 초4 패널이 2011년도 중1 패널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5】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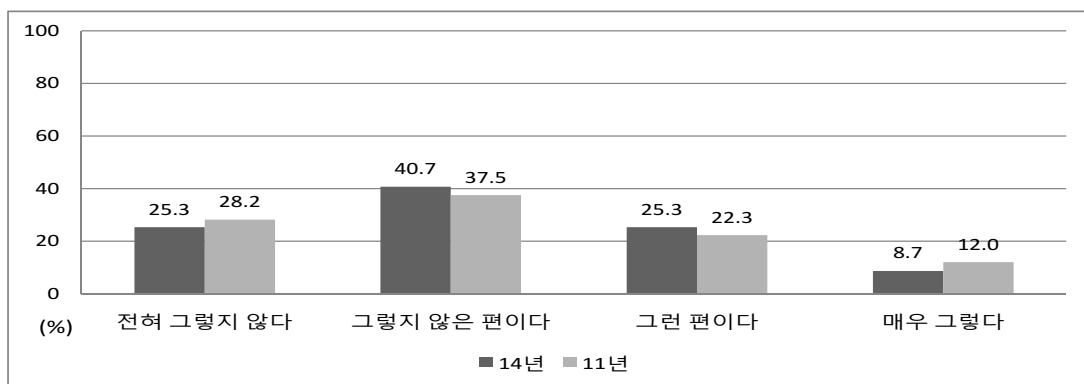
표 V-17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61	13.3	472	21.9
그렇지 않은 편이다	471	23.9	768	35.6
그런 편이다	947	48.1	607	28.1
매우 그렇다	290	14.7	311	14.4
전체	1969	100	2158	100

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중1 패널은 2011년 34.3%, 초4 패널은 2014년 34.0%로 나타나, 두 패널 간의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 중1 패널이 2011년 12.0%, 초4 패널은 2014년 8.7%로, 중1 패널이 3.3% 높은 비율로 관찰되어 초4 패널 코호트에 비해 의존성 정도가 다소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V-16】 초4 및 중1 패널(중2)-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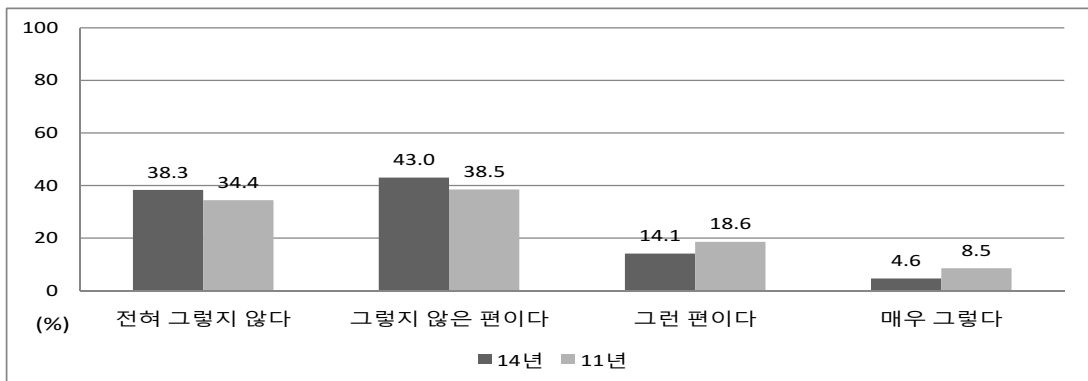
표 V-18 초4 및 중1 패널(중2)-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98	25.3	608	28.2
그렇지 않은 편이다	801	40.7	809	37.5
그런 편이다	498	25.3	481	22.3
매우 그렇다	172	8.7	260	12.0
전체	1969	100	2158	100

⑥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중1 패널은 2011년 27.1%, 초4 패널은 2014년 18.7%로 나타나, 중1 패널 코호트의 응답비율이 8.4% 높게 관찰되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 중1 패널이 2011년 8.5%, 초4 패널은 2014년 4.6%로, 중1 패널이 3.9% 높은 비율로 관찰되어 중1 패널 코호트의 휴대전화 의존성 정도가 다소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V-17】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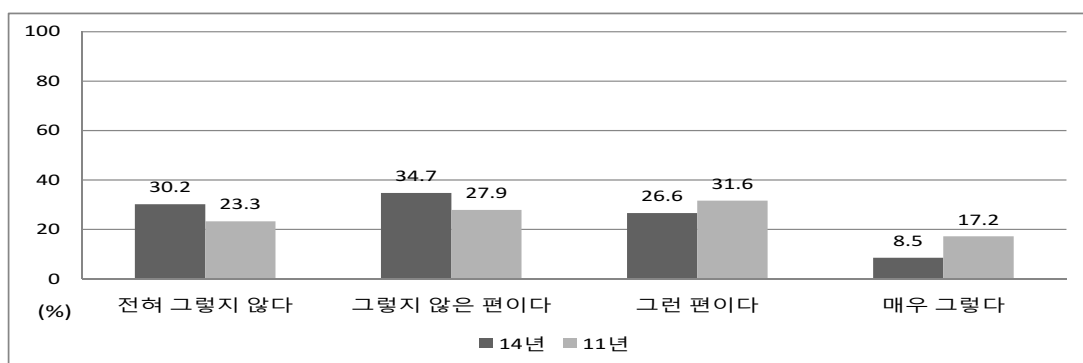
표 V-19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754	38.3	743	34.4
그렇지 않은 편이다	846	43.0	830	38.5
그런 편이다	278	14.1	401	18.6
매우 그렇다	91	4.6	184	8.5
전체	1969	100	2158	100

⑦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중1 패널은 2011년 48.8%, 초4 패널은 2014년 35.1%로 나타나, 중1 패널 코호트의 응답비율이 13.7%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 중1 패널이 2011년 17.2%, 초4 패널은 2014년 8.5%로 중1 패널이 8.7% 높게 관찰되었다. 앞서 기술한 휴대전화 미지참시 느끼는 불안함과 불편함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도 초4 패널에 비해 중1 패널 코호트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어, 코호트 간 의존유형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18】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표 V-20 초4 및 중1 패널(중2)-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94	30.2	502	23.3
그렇지 않은 편이다	684	34.7	602	27.9
그런 편이다	523	26.6	682	31.6
매우 그렇다	168	8.5	372	17.2
전체	1969	100	2158	100

(2) 초4 및 중1 패널 간 휴대전화 의존도 t-검증

① 코호트 간 독립t-검증

두 패널 간의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성을 비교하기 위해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총 7개의 휴대전화 의존성 척도 문항의 총합을 합산하여 코호트 간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코호트 비교를 위한 패널표본은 무선확률표집으로 표집된 대상이기에 두 표본 집단 간의 동변량성은 가정되었다. 초4 패널 및 중1 패널의 두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의존성에 대한 분석결과, 초4 패널 평균 점수는 15.85(SD=4.60), 중1 패널 평균 점수는 16.43(SD=5.16)로 나타났다. 초4 패널 코호트에 비해 중1 패널 코호트의 평균점수가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으며, 두 집단 간 평균차이는 유의한 수준($t=-3.671$, $***p=.000$)에서 관찰되어, 두 패널 간의 평균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V-21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휴대전화 의존도 t-검증(코호트별)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패널	2014년(초4)	1906	15.85	4.60	-3.761	.000***
	2011년(중1)	2081	16.43	5.16		

* $p<.05$, ** $p<.01$, *** $p<.001$

② 성별 변인 간 독립t-검증

코호트 효과 이외에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부터 기인 될 수 있는 성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성별 집단에 따른 독립 t검증을 실시하였다. 남녀 성별 간 휴대전화 의존성에 대한 비교에서 남자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15.50(SD=4.83), 여자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16.78(SD=4.89)로 관찰되었다.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휴대전화 의존성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게 관찰되었으며, 두 집단 간 평균차이도 유의수준($t=-8.197$, $***p=.000$)에서 관찰되어, 성별 특성에 따른 두 집단 간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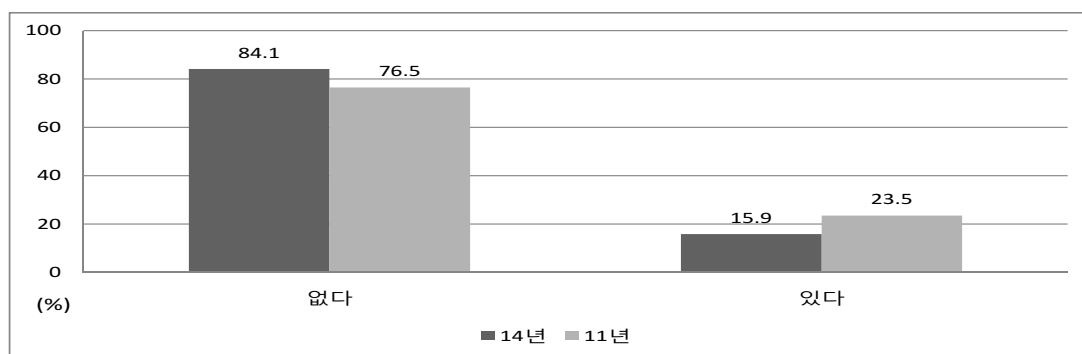
표 V-22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휴대전화 의존도 t-검증(성별)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자	1996	15.50	4.83	-8.197	.000***
	여자	1934	16.78	4.89		

* $p<.05$, ** $p<.01$, *** $p<.001$

4) 초4 및 중1 패널 간 성인매체 사용여부

중학교 2학년 연령층 코호트를 대상으로 초4 패널과 중1 패널 코호트 간 성인매체 사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매체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1 패널이 2011년 23.5%, 초4 패널은 2014년 15.9%로 나타나, 중1 패널 코호트의 응답비율이 7.6%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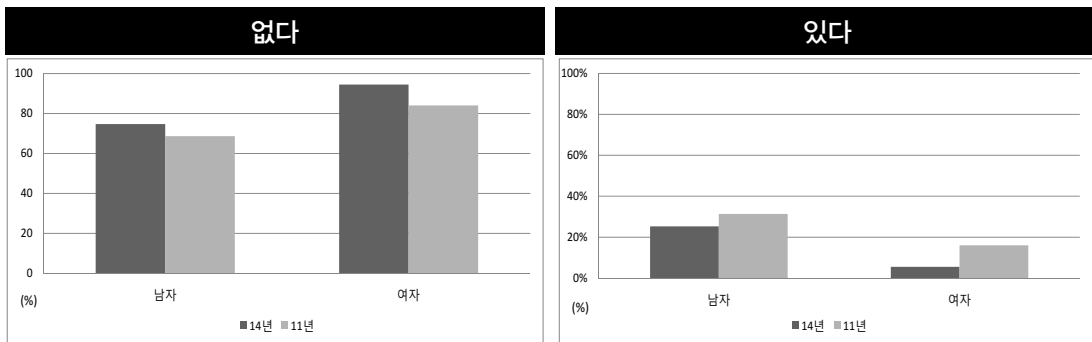
【그림 V-19】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성인 매체 사용 여부 변화

표 V-23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성인 매체 사용 여부 변화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없다	1740	84.1	1744	76.5
있다	330	15.9	535	23.5
전체	2070	100	2279	100

‘성인매체 사용여부’에 대한 성별 비교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성인매체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중1 패널은 31.3%, 2014년 초4 패널은 25.3%로 나타나, 중1 패널이 6.0% 높게 관찰되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성인매체 이용 비율은 2011년 중1 패널 16.0%, 2014년 초4 패널 5.5%로 나타나, 중1 패널이 10.5% 높게 관찰되었으며, 남녀 패널 모두 2014년도에 비해 2011년도 코호트의 사용비율 높게 나타났다.



【그림 V-20】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성인 매체 사용 여부 변화(성별)

표 V-24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성인 매체 사용 여부 변화(성별)

항목			없다		있다		전체	
			2014년(초4)	2011년(중1)	2014년(초4)	2011년(중1)	2014년(초4)	2011년(중1)
성 별	남자	N	813	772	276	351	1089	1123
		%	74.7	68.7	25.3	31.3	100	100
	여자	N	927	915	54	174	981	1089
		%	94.5	84.0	5.5	16.0	100	100

항목		없다		있다		전체	
		2014년(초4)	2011년(중1)	2014년(초4)	2011년(중1)	2014년(초4)	2011년(중1)
전체	N	1740	1687	330	525	2070	2212
	%	84.1	76.3	15.9	23.7	100	100

5) 초4 및 중1 패널 간 성인매체 몰입정도

‘성인매체 몰입도’는 전체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중학교 2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초4 패널과 중1 패널 코호트 간 성인매체 몰입 유형에 따른 성인매체 몰입정도를 문항별로 검토하였다.

(1) 초4 및 중1 패널 간 성인매체 몰입도 변화

두 코호트 간 성인매체 몰입도를 성별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초4 패널이 중1 패널에 비해 몰입 정도가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 중1 패널이 초4 패널에 비해 성인매체 몰입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 코호트 간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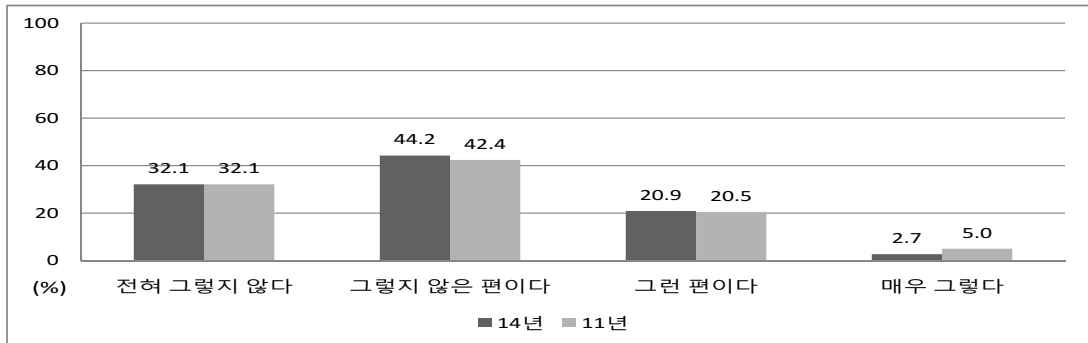
표 V-25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성인 매체 몰입도 변화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55	13.62	4.38	318	13.37	4.27
	여자	47	11.23	3.31	163	12.94	5.24
전체		302	13.25	4.31	481	13.23	4.62

① 성인 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이용하게 된다

‘성인 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이용하게 된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중1 패널은 2011년 25.5%, 초4 패널은 2014년 23.6%로 나타나, 중1 패널이 1.9% 높게 관찰되었다.

‘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중1 패널이 5.0%로 초4 패널의 2.7%에 비해 2.3%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2014년도 초4 패널에 비해 2011년도 중1 패널 코호트에서 유해매체 몰입도 정도가 약간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으나, 다른 몰입도 척도문항에 비해 본 척도문항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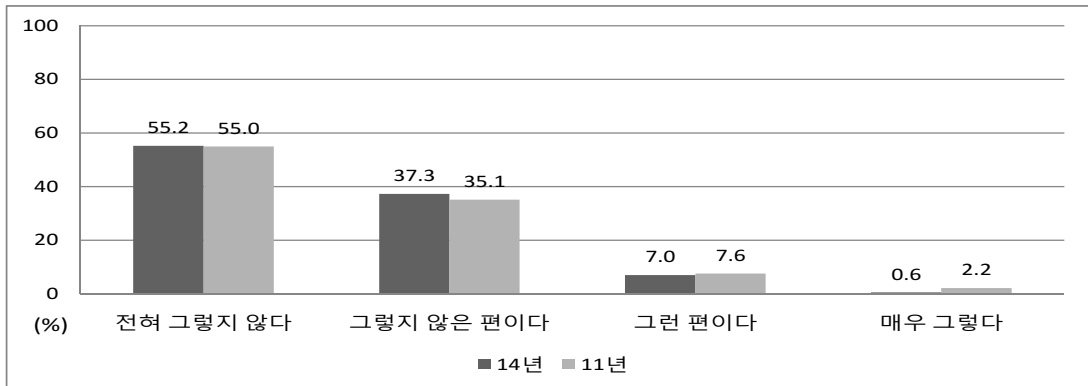
【그림 V-21】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이용하게 된다

표 V-26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이용하게 된다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06	32.1	172	32.1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6	44.2	227	42.4
그런 편이다	69	20.9	110	20.5
매우 그렇다	9	2.7	27	5.0
전체	330	100	536	100

②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중1 패널은 2011년 9.8%, 초4 패널은 2014년 7.6%로 나타나, 중1 패널이 2.2% 높게 관찰되었다. 2014년도 초4 패널에 비해 2011년도 중1 패널 코호트의 성인매체 몰입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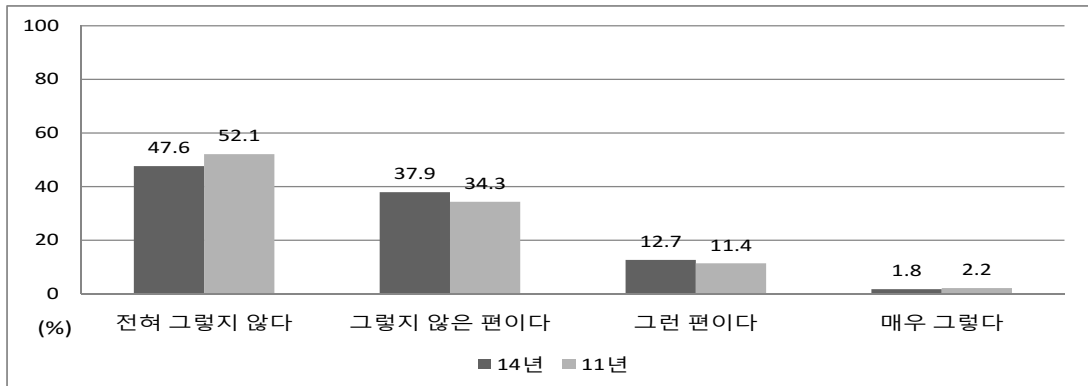
【그림 V-22】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표 V-27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82	55.2	295	55.0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3	37.3	188	35.1
그런 편이다	23	7.0	41	7.6
매우 그렇다	2	0.6	12	2.2
전체	330	100	536	100

③ 성인 매체를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이용한다

‘성인 매체를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이용한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중1 패널은 2011년 13.6%, 초4 패널은 2014년 14.5%로 나타나, 초4 패널 코호트의 응답비율이 1.2% 높게 관찰되었다. 2011년도 중1 패널에 비해 2014년도 초4 패널 코호트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관련된 의존성 정도가 조금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V-23】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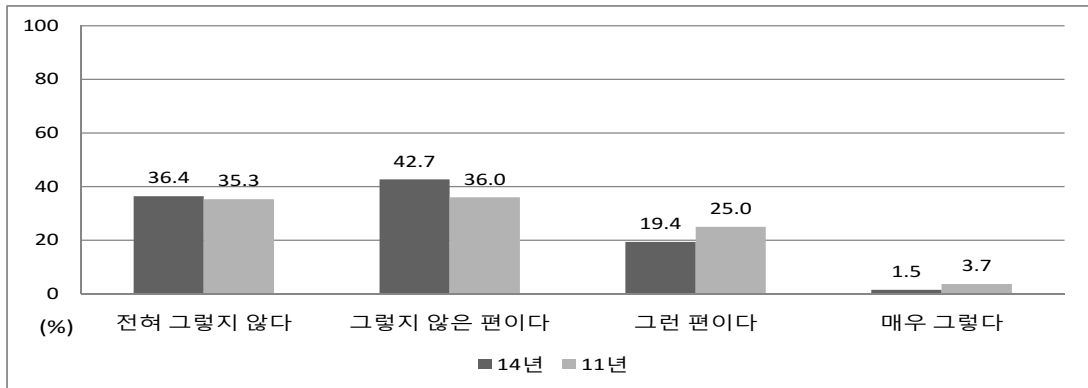
표 V-28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이용한다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57	47.6	279	52.1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5	37.9	184	34.3
그런 편이다	42	12.7	61	11.4
매우 그렇다	6	1.8	12	2.2
전체	330	100	536	100

④ 성인 매체를 다시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성인 매체를 다시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중1 패널은 2011년 28.7%, 초4 패널은 2014년 20.9%로 나타나, 중1 패널 코호트의 응답비율이 7.8% 높게 나타났다.

척도 중 ‘그런 편이다’의 경우, 중1 패널이 25.0%, 초4패널 19.4%로, 중1 패널이 5.6%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2014년도 초4 패널에 비해 2011년도 중1 패널 코호트에서 본 척도문항에 대한 몰입 정도가 약간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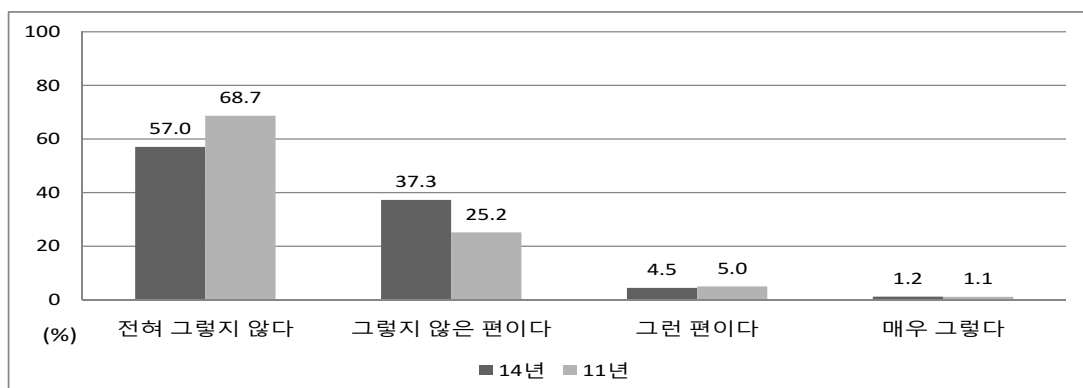
【그림 V-24】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다시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표 V-29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다시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20	36.4	189	35.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1	42.7	193	36.0
그런 편이다	64	19.4	134	25.0
매우 그렇다	5	1.5	20	3.7
전체	330	100	536	100

⑤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중1 패널은 2011년 6.1%, 초4 패널은 2014년 5.7%로 나타나, 코호트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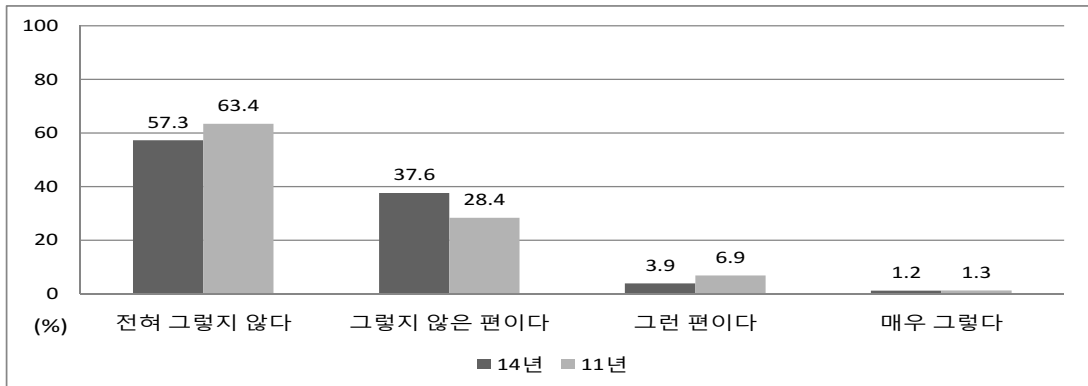
【그림 V-25】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표 V-30 초4 및 중1 패널(중2)-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88	57.0	368	68.7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3	37.3	135	25.2
그런 편이다	15	4.5	27	5.0
매우 그렇다	4	1.2	6	1.1
전체	330	100	536	100

⑥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다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점수를 합산 한 결과, 중1 패널은 2011년 8.2%, 초4 패널은 2014년 5.1%로 나타나, 중1 패널 코호트의 응답비율이 3.1% 높았다. 척도 중 ‘그런 편이다’의 경우 중1 패널이 6.9%, 초4 패널 3.9%로, 중1 패널이 3.0%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014년도 초4 패널에 비해 2011년도 중1 패널 코호트에서 본 척도문항에 대한 몰입 정도가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V-26】 초4 및 중1 패널(중2)-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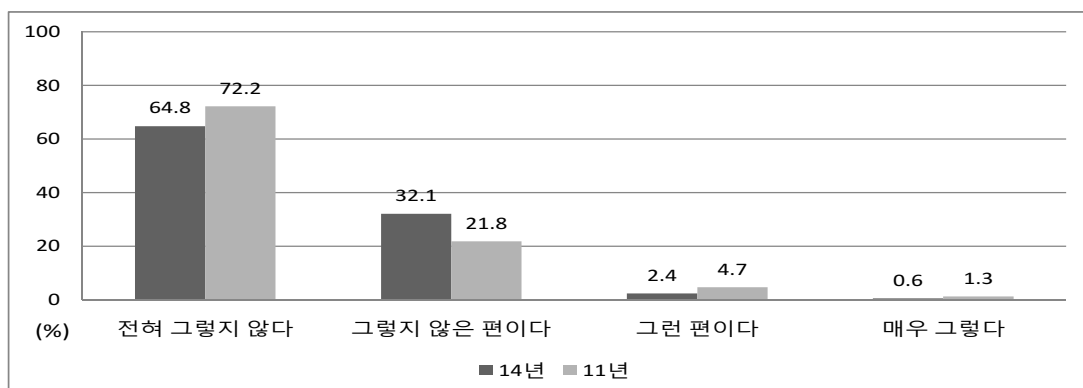
표 V-31 초4 및 중1 패널(중2)-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 있다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89	57.3	340	63.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4	37.6	152	28.4
그런 편이다	13	3.9	37	6.9
매우 그렇다	4	1.2	7	1.3
전체	330	100	536	100

⑦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중1 패널은 2011년 6.0%, 초4 패널은 2014년 3.0%로 나타나, 중1 패널 코호트의 응답비율이 3.0% 높게 나타났다.

척도 중 ‘그런 편이다’의 경우 중1 패널이 4.7%, 초4 패널 2.4%로, 중1 패널이 2.3%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2014년도 초4 패널에 비해 2011년도 중1 패널 코호트에서 본 척도문항에 대한 몰입 정도가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V-27】 초4 및 중1 패널(중2)-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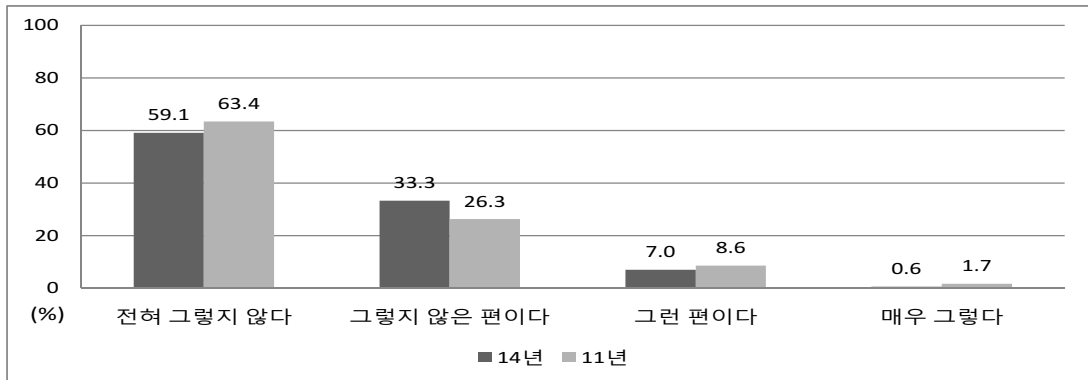
표 V-32 초4 및 중1 패널(중2)-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14	64.8	387	72.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6	32.1	117	21.8
그런 편이다	8	2.4	25	4.7
매우 그렇다	2	0.6	7	1.3
전체	330	100	536	100

⑧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두 척도 점수를 합산 한 결과, 중1 패널은 2011년 10.3%, 초4 패널은 2014년 7.6%로 나타나, 중1 패널 코호트의 응답비율이 2.7%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 두 패널 간의 차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그런 편이다’의 경우, 중1 패널이 8.6%, 초4패널 7.0%로, 중1 패널이 1.6%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2014년도 초4 패널에 비해 2011년도 중1 패널 코호트에서 본 척도문항에 대한 몰입 정도가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V-28】 초4 및 중1 패널(중2)-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표 V-33 초4 및 중1 패널(중2)-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항목	2014년(초4)		2011년(중1)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95	59.1	340	63.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0	33.3	141	26.3
그런 편이다	23	7.0	46	8.6
매우 그렇다	2	0.6	9	1.7
전체	330	100	536	100

(2) 초4 및 중1 패널 간 성인매체 몰입도 t-검증

① 코호트 간 독립t-검증

두 패널 간 청소년의 성인매체에 대한 몰입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총 8문항의 척도 점수의 총합을 합산하였다. 초4 패널과 중1 패널 코호트 간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코호트 비교를 위해 선정된 패널은 무선확률표집으로 표집된 표본이기에 두 코호트 집단 간 동변량성은 가정되었다. 초1 패널 및 초4 패널의 두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의존성에 대한 분석 결과 초4

패널 평균은 13.25(SD=4.31), 중1 패널의 평균점수는 13.21(SD=4.61)로 나타났다. 중1 패널 코호트에 비해 초4 패널 코호트의 평균점수가 미비한 수준으로 높게 관찰되었으며,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유의수준($t=.126$, $p=.n.s.$)에서 관찰되지 않아, 시차에 따른 동시대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V-34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성인 매체 몰입도 t-검증(코호트별)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패널	2014년(초4)	302	13.25	4.31	.126	.900
	2011년(중1)	490	13.21	4.61		

* $p<.05$, ** $p<.01$, *** $p<.001$

② 성별 변인 간 독립t-검증

코호트 효과 이외에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부터 기인 될 수 있는 성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남녀 성별에 따른 독립집단 t검증을 실시하였다. 남녀 성별 간 성인매체에 대한 몰입수준에 대한 비교에서 남자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13.49(SD=4.31), 여자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12.56(SD=4.92)로 관찰되었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성인매체에 대한 몰입수준 평균점수가 높게 관찰되었으며, 두 집단 간 평균차이도 유의수준($t=2.565$, $p<.05$)에서 관찰되어, 성별 특성에 따른 두 집단 간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V-35 초4 및 중1 패널(중학교 2학년) 간 성인 매체 몰입도 t-검증(성별)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자	573	13.49	4.31	2.565	.010*
	여자	210	12.56	4.92		

* $p<.05$, ** $p<.01$, *** $p<.001$

제 VI 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방향 제언

1. 분석결과 요약
2. 정책방향 제언

제 VI 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방향 제언*

1. 분석결과 요약

1)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실태 및 추이 결과 요약

초4 패널의 종단자료를 활용한 3개년도 분석을 통해 살펴본 컴퓨터 사용실태 및 추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초4 패널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 사용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9% 증가하였으나 초6학년에서 중2학년 사이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무려 10.4%가 증가하는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감소 비율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훨씬 크게 나타났으며, 서울과 시군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컴퓨터 사용률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구성별로는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지만 조손가정의 경우 오히려 늘어나는 특이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둘째, 컴퓨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사용시간의 추이를 알아본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주중, 주말 컴퓨터 이용시간도 증가했는데 주말 시간의 증가가 더 두드러졌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주말 사용이 여학생보다 길었으며, 지역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소로는 ‘우리 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의 증가와 상관없이 일관된 경향을 보여 주었다. 사용 비율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집’에서의 빈도는 감소하는 반면 ‘PC방’에서의 사용 비율은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성별 분석결과 남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리 집’에서 사용 비율이 감소한 반면, 여학생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반면 ‘PC방’에서 사용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학생들의 사용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장은 모상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장주 소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다. 가족구성별 사용 장소 분석에서 ‘PC방’에서 사용 비율 증가는 부모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조손가정 청소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조손가정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비율이 다른 가족 구성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학년의 증가함에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PC방’이용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된 컴퓨터 사용행태 변화 결과, 컴퓨터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는 ‘게임 및 오락(2014년 78.8%)’,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2014년 74.4%)’,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검색 및 사이트 사용(2014년 67.5%)’이었다. 세부 항목별 변화를 살펴보면,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검색 및 사이트 사용’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 빈도가 대폭 감소(17.5%p)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 게임 및 오락’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용 빈도가 증가(18.4%p, 5.9%p)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사용 용도에 대한 세부 내용 성별 분석 결과,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용 비율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남녀 모두 사용 빈도가 증가하지만 여자 청소년의 증가 비율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 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게임 및 오락’, ‘온라인에서 사고팔기’을 위한 컴퓨터 사용 빈도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실태 추이분석 결과 요약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보유여부 및 사용 실태에 대한 3개년도 종단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초4), 2012년(초6), 2014년도(중2) 시점의 ‘청소년 휴대전화 보유율’의 변화정도를 살펴보면, 2010년 67.7%, 2012년 90.0%, 2014년 95.1%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휴대전화 보유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미 2010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청소년의 90% 이상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휴대전화 이용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도 중학교 2학년 시점에 9가지 이용유형을 살펴본 결과, 휴대전화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던 유형에는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2014년 96.2%)’, ‘가족과의 통화(2014년 94.1%)’, ‘친구와의 통화(2014년 93.5%)’였으며,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 할수록 ‘가족과의 통화’유형은 그 사용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와 ‘친구와의 통화’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이용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연령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요 용도가 친구와

커뮤니케이션을 용도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셋째, 전반적으로 휴대전화 이용 콘텐츠 관련 결과를 요약하면, ‘게임 및 오락’, ‘사진 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듣기’등의 영역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용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음악 듣기’는 2010년(초4) 49.4%에서 2014년도(중2) 90.5%로 학년이 증가되면서 가장 보편적인 휴대전화 이용 문화 콘텐츠로 보여진다.

넷째, 휴대전화 이용 행태에 대한 성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남학생들은 ‘게임 및 오락’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여학생에 비해 높은 반면 ‘사진 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듣기’는 여학생들의 이용비율이 남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관찰되었다.

다섯째, 휴대전화 의존도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등의 문항 등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의존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별에 따라 특성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3) 초4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결과 요약

초4 코호트 간 비교에서 초1 패넌의 4차년도 종단자료(2013)와 초4 패넌 1차년도 종단자료(2010)를 대상으로 동일 연령층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패넌 간 휴대전화의 보유여부에 대한 비교에서 초4 패넌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2010년 67.7%, 초1 패넌은 2013년 79.6%로 나타나, 초등학교 4학년 연령 기준 두 패넌 간 현저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2010년도에 비해 2013년도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휴대전화 보유비율이 11.9%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두 패넌 간 이용정도에 대한 비교를 보면, 휴대폰의 전통적 기능인 ‘가족과의 통화’의 경우 초4와 초1 패넌에서 거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에 비해 2013년도 초등학교4학년 코호트에서 휴대폰을 활용한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친구와 통화’, ‘친구와 문자메시지’, ‘게임 및 오락’, ‘사진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감상’등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2013년 코호트는 2010년에 비해 휴대전화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셋째, 휴대전화 의존도에 대한 두 패넌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1 패넌 및 초4 패넌의 두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의존성에 대한 분석결과 초4 패넌 평균은 11.68(SD=4.10), 초1 패넌은

12.15(SD=4.50)로 나타났다. 2010년 초4 패널 코호트에 비해 2013년(초1 패널 3년차) 코호트의 평균점수가 높게 관찰되었으며, 두 집단 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t=3.010$, $p<.01$)에서 평균차이가 확인되었다.

4) 중2 코호트 휴대전화 및 성인매체 사용 추이분석 결과 요약

중2 코호트 간 비교에서 2014년(초4 패널)과 2011년(중1 패널)을 대상으로 동일 연령층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코호트 간 3년이라는 시차동안 휴대전화 보유비율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95.1%(2014) vs. 94.6%(2011))으로 조사되었다. 시차에 따른 시대효과 보다는 중학교 2학년 연령층의 경우 대부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휴대전화 사용행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비교한 결과, ‘가족과 통화’, ‘친구와 통화’, ‘친구와 문자메시지’는 코호트 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과 문자 메시지’는 2014년 중2 패널이 2011년 중2 패널 보다 1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 중2 패널에서 ‘게임 및 오락’, ‘사진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감상’등의 이용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초4 패널 및 중1 패널의 두 코호트 간 휴대전화 의존성에 대한 분석결과 초4 패널 평균 점수는 15.85(SD=4.60), 중1 패널 평균 점수는 16.43(SD=5.16)로 나타났다. 초4 패널 코호트에 비해 중1 패널 코호트의 평균점수가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으며, 두 집단 간 평균차이는 유의한 수준($t=-3.671$, $p<.01$)에서 관찰되어, 두 패널 간의 평균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2011년 패널이 2014년 패널 집단보다 의존성이 더 높았다고 해석된다.

넷째, 남녀 성별 간 휴대전화 의존성에 대한 비교에서 남자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15.5(SD=4.83), 여자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16.78(SD=4.89)로 관찰되었다.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휴대전화 의존성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게 관찰되었으며, 두 집단 간 평균차이도 유의수준($t=-8.197$, $p<.001$)에서 관찰되어, 성별 특성에 따른 두 집단 간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넷째, 성인 매체 사용 여부 변화에 대한 코호트 비교 결과 2011년 집단의 사용경험 비율이 23.5%인 것에 비해 2014년 사용비율은 15.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도 남녀 모두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에게서 감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두 패널간 몰입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코호트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남녀 몰입도 차이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13.49(SD=4.31), 여자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12.56(SD=4.92)로 관찰되었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성인매체에 대한 몰입수준 평균점수가 높게 관찰되었으며, 두 집단 간 평균차이도 유의수준($t=2.565$, $p<.01$)에서 관찰되어, 성별 특성에 따른 두 집단 간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2. 정책방향 제언

1) 컴퓨터 이용에 대한 정책 제언

① 청소년 연령, 교급별 맞춤형 정책 접근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은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전년도 조사와도 동일한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령발달과 학교급의 특성이 컴퓨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컴퓨터 사용시간을 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주중, 주말 컴퓨터 이용시간도 증가했는데 특히 주말 시간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사용하는 학생들의 시간은 연령이 증가와 함께 늘어났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우리 집’에서 사용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컴퓨터 사용에 대한 부모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또래들과 PC방 이용이 늘어나는 중학생들에게는 온-오프라인 상의 안전한 컴퓨터 사용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컴퓨터 사용패턴이 다르다는 점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차별화가 요구된다. 남녀 성별 특성에 의한 비교에서 컴퓨터 콘텐츠 활용 유형에서 차이가 관찰되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게임 영역에서, 여자 청소년은 채팅이나 메신저 사용, 개인 홈페이지 활동 등의 영역에서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컴퓨터 콘텐츠 이용에서의 성차는 남자와 여자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청소년 초기 이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남녀 간의 상호작용 특성 및 교우 간 관계 맺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남자 청소년은 게임을 통해 친구와의 관계 맺기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상호배려와 관계성을 지향하는 여자 청소년은 채팅 혹은 메신저를 이용한 관계 맺기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별 특성별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을 고려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② 취약 계층 청소년의 여가 문제로서 컴퓨터 과다사용 예방: 문화바우처(voucher) 활용

조손가정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 사용 시간도 늘어났고 PC방 사용에서도 함께 증가되었다. 3차년도 종단자료의 분석결과, 양부모와 한부모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었으며, 일관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청소년을 돌보는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학원이나 과외 등 다른 활동의 접근기회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즉 조손가정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된다고 볼 때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이용 시 부정적으로 활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들 청소년들에게 비용이 저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컴퓨터의 사용 시간의 증가는 좋아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강요된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청소년들의 일상에서의 활동(학교, 학원, 여가, 스포츠 활동 등) 폭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동제한으로 인한 컴퓨터의 과몰입은 사회 문제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단순히 매체 자체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예를 들면, 조손가정 청소년들이 과다하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활동이 제약 될 수 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으며, 적절한 활동이 제공될 경우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컴퓨터 사용을 줄이는 대증요법을 넘어 이들에게 주어진 여가시간을 즐겁고 능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컴퓨터 과몰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문화 바우처(voucher)를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문화 바우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기획사업) 서비스와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가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자활·장애인·의료급여·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5만 원 상당의 문화예술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는 1인당 매월 7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로서 컴퓨터 활용 역량 교육 강화 컴퓨터 사용행태 변화 결과, 컴퓨터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는 ‘게임 및 오락(2014년 78.8%)’,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2014년 74.4%)’가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검색 및 사이트 사용(2014년 6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컴퓨터는 학습과 여가를 아우르는 도구이며, 특히 여가생활의 주요 도구가 되었다. 특히 활용의 측면에서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들의 컴퓨터 활용에 대한 지식 및 이해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녀 성별 특성에 따른 성차가 관찰되고 있어, 컴퓨터 활용과 관련된 교육에서의 차별성 있는 방안도 요청된다. 남학생들의 경우 게임 위주의 콘텐츠 활동이 많은 반면 여학생들은 SNS 등을 이용한 활동 빈도가 많이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이용 콘텐츠 별 성별 특성 및 동기적 요인을 고려한 역량증진 교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를 능숙하게 다루는 청소년들은 더 이상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소비자이다. 그렇기에 관점을 전환하여 이들을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로 바라보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선별해 소비하고, 이용·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최근 국내외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코딩(coding)교육의 적극적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딩 교육은 컴퓨터 언어로 생각하는 방법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을 개발자나 생산자로서 태도와 능력을 배양한다.

2)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정책 제언

① 초등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련 교육의 질적 강화

본 연구의 초4 코호트 간 분석(초1 패널 4차년도 <2013> vs. 초4 패널 1차년도 <2010>)에서 2010년 코호트 보다 2013년 코호트 집단이 휴대전화 소지율도 높을 뿐 아니라 활용의 측면에서도 매우 다양하면서도 높은 비율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추세는 2012년을 기점으로 스마트폰의 보급률의 급격한 상승과 맞물려 일어난 현상으로 보여 진다(김윤희, 2015). 스마트폰 이용과 더불어 메신저 및 SNS의 이용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김윤희, 2015)를 고려할 때,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그 부작용에 대한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이전에 비해 빨라지고 있고, 초기 청소년 시기부터 고사양의 스마트 폰의 보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휴대전화 관련 교육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휴대폰의 과도한 사용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고충숙, 2012; 허균, 2013)보고 되었는데, 휴대전화의 과다한 사용은 수면부족을 일으키고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신체적, 주의집중 문제 및 우울 또한 야기할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교육이 효과적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휴대전화 사용초기인 초등학교학령기에 휴대전화 과몰입 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 초4 코호트의 경우 2010년 집단보다 2013년 집단의 의존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현재 미디어교육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이 시사된다. 특히 스마트폰의 직관성과 조작의 용이성은 스마트폰 콘텐츠 이용에서 아동과 어른의 경계를 약화시켰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교생 스마트폰 교육은 기존 교육에서 가정하는 아동의 발달 특성보다 훨씬 더 성숙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실효성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스마트폰의 사용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보다는 부모 및 가정교육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미디어 교육은 부모 보다는 교사로부터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그나마 가정의 미디어교육은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안내문을 통해 부모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③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의존도 예방 프로그램 강화

본 연구의 코호트 비교에서 2010년 초4 코호트 집단이 2013년 초4 코호트 집단 보다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이 높게 관찰되었던 결과와는 달리, 중2 코호트(초4 패널 5차년도 <2014> vs. 중1 패널 2차년도 <2011>) 분석에서는 오히려 2014년 코호트 집단이 2011년 코호트 집단보다 보다 평균점수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부분적으로나마 청소년 미디어 교육 및 보호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함의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행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 및 보호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교생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중학교 프로그램을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의 성인매체 보호에 대한 정책 제언

① 산업계와 정책당국의 긴밀한 협조체제 마련

중2 코호트(초4 패널 5차 년도 <2014> vs. 중1 패널 2차 년도 <2011>)를 대상으로 성인매체 사용 여부 변화에 대한 비교 결과 2011년 집단의 사용경험 비율이 23.5%인 것에 비해 2014년 사용비율은 15.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으로 성인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인매체 예방정책으로 청소년 대상 인터넷과 스마트폰 상 성인용 유해 매체 차단 프로그램이 확대 보급되었으며, 실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현재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매체에 접근시 다양한 차단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매체 접근 보호를 위한 성인용 콘텐츠 인증방식의 실행으로 인해 실제로 보호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 더욱 더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에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들이 변형 및 재가공 되는 앞으로의 미디어 환경에서 콘텐츠 추적과 식별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현재까지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 당국의 성인물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점차 교묘해지고 복잡해진 성인매체 콘텐츠에 대한 접근 차단을 위한 산업계와 긴밀한 협조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접근 차단과 대처능력 증강의 투(two)트랙 정책 접근

청소년들의 성인 매체 경험 비율은 줄었지만, 몰입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즉 여전히 청소년들의 성인매체에 대한 흥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체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보여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점차 교묘해지고 다양해진 성인매체의 접근경로를 완벽하게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성인매체 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히 면역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상급 단위 학교 및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성인매체 접근차단이라는 정책과 더불어 성인매체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신고 등의 대처능력 및 면역능력 강화를 위한 양방향적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종합 정책제언

스마트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 집단은 초등학생들이나 것으로 본 연구결과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실용적 효과와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 대상은 초등학생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영향력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

현재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해 및 활용능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들을 수동적인 소비자로 인식하여 이용시간 및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청소년들은 참여자이며 생산자로서 태도와 기술을 기를 수 있는 코딩교육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현재 유효한 정책수단이 앞으로도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컴퓨터 및 휴대전화 이용, 성인용 콘텐츠 이용 등은 각각 개별 주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서로 연관을 지니고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의 조기보급 및 보급률 확대, 청소년들의 다양해진 라이프스타일 및 요구수준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과 교사, 부모 및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할 때 비로소 매체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매체의 생산자인 산업계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고충숙 (2012).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0, 7-36.
- 김민형, 김현주 (2015). 사물인터넷과 초연결사회: 개념적 토대 및 기술인문학의 가능성. **영상문화**, 27, 215-238.
- 김봉섭 (2007). 미디어 진화에 따른 디지털기기 의존증 유발요인에 대한 탐색연구. **사회과학연구**, 33(1), 61-85.
- 김윤화 (2015). **어린이, 청소년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은미, 이혜미 (2015). **청소년 방송·통신 콘텐츠 이용 실태 분석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김진희, 김경신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137-166.
- 모상현, 문은옥 (201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 기초분석보고서 II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 한지형 (2016).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NYPI 청소년 통계 브리프**, 제30호.
- 박영욱, 김정택 (2009). 고등학교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자존감, 자기통제력 및 충동성과의 관계. **인간이해**, 30(2), 119-134.
- 배상률 (2014).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2013 청소년 매체사용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설진아 (2009).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의 진화양상과 사회적 영향. **2009년 한국언론 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 Social Communication Media 의 의미와 영향**, 35-57.
- 윤호영, 박한우 (2011). 한국 정치인들의 트위터 활용 방식. **동아인문학**, 20, 559-582.
- 이현정, 김세경, 천성문 (2016). 부모자녀관계 변인과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과의

-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 **재활심리연구**, 23(2), 329-348.
- 임정수 (2005). 매체 도입기에 나타난 두려움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3), 30-51.
- 전범수, 박주연 (2012). 트위터 이용자 연결망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6(1), 167-197.
- 정태연 (2015). 초연결사회속의 인간관계 특성 탐색 : 웰니스(well-ness), 고독, 사회관계 피로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최연실, 최혜진, 안연주 (2011).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및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4), 113-133.
-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2015년 미디어보유와 이용행태 변화. **KISDISTAT Report**, Vol. 15-17.
- 한희정, 정혜진 (2014). 국내 사이버불링 연구 동향 : 개념과 연구 경향성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24호, 180-217.
- 허균 (2013). 고차잡재성장모형을 적용한 휴대폰 의존도 변화와 자기조절능력 및 주의집중의 구조관계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4), 861-879
- 홍삼열, 오재철 (2010). 트위터와 페이스북 사용자 접속요인 비교분석.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0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89-190.
- 황상민 (2004). 대한민국 사이버 신인류: 폐인, 그들이 세상을 바꾼다. 21세기 북스.
- Adams, P. (2011). *Grouped: How small groups of friends are the key to influence on the social web (Voices That Matter)*. New Riders, Pearson Education Press.
- 이지선 역(2012). 『Grouped: 세상을 연결하는 관계의 비밀』. 에이콘.
- Bavelier, D., Green, C. S., Han, D. H., Renshaw, P. F., Merzenich, M. M., & Gentile, D. A. (2011). Brains on video games.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2(12), 763-768.
- Buckingham, D., & Willett, R. (2006). *Digital Generations: Children. Young People, and the New Media*,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Durkin, K., & Barber, B. (2002). Not so doomed: Computer game play and positive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373-392.
- Ellison, N. B., Steinfield, C., & Lampe, C.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1143-1168.
- Green, C. S., & Bavelier, D. (2003). Action video game modifies visual selective attention. *Nature*, 423(6939), 534-537.
- Griffiths, F., Cave, J., Boardman, F., Ren, J., Pawlikowska, T., Ball, R., ... & Cohen, A. (2012). *Social networks-the future for health care delivery*. Social Science & Medicine.
- Han, D. H., Sim, M. E., Kim, J. I., Arenella, L. S., Lyoo, I. K., & Renshaw, P. F. (2008). The effect of internet video game play on clinical and extrapyramidal symptom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Schizophrenia research*, 103(1), 338-340.
- McWhorter, J. (2012). *Talking with your fingers*. The New York Times.
- Yamakami, T. (2012, December). Towards understanding SNS fatigue: exploration of social experience in the Virtual World. In *Comput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ICCCT), 2012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p. 203-207). IEEE.
- Walther, J. B., Van Der Heide, B., Kim, S. Y., Westerman, D., & Tong, S. T. (2008). The role of friends' appearance and behavior on evaluations of individuals on Facebook: Are we known by the company we keep?.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4(1), 28-49.

Abstract

As a preliminary survey & analysis report which analyzed the media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this study primarily performed two different analyses: First, in the fourth grade panel, 3-year longitudinal data (2010, 2012 and 2014) were utilized. In addition, longitudinal analysis targeted to figure out the current trend and change of computer & mobile phone use patterns were carried out. Second, cohort cross-sectional effects on the characteristics of media use were analyzed through comparison between fourth grade cohorts (first grade panel-4styear (2013) VS fourth grade panel-1styear (2010)) and between eighth grade cohorts (fourth grade panel-5thyear (2014) VS seventh grade panel-2ndyear (2011)). Based on the said analysis, it attempted to suggest a youth media policy planning scheme and set a direction, and the results found the followings: First, Regarding computer use patterns, the frequency of computer use decreased as age increased. The percentage of decrease was greater in girls and those living Seoul than in boys and adolescents living in local metropolitan cities. When asked where they usually use computer, gender characteristics were observed with increase in age. As age increased, the use of computer for the purpose of getting studying and learning-related information declined. In contrast, the use of computer for game and entertainment purposes was high in men and grandparent-grandchild families. Second, mobile phone distribution rates clearly increased as age rose. In terms of the purpose of mobile phone use, 'take a picture,' 'watch videos' and 'listen to music' were mostly found in girls while 'game & entertainment' was particularly high in boys. Furthermore, mobile phone dependency became more serious as age increased. In terms of gender, it was more common in boys than in girls. Third, according to comparison of mobile phone use between fourth grade cohorts, mobile phone distribution rates were higher in the 2013 cohort than in the 2010 cohort. In addition, the respondents used their mobile device in an active and diverse manner, and their mobile phone dependency was high. Fourth, according to comparison of mobile phone use between eighth grade cohorts, no difference was observed in mobile phone distribution rates between the 2011 and 2014 cohorts. In fact, difference was detected in few types only. The mobile phone dependency was higher in the 2011 cohort than in the 2014 cohort. In terms of difference in the commitment to adult media, gender was more influential than cohorts. In other words, the commitment was higher in boys than in girls.

Keywords: Use of Computer, Use of Mobile Phone, Longitudinal Changes,
Cohort Analysi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2010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 · 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 · 최용환 · 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 · 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 · 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 · 김한별 · 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유설희 · 이민희 · 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201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Ⅱ’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 · 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장아 · 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신현옥 · 최홍일
-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Ⅲ / 강경균 · 이윤주 · 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재중 · 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 · 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 · 성윤숙 · 유성렬 · 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모상현·강현철·정윤미·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이순래·정윤미
- 16-R17-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이장주·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O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O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중·고등 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O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 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O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O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백해정·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적립금

-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중·정은진·정건희

수 시 과 제

-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김기현

-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 · 정은진 · 조혜영
-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 · 연구 / 정은진 · 김기현

수탁과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 · 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 · 유한구 · 채창균 · 오승근 · 김윤나 · 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Ⅱ / 성윤숙 · 김경준 · 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 · 황여정 · 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모상현 · 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 ·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 · 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 · 백혜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 · 오해섭 · 윤철경 · 김경준 · 최용환 · 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윤주 · 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 · 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 · 모상현 · 유성렬 · 김진석 · 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 · 최창욱 · 좌동훈 · 문호영 · 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 · 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 · 김지경 · 이윤주 · 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박선영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 · 박선영 · 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 · 성은모 · 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장근영 · 김지경 · 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성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 · 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카툼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럴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보고 16-R17-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학술·정보팀)

ISBN 979-11-5654-132-5 94330

979-11-5654-104-2 (세트)



연구보고 16-R17-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Ⅲ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